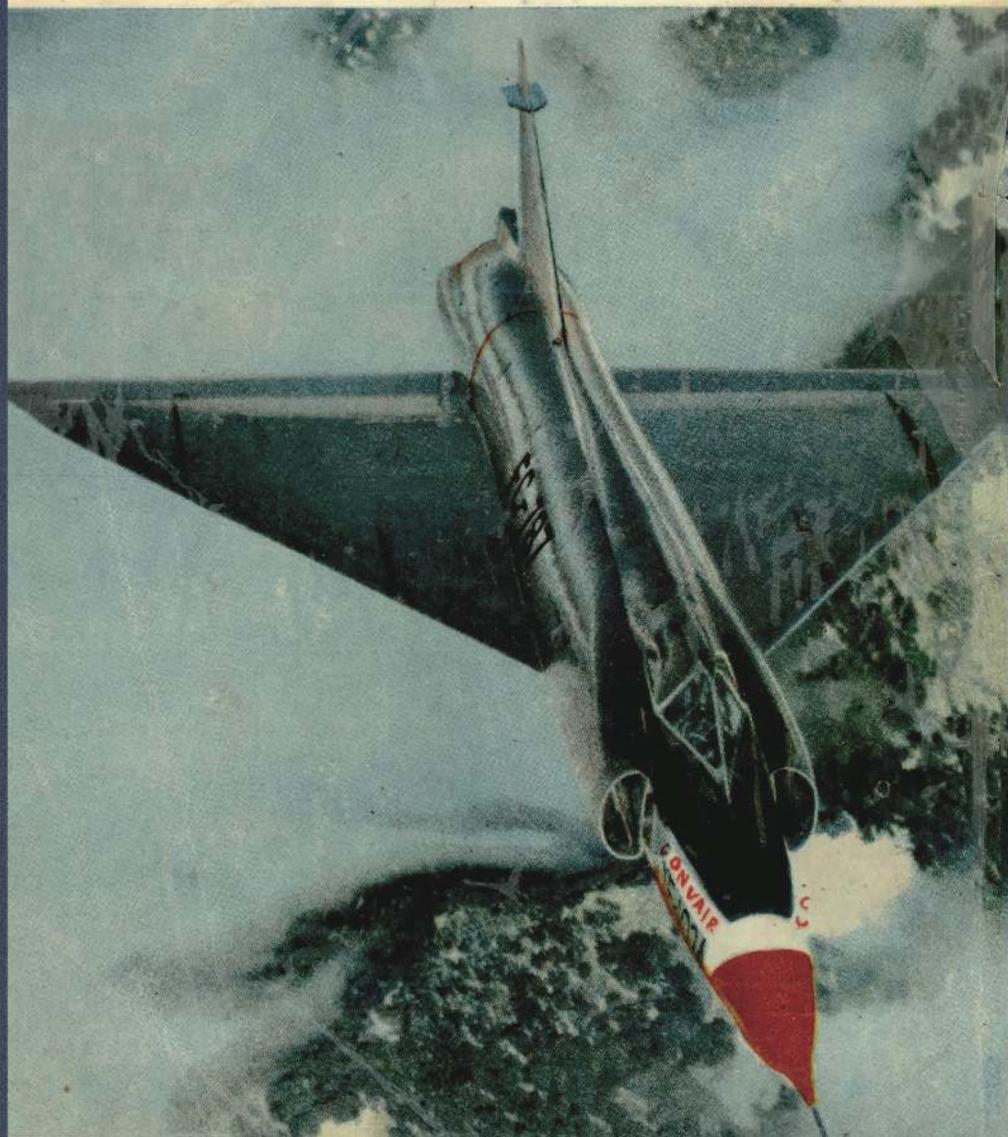


THE CO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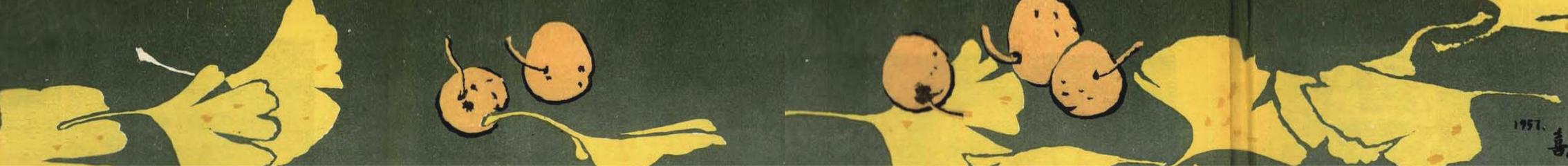
코메트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黒 → 메구로(目黒)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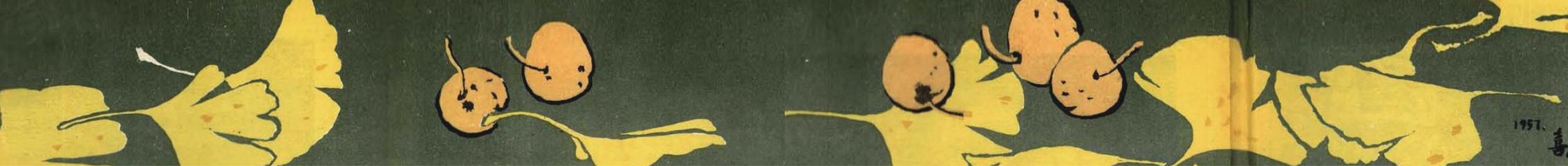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질 → 처칠
 궤에테 → 괴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쿠바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아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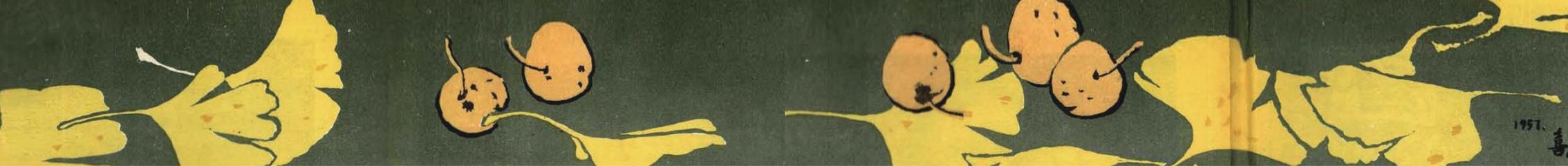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짚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였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별서 → 별씨
 올 께야 → 올 겨야
 씨운 → 씩운

오랭개 → 오랑개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손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샴펜 → 샴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아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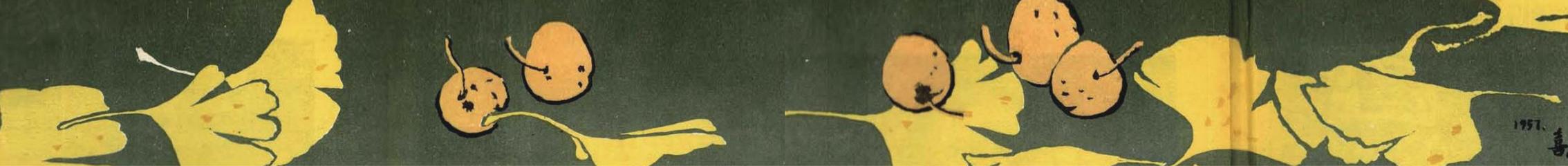


테이블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씨어클 → 씨클
 에피쏘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 』가 책, 논문일 경우 →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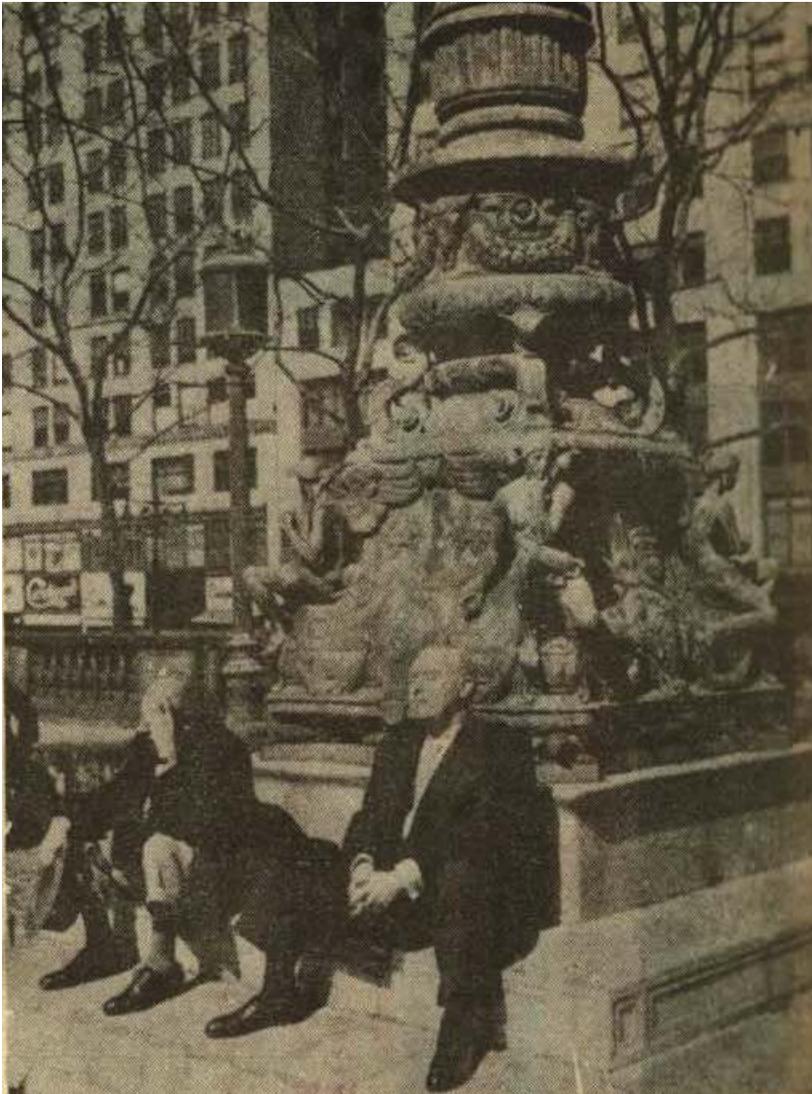
코메트 제30호 목차(目次)

〈목차(目次) 컷 비(扉) 컷〉	이희세(李喜世)
★ 화분(花盆)을 가지고 있는 여인(女人)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30)	그랜트 우드
코메트 화보(畫報)	
◇ 한국 공군에 무사고 비행안전 상패(賞牌)를 전달 ◇ 무사고 비행안전 기록을 수립한 제5공수전대(空輸戰隊) ◇ 공수부대를 격려하시는 김(金) 국방부장관 ◇ 국정감사차 본부에 내방한 국방위원 일행 ◇ 국정감사차 본부에 내방한 황성수(黃聖秀) 의원(議員) ◇ 장(張) 참모총장께서 전역된 신동우(申東雨) 준장에게 기념품 증정	
〈권두언(卷頭言)〉 계급(階級) 즉(卽) 인격(人格)은 아니다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의 시비(是非)와 그 개정(改正)	김기완(金基完) 2 유민상(劉敏相) 4
제3차(第三次) 대전(大戰)에 있어서의 전술공군(戰術空軍)은 어떠한 위치(位置)에? 미소(美蘇) 전술공군(戰術空軍)을 비교(比較)하여 보면 방면공군(方面空軍)의 역할(役割) 전략공군(戰略空軍)의 역할(役割) 공중방위(空中防衛)의 실제(實際)	강상연(姜尙演) 38 채민석(蔡敏錫) 44 최규순(崔奎淳) 50 장지복(張志複) 60 H. 스미스 66
시원(詩苑)	
슬픈 해체(解體)	김용호(金容浩) 108
산(山)의 서정(抒情)	박두진(朴斗鎭) 110
어떤 풍경도(風景圖)	공중인(孔仲仁) 112
〈장병시(將兵詩)〉 인간무죄론(人間無罪論)	손효준(孫孝俊)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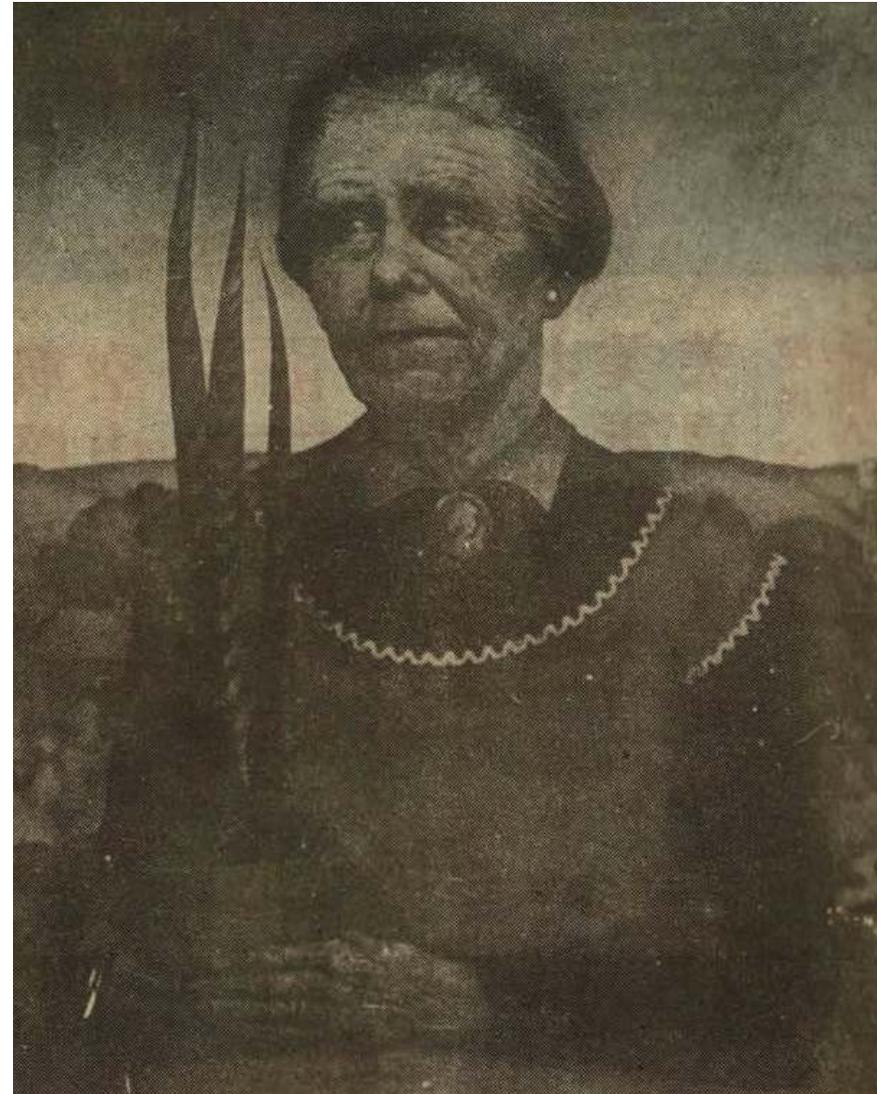
항로보안업무(航路保安業務)의 중요성(重要性)	하순직(河順直) 114	「소크라테스」의 위대성(偉大性)	김의섭(金義燮) 152
북미주(北美州)를 수호(守護)하는 DEW라인	E. 파트리지 122	나는 「돈」이외다	서상오(徐相畝) 162
미(美) 군축(軍縮)과 군수산업(軍需産業)의 영향(影響)	박운암(朴雲巖) 128	★ 코메트 휴게실(休憩室)	여기저기
미국인(美國人)의 사회생활(社會生活)	외지(外誌)에서 33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중간 중간
만화가(漫畫家)란 <글·화(畵)>	김용환(金龍煥) 77	★ 가위와 풀에서	이곳저곳
승마(乘馬) ABC	김현숙(金賢淑) 146	해피 로우드 <신작영화감상(新作映畵鑑賞)>	180
만화(漫畫)·갈피 씨	이상호(李相昊) 132	장병(將兵)의 제대조치(除隊措置)와 노동수급대책(勞動需給對策)	양기석(梁基石) 13
후진국(後進國) 경제(經濟)의 고민(苦悶)	조동필(趙東弼) 8	검군(劍君)의 순도(殉道) <야사(野史)>	김범부(金凡父) 191
- 믿을 것은 결국(結局) 자체(自體)의 노력(努力)뿐이다 -	유치진(柳致眞) 20	유랑(流浪) <단편소설(短篇小說)>	유주현(柳周鉉) 197
한국(韓國)의 신발견(新發見) <기행소감(紀行所感)>	윌리엄 김몬드 22	변용(變容) <단편소설(短篇小說)>	안수길(安壽吉) 209
내가 본 중공실태(中共實態) <중공기행(中共紀行)>	장경학(張庚鶴) 82	유배(流配) <시대소설(時代小說)>	박용구(朴容九) 218
교양(教養)	이태극(李泰極) 88		
신민법(新民法)이 지향(志向)하는 것	백기동(白基東) 96		
옛 시조(時調)의 해설(解說) - 미풍(美風)과 양속(良俗)을 읊은 -	주요섭 101		
탄도이론(彈道理論)과 그 실례(實例)	김소정(金笑停) 186		
헤밍웨이와 그의 작품(作品)			
사진현상(寫眞現象)의 지식(知識)			
★ <수필(隨筆)> ★			
움 안에서 받은 떡	김팔봉(金八峰) 134		
정상(正常)과 비정상(非正常)	박영준(朴榮濬) 136		
「황소」와 「호랑이」 같이	최치환(崔致煥) 139		
사치사회(奢侈社會)의 필요악(必要惡)	류기영(柳騎榮) 141		
국제(國際) 펜 대회(大會)의 낙수(落穗)를 추려서	양명문(楊明文) 172		
PEN 에피소드	전속희(田淑禧) 176		

명작 사진



<오수(午睡)> 뉴욕 공립도서관 국기대(國旗臺) 앞에서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화분(花盆)을 가지고 있는 여인(女人)
그랜트 우드 작(作)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화분(花盆)을 가지고 있는 여인(女人)

그랜트 우드 작(作)

약전(略傳)

그랜트 우드¹⁾는 미국 아이오와 주 아나모사²⁾에서 탄생했다. 10세 때 부친을 잃자 어머니와 누이동생과 함께 시다 래피드³⁾로 이도(移徙)하여 농사짓기와 페인트 도공(塗工), 목수 등의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며 19세까지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였다. 그로부터 아이오와대학과 시카고의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 응소(應召)하여 캄프라주 부대에 입대하였다. 전후(戰後) 파리의 아카데미 주리안에서 다시 그림 공부를 계속하며 가끔 구주(歐洲)를 여행하였으며 귀국 후는 아이오와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벽화로는 시다 래피드의 하린스 스쿨의 <데모크라시>, 고향 아나모사의 내셔널 베소너리서치 빌의 장식화가 있다. 작품은 시카고의 아트인스태이जू트, 휘트니 미술관 등에 수장(收藏)되어 있다.

우드도 모색 탐구 시대는 제1차 대전 후의 파리에서 코스모포리탄 예술가와 섞이어 프랑스 현대 회화에 심취하였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그곳의 프리미티프 회화를 보고서는 크게 느끼는바 있어 “여태까지의 나의 좋은 아이디어는 결국 모두가 고향에서 우유를 짜며 농사짓던 때에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오와로 돌아가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 한다. 이렇게 하여 미국 현대 회화의 굳센 흐름인 리조나리즘(지방주의(地方主義))⁴⁾을 벤톤, 가리 등과 더불어 대표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오와 주 이외는 그리지 않았다. 특히 인물화에 대표작을 남겼으며 모두 친근한 사람들만을 제재(題材)로 하여 아메리카인(人)의 전형을 그렸던 것이다. 이 화분을 가지고 있는 노부인 상도 작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한 것이며, 고요하고 풍순(豊醇)한 가을의 전원(田園)을 배경으로 오랜 노동고(勞動苦)에 견디어 온 파이오니아의 노(老) 여성의 표정은 인상적이다. 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생활을 이겨 아메리카의 기초를 만들어 온 여성의 전형이며, 두 손으로 소중하게 안고 있는 식물의 수직선이 소박한 꿈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우드의 그림은 세심한 사실(寫實)이나마 꿈이 있고 또 인물화는 전형을 그려내기 위하여 자연히 풍자를 띠는 수가 있다. 유명한 <아메리카 혁명의 처녀(處女)들>, <일종(一種)의 애국부인 회원(愛國婦人會員)>이 그 예이다. 하여간 아메리카다운 회화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은 우드의 작품일 것이다.

(Grant wood 1892~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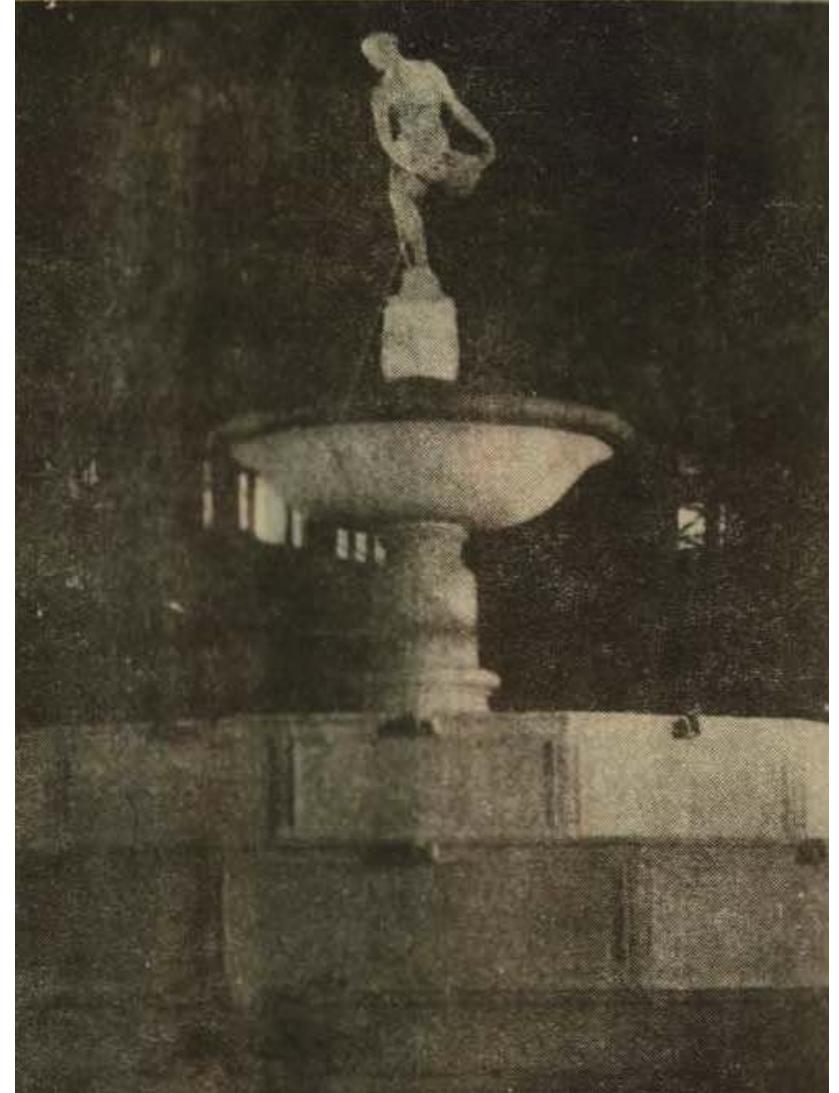
1) Grant Wood.

2) 원문의 아나모사는 아나모사로 보임. Anamosa

3) Cedar Rapids

4) Regionalism

명작 사진



<분수(噴水)> 뉴욕 5번가에 있는 퓨릿처 분수

한국 공군에 무사고 비행안전 상패(賞牌)를 전달

항공본창(航空本廠) 공수전대(空輸戰隊)의 무사고 기록을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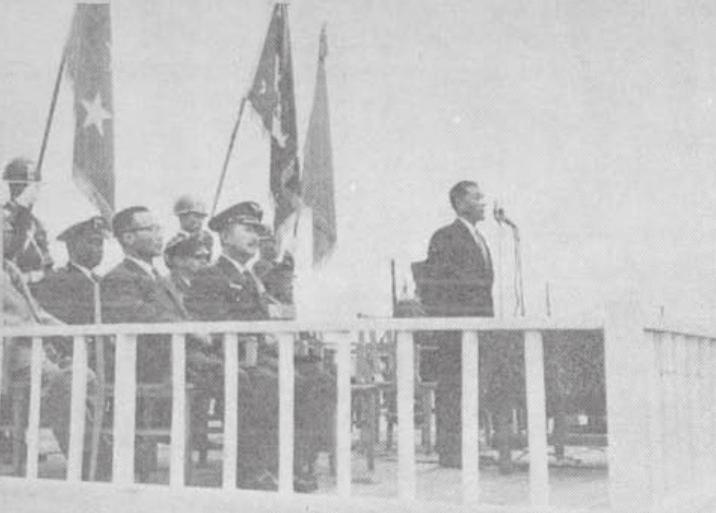
국정감사차 본부에 내방한 국방위원 일행이 공군 각 분야의 예산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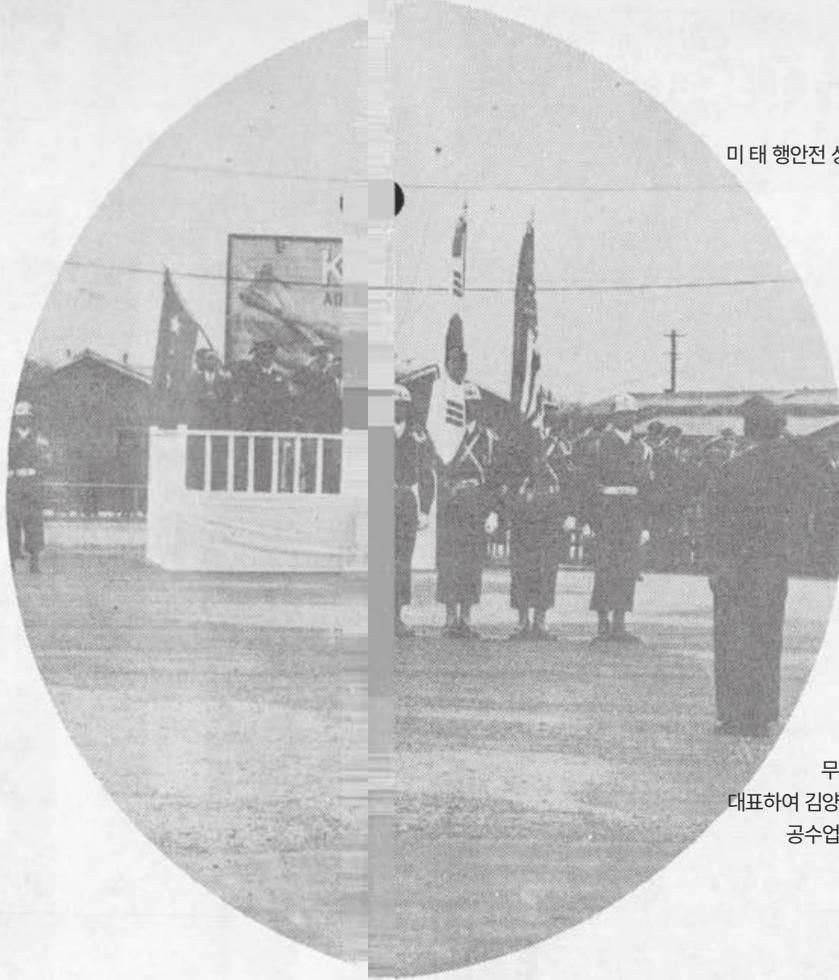
국정감사차 본부에 내방한 황성수(黃聖秀) 의원(議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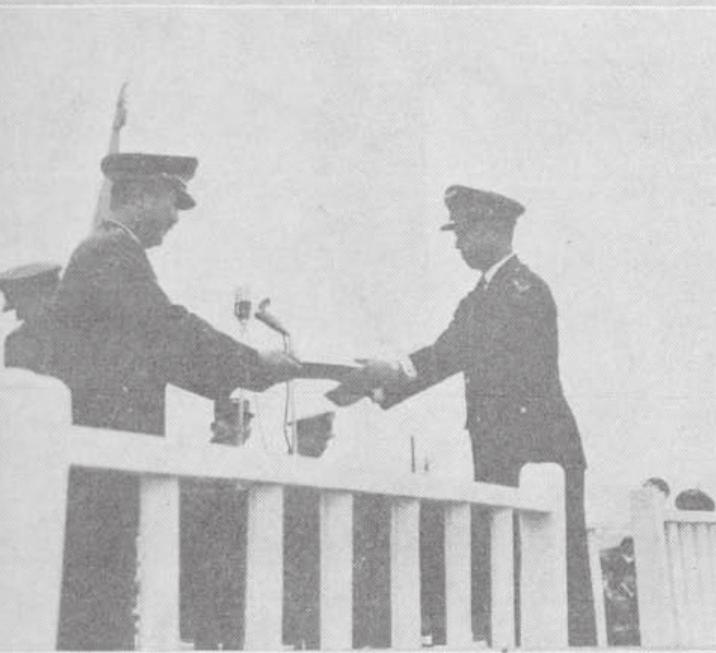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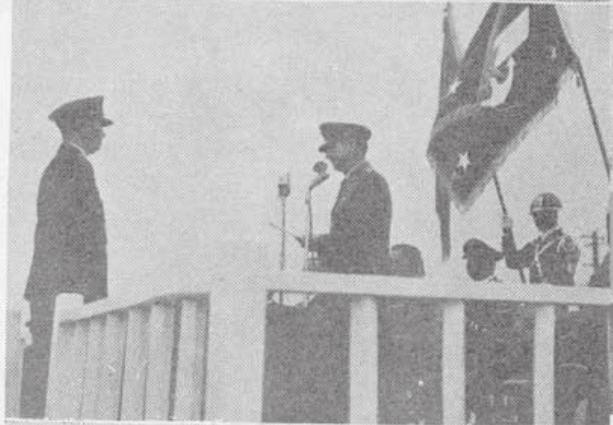
장(張) 참모총장께서 전역된 신동우(申東雨) 준장에게 기념품 증정하는 광경



미 태 행안전 상패를



무사고
대표하여 김양욱의
공수업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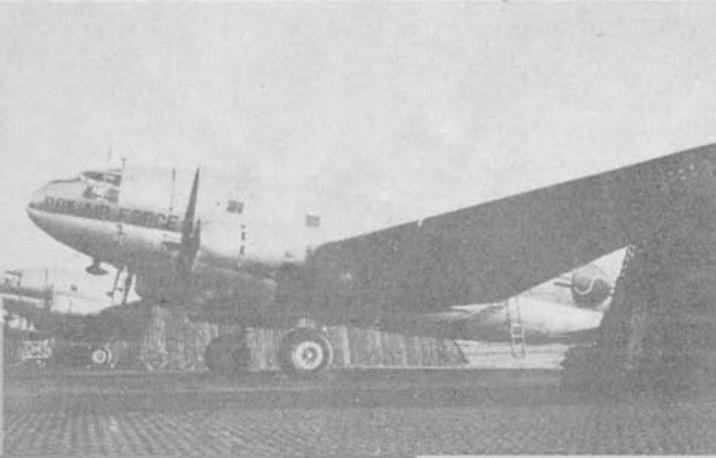


상패 : 김(金) 국방부장관
가 공수전대장에게
기하고 있는 C

으로부터 전달된 무사고 비
모총장에게 기증하는 광경을 수립한
제5공수전대(空輸戰隊)를
고 있다.



내일에 여념이 없다.
리 공수부대를 격려하시는
총장으로부터 비행안전상패



출동명령을 대

코메트

제30호

계급(階級) 즉(卽) 인격(人格)은 아니다

정훈감(政訓監) 김기완(金基完)

군대가 국가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계급도 군대 안에 있어서 인격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계급은 지휘와 통솔의 편의(便宜)를 위하여 보다 많은 경력과 연륜을 고증(考證)하여 부여되는 부호이며 권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계급은 교만(驕慢)하기에 앞서 인자(仁慈)해야 하고 횡포(橫暴)하기에 앞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급의 폭위(暴威)가 왕왕히 부끄러운 사실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을 견문(見聞)한다.

이것이 민주사회 건설에 해독(害毒)을 끼치는바 다대(多大)함은 이제 새삼스럽게 논할 바가 아니다.

일본군대에 있어서는 계급이 지닌 불관용성이 특징이 되고 또한 추상적 진리의 분식(粉飾)⁵⁾이 되었던다. 그래서 군국주의라 했고 미국군대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상하를 막론하고 공개적인 비판을 받아야 하고 휴머니티를 통하여 개개인의 신장(伸長)과 위축(萎縮)이 자연적으로 인정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특징이 있어 민주군대라고 말한다.

전자(前者)의 강압적인 불관용의 발호(跋扈)는 슬픈 역사를 만들었고 후자의 인권존중은 군을 집성(集成)했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심정을 풍부하게 했다.

우리는 어떤 편이 옳고 좋다고 할 수 있는가? 민족의 정화(精華)로서 군을 육성하는 데 후자를 택함에 사소(些少)한 주저(躊躇)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군을 집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계급에 부응하는 인격을 도야(陶冶)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발전에 있어서 장애(障礙)를 없애고 파탄(破綻)을 내포하지 않는 완전한 단결력을 배양하여 강하고도 또 한편으로 인간력(人間力)을 토대로 한 무결(無缺)의 군대를 이룩하는 길인 것이다. 우리는 항상 폐단이 많았던 일들의 예증(例證) 재료가 허다한데도 자기합리화로써 과거 옹호를 하려 든다.

순환의 윤(輪)에서 벗어나지 말고 세상이 개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의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민주대한(民主大韓)의 체면을 빛나게 하고 국력을 키우고 군의 면목을 갖추는 것이다.

5) 내용이 없이 겉만 꾸미는 것.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의 시비(是非)와 그 개정(改正)

유민상(劉敏相)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국방경비법」 및 「해안경비법(海岸警備法)」은 1946년 1월 15일 자로 발족한 국방경비대를 위하여 동년 6월 15일 자로 시행케 된 「조선경비법(朝鮮警備法)」의 결함과 불비점(不備點)을 시정할 목적으로 미국육군전시법(美國陸軍戰時法)을 직역하다시피 하여 1948년 7월 5일 공포, 동년 8월부터 시행된 소위 「과도정부법률(過渡政府法律)」인 것이다.

이 「국방경비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소위 「과도정부법률」이며 또 미국육군전시법을 전거(典據)로 하여 이것을 직역하다시피 한 까닭에 실체법적(實體法的)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을 불과 50여 조문을 가지고 통합 규정하여 허다한 기술상의 결함과 맹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정 후에는 위헌여부로 논의되어 온 것도 또한 공지(公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정부 특히 국방부가 주동(主動)이 되어 장구(長久)한 시일에 걸쳐 기초, 심사하여 결정된 군형법안(軍刑法案)과 군법회의법안(軍法會議法案)이 국회에 제안되어 이미 제안된 군행형법안(軍行刑法案)과 함께 현재 심의계속(審議繫屬) 중이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음은 동경(同慶)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상술(上述)한 군형법안과 군법회의법안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 것인가를 상기(上記) 양(兩) 법안의 정부 제안 이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약술(略述)함으로써 국방경비법(해안경비법)의 시비(是非)와 겸(兼)하여 양 법안의 시비도 극히 원칙적 문제에 한하여 인권옹호 면에서 이를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현행 「국방경비법」 및 「해안경비법」 중 절차법규정(節次法規定)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 독립하여 규정한 「군법회의법안」을 주(主)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 「군법회의의 심급(審級)」에 관하여, 종래의 군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판결에 대한 설치장관(設置長官) 또는 상급(上級)장관이 조치하는 제도를 양기(揚棄)[지양]하고 군법회의에는 제1심(第一審)과 공소심(控訴審)을 두고 헌법

제83조의 2에 의한 군법회의판결에 대한 상고심(上告審)은 대법원이 이를 하도록 하여 삼심제(三審制)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제도도 2심(二審)에 해당하는 과정을 경유(經由)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상술조치(上述措置)는 소위 '심급(審級)의 이익(利益)에 상당(相當)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사무적인 전택적(專擇的) 조치일 뿐더러 판결의 확정도 설치장관 또는 상급장관의 조치여하에 따름으로 지휘관의 개인의사 여하에 귀중한 인권이 좌우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일반형사소송법을 볼 때 이 역(亦)[또한] 군법회의법안과 같이 3심제를 채택하여 제1심, 제2심의 판결에 불복인 자(者)에 대하여 사실전반에 관한 또는 법률위반의 재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재판의 적정(適正)을 기하는 동시에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꾀하는 일편(一便) 형사피고인의 인권옹호에도 유감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군법회의법안의 심급에 관한 제도 신설은 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사실심(事實審)을 1심에 국한한 것은 균통수의 필요에서 군사재판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소송기술상 일고의 여지없다고 할 수 없겠다.

둘째, '재판관의 구성과 지위'에 관하여, 군법회의의 재판관은 종래와 같이 '법률의 정(定)한 법관'인 법무관 중에서 임명되는 법무사와 '법률의 정한 법관'은 아니고 다만 '일정한 소양과 인격, 학식'을 구비한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심리관(審理官)으로 구성하도록 군법회의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종래에도 비법률가에 의한 재판은 헌법 제22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문제가 되었고 특히 일반 형사재판이 전문적 판단에 의하는데 반하여 군사재판은 상식적 판단에 의하여 종결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국가 사법권(國家司法權)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의 요청에 배치되는 점이 많을 뿐더러 피고인에게도 불리한 점이 불무(不無)할 것이라는 비난이 많았던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군 통수 내지 군 지휘권 확립의 요청에서 오는 불가피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론적으로나 실제운영 면에서나 고려할 점이 불무할 것 같이 보인다.

더구나 법률전문가 아닌 상급 심리관을 재판장으로 함으로써 이에게 사실 심리 외에 소송지휘, 법정경찰권 기타 방대한 재판장에 고유한 권한을 행사케

하는 것은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든가 소송경제라든가 하는 소송 기술적 면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재판관 구성에 있어 심리관과 법무사의 비율을 제1심에서는 총 3인 중 법무사를 1인, 제2심에서는 총 5인 중 법무사를 3인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점이 다소 시정되었다고 할까?

다음에 재판관의 지위에 관하여 현행 「국방경비법」하(下)에서는 군법회의설치장관이 범죄의 수사, 형의 집행에는 물론 심판절차에 관하여도 과대한 관여권을 보유함으로써 재판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에 증대한 위협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군법회의법안에서는 시정되어 재판관의 직무상의 독립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하나 어느 구체적인 사건에 어느 장교를 심리관으로 또 어느 법무관을 법무사로 임명하여 재판을 담당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관할관(현행법의 군법회의설치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게 되어있고 관할관은 소관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지휘함에 이르러 군법회의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은 공문화하고 재판의 공정과 이에서 오는 피고인의 기본권의 보장은 또다시 유린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다.

셋째로 ‘검찰관의 임명과 지위’에 관하여,

위선(爲先) 검찰관의 임명권자, 공소,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자가 동시에 군법회의를 설치하고 재판관인 심리관 내지 법무사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데에 대하여는 삼권분립의 사상으로 볼 때에도 비판의 여지가 있음은 상술한바와 같다. 다음에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즉 헌병, 특무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군사법경찰관리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검찰관의 지휘 하에 일원화하지 않는 종래의 태도를 군법회의법안이 답습하고 있다. 다만 검찰관의 수사·보조명령을 거절 지연하였을 경우의 징계규정을 두어 이를 조절하는 노력을 엿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순리론적 면에서 볼 때 권력 분산이라는 면에서 소송과 수사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함은 일리 있는 체제라 하겠으나 법률전문가 아닌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적 범죄수사와 증거수집의 견지에서 나아가서는 인권옹호의 견지에서도 적의(適宜)한 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주도권

을 주는 것은 일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야 하겠다. 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 법률체계상으로 보아도 수궁하기 어려운 점인 것이다.

넷째로 ‘송소절차(訟訴節次)’에 관하여,

종래에는 영미법계(英美法系)의 제도에 따라 재판관은 검찰관과 피고인 측의 공격, 방어를 방청객과 동일한 백지에서 듣고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일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전 법률체계 상으로 보아 이원적 제도를 가짐이 어떠한가 하는 이론(異論)이 있었다. 다만 구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어느 편이 더 적당하냐 하는 점은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군법회의법안에서는 일반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 법률체계상의 균형을 기하고 있음은 상술한 이론(異論)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상 몇 가지 제도상의 기본적 문제를 약술하였지마는 이 이외에도 종래에 시비되어 오던 문제가 허다하게 군법회의법안에서 시정입안(是正立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운용을 그르치면 좋은 제도도 일고의 가치(價値)⁶⁾도 없는 것이다.

종래의 군사재판제도의 허다한 맹점과 불비(不備)가 얼마만큼 인권옹호에 지장을 초래하였는가 하는 점은 신법의 운용자가 심각히 생각하여야 할 점일 것이다.

특히 군사형사법에 관하여는 군 통수의 특수성과 작전상의 요구에 따라 인권옹호 면과 소송기술 면이 많이 희생되어 있음을 명심하여 법운용의 공정과 적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국회에 제안된 상술 양 법안은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양 법안에 대한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법제보다 보다 나은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부언(附言)하고 이 줄필을 맺는 바이다.

6) 본문에는 우치(優値)는 가치(價値)의 조판오류로 보여 가치로 함.

후진국(後進國) 경제(經濟)의 고민(苦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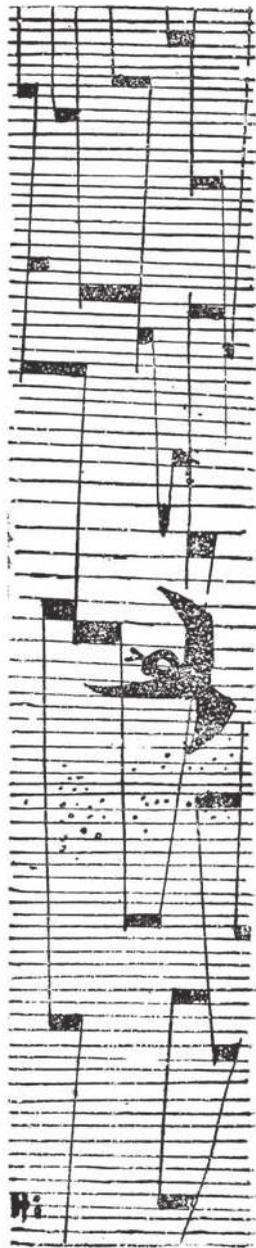
조동필(趙東弼)

1

소위 저개발국(underdeveloped countries) 또는 후진국(backward countries)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주제로 하여 금년 4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국제학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러한 감을 더욱 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동 회의에는 유럽, 미국 또는 동남아세아 각국에서 저명한 40여명의 경제학자들이 참가하여 여러 부면(部面)방면에 걸친 독자적인 견해를 발표하였었다. 일부의 예를 든다면 맨체스터 대학의 아더 루이스 교수는 '경제성장과 정부 지도(指導)'라는 보고논문을 제출하였고 일본(日本)의 나카야마 이치로(中山伊知郎) 교수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인도(印度) 불베이대학의 단드와라 교수는 '인도에 있어서의 농업생산성과 토지개혁', 옥스퍼드 대학의 코린 크라크 교수는 '농업조직과 생산성', 케투갓다 대학의 닷다 교수는 '공업화의 제(諸)단계와 기술의 선택', 이태리(伊太利) 중앙통계국장(中央統計局長) 대리(代理)인 모리나 리 교수는 '공업화와 분산화(分散化)' 등의 논제를 내세웠던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미국의 로단 교수, 유고슬라비아의 피차넛지 교수 등이 자본형성에 관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례에 의해서 보아도 오늘날 후진국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가 광범하게 그리고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해즐우드(Hazlewood)의 자료목록에 의하면 직접 간접으로 후진국경제에 관한 문헌은 600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2차대전 후 주목할 만한 하나의 현상인 동시에 또한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후진국에 대한 개념규정에 있어서나 또는 후진국경제 개발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어떠한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자들의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또는 문제를 포착하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후진국을 규정하고 저위(低位)의 생활수준과 저위의 소득으로부터 이탈을 중점삼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자본부족에 중점을 두고 또는 저위의 공업화를 강조하는 논자도 있다.

또한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후진국은 전근대사회 또는 복합사회라고 규정하고 사회경제구조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다. 또는 모리스 돕(Maurice Dobb)처럼 정치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후진국을 식민지 또는 종속국으로 다루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후진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논점이 다르고 또한 경제발전책에 대한 주장이 다르지만 그러나 후진국경제의 문제점의 일면을 각기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후진국은 바이나(Viner)가 규정하듯이 '총생산물에 대한 공업생산물의 비율이 그리고 총인구에 대해서 공업인구의 비율이 얇은 국가'이고, 또 너크시(Nurkse)가 말하듯이 '자본부족국가'이다.

그리고 또 퍼니발(Furnivall)이 말하듯이 '복합사회(Plural Society)'이고 '복합경제(Plural Economy)'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후진국가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국이고 따라서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자본부족을 느끼는 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부분의 후진국은 선진국의 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던 지역이고 또한 다원적인 사회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데에도 틀림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후진국의 경제개발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국련(國聯)[유엔]에서 나온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제(諸)방안'(Measur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1951.)에 있어서도 후진국에 있어서는 전(前)자본주의적인 제(諸)장해(障害)가 그의 경제적 발전을 저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경제발전은 먼저 투자가 계획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확실히 이 투자가 계획되어야 할 텐데 후진국은 인적 투자부분과 물적 투자부분이 비(非)균형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구는 과잉상태라도 자본은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가 적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이 적정화됨으로서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진국은 자체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너무도 자본이 부족하다. 1949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한 유엔통계에 의하

면 세계 후진각국이 1인당 국민소득을 연간 2%씩 올리려면 자본의 필요총액이 191억 3,400만 불인데 후진국의 국내 순저축은 52억 4,000만 불밖에 예상되지 않아 부족액이 138억 9,400만 불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계산에 있어서는 세계 후진각국의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1.25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소요액이나 또는 부족액이나 그리고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중남미지역, 아프리카(阿弗利加) 지역, 중동지역, 중앙 또는 동남아시아지역에는 여러 후진 국가들이 존립하고 있지만 소득, 인구증가율, 공업화 조건 등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기(前記) 통계는 다만 후진국이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또 부족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은 국내에서 형성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자(外資)의 도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러나 후진국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자본형성이나 외자도입에 의한 자본조달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국내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첫째는 자본형성의 주요 원천은 저축인데 저축보다 가치 퇴장이 이루어지는 점이다. 이 퇴장된 가치는 투자 자본으로서 끌어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는 역시 교수가 지적하는 '빈곤의 악순환(the vicious circle of poverty)'이 자본형성의 수급 양면에서 작용하는 점이다.

A. 공급면 = ①저(低)소득수준 → ②저저축능력 → ③자본결핍 → ④저생산성 → ⑤저소득수준

B. 수요면 = ①저실질소득 → ②저구매력 → ③저투자유인(誘因) → ④자본부족 → ⑤저생산성 → ⑥저소득수준

이 같은 악순환과정은 '빈곤한 까닭에 빈곤하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소득수준 때문에 자본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산 활동의 결과를 전부 소비에 충당하지 않고 그 일부분을 자본재생산에 충당하여야 할 여유가 적다는 말이다. 국내에 있어서의 자본형성이 어려운 점은 또한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셋째에는 듀센베리(Duesenberry) 교수가 지적하는 선진국 상품의 '시위효과(Demonstration effect)' 때문에 자본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재원이 외국으로 누출(leakage)된다는 점이다. 후진국 국민들이 선진국 상품에 접촉하면 새로운 자극을 받아 소비관습이 바뀌어지고 저축을 희생시켜가며 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시위효과' 때문에 후진국 국민들의 소비성향이 상승되고 낭비벽이 생기는 것은 우리도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이다. 그것은 저축을 저해하여 자본형성 상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위효과'는 단순히 개인의 자발저축에만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저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금 지적한 이 세 가지 점

이 후진국에서 자본형성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음에는 국외자본의 문제이다. 그 종류로서 국제투자, 차관(借款), 증여(원조(援助))등인데 그 도입이나 수혜가 그리 쉽고 유리한 일은 아니다. 후진국이 대부분 2차 대전 후에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아직도 정치 정세나 사회적 조건이 불안정 상태에 있는 까닭에 선진국의 자본은 어떠한 특수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한 투자 하려 들지는 않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독점성의 부여라든지, 과세면의 특혜라든지, 또는 이익금의 본국송환에 대한 법적보장과 같은 점이다. 그리고 또 이윤율이 15% 가까운 높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부 후진국에서는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약 결혼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나라도 있는 것이다. 차관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건이 붙기 쉽다. 따라서 오늘날 후진국에서는 '조건부차관 또는 대여'라고 해서 tied loan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원조형식의 증여는 2차 대전 후 특이한 현상인데 이 원조가 전쟁(戰災)의 상처를 메꾸어 주고 기아에서 구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소비재의 원조는 후진국 국민의 소비성향을 높이고 시위효과를 발생시켜 도리어 국내 상품에 대한 시장을 좁히고 국내자본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도 가져온 것이다. 원조국에 대한 후진국 경제의 의존도만을 높이고 반면에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저하시킨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후진국에 있어서는 자본의 조달이 어렵고 따라서 국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향상도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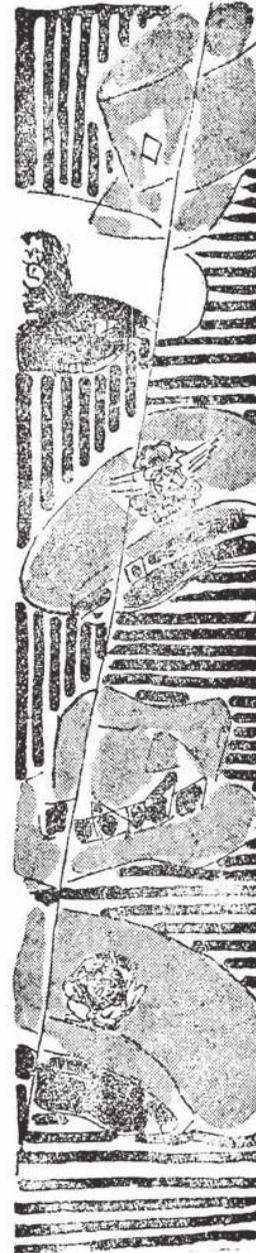
2차 대전 후 후진국들은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허다한 경제계획을 세워 노력하였고 또한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대한 원조정책을 수행하여 왔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그 불균형성을 확대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2차 대전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약 700억불에 가까운 대외원조를 해왔고 소련은 약 40억불의 원조를 해왔지만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변명과 빈곤의 대조는 해소되지 않고 도리어 점점 대립화되어가는 면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 통계국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경제적 발전의 차는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를 들면 1949년의 세계의 국민소득 총액은 5,420억불이다.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세계인의 8.3%를 점유하는 아프리카의 소득은 2.6%에 지나지 않고 세계인구의 4.5%를 차지하는 남미는 소득비율이 3.5%이고 세계인구의 53.6%를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의 소득은 세계총소득액의 겨우 10.5%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다면 세계인구의 66.4%를 차지

하는 후진국들은 세계총소득액의 16.6%밖에 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세계 총인구의 33.6%밖에 차지 못하는 선진제국은 그 소득에 있어서는 세계총소득의 83.4%를 점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얼마나 비균형적인 양상이란 말인가. 특히 아세아지역은 다른 여하한 지역보다도 저위(低位)의 생활수준에 있는 것이다. 아세아의 1인당 소득은 북미주의 27분의 1, 미국의 29분의 1, 유럽의 7분의 1, 그리고 세계 평균 소득의 5분의 1에 해당된다. 1954년에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45불이고 유럽은 평균 659불이고 동남아세아는 평균 74불에 불과하다. 이같이 소득비율에 있어서 불균형의 폭이 넓은 것이다.

2차 대전 후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의 확장적 균형을 제창하여 왔지만 그러나 후진국은 여전히 선진국에 대한 불균형을 노정(露呈)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산국에서 보아도 그 같은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55년의 유엔통계에 의하면 1948년을 100으로 해서 1938년(대전前)과 1954년의 상품생산지수를 비교하였는데 선진국은 전전 75에서 1954년에는 131로 되어 있는 반면에 후진국은 전전의 90에 대해서 1954년에는 12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생산지수에 대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지수는 같은 1948년을 100으로 해서 선진국은 전전은 91, 1954년에는 108로 되어 있다. 후진국은 전전의 83에서 1954년에는 110으로 되었다. 이 같은 인구증가 면과 결부시켜서 생산 면을 생각한다면 선진국은 십년간에 1인당 47%의 발전을 하였는데 후진국은 그 5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율밖에 발전하지 못한 것이 된다.

2차 대전 후 유엔당국이나 선진국들에 의해서 후진국은 여러 가지 명목의 원조를 받아 왔었다. 이리하여 후진국은 또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안을 세우고 노력을 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제 본 바와 같이 세계생산에 있어서 점유하는 후진국의 비율은 지극히 낮고 공업화과정은 여전히 침체적인 것이다.

오늘날 하나의 국제이념으로 내세우는 '복지의 평등한 배분'은 하나의 희망이고 아직도 현실화까지에는 시간의 거리가 남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빈곤한 까닭에 빈곤'해지지 않을 수 없는 후진국은 아더 루이스 교수가 지적하듯이 경제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정부의 지도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한다. 그것은 제도와 습관의 변혁부터 그리고 자금동원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미쳐야 할 줄 안다. 그렇다고 독선과 억압을 자행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후진국이 믿을 것은 결국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진국 경제발전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병(將兵)의 제대조치(除隊措置)와 노동수급대책(勞動需給對策)

양기석(梁基石)

1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국가는 단지 보호기관 또는 평화나 질서의 보호자라는 점을 넘어서서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들 온 영역에 '정의의 지배'를 피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 되어져 있다.

이 정의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는 필연적으로 많은 부정, 대립, 모순, 충돌이 있을 국민의 사회적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마련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은 국민 각자의 활동을 규제하면서도 사회질서의 유지와 외적방어의 태세확립을 증대한 윤리로 하여온 것이다.

'인무원려(人無遠慮)면 필유근우(必有近憂)'라는 옛말이 있다. 이것은 유사입추(有事立秋)에 대비하여 평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 땅에 포화소리는 멎었으나 휴전선 저 건너에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이 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조국통일이란 백년하청지격(百年河清之格)의 광인의 냇두리만 같고 반면에 적은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군비확장 군사력증강에 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비상사태가 야기될는지 예측을 불허하는 터이고 이러한 국면에 대비하는 국가적 만반의 대책이 께급(愾急)한 바 있는 것이다.

제(題)하여 「장병의 제대조치와 노동의 수급대책」이라 하였다.

지금의 국가적 난국에 있어 제대조치가 갖는 병역의 의의와 그에 따른 그들 사병의 직업문제 노동수급의 조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도 뜻있는 바라 하겠다.

2

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국가나 그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유

7) 시급하다는 의미

지,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강(精強)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각기 안거낙업(安居樂業)케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려면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된 국가적 의무, 특히 병역의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실이다. 병역이라 함은 물론 국민이 병정으로 복무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전투력 구성을 위하여, 충성하는 정신에 따른, 국민의 인적부역(人的 負役)을 말하는 것이다.

6.25이래 대략 전(全) 인구의 10%, 장정 수의 27.5%가 이 부역에 동원된 통계를 본다. 제1차 대전 시 가장 동원이 심했던 독일에 있어서의 병무부담은 전인구의 18%, 장정 수의 90%라는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 부담에는 단순히 육체적 근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국애족(忠國愛族)의 대의에 순(殉)⁸⁾하려는 기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고로 수문연무(修文練武)하여 문무겸전(文武兼全)을 숭상하는 문화민족임을 자랑한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일찍이 고구려의 상무정신(尙武精神)이나 신라의 화랑도 같이 정의의 가치를 높이고 국위를 중외(中外)에 널리 선양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조말엽에 이르러서는 국민이 문약(文弱)에 탐닉하여 마침내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의 흔적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병역의 중대성을 고무하여 주는바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병역의무가 광범위하게 국토방위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항에 의거하여 병역법이 제정되었고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된 예비역도 전시사변(戰時事變)에 있어서는 다시 소집하여 군무에 역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조치는 이 예비병력의 확보에 상호상관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아울러 국토방위의 의무를 해당 국민이 균정(均整)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조치의 소이(所以)는 한말로 예비병원의 확보와 병역의무의 균등을 기하기 위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원래 군대는 비생산적인 소모기관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하여 어느 나라이고 상시 다수의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예비병력을 확보함으로써 그 보강책을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재정 면으로서나 생산 면에서 극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예비병력이라는 것은 '현역으로서 일정한

8) 따라 죽다'의 의미

기간 군에 복무하여 학술과 실기에 있어서 군인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교육을 받은 후 제대된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자가생업에 종사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국가의 간성(干城)⁹⁾으로 군문에 치참(馳參)¹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는 꼭꼭 일정한 현역복무가 끝나면 누구나 한결같이 제대되어 예비군에 편입되어 대명(待命)하는 명실(名實)이 같이 균등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가 실험됨으로서 국가의 기초는 반석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3

다시 장사병(將士兵)의 제대조치의 의의를 구체화하여 본다.

첫째, 서상(叙上)한 바와 같이 제대는 병역의무의 평등을 기하여 예비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병은 규정대로 일정한 로테이션¹¹⁾을 지켜 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복무연한이 이미 4, 5년에 달하고 있는 자도 많다.

그러나 하면 상당수의 의무자가 직장이나 민간에 잠재(潛在)¹²⁾하여 병역에 복(服) [복무]하고 있지 않은 것을 부인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전자와 후자 사이에 균형을 잡아 의무기필자(義務既畢者)는 즉시 제대를 하고 새로운 의무이행예정자를 포착하여 병역을 부하하는 엄격한 교대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제대된 자는 예비병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의 전의(戰意)와 사기의 양양을 기함에 있다. 우리는 아직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 국민은 지루한 전시체제에 실증을 느끼기 쉬우며 장병은 장기전에 사기가 침체되기 쉬운 것은 자연(自然)한 인간심리이다. 그러므로 적기(適期) 제대조치를 함으로서 그를 계기로 하여 심기일전의 기회를 주어 전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전선에서 병사에서 춘풍추우(春風秋雨) 오랜 성상(星霜)동안 풍야노숙(風野露宿) 하면서 포연탄우(砲煙彈雨) 속에 조국수호를 위하여 용전선투(勇戰善鬪)하던 그들 사병이 고향으로 개선하게 되는 것이 어찌 비단 일가 친위(親戚)의 영예와 환희에 한 할 것이라. 오랫동안 시달리고 쫓기어 살던 이 민족에게 그들은 새로운 충동과 감격을 줄 것이요 그들 무명의 용사들에 의한 숨은 무용담은 전 국민을 고무하여 전의를 새롭게 양양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셋째로, 의가사(依家事)제대를 실시하여 법의 공정과 국민생계의 안정을 기한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이 있다.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9) 원문의 干城은 干城과 같음.

10) 참여한다는 의미.

11) rotation 12) 원문의 潛在은 潛在과 같음.

수 없는 현역병은 현역을 면제하고 전역하게 되어있고 가족 중 2인 이상이 출정하여 역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서도 그 중 1인의 재영 기간 중 다른 1인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소집된 자가 소집됨으로서 생계가 곤란할 때에는 그 소집을 면제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가열(苛烈)한 전국(戰局)에 대처하여 병마총홀(兵馬總忽) 질서도 채 잡히지 않아 이러한 규정을 돌볼 여가가 없었던 것이다. 차츰 모든 일이 제 궤도에 오르게 되고 제대조치에 있어서도 특히 법의 정상적인 운영이 있어 법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독자나 연로자가 제대되고 엄격한 로테이션이 유지되어 견실한 예비 병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제대조치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노동수급관계의 부조화에 따른 크게 우려하여야 할 특수성이 있다. 한마디로 실업문제이다. 원래 정상 사회에 있어서도 이 실업이란 현상은 있었다. 개인의 육체적 노쇠 불안정한 임시자유노동의 변폐(變廢)¹³⁾ 또는 노동 수요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의 상실들, 개인적 사정에 기인하여 실업은 있었다.

그밖에 소질불량, 부절제, 교양의 부족들의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은 개인적 사정보다도 사회적 원인이 그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노동 수요의 감퇴의 면에서 보면 천재, 지변, 정치적 변혁, 기계의 발명, 유행의 변화, 노동쟁의, 산업합리화, 사업의 계절적 변동, 경기의 순환적 변동들 듯한 사회적 원인이 있었고 노동공급의 증가의 면에서는 인구의 증가, 도시 집주(集住)경향, 노동자 전입, 소년 및 부녀자의 취업, 지식계급의 공급증가들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 모든 사회의 체제와 산업의 기구가 채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6.25라는 혹독한 난리를 겪어 모든 것은 파괴되고 황폐화 하였다. 일할 수 있는 직장, 공장은 자취도 없어 (이제 겨우 차츰 재건되나) 노동의 수요는 격감한데다가 인구는 (해외나 이북으로 부터의 피난민) 격증하고 수많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분출하는 소위 지식계층들로 노동의 공급은 엄청나게 증가하여 거리의 모두가 실업자로 부랑(浮浪)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다시 정기 제대로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학도의 졸업과 같이) 실업이 생긴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왕의 제대군인의 횡포와 무질서에 대해서도 일반의 여론은 결코 호평이 아니었다.

13) 변하여 없어진다는 의미

또 다시 아무런 대책이 앞서기 전에 계절적으로 실업자군이 쏟아져 나오는 우열(愚劣)함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대책이란 실업을 방지하고 그 구제의 길을 강구하는 일이다. 실업의 형태가 복잡한 만큼 이 대책도 역시 그에 따라 특수하고도 탄력성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종래 각국에서 행하여진 실업의 일반적 대책을 보건대 첫째 실업과 빈곤이 동일시되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실업자의 부조(扶助)제도가 있었다. 관례적으로 해고수당제도가 온정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상호공동으로 실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공제제도들이 있다. 이 제도적인 것에서 노동의 수급조절에 관한 시설이 세워지기도 한다. 직업소개소, 직업보도소, 청소년, 부녀자의 직업훈련소의 활약이 곧 이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공급을 제한하는데 관한 시설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이입을 제한하고 이출을 장려한다. 의무교육제도를 연장하고 노령자의 인퇴(引退)의 길을 열어주고 조혼방지와 산아를 제한한다는 것도 이에 속한다.

그뿐 아니라 실업구제사업이 적극 일어나 되도록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목건축, 도로신설보수, 사방수리(砂防修理), 상하수도, 공사들 구제의 길을 연다.

또한 실업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실업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노동계급이 입은 임금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공동기금제도를 임의 또는 강제로 두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두렵고 두통거리인 것은 지식계급의 실업대책일 것이다. 물론 경제일반의 불경기로 인한 수요 감소에다가 특히 행정정리 재계의 긴축에 따라서 지식계급의 지위가 감소되기도 하였거니와 가장 뚜렷한 원인은 학교증가로서 공급이 과다케 된 것이다. 이 문제는 국민사상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양성(醸成)¹⁴⁾ 하는 원인도 되는 것이다.

이 대책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지식계급에 직업을 주는 적절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임시적 조사, 자료수집사업, 필경(筆耕), 계산, 도서정리, 제도(製圖), 출판, 인제(印刷)사업들을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관청, 은행, 회사 등에서 사무를 가급적 다수인에 응분토록 방법을 세운다든가 사용인을 해고할 때는 적당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 같은 시책이 있다.

또한 지식계급의 직업소개기관을 확장함과 아울러 필요한 보도시설을 보급하는 것도 좋은 대책인 것이다.

14) 만든다는 의미

서상(敍上)한 바는 주로 정상사회의 일반적 실업문제에 대해 말하여 왔다. 그러나 거듭 말하거니와 제대군인의 실업문제는 상이용사(傷痍勇士) 및 그 유가족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심고(深考)¹⁵⁾를 요한바 있는 것이다.

5

전항(前項)에 있어 대체로 언급한바 있거니와 군대의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일시에 나타나는 제대군인의 실업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제대조치로서 파생하는 예비병역을 항시 건전(健全)한 것으로 유지하고 예비역 본연의 사명을 언제나 완수할 수 있도록 확보하려면 그들로 인해 증가되는 노동공급에 알맞은 적절한 수요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대장병은 일반 노동시장의 노동공급자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자활의 길을 세워주는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그들대로의 직업보도와 훈련을 하고 특수한 기능을 습득케 하여 직업을 마련도 해주고 소개하는 시설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기여(寄與)하는 것이다. 공공사업을 일으켜 제대용사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산업능력의 증진도 꾀한다. 도로건설, 주택건축, 전화통신사업(電話電信事業), 전기상하수도, 농업진흥, 교통부흥, 수공업장려, 국산공예기술사업 등 대규모적인 생산사업도 발전시켜 그들로 노동력을 충당하고 수출산업까지도 고려하여 산업진흥에도 이바지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산업의 합리화문제이다. 가정의 일이든 농공상(農工商)의 일이든 각 개인의 근로생활에 과학적 원칙을 응용하고 임금, 이익분배, 제도, 노자관계, 각종 단체적 행동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뿐 아니라 이 과학(理科學)을 산업에 널리 적용하여 생산기술을 과학화하고 사업전반을 과학적으로 경영하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생산 분배의 일반조직을 개선한다.

조합활동에 협동을 촉진하여 대량생산 및 분배를 행하고 상황(商況)예측을 발달시키고 세계적인 원료, 시장, 운수, 동력상태 등에 이르도록 통계조사 하는 시설을 둔다. 이렇게 산업이 합리화함으로써 인급(人給)하고 물족(物足)하여 생활표준이 향상하고 물가는 싸고 노임은 오르고 기업가의 이윤도 불고 노동자의 생활이나 일반 민중의 생활이 향상하여 경제의 부흥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서 자연 제대군인에게도 자활의 길이 열리고 일터가 많아지고 생활의 곤경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5) 깊게 고려

그 외 여러 가지 상세한 제대군인의 직업문제를 구상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실상화 함으로서 제대조치가 아무런 정견(定見) 없이 무작정 시행될 때 파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위생도덕의 퇴폐, 범죄의 증가, 사상의 왜곡 악화 및 사회불안의 격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군인생활은 인간으로서 특수한 수도(修道)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질서정연한 군영생활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엄정한 규율 밑에 불요불굴(不撓不屈)의 투지와 견적필살(見敵必殺)의 기백으로 적을 무찌르는 진취의 담력과 기상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련을 쌓은 제대군인은 모름지기 재영시의 그 존귀한 체험을 살리어 일반의 의표가 되어야 하며 군인으로서의 지조와 절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자신에게 이 사회의 거센 난관을 극복할 용기와 책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나 위정자는 그들에게 기대하는바가 큰 만큼 병역의무의 공정한 부과와 예비병력의 확보와 아울러 그 사후의 사회생활에도 병적인 낙오가 없도록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군인의 로테이션 제도는 더욱 강화 정비되어 병역의무 해당자는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전원이 훈육을 받고 예비역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면서 기왕(既往)의 기형적인 소집제도를 지양하고 정상적인 징집에 의하여 신규병을 교대하는 계제에 이른 것이다.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오늘의 복잡하고도 불필요한 사무적인 무익한 부담을 현행소집제도를 시정함으로써 경감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병사행정을 쇄신하고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그들로 인해 일어나는 노동수급의 불균형-실업문제에 대한 현명한 시책이 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군무에 있는 자나 제대된 자나 또는 앞으로 입대할 자나 국민전반이 비상한 각오로서 국난을 극복하며 가일층 병역의무에 충실하여 국토방위에 분신(奮身)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문제는 공동책임 아래 해결하여야 한다는 관념 밑에 대책을 기대하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심히 거창한 논제였다. 절대로 세밀한 전반에 걸쳐 언급되지 못하였다. 다만 로테이션의 정상화와 제대군인의 직업 교도(教導)에 한 도움이 된다면 다행인가 한다.

한국(韓國)의 신발견(新發見)

류치진(柳致眞)



편집자께서 내게 표기의 제목을 보내면서 이번 세계일주여행에서 느낀바 바깥에서 조국을 바라보고 새로이 발견한 한국의 자랑을 쓰라는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이번 여행에서 불행히 나는 우리의 자랑이란 것을 발견치 못했다. 자랑은커녕, 우리의 약점만이 내 눈에

띄어 나를 채찍질하고 내 자신을 반성케 하는 바가 많았다.

여태 우리는 입을 벌리거나 붓을 들면 우리나라를 ‘오천년문화국(五千年文化國)’이니 ‘동방예의지국’이니 ‘우수한 민족’이니 찬양했었고 나의 선배 혹은 동료들도 그랬음을 나는 보았다.

나는 1년 유여(有餘) 동안에 미국, 유럽 그리고 동남아세아에 공(巨)하여 이십여 개국을 돌아다녔는데, 내가 본 한(限)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비문화국은 없었고 우리 민족처럼 비예의지국은 없었고 우리 국민처럼 저능아는 없었던 것 같이 느꼈었다.

내 견해로서는 우리에는 첫째 인재가 없고 업적(業績)이 없다. 그리고 둘째 자랑할 만한 과거의 업적조차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약간 정리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해외에 소개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부면(部面)은 모르겠고 우선 나의 전문인 예술, 특히 연예 면에서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비문화민족이요 야만이라고 경멸하는 피부색 같이 석탄보다도 더욱 시커먼 흑인조차도 파리(巴里)나 뉴욕이나 런던(倫敦) 같은 세계 제 1급 도시의 제 1급 극장에서 당당히 음악이나 무용의 리사이틀을 가지며 세계문화인의 찬양을 받고 있었다. 배우로 두고 말해도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서울에서도 봉절(封切)되는 외국영화에 간혹 나타나는 흑인연기자들이 그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예인 중에서 흑인들과 같이 세계무대에 데뷔해서 이렇게 찬양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과문의 나는 흑인들의 인기에 겨눌 수 있는 우리의 연예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문화적 유산이 잘 보존 내지 정리되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하다. 가장 비근(卑近)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식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직 정리 못하고 있다. 그 때로는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하니 좀 전문적인 우리의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 예술 면에 있어서는 요즘 사계(斯界)의 학자들이 손을 대고 있지만 그 자체의 빛을 내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자기의 문화를 깎고 여며서 그 생활에 있어서 그들 독특한 정서를 가지며 여자의 화장에까지도 제 자신의 미를 발휘할 만큼 제 것을 정리해 놓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과거문화를 정리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정리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과거문화의 우수한 점이 무엇이 해외에 소개되어있겠는가?

우리나라는 금반(金般) 전쟁에 외국인 신문기자나 개인이 찍은 사진-쓰러진 판잣집에서 굶주리고 있는 피난민이나 혼잡한 자유시장에서 술국을 마시고 있는 지계꾼의 모습 외에는 외국인이 아는 게 별로 없다.

게다가 옆친 데 똥친다는 셈으로 과거에 일인(日人)들은 자기들의 한국식민지화를 합리화시키려고 아주 나쁘게 우리를 소개해 두었으니 오늘 알려져 있는 우리의 모양과 과거에 일인이 이미 선전해놓은 것이 앞뒤가 들어맞아서 해외에서는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세계제일의 미개민족으로 선전되고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내가 유럽에 갔을 적에 거기에서 만나는 유럽인들에게 “나는 한국의 극작가요” 했더니, “한국에도 극작가가 있는가? 도대체 당신네들은 무슨 말을 쓰는가? 중국어를 쓰는가? 일본어인가?”하고 묻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보통시민이 아니고 지식인의 첨단을 걷는 신문기자나 대학교수들이 그따위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도 없는 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만큼 되어있으니 우리를 모르는 정도는 불문가지로 말을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가 부끄러울 뿐이다.

(37면으로)

내가 본 중공실태(中共實態)

윌리엄 킴몬드 기(記)

◇ 떠벌리는 스피커

선전에서

붉은 중국 본토에 입국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까지 소수의 비공산주의자가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이 광대한 미지의 나라로 발을 들여놓을 수는 있었지만 이들이 낡은 소련(蘇聯)으로부터 새로운 중공으로 입국하려면 필요한 여행증을 가지고도 최소한 8일간은 기차의 신세를 저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죽(竹)의 장막의 굳게 닫혔던 문이 뾰족이 열리고 2명의 백인이 포함된 수명의 외국인과 100여명의 중국인의 입국이 허락됨으로서 나는 중국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었다.

기지의 세계로부터 하나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먼저 한 개의 인도교를 보행으로 걸어 넘어 가야한다. 철조망으로 얼기설기 얽힌 비좁은 길로 들어설 때 내가 본 마지막 서양인은 나를 보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이던 어떤 영국 병사였다. 나의 왼편에는 홍콩행 열차가 연기를 뿜고 있었으며 나의 맞은편에는 나를 중공 깊숙이 실어다 줄 철마(鐵馬)가 정차해 있었다. 이곳은 사실상 무인지대에도 같았으며 통행인이라곤 없었다. 내가 죽의 장막에 들어온 후 최초로 발견한 중공이 시민은 카키복(服)에 다발총을 매고 입국자를 감시하는 2명의 중공청년이였다.

우리는 보행으로 도처에 벽화가 걸린 시가지지를 통과하여 선전역으로 갔다. 최초로 나의



밀림(密林)의 법칙(法則)만이 지배(支配)되는 차시간(車時間)

눈앞에 나타난 벽화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초상화였으며 그 다음부터는 신생중공의 모습이라는 표제가 붙은 많은 기록사진들이었다. 선전역에서의 최초의 인상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먼저 세관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관리의 검사는 실로 결박이었다. 날씬한 옷차림을 한 카키복의 중공군 장교가 혈어 재친 보스턴 백을 힐끗 훑어본 후 “검사완료”라고 짹 소리 지른다. 12시 4분 발 광둥(廣東)행 열차는 정각에 출발하였다. 아담한 시골 풍경을 뚫고 소연(驕然)한 도시로 향하는 나의 차 속에서 내다보는 외계에는 모자이크 세공과도 같은 수전(水田)과 개울물 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등 매우 한가하게 보였으나 언제나 변함없이 따라다니는 것은 객차 앞뒤에서 시종 떠벌리는 선전용 스피커였다. 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또 선전공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선전에서 광둥으로 향하는 길은 약 세 시간이 걸렸다.



윌리엄 킴몬드 기(記)

◇ 달갑지 않은 안내자(案内者)

광둥(廣東)에서

정각 오후 3시 15분, 우리를 태운 기차가 선전용 확성기가 소연하게 떠벌리는 플랫폼에 삐걱삐걱 굴러 들어왔을 때.

“당신이 윌리 씨이세요?”하고 내 앞에 나선 여자는 중공 여행사 대표인 펜 양이었다. 그는 선전역부터 우리보다도 둘째칸 뒤에 타고 같이 온 활발한 여자였다. 그러나 나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잠시 동안 우물쭈물 하였다. 나의 이름은 킴몬드였기 때문이었다. 뒤에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성명의 첫째 글자가 통상 부르는 성이고 다음 글자는 이름이었다고 한다. 펜 양은 올해 23살 나는 신장 5피트에 체중 80파운드를 가진 두터운 렌즈가 달린 안경을 낀 처녀였으며 내가 광둥 비행장에서 떠날 때 흰줄과 무늬가 박힌 무명옷을 입고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흰 양말에 뒤축이 없는 구두를 신은 펜 양을 보고 나는 다만 전설과 같은 동양적인 여성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들이 광둥시를 드라이브할 때 나의 눈에 띈 것은 1940년제 포드였었는데 알고 보니 폴란드인의 근대식 자가용이었다. 펜 양은 나와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그들의 단조한 유행행에 대하여 한바탕의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펜 양은 사실은 중공에서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내가 광둥에서 최초로 들린 곳은 1912년 중국을 세웠다는 손문(孫文) 기념관이였다. 그것은 매우 큰 건물이었으며 천장이 유리판으로 덮인 홀에는 육천오백석의 의자가 있었다.

펜 양이 말한 바에 의하면 때때로 테니스 코트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기념관은 신문 박사의 동상이 서있는 공원입구에 있었다.

다음은 공자묘로 발을 옮겼다. 그러나 옛날에는 공자묘였다는 이 전당은 지금에 와서는 1926년 마오쩌둥이 소장이었으며 주언라이(周恩來)가 강사(講師)였다는 '농민교육연구소(農民教育研究所)'의 유물들을 재생하여 진열해 놓은 곳이 되어 있었다. 나는 마오쩌둥이 사용하였다는 침대, 의자, 식탁 등을 실증이 나도록 노려보았다. 다음에는 '성립(省立) 인민병원(人民病院)'에 잠깐 들린 후 광둥시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갔다. 펜 양의 설명을 들으면 이곳은 1927년 당시 국민당 관군과의 전투에서 팔천 명의 공산당원이 3일 만에 사살된 곳이라고 하며 1948년 중국 국민군의 후퇴 시 폭파되었다는 진주하(眞珠河) 인도교는 그 후 복구되었다고 한다. 광둥시 구경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깐 중단되었으며 펜 양과 이때 비로소 떠나게 되어 나의 계획을 잠깐 실행할 수 있었다.

저녁 8시가 되니 펜 양이 또 찾아와서 노크를 하였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광둥 문화공원으로 산책하였으나 물론 손을 마주 잡고 걷는 것은 아니었다. 불꽃놀이와 증공 시민들의 노랫소리의 밀림을 헤치면서 호텔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자 선뜻 허락하였다. 그 이튿날은 새벽 6시 15분 발 베이핑(北平)행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갔다. 6시경 비행장 입구에 왔을 때였다. 웬일일까? 백여 명의 어린이들이 중국고유의 때때옷을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펜 양에게 나는 너무나 감격하여 "나를 환송해주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행렬이로군."

하고 하죽 웃어 보였다. 그런데 잠시 후 아차! 착각이었구나! 메이데이 기념식에 참석차 베이징으로 향하는 소련간부회의 의장 보로실로프¹⁷⁾ 일행을 환영하러 나온 것이 아닌가,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지나친 착각에 스스로 얼굴을 붉히면서

◇ 마천루(摩天樓), 진흙 탑, 양계(養鷄)

베이징(北京)에서

중공의 본거지인 베이징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진열장이었다. 건축된 지 3년밖에 안 된다는 '첸멘'은 베이징 최대의 호텔이었다. 베이징 시 남방 외곽지대에 있는 M자형의 이 호텔은 중앙부가 8층이고 양쪽 나래가 6층이었다.



이 많은 봇짐으로 기차를 타자면 필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7) Kliment Yefremovich Voroshilov



중국인은 참으로 임기응통성(臨機融通性)이 많은 종족이었다.

이 호텔은 400명을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 매년 당지를 방문하는 수천 명의 친선대표들의 단골집으로 이름난 이 호텔이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는 아연실색하였다. 마개(栓) 하나 제대로 있지 않고 시궁창과 목욕탕은 더없이 더럽고 변기는 흘러나오고 저수기(貯水器)는 넘쳐나며 문짝은 맞질 않고 전등 빛은 희미하였으며 전력부족으로 등화관제(燈火管制)가 강요되고 있었다. 인구 사백만 명을 포용(抱擁)하는 수도 베이징에서 또 근대식 대건물의 7층 침실에서 닭의 울음소리로 잠을 깬다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뒤범벅된 실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토론토에서는 5간(間)짜리 방갈로 밖에 될 수 없는 집안에서 사십여 명의 대세대¹⁸⁾가 콩나물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그것도 수천 년을 두고 살아 나온다. 어두침침한 벽돌 지붕 밑, 환화(喧嘩)¹⁹⁾한 단층방 안에서 그들은 나고 죽어가며 세대가 바뀌고 방문과 마주 보는 안마당에서 양계(養鷄)를 하면서 살아 나온다. 그들은 정부건물이 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들 빈민굴들을 헐어 버리지 않는 한 주위에서 일어나는 황열병(黃熱病)과 같은 건설 사업에도 꿈쩍없이 살아 나갈 뿐이다. 그들의 집안에서나 시궁창 옆에 있는 진흙탕물 보도(步道) 가에서 양계를 하고 있었다.

◇ 기차여행(汽車旅行)-의자(椅子)와 군중(群衆)

안산(鞍山)에서

중공에서 기차를 타면 두 가지 종류의 의자가 있다. 딱딱한 것과 연한 것. 딱딱한 의자는 바닥을 송판으로 깔은 의자이며 연한 것이란 질적으로 별반 다름²⁰⁾없는 것이었다. 중국인이란 정말이지 임기응변적인 종족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살아나가면서 필요한대로 환경을 만든다. 베이징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이것을 선뜻 알아 낼 수 있다. 남녀노유(男女老幼)를 불문하고 역전 포장도로에 번듯이 누워있거나 음지(陰地)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며 때로는 포도(鋪道)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만치 복잡거리고 있다.

하고많은²¹⁾ 이들 군중들이 모두 기차를 기다리는 줄 알았다가는 큰 오산이다.

그저 할일 없이 빈들거리며 노닥거리기는 것뿐이다. 그들이 역전을 노닥거리기 위한 장소로 선택할 이유는 그 곳에는 항상 눈이 번쩍 뜨일만한 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나의 통역으로 따라온 창친셴 여사와 나는 선양(瀋陽)으로 여행할 결심을 하고 역으로 나갔다. 나는 창 여사와 역에 나간 후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격식의 여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힌트를 받았다. 수없는 여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아무렇던

18) 대(大) 세대(世帶)로 큰 가구(家口) 19) '시끄럽게 떠들'을 의미

20) 원문의 틀림을 다름으로 봄. 21) 원문의 '허구많은'은 '허구 많다'를 의미하며 '하고 많다'의 방언임.

이 사람들이 모두 기차 탈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창 여사의 설명으로 나의 선입감은 거꾸로 뒤바뀌고 말았다. 이들은 강철(鋼鐵)²²⁾ 공장들의 노동자들로서 모두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밀려들어오자 우리는 2명의 보안대원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겨우 빠져나갔다. 기차가 완전히 정차하자 승강구에는 보안대원이 와서 승차를 금지하고 다음 차장이 하차한 후에 군중들을 풀어놓았다. 이제는 막을 길 없는 수라장으로 화하는 판이었다. 차창이라는 차창은 모조리 출입구가 되어버리고 팔뚝과 팔뚝이 앞을 향해 휘어들며 어깨와 어깨가 서로 밀고 박고 그야말로 '밀림(密林)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수라장이 되었다. 연령, 성별, 건강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이었다. 누구든지 먼저 앞을 밀고 나가는 자만이 제1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리를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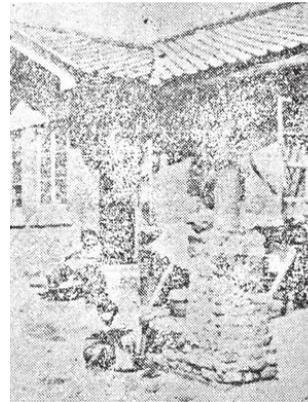
창 여사의 안내를 받아 객차 속으로 간신히 밀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 곳에는 보안대원이 팔을 벌리고 군중들을 막고 있는데 공석이 두 자리 남아 있었다. 결국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대원이 마련해놓은 것이다. 아무런 곤란 없이 나는 창 여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을 수가 있었다. 바로 앞좌석은 어떤 여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들 여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저고리를 풀어 젖히더니 유방을 내놓고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몇 발자국 앞에는 또 다른 여인이 서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은 창 여사에게 그 여자를 불러 내 자리에 앉히면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창 여사는 반대하는 눈치였다.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만일 그 여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다면 옆에 앉은 다른 남자들도 체면상 여인네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되며 그렇게 되면 공연히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사게 된다는 것이다.

◇ 흑 때려다 흑 붙인 여성권리(女性權利)

충칭(重慶)에서

흑독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50년 제정된 결혼법과 여성들에게 근로상 남자와 동등의 기회를 부여하며 남성과 같은 수준의 노임을 받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규에 의하여 새로이 찾은 여성권리에 의하여 당연히 예측된 일이었다. 중공내의 많은 도시에서 여성들이 전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베이징에서는 때때로 여성들이 시멘트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장에서는 거대한 기중기를 운전하고 있으며 광산에서는 기계수선과 전선가설(架設) 공사를 한다. 여자 전공들이 전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조금도 우스울 것 없다. 물론 대다수의 여성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갈고 뿌리고 거두는 일 때까지 여자의 손이 안가는 곳은 없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법규에 규정된 대로 그들은 남자와 같은 몫의 일을 하지 않으면

22) 원문의 망철(鋼鐵)은 강철(鋼鐵)의 오기임.



수많은 근대식 후생(厚生) 주택이 서고……정부는 말하나, 부엌 한 칸(間) 없는 조잡(粗雜)한 후생 주택이다. 푸순(撫順) 노동자 아파트

그만큼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으로 남녀 농부가 똑²³⁾ 같이 농지를 분배받고 법률이 부여한 여성의 자유로부터 오는 혜택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와 똑²⁴⁾ 같은 몫의 노동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공의 서북부 산악지대에 있는 난주(蘭州)에서는 기다란 죽장(竹杖)의 양쪽 끝에 각각 물통을 달고 시가지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여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중학생 정도의 나이 밖에는 안 되는 여성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백발이 성성한 50대 노인이었다.

충칭 비행장은 시외에 있는데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산허리를 로프 모양 몇 번이나 꼬불꼬불 돌아서 겨우 가게 되는 것이다. 몹시 울퉁불퉁한 이 산골 길가에는 커다란 바윗돌을 해머로 깨어서 자갈로 만들고 있는 중공여성들의 가없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충칭 쪽으로 접근하여짐에 따라 바윗돌 부스러기는 길가에 곱게 깔려 있었다. 포장공사는 시내방향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듯 하며 수없이 잘린 하나하나의 돌덩이가 햇빛을 받아 마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상상하는 기념물과도 같이 반짝이고 있었다.

◇ 줄어드는 푸순(撫順)의 채탄량(採炭量)

푸순(撫順)에서

세계 최대의 노천석(露天石)탄광으로서 이름난 푸순 탄광들은 1914년부터 발굴되고 있다. 마침 그 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1만 6천 명의 광부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으나 다만 2천 명만이 작업을 하거나 니판암(泥板岩) 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탄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난 8년 동안 고도로 발전된 기계문명에도 불구하고 중공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채탄량은 일본제정시대(帝政時代)보다 조금도 증가되지 않고 있었다. 아마 광산 사무국장이 작년도의 채탄량이 일제시의 그것과 별 차이 없는 384만 톤이라고 솔직히 말할 것은 그들의 비밀을 폭로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 소식통은 푸순의 채탄량은 '현저(顯著)히'(이 말은 중공정부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증가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설명을 들으면 역시 간단하고 합리적이지는 하였다. 탄광의 깊이는 몹시 깊어졌기 때문에 석탄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이다.

23) 원문의 '똑'은 '똑'으로 보임.

24) 원문의 '똑'은 '똑'으로 보임.

◇ 파리, 모기, 바퀴

충칭(重慶)에서

신생 중공은 애국적인 건강운동은 시가지에서 파리를 구축(驅逐)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기를 좋아한다. 여름 한철 베이징의 파리채는 파리와 모기에 대단히 부단한 전쟁을 계속한다. 이곳 충칭에는 파리, 모기와 같이 바퀴(蟑螂)²⁵⁾ 등은 특히 생식력이 강한 곤충들이다. 모처럼 중공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제공된 호텔 속에 불유쾌한 곤충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은 적지 않은 슬픈 사실이 될 것이다.

x

충칭에서 밤이 되면 적적하기 말할 나위 없다. 유일한 오락은 영화(映畫) 구경이었다. 이곳에서 나와 같이 행동하게 된 통역 쿵룽우의 안내로 영화에 가기로 하였다.

인구 이백만 이상의 대도시인 충칭에는 불과 20개의 영화관이 있을 뿐이었다.

좌석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전에 입장하여야 한다. 입장료는 30펜(12센트)²⁶⁾이었다. 좌석을 미리 차지하지 못한 관객들은 밑바닥에 앉거나 뒤편에 서서 보기 마련이었다. 이날 우리들이 본 「살인(殺人) 이야기」라는 소련영화는 중국어로 녹음되어 있었으며 제2차 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야기였다.

나의 주위에 앉은 중국인들은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팔러 다니는 행상 아가씨들로부터 무엇인지를 사먹고 있었다. 벨이 울린 후 5분 후에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차주(次週)프로로 소개되는 소련영화의 예고판이었다.

예고판이 끝나니 뉴스영화였다. 티베트의 봄, 중(中), 일(日) 축구시합 등이 소개되었다.

충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동안 깊이 쌓였던 권태를 풀어 주는 청량제와도 같았다. 동물처럼 일하는 인간군을 본다는 것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나의 눈을 피곤케 하였다.

나는 충칭에서 보고 느낀 것을 회상해 보았다, 지정 오물처리소와 주위에 흩어진 오물, 이 오물들을 맨손으로 정리하는 여인, 어린아이들이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담배꽂이를 쥌는 모습 등등 주위 모은 담배꽂이는 그들 부모에게 가지고 가서 다시 재생하여 헐값으로 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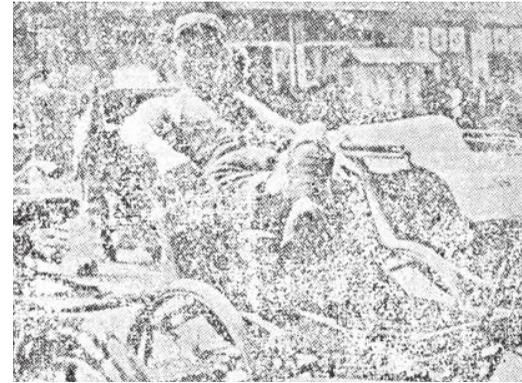
◇ 과다(過多)한 인구(人口)에 과소(過少)한 식량(食糧)

난징(南京)에서

내가 난징에 도착한 것은 붉은 중국에 들어온 지 68일째 되는 날이었다.

25) 원문의 바퀴 한자는 蟑螂 보임

26) 펜(分)



베이징(北京)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진열(陳列)장이다

그동안 이 나라의 인구는 230만 명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찌 구니없는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엄연한 현실임에는 어찌하라. 내가 처음으로 죽의 장막에 침입할 때 이 나라의 인구는 6억 3천만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내가 들은 인구는 6억 5,300만 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타이완이라던가 그밖에 해외에 있는 화

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 나라의 인구는 매년 캐나다의 총인구와 비슷한 1,632만 5천명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인구증가에 관한 이야기를 난징대학 지리학과를 담당하는 선펠완 교수로부터 들었다. 그는 이 대학에서 중국인구 문제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유능한 교수다.

중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인구조사는 1953년이었다. 이 통계숫자는 정확한 것이었다. 그 당시의 총인구수는 6억 193만 명이었는데 오늘의 인구에 기준을 둔다면 3년 동안에 5천만 명이 증가된 셈이다.

1953년 통계에 의하여 매 천명에 20의 비율로 증가되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현재 25로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의 인구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금년 봄 중국의 인구 수용능력은 8억이라고 선언한 선 교수의 의견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포화상태에서 초과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를 도처에서 목격하였다.

나의 개인적인 추산과 도시민과 농민협동조합의 성명(聲明)을 종합 검토해 보면 공산 치하에 있는 아들 중국인민의 30퍼센트가 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정권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산업기지를 건설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들 인민의 입에서 밥을 빼앗아가며 공업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양곡을 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6억 중 2억의 중국인이 무엇 때문에 굶주림에 아우성치고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증언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공은 이제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골통을 싸매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도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은 홍수의 해였다. 미식(米食) 중국인들의 최대의

꼭창인 남부 중공은 지금도 물바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956년도의 연속되는 대홍수로 이 나라의 면화, 미곡 생산량은 이분의 일로 격감되었다.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인간자체에 있다. 수많은 피를 흘린 중국의 토지개혁의 결과 마오쩌둥 자신의 거듭되는 훈계와 설론(說論)에도 불구하고 중공인민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새로운 중공의 지주에게 과거보다도 더욱 혹독한 노동을 제공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마디 말할 것이 있다.

1949년 이전에 인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공산당이 언필칭(言必稱) 부르짖던 토지개혁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약탈하고 국민에게 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부는 물론 그들의 아내에게까지도 한 토랑의 땅덩이가 차별 없이 분배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이들 인민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끈기 있고 무언의 경제적 압력은 그들로 하여금 소위 국영농장에 그들의 농지를 뺏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결과 오늘날 중공의 97퍼센트의 개간된 농지는 협동 농장화하게 된 것이다.

물론 한주먹의 농지도 중공인민들의 개인소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공정부는 단 한마디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농민들이 자원으로 국영농장에 참가하고 있다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농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나 국영농장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농민들이 개인적 탈퇴한 후 원래의 개인농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땅을 빼앗기고 만단 말인가?

비단 중공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농민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먹고 살아갈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나라에는 그들이 필요한 식량 이상으로 수확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의욕을 복돋아 주는 아무런 자극제(刺戟劑)²⁷⁾도 없으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많은 식량을 정부에 바쳐야 한다는 의무뿐인 것이다.

중공이 산업건설용 자재를 얻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차관을 얻는 유일한 수단은 그들의 양곡을 수출하는 것이다. 작년도 그러했고 그 전에도 그렇던 것과 마찬가지로 흉작일 경우에 그들의 산업화 계획은 잠시 동안 전진을 멈추고 정체하지만 이것은 다만 그중 3분의 2 이상이 곡물생산에 종사하는 6억 3천만의 인민들로부터 곡물을 약탈하는 시간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 모순(矛盾) 배제(排除)와 세뇌(洗腦)

27) 원문의 자극(刺戟)은 자극(刺戟)과 같음.

베이징(北京)에서

최근 팽배하는 정풍운동(整風運動)을 통하여 중공 정권은 그들 자체의 당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이 나라 정치체제의 주간(主幹)을 이루는 간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계를 하고 있다.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모순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공리공론이나, 주관론, 혹은 관료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당 지도 분자들

이 보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혁명 과정을 위협하는 요소인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간부들이 하나의 정치적 특권 계급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즉 핵심 분자인 것이다. 중공에서 당 간부란 것은 당무(黨務)에 헌신한 인물이라. 그들이 공산당의 척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자들은 요즘 이들 간부급 역시 모든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필수물인 관료주의적 경향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다. 내가 만난 공산당 중앙선전국(中央宣傳局) 부국장인 조양은 이러한 경향을 세뇌로서 막는다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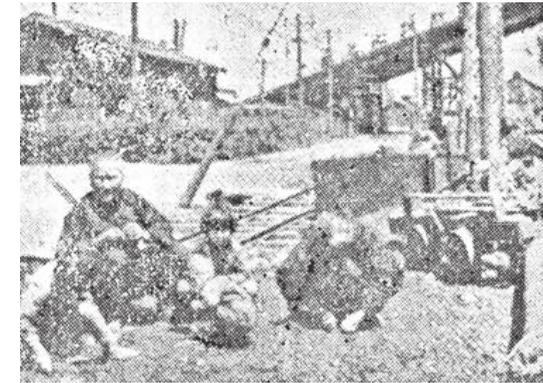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씻는다. 그런데 우리의 두뇌는 왜 씻지 못하는가? 우리의 두뇌는 변화하는 세계 풍조에 맞추기 위하여 반드시 세척되어야 한다.”

◇ 신앙(信仰)의 장래(將來)

상하이(上海)에서

1949년 전까지 중국의 반수이상의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던 세계적인 대도시 상하이였지만 오늘날의 상하이는 옛날의 그 모습을 찾아 볼길 없는 평범한 도시이다. 시내 도처에 용립(聳立)한 마천루(摩天樓)와 같은 공업시설도 이제는 모두가 주택지로 개조되었으며 돌아 가는 원동기(原動機)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던 고층건물 유리창에는 회고 검은 세탁물이 마치 깃발처럼 펄럭거리고 있다.

중공이 주장하는바 상하이는 상업도시로서의 역할을 다시 찾았다는 말은 어느 모로 보아도 수긍기 어려운 허위선전이었다. 상하이 최대의 수로이며 주요 상가인 황포강(黃浦江) 상의 활동은 명백히 침체된 그대로였다. 한때 연간 1만 척의 외국선박이 번잡을 이루던 이곳 상하이항(上海港)에는 연간 683척의 외국선박이 드나들고 있는 한적한 항구로 몰락하고 말았다. 상하이에선 대규모의 신설비행장이 있다. 위압적인 커다란 비행장 은색으로 번쩍이는 비행장 건물 등 그 곳에는 2개소의 대합실이 있다. 대합실 위층에는 또 하나의 화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나라는 이렇게 석탄 부스리기까지 좁게 한다(무순(撫順)에서)

한 대합실이 있다. 내가 비행장에 도착한 날 여객들의 하물을 취급하는 노동자라곤 3명밖에 없었다. 2층의 광대하고 화려한 대합실의 용도는 7명의 노동자들이 둥글게 모여앉아서 부지런히 카드놀음을 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중공 내에서 허용되는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알아볼 양으로 4개 처의 교회를 방문하고 2시간에 걸친 회담을 하였다. 이 회담에는 2명의 주교를 포함한 5명의 교회 지도자가 참석하였다. 나는 2명의 목사를 포함한 일단(一團)의 뉴질랜드 및 호주(濠州)인의 인도를 받아 이 회의장에 나갔다.

그때 동석하였던 호주인 노동조합의 일원인 스미즈 씨가 나에게 중공정부는 30년 내지 40년 내에 모든 교회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며 이미 중국 청년들은 종교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자, 옆에 앉았던 중국 감리교회 목사인 카웅 씨는 즉석에서 반대하였다.

“그것은 옳지 못한 주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더욱 좋은 대우 등 받는 날을 매일 기다립니다. 나는 곧 이곳에도 복음전도관이 생길 줄 압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양식에 대한 진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기도를 마치고 카웅 목사의 안내로 교회견학엘 나갔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중국인이나 외국인인 아니고 다만 인간일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캐나다에서 건너온 장로교 목사 더키 씨를 돌아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한마디 물었다. 어깨를 으쓱 올리면서 말한 그의 대답은 역시 간단하였다.

“한때는 그 곳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었지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 이상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20 내지 30년간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는 교회는 없어지지요.”

**양주상표(洋酒商標)로 「스푸트니크」
미(美) 테네시 주(州)서 허가(許可)**

미국에서 만든 100% 순곡주(純穀酒) 위카주(酒)의 상표로 ‘스푸트니크’를 사용해도 좋다고 테네시 주는 동 상표등록을 신청해온 더블스프링스 양조회사에 허가를 내주었다. 그런데 동 상표에는 다음과 같은 멋진 구호가 붙어 있다. ‘공산주의 동정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라.’

X X X

**미(美) 첫 위성탑승(衛星搭乘) 자원(自願)
28세(歲)의 서반아(西班牙) 시청직원(市廳職員)**

당년 28세의 서반아 카라타유드 시청직원인 칼메요 알티가스 군은 서반아 주재 미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어 미국이 발사할 인공위성의 첫 번째 탑승원이 되기를 자원하였다고 한다.

미국인(美國人)의 사회생활(社會生活)

국민성(國民性)을 중심(中心)으로

외지(外誌)에서

1. 인종적(人種的) 구성(構成)

미국인의 인종구성은 실로 복잡하다.

천차만별의 문화를 가진 각색각양의 종족이 해마다 무수히 이주해 오는 이 미국은 마치 대장간의 쇠도가니처럼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쇠붙이를 용해하여 한 덩어리의 쇠못치로 정련하는 것처럼 미국은 또한 이들을 한데 뭉쳐 한 사람의 미국인으로 한 개의 미국문화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인들을 자기 나라를 비유하여 ‘멜팅 팟’²⁸⁾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장간의 도가니란 말인 것이다.



미국의 인종별 인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백인 1억 670만

외래(外來) 백인 1,140만

흑인 1,200만

기타 인종 58만

기타 인종 중 33만은 아메리카 인디언이었다. (이상의 숫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인구수이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본래의 백인계 미국인 역시 잡다한 인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개척의 역사를 잠깐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남부에 있는 버지니아 주와 그 부근, 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제주(諸州)를 중심으로 하는 뉴잉글랜드 지방은 영국인이 독립(獨力)으로 이주해 와서 개척한 곳이다. 현재의 뉴욕은 원래 화란(和蘭) [네델란드]의 영지였다. 이전에는 뉴욕을 뉴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으며 그밖에 근교에도 화란식 명(名)이 남아있는 곳이 많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유명한 윌리엄 펜이 개척한 땅이며 델라웨어 강 유역은 독일인이 이주해 와서 독일인촌을 만들었으며 아직도 이 지방에는 독일계가 많다. 프린스턴대학 부근을 관류(貫流)하는 강명(江名)에 스크키르라는 이국적인 명칭이 남아있다. 플로리다 일대의 남방제주는 원래 서반아[스페인] 령이었다. 미서(美西)전쟁 시에 미국의 영토로 되었으며 지금도 서베너라든가 펜서콜라 등의 이름이 남아있다. 시카고로부터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

28) melting pot

올리언스에 이르는 일대의 비옥한 평야는 프랑스 령이었으며 루이지애나라고 불려졌다. 나폴레옹이 전비(戰費)에 궁한 나머지 미국에게 매각한 땅이다. 지금도 루이지애나라든가 시카고 드 모양, 뉴올리언스 등등의 명칭이 남아있다.

태평양 연안의 남부 제(諸)주와 뉴멕시코, 텍사스 각 주 등은 서반아 령으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페드로 등은 서반아 명칭이다. 뉴멕시코 주의 일부지방에서는 지금도 서반아어가 통용되고 있다. 북부, 서부 등지는 이상 열거한 각지에 거주하는 이국인의 집단에 의하여 개척되었다. 이러한 역사상의 제(諸)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쉬이 미국인의 인종 구성의 복잡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색인종은 오늘날 완전히 미국화되고 일체화되었다. 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화란[네덜란드]계였으며 맥아더 장군은 스코틀랜드계, 콜린스 장군은 아일랜드계라는 사실은 흥미 있는 것이다. 외래인종이나 유색인종의 대부분은 도회지에 거주한다. 대표적인 도시는 뉴욕이다. 이 곳에는

원주(原住) 백인 480만

외래 백인 200만

흑인 및 유색인종 47만

이 혼재해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인도 있을 것으로 본다.

2. 미국영어(美國英語)

이러한 인종적 혼합은 무엇보다도 국어사용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이주해 온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영국인이 이렇게 말한바 있다.

“미국에 이주하게 되어 우선 가재도구(家財道具)를 포장해서 발송하기로 되었다. 그때 마침 미국친구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내용인즉 미국의 부두 노동자들은 매우 손이 거칠기 때문에 포장이 불완전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서 포장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영어가 완전히 미국영어였으므로 아무리 읽어보아도 나에게서는 미국의 부두노동자는 고의로 하물을 파손함으로 특히 조심하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았으므로 귀중한 하물은 가죽끼리 나누어서 들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러한 예는 미국영어가 본격적인 영어로부터 이탈된 실례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특이한 인종구성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상이한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가진 이민족이 각 방면으로부터 군집하여 미국이라는 광대한 지역에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영어를 공통의 언어로 하였지만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자기어(語)의 영어로 고쳐 사용한다는 것은 별로 불가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류(流)의 영어도 인쇄문화의 현저한 발달, 교육시설의 완비 등 통일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어 새로운 국어가 형성되고 있다. 뉴욕은 미국에 들어오는 최대의 관문으로 이곳에는 이(異)인종의 잡거(雜居)로부터 재래(齎來)되는 문화의 착종

(錯綜), 혼란이 가장 현저하게 보이는 곳이다. 이러한 단적인 표면은 용어의 격심한 혼란, 퇴화, 변형 등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은 새로운 창조로서의 전진과정으로서 이러한 현상 자체에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자의 스커트를 세탁소에 맡기고 일주일 후에 찾으러 갔었는데 세탁집 주인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 물품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스커트의 빛깔, 스타일 등을 상세히 말하여 주었더니 그제야 주인은 “스커트”라고 말하기에 ‘스카프’로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커트가 아니라 ‘스코이트’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진화, 오용, 변형은 무수히 있음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이인종의 혼재로 성립된 미국의 일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잡 속에서 발전적인 새로운 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한 것이다.

3. 인종적(人種的) 편견(偏見)

‘멜팅 팻’속에서 정련(精煉)되는 이(異)인종이 그중 적지 않은 마찰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미국에 이주해 와도 선주자(先住者)의 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민족들은 동족이 한 개 지점에 집결하여 특이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다. 뉴욕에는 차이타운(중국인가(中國人街))를 비롯하여 이태리인(伊太利人)가 유대인(猶太人)가 등등이 밀집해 있어서 상당한 변화기를 이루고 있으며 125번가를 중심으로 한 하렘은 흑인들이 많은 지구로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인종적 차이는 미국정부의 전통적인 인종차별폐지운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인종적 편견 내지는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동일계통의 인종 간에도 육체적 문화적 유사성으로 그 차이는 비교적 원만하지만 계통이 다른 인종 간에는 차별색이 상당히 농후하다.

스칸디나비아 제국, 영국 스코틀랜드계 국민은 미국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동화가 빠르고 완전하지만 지중해계의 인종 특히 남구 이태리 서반아인들은 동화가 늦다.

유색인에게는 동화란 것은 없다. 앞으로 3세대나 4세대 내에 그 현저한 육체상의 차이를 말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이러한 편견은 어디까지나(일반적인 경향으로서) 개개의 미국인들은 그야말로 친절하며 인종적 편견이란 손톱 밑에 때만치도 없다는 것은 해방 후 수많은 한국인이 도미(渡美)하여 그들과 직접 생활하는 가운데 쉬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공군 장병들이 미국에서 교육 받는 중 보고 듣고 몸소 체험한 바에 의하여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총인구의 약 1할은 흑인이다. 흑인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하등생활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면에서 대부분이 소질이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 본래의 재능은 백인이나 황색인종과 별 차이 없으며 어떤 종류의 학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백인을 능가하고 있으며, 대학성적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한다. 이러한 편견은 남부에 있어

더욱 심한 것이며 최근에 있어서 미국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바 있는 리틀록 사건²⁹⁾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회적인 차별이 별달리 법률적 정치적인 차별대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미국정부와 개개의 미국인의 공명정대하고 인도주의와 정의의 관념에 입각하여 점차 서서히 평등한 지위로 개선될 것을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

4. 친절심(親切心)

미국인의 생활을 활발하고 평화로우며 유쾌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는 틀림없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물자가 풍부하고 그 풍부한 물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우수한 기술 등이 가장 으뜸가는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일상의 의식주 상에 충일(充溢)³⁰⁾되어 세계에서 가장 유복한 인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 기반에서 그들의 생활을 일층 윤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의 특징으로 되어있는 친절심일 것이다. 이러한 관대성, 혹은 타인에게 표시하는 친절심을 다른 나라 국민보다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나 인간애라던가 박애정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문제를 좀 벗어나서 사소하면서도 남의 눈에 띄이지 않은 적은 친절이 많은 것이 그들 미국인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어떤 학생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연속소설낭독을 매일 듣고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 이 학생이 수일간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학생은 자기의 어머니에게 대신 들어 주도록 부탁해 두고 여행이 끝나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의 소설내용을 어머니로부터 듣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깜빡 잊어버린 곳이 있었다. 할 수 없이 이 어머니는 방송국의 소설낭독계에 문의하였다. 이 방송계원은 “그것 참 안됐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못 들었다는 몇 줄을 전화를 통하여 읽어 주었다고 하는 예이다. 참으로 대수롭지 않은 친절이면서도 좀처럼 이행하기 어려운 친절심인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뉴욕에 처음으로 간 어떤 동양인이 미국의 ‘라이 노라이프’ 회사에 용건이 있어 편지를 썼다. 수일 후 반신(返信)이 왔는데 그 사람의 편지의 수취인은 ‘라이 노라이프’의 제작자가 아니라 ‘마켄셀라’ 회사라는 것을 그 회사의 주소까지 친절하게 첨부하여 보내왔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적은 곳까지 빈틈없이 손이 뻗치는 미국인의 친절심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5. 또 하나의 그 무엇

미국에서의 생활을 이렇듯 유쾌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요소에는 물자와 친절심 이외에 또 하나의 그 무엇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 아니라 그 무엇이라는 것이 생활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의 진보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29) Little Rock Crisis
30) 가득차서 넘친다는 의미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있는 ‘파라마운트’ 영화극장은 미국 유수의 장려(壯麗)한 극장이다. 그러나 이 극장의 자랑은 건물의 장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내의 구석구석에까지 거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먼지(塵) 하나 없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간과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항상 긴장해 있음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당황치 않은 그들의 국민성의 일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야말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건전하고 강경(強硬)한 정신생활의 일단인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서비스를 단순히 기업자들의 경쟁심이라고 규정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뉴욕의 ‘자이언트’국의 야구장인 ‘포그라운드’는 전차의 종점이였다. 이 곳에는 수조(數條)의 전차 대피선이 있어서 야구시합이 있는 때 관객을 싣고 온 상당의 전차는 대피장에 대기한다. 시합이 끝나면 즉시 이들 전차가 운전을 개시하여 수만의 군중들을 10여분 후에는 거뜬히 처리한다고 한다. 이러한 예를 우리나라의 그것과 대조해 보면 우리의 그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물론 여기에는 풍부한 물자 따라서 전차회사가 예비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유리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밖에 또 자기의 맡은바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줄 알고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전히 수행하려는 그들의 평시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1면에서 계속)

헌데, 우리 국내에서는 어떠한가? 아직도 ‘오천년문화국’이요, ‘동방예의지국’이요, ‘우수한 민족’으로 자처하고 정치가나 문화인이나 동료끼리 뜯고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자아도 취도 이만큼 되면 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건대 ‘오천년문화국’이나 ‘동방예의지국’이나 ‘우수한 민족’이란 말은 우리 민족이 외적의 침해도 하도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국민의 용기를 북돋아 줄 양으로 선인들이 자주 쓰던 말이 아니었던가 나는 생각한다.

민족이 해방되고 한 국가의 주인이 된 우리는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외우고만 있을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가 ‘오천년문화국’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이 되고 ‘우수한 민족’이 되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자만하는 마음만이 앞선다면 이는 선인에 대한 인사가 아닐뿐더러 우리 민족의 독립성조차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나는 느꼈다.

일제 시에 나는 우리 민족이 아주 ‘된 민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독립한 한다면’ 했다. 독립이 되고 날이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히짐을 볼 때 나는 ‘이건 틀렸구나! 했었고 금반(金般)에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밖에서 바라보고 나는 처음으로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근본인식이 틀렸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음을 나는 고백한다. (끝)

☆ 엄청난 부상위자금(負傷慰籍金)

작년 미대통령 선거 시에 보행 중 선거간판으로 부상을 당한 한 이태리부인이 그 위자금으로 2만 7천 5백 불이란 대금을 받았다. 그리고 동반한 그의 남편도 7천 5백 불을 받게 되어,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부부는 만족한 가운데 이태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다. 기화(奇禍)가 변하여 일약 2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손에 넣은 사람은 나폴리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람포 부부인바, 그들은 마침 그때에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어떤 선거(船渠) 부근을 통행 중 갑자기 일진(一陣) 광풍이 불어 그곳 아파트의 옥상에 걸려있던 선거간판이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이에 승소하였다는 것이다. (AP)

☆ 춤 때문에 징역(徵役) 17개월

미국 재즈댄스, 로큰롤이 소련, 중공을 비롯하여 각 공산국 제(諸)국에서 대유행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거니와 체코에서는 이 로큰롤을 춤춘 한 소녀가 지난 31일 마침내 반사회적행위란 죄명으로 17개월의 징역이 언도되었다고 한다. 이 소녀는 지난주일 프라하의 어떤 대(大)레스토랑이 개최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놀라운 파티'에서 5인의 젊은이를 상대로 그 본직도 따를 수 없는 놀랄만한 댄스를 피로(披瀝)하였던 것. 이 파티에서는 결국 젊은이 28명이 체포되고 연주자들은 금후 5년간 연주금지처분을 받았다.

☆ 구명(救命)의 행운(幸運)만남 남극견(南極犬)들

소련의 인공위성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우주견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동정을 집중하고 있거니와 이번에는 남극지방에서 눈썰매를 끌던 개들이 이로 인하여 마침내는 사살을 당할 운명을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남극의 뉴질랜드 대(隊)는 1958년 국제 지구관측년도가 끝날 때 그들이 부르고 있던 썰매견 54마리를 모두 사살해 버리고 올 예정이었는데 전미(全美) 견족복지협회(犬族福祉協會)와 그 밖의 동물애호단체와 또는 개인들로부터 맹렬한 항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살계획을 중지하고 남극으로부터 이 개들을 그대로 데리고 귀환하기로 하였다.

☆ 유색인종(有色人種)의 비굴(卑屈)한 배역(配役)

킹스톤 시의회는 유색인종이 비굴하고 타락한 역으로만 나오는 모든 영화는 상영 금지케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 의회는 영화작자들에게 호소하였다고 한다.

만화가(漫畫家)란

김용환(金龍煥)



해방된 지도 벌써 십 수 년이 넘었으며 우리들의 각 분야의 문화 예술도 놀랄만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예술가들 중에는 일제시대부터 활약하던 대선배들도 있지만 독립 후에 새로 배출된 유능한 신인들도 많다. 이러한 신인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것이 우리 만화계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과거 일제시대에는 다른 예술분야 즉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은 어느 정도 일제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만화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을 정도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하여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후부터는 갑작스레 만화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왔으며 만화를 그리는 사람도 별안간 그 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만화가들이 미리부터 해방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인가. 적어도 한 예술분야에서 그것으로 밥을 먹을 정도의 엑스퍼트가 되려면 수십년 이상의 연공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만화가들이 많이 쏟아졌는가,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소위 우리나라의 만화계와 만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만화는 미국이나 기타 외국에서는 최고 예술분야의 하나로 되어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만화는 아직도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장난감 그림'이라는 해석이 붙을 정도 이상으로는 별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하기가 현재 만화라고 하면 서투른 데생과 내용으로 그려있는 어린이 만화책 이외는 매일매일 신문지 문화면 한구석에 네 조각으로 연재되는 약화정도의 만화밖에 볼 수 없으니 그 이상의 인식을 일반이 가질 수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

어른들이 봐도 진짜로 재미있는 만화가 나오기에는 지금의 우리들의 만화계는 너무나 유년기에 있으며 현재 활약하고 있는 소질 있는 만화가들이 더욱 분발 공부하여 4-50세 이상이 넘었을 때야 비로소 실현 될 줄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편집자의 주문인 '성인(成人)이 보는 만화와 그 해설'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만화가는 어느 정도의 소질과 교양과 노력이 필요한가를 간단히 적어 보겠다. 독자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알음으로써 만화에 대한 상식도 얻을

수 있으며 작품도 평할 수 있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로 만화가의 그림을 배워 완전한 화가가 되어야 한다. 만화가 소설이 아니고 회화예술인 이상 어디까지나 화가라는 의식 밑에서 그림으로써 그의 구상을 표현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매일 신문지상으로 보는 연속만화를 보면 천편일률로써 그 변화 없는 그림은 가령 노래하는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늘 같은 멜로디로써 레퍼토리의 수도 일정하고 어떠한 신곡을 불러도 늘 어디서 들은 듯한 기분을 일으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기(畫技)가 부족한 이런 만화는 항상 인물의 행동범위가 일정하여 참신한 기분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럴수록 그림으로써 표현해야 할 것을 대사에 의지하는 수가 많으니 만화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우수한 것이다.

그리고 기상천외한 상상력이 풍부해야 하니 만화가만큼 판타지가 필요한 직업은 달리 없을 것이다. 신문에 가끔 나는 사회시평 같은 만화도 너무나 판타지가 빈곤하여 신문 아랫단에 매일 일단으로 나는 단평 '휴지통'이나 '신호등' 따위의 삽화 같은 감이 많다.

물론 만화는 액추얼리티가 절대 필요하여 그때그때의 사회현상을 포착하여 만화화해야 하지만 그 각도가 보통사람과 같아서는 만화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과연 이런 각도로도 풍자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신기함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두뇌의 회전이 기민해야 하며 치완된 두뇌의 소유자는 관찰을 생명으로 하는 만화가에게는 곤란한 일이다.

다음은 교양과 노력이 필요한데 제아무리 천재적인 만화가라 할지라도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자기 눈과 두뇌 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이다. 항상 각 방면의 전문가와 부단히 접촉하여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만화를 그리려면 정치의 움직임을 민감히 알고 그리는 만화와 그저 남에게 이야기만 듣고 그리는 만화와는 박력이 다를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또한 만화가의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정신이 많아야 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부패 모순상은 많은 것인데 이런 것을 후버내어 통렬히 풍자하는 것이 역시 만화가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회의 모순과 부패가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독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분노 이것을 만화가의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취재하여, 보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케 하거나 혹은 포복절도할 수 있는

만화를 만들되 너무나 소시민적이고 미온적인 것을 피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반성할 것 다시 말하자면 자기 부정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자기부정은 예술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연재만화에는 반드시 각자의 주인공이 있으며 이 주인공은 누구나 친할 수 있는 성격이 뚜렷한 인물로 택되 보는 사람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는 캐릭터를 창조해야만 되는 것이다.

최후로 만화는 저널리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저널리즘을 떠나서 만화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년기에 있는 우리 만화계는 현재 저널리즘에 따뜻한 이해있는 보호 육성과 자주성 존중이 필요하며 그들의 구미대로 미성년을 혹사한다면 완전발육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만화계도 벌써 십년이란 세월을 자라났으니 이제 머지않아 유년기를 거쳐 변성기에 이를 것을 알려두는 바이다.

다음에 게재한 4매의 정치만화는 필자가 영자신문 The Korean Republic에 그린 것이다.

- (1) 침략자의 낙인이 찍힌 중공을 베트남과 한국이 유엔 가입을 못하게 발로 차내는 것 (멸공(滅共)의 선봉(先鋒)인 우리들)
- (2) 인공위성을 미국에 앞서 날린 소련이 다음은 인도(印度)를 자기들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것을 계획한 만화 (다음에 날릴 인공위성)
- (3) 이번에 다시 일어난 폴란드의 학생의거(學生義學)를 취급한 것인데 자유진영이 소련에게 '폴란드 봉기의 편지를 한 대 먹이는 것 (때릴수록 효과는 난다)
- (4) 소련의 무력침략을 풍자한 것으로 전쟁의 신이 앞장을 서고 일반백성들로 구성된 군인을 채찍질하여 몰아내는 공산지도자들을 후방에 그린 것이다. (자유진영을 두려워하는 원수들)

멸공(滅共)의
선봉(先鋒)인
우리들



때릴수록
효과는 난다



다음에 날릴
인공위성



자유진영을
두려워하는
원수들

신민법(新民法)이 지향(志向)하는 것

장경학(張庚鶴)

1. 서언(序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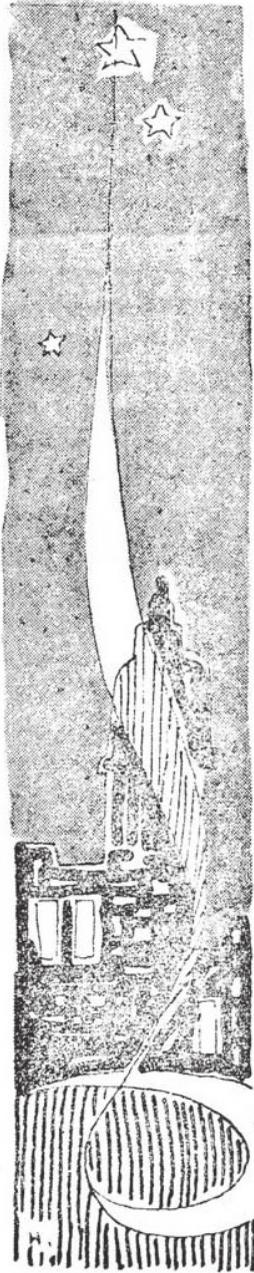
입법은 혁명에 대신하는 중대성을 갖는다. 사회발전에 있어서 혁명은 폭력으로 감행되는 실천행동인데 반하여 입법은 지상(紙上)에 쓰여진 계획서이며 그것의 실행을 후일에 숙제로 남겨 준다. 공산혁명이 무력혁명의 표본이라면 민주국가의 입법은 사회개혁의 계획서라고 하겠다. Max Weber가 지적한 것처럼 근대시민법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을 위해 불가결의 법적 장비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만인은 상인으로 나타나며 만물은 상품의 레테르를 붙이고 교환시장에 투입되며 교환가치가 그 교환의 전제로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작용되는 이윤추구의 give and take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적소유, 계약자유를 보장하는 근대적 성문법질서(成文法秩序)의 계산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의 신민법의 제정과업은 현(現) 단계의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의 창설일 뿐 아니라, 또 근대사회의 보편타당성을 지닌바 민주주의적 법규법체계를 확립하여 놓고 우리의 현실생활을 그 수준에까지 따라오도록 최촉(催促)한다는 2가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는데, 특히 후자의 임무는 한국에 있어서 권력에 기생하고 투기에 급한 정치기생적(政治寄生的)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봉건적 계층제도에 예측하여 인간 이하의 형편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적극성을 갖는 중대과업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는 이미 그 제15조에서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행사는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25조에서는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그 제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여 성



별에서 오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3개조는 추상적인 원리를 양언(揚言)한데 불과하다. 그 원리에 의거하여 사유재산제도 및 가족생활질서의 양대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혁의 명세서를 꾸며야 할 것인데 그런 요구를 실천한 것이 곧 이번의 신민법의 편찬사업이다.

미국처럼 자본주의경제가 쉽사리 발전하고 기반사회의 민주화가 전진하고 가족생활의 근대화가 법의 매개를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수행된 사회에 있어서는 입법의 문제는 앞선 경제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 충족하다는 소극성으로 만족하기도 하겠지만 이와 달라서 한국과 같은 후진사회에 있어서는 입법개혁은 곧 생활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더구나 근대시민법으로서의 민법은 시민의 일반재산생활과 가족생활의 2대 영역을 규율하는 광대한 법역(法域)을 차지하는 법률인 만큼 그것을 개혁한 이번의 입법사업은 고대 로마 황제의 Justinianus 황제의 corpus juris civilis 로마 법대전의 제정, Napoleon의 Code Napoleon 불란서민법전의 제정(1804년), 독일의 Bürgerliches Gesetzbuch 민법전의 편찬(1896년) 1907년의 스위스(瑞西)민법 schweizerliches zivilgesetzbuch 및 1911년의 스위스 채무법 Obligationenrecht의 제정, 그리고 민국18년 내지 19년간에 이루어진 중화민국 민법의 제정과 함께 세계 민법 사상에 기념할만한 금자탑(金字塔)의 하나라고 하겠다.

또 신민법은 제25세기의 후반기에 이루어진 최신의 입법으로서 20세기에 있어서 발전한 법률문화의 성과를 남김없이 섭취 소화하면서 편찬했으며 서양적 사회의 법리론과 동양적 사회의 법리론과의 가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시할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럼 신민법이 지향하는바 내용은 어떤 것인가?

2. 법률사회학적(法律社會學的)인 지향(志向)

성문법체계의 자기완결성을 과신하고 실정법규의 형식론적 해석에만 몰두하는 개념법학을 배격하고 법학을 하나의 이론과학으로 높이기 위하여 법률을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고찰하려는 법률사회의 이론이 20세기에 있어서 법학이론의 새로운 경향을 대표한다. 이번의 신민법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어떠한 형태로 조문화(條文化)되었을까?

첫째로 법이 존재하는 형식인 법원(法源)에 관한 문제의 법률사회학적 방법의 해

결로서, 관습법과 조리법을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적에는 재판규범으로서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인정받았다.

원래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에 있어서 Eugen Ehrlich Max Weber 같은 법률사회학자들은 국가법 이외에 이른바 살아있는 법 *Lebendes Recht*, *living law*를 발견하는 것을 법률사회학의 방법으로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사회는 그 내부질서로서의 법을 갖는다고 보고 재판규범으로서의 국가법 이외에 행위규범의 존재를 인정한다.

신민법에서는 관습법 및 조리법에 성문법에 대한 보충분(補充分)적 효력을 인정하여 성문법과 동등한 법원으로 명문화하였다(초안 제1조). 이진 종래 독일민법제정 당시에도 자연법론과 역사법학과와의 사이에 관습법의 법원성(法源性)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히 전개되는 학술상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입법상의 해결을 보지 못하였던 난문제를 신민법에서는 과감히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지부를 찍은 셈이니 그 입법가치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며 이런 입법적 전진의 굳센 추진력으로 작용한 것은 다름 아닌 법률사회학적 고찰의 힘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입법을 통하여 우리의 법적분쟁의 재결(裁決)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판결이 이루어지며, 그런 공평한 판결을 통하여 인류가 법적생활에 있어서 구원(久遠)의 이상으로 양망하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민법이 전세권(傳貰權)을 물권으로 입법화한 것도, 법률사회학적인 성과를 채용한 것 중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농경지 이외의 토지 및 가옥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초안 제290조).

입법 상으로는 로마법의 인역권(人役權)의 제도에서 이것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독일민법에서는 제한적 인역권 중의 하나인 주거권(住居權) *Wohnungsrecht*으로 채용되었다. 이것은 독일의 농민들 사이에 관행을 명문화한 것이다. 불란서민법(제625조 내지 634조)에서는 로마법의 영향 하에 거주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고, 스위스민법(제776조 내지 제778조)에서도 주거권 *Wohnrecht*을 두었다. 중국민법에서는 전권을 담보물권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이 전세권에 유사한 제도들에 관한 입법례의 개관인데 물론 이 입법례들은 오늘날 우리가 채용하려는 전세권과 그대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라 그 시대에 따라서 특수한 법규범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임대차계약과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면에서 소비대차계약

과 혼합계약으로 관습상 인정되었던 것이다.

신민법에 있어서 *lebendes Recht*의 발견공작이 가장 눈부시게 발휘된 분야는 가족법의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의 성격으로 보아서 가족법의 분야는 사회적 및 국가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그 특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며 또 한국의 입법상의 후진성은 이 분야가 아직까지 관습법의 처녀림(處女林)대로 방치되었던 탓이라고 하겠다. 또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의 신(新)가족법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양사회에 있어서 공통된 유산인 유교적인 실천도덕의 이데올로기를 서구적인 법제도와 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급하였는가 하는 것은 비교법학 상에서 흥미 있는 과제일 터이기 때문이다.

1950년에 중공정권에서는 혁명 후 토지법에 뒤따라서 제2차의 대입법사업으로 혼인법을 개혁한바 있다. 중국은 봉건성이 뿌리 깊게 잔존하는 사회이니 만치 거기에서 수행된 혼인법의 개혁은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법리론에는 거리가 먼 미온적인 데가 많다는 것을 본다. 이번 우리의 신가족법의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가족생활의 전통에서 오는 공세에 못이겨 그 진보성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족법이 보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가족법의 입법발전의 종국(終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생활의 내실 자체를 민주화시킴으로써 장차 이상에 가까운 민주주의적 가족법체계를 완비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이며 일반적인 신구사상(新舊思想)의 타협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사회학적 입장에서 '살아있는 법규범'을 캐낸다는 과업의 성공을 신가족법 중에서 추려낸다면 첫째는 약혼제도를 입법화한 것이다(초안, 제793조 내지 제799조). 이것은 한국에 고래(古來)로 혼인 이전에 그것을 장차 약속하는 것으로 정혼 혹은 허혼이란 제도가 있었던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우리들의 혼인생활 속에 사실상 살아있는 법규범을 우리의 손으로 발견해낸 것이다. 이것으로 자기의 일반적 과실로 함부로 약혼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함으로써 요즘 갑자기 증가하여 가는 약혼불이행의 결과 희생당하는 약한 여성들의 생명과 명예를 보장하여 젊은 세대의 성생활의 윤리의 정화에 일조가 되면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밖에 (1) 친족관계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법정화한 것(초안 제771조, 민소위심의요강(民小委審議要綱) 제2항)

(2) 계친자관계(繼親子關係)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를 인정하는 것(초안 제767조, 제768조)

(3) 호주권(戶主權)을 존치시켜 가족제도를 법정화한 것 (초안 제11장 「호주와 가족」)

(4) 호주상속의 성문화 (초안 제5편 「상속」 제1장)

등은 한국의 전래의 관습을 법률로서 채용한 것이며 이것들은 신가족법의 보수성을 뚜렷이 표시하는 규정들이다. 법률사회화의 방법은 살아있는 법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바 그 살아있는 법이 보수성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현존 법질서의 보수성을 수호하려는 반동세력에 봉사하는 본의 아닌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는 실례를 이곳에서 명료히 볼 수 있다.

3. 법(法)의 사회화(社會化)의 지향(志向)

법의 발달은 3단계를 거쳐서 진전하고 있다. 근대이전의 단계에서는 법이 사회관계(社會諸關係) (계급, 신분관계)와 결부되어 그 독자성이 희박하였으나 근대법의 성립을 기점으로 법은 그 밖의 온갖 사회제관계와 준별(峻別)함으로 순수한 실정법질서의 순화독립을 완수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자 사회경제 상에서 격화된 제(諸)모순은 법질서의 사회로부터의 고고(孤高)한 유리를 허용할 여유가 상실되어 법질서와 사회제관계와의 재혼이 요청되더니 제1차 대전 후의 독일의 바이마르 체제의 확립을 계기로 법의 사회화는 자본주의체제 하의 합법적 수정(修正)의 방법으로 불가피적인 명제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신법은 이런 방향으로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만을 추려 본다면,

(1)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 (초안, 제2조). 이 2개의 원칙은 과거에는 앞 것은 주로 계약법, 뒷 것은 물권법에서 이용되던 특수원칙에 불과하던 것을 이번에는 그것의 민법전반을 관통하는 일반원칙이라는 점으로 명문(明文)으로 선언하였다는데 입법상 의의가 크다. 이것으로 종래의 민법의 기본원칙인 소유권절대성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법적대격 및 과실책임의 원칙 등 3개 원칙의 수정이 논의되던 것을 이제 위의 신의칙(信義則)과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의 2개 원칙이 당당히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신의칙이 최고의 원칙이며, 또 권리라 할지라도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권리관(權利觀)의 전환을 명시하는 것이다. 근대법의 권리본위사상(權利本位思想)의 배척과 함께 권리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현대법사상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

이라고 하겠다. 이제 민법의 기본원칙은 원래의 수정된 3개 원칙에 이번의 첨가된 2개 원칙에다가 또 하나 헌법에서 받아들인 남녀평등, 공공의 복지의 2개 원칙과를 합하여 7개의 기본원칙으로 굳은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기본원칙의 완비는 법,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의 사회화의 정신의 구체화라고 볼 적에 신민법은 개인주의적인 근대법의 테두리에서 탈피하여 사회중심주의적인 현대법의 진전을 위한 이정표 Milestone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 둘째로 법규범의 발전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단계(고대법, 봉건법)에서, 방식에서의 자유해방의 단계(근대법)에로, 거기에서 재전(再轉)³⁸⁾하여 방식제한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대법의 경향이다. 그건 고도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은 온갖 물건을 상품화시키고 온갖 상품은 교환시장에 투입되어 유통되는 만큼 그 유통을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상의 거래행위의 내용, 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방식제한은 개인행위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경제전체의 안전, 확실성 및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또한 법질서의 사회화를 표시한다고 본다. 신민법이 계양(擡揚)하는 이런 방향의 입법으로서 주요한 규정을 추려 낸다면,

(가)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여 등기의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한 것 (초안, 제32조).

(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인도를 그 효력발생 요건으로 함으로써 종래의 대항조건주의를 배척한 것 (초안, 제177조, 제179조)

(다) 또 가족법상의 것으로는 혼인은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혼주의를 버리고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것 (초안, 제805조 이것은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현행법도 채용하는 주의지만)

등인데 이것은 신민법의 개정으로는 꼭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그 동시에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로써 성립요건주의를 취한데 대하여서는 학계에서 반대론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를 법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쉽사리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법인제도, 부동산물권의 변동관계 및 혼인생활관계는 오늘날 단지 형식적인 권리관계의 문제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 및 법률관계의 사회성을 직시하여 그 법적 취급을 정할 일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향으로의 신민법의 개정은 중요시할 것이라고 본다.

(미완(未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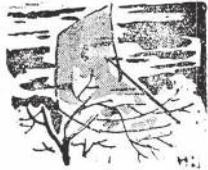
38) 다시 돌아서

옛 시조(時調)의 해설(解說)

미풍(美風)과 양속(良俗)을 읊은

이태극(李泰極)

1. 머리말



과거가 현재의 고향이라면 장래는 현재의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이상을 실현하여 나아가야겠기에 장래를 바라 노력한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마찬가지로 전진하여야 산다. 그러나 그 전진은 현재를 발판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과거와 분리될 수도 없다. 현대는 자유시(自由詩)의 세대다. 그러나 자유정신으로 창작되는 자유시 세

상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정형시인 시조를 들고 해설하며 감상하자는 것을 결코 고루(固陋)로 돌릴 수는 없다. 지금도 우리의 고유한 이 시조를 창작하며 발전시키려 노력하고들 있지 않는가? 옛시조는 어디까지나 옛 생활을 노래하였다. 그러나 3장 6구로 된 짧막한 노래 속에 우리들의 생활이 잘 담겨져서 오늘에도 내일에도 음미(吟味)되고 찬양될 수 있는 뜻 깊고 향취(香趣) 높은 노래들이 많다. 이런 금(金)조각들을 골라서 만져도 보고 닦아도 보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문화의 호흡을 찾아 마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선조들의 사상과 생활을 알아서 현재와 장래의 지침을 삼을 수 있다고 믿는다. 6, 700년을 살아온 옛 시조는 인간생활의 전모(全貌)를 대상으로 창작되었다. 태평세대의 한유(閑遊)도 분분시절(紛紛時節)의 의기도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전 분야에 걸쳐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사설시조(辭說時調) 같은 데에 보면 더욱더 사실적(寫實的) 필치(筆致)로 묘사되어있다. 허장과세도 있지만 대개가 사상 감정의 풍운(豐潤)한 토로(吐露)요 민족생활의 표출이다. 왕후장상의 생활에서부터 천민과 기녀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날 날이 그려져 있다. 시조는 예술적 느낌보다는 생활의 기록이기에 유교적 교훈시가 많고 관념적 영음(詠吟)³⁹⁾도 있다.

또 특출한 시조인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시며 교양의 시며 여기(餘技)로 짓고 부르던 노래다. 앞으로도 시조를 전문적으로 짓는다는 것보다도 생활인의 즉흥으로 누구나가 어디서든지 지을 수 있어서 이 고유하고 값있는 노래가 오래오래 남았으면 한다. 일본에서는 와카(和歌)나 하이쿠(俳句)나 히요시(ひよし) 지금도 전 국민의 소유시(所有詩)로 왕성하게 창작되고 발전되어 지고 있다. 우리들은 아주 토대도 주춧돌 없이 남의 걸모양을 흉내내보는 버릇이 있다. 자기들의 고유한 미풍양속(美風良俗)도 하루아침에

39) 咏吟과 같음.

버리고 이 고유한 시조 같은 것도 옛것이요 정형(定型)이라는 이유에서 돌보려 하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남이 가꾸려 하는 것까지 비웃고 손가락질을 한다. 내 문화와 내 역사를 가지고 수천 년 살아온 우리요 지금은 당당한 독립국가로 육, 해, 공군을 보유하고 육성하는 재흥(再興)국가다. 신라(新羅)와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시대의 찬연(燦然)하던 문화를 이어받고 고려(高麗)의 청자와 이조(李朝)의 백자도 우리들의 자랑이 아닌가? 이러한 미술공예와 함께 우리의 좋은 것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과 빛깔을 찾을 수 있는 새 문화를 건설하여야 할 지금이 아닌가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시가의 미(美)도 향기도 찾고 그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가르침도 살펴서 새 문화 새 도의(道義)의 밑거름으로 삼음을 영광으로 알고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믿는다.

2. 효도(孝道)의 노래들

자유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므로 개인주의가 발달된다. 개인만을 위주로 하면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하는 단체의 하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보다 먼저 개인의 영예와 이익을 앞세우기 쉬운 것이다. 그러한 사상이 점점 발전되면 부모자식 간에도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되어 극히 형식적으로 연결되어질 뿐이다. 부모는 생육의 의무를 지고 자식은 생육 받을 권리를 가졌다. 그 의무와 권리관계가 다하면 남이나 다름없는 인간관계에 선다고 하면 세상은 참으로 무미건조할 뿐이겠다. 부모자식과 형제자매 관계는 천륜이다. 피와 뼈의 나뉘는 것이다. 끊으려야 끊어지지 않는 혈연체(體)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로의 의무를 무조건하고 완수하는 것이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무조건하고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이 천칙(天則)인 것이다. 옛날에는 자식을 길러서 뒤를 보랴 했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길러서 그 잘되는 것을 보고 즐기고 또는 더 잘되도록 도와 주려는 태입의 아버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믿는다. 자식 된 도리로서도 길러주고 공부시켜주는 것은 아버지가 할 마땅한 의무라 하여 태연하고 거드름스러운 태도를 피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노고에 감사하고 건강을 빌며 믿음과 기쁨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부모가 늙어서 활동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자식은 자신을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눕히며 길러주던 10분의 1의 효도심이라도 발휘하여서 안심하고 자기의 돌아갈 날을 맞이하도록 힘이 인간의 상정이며 동양의 도덕이며 우리 한국인의 자녀의 도리라 본다. 선조 때의 시가인(詩歌人)이며 임진왜란에는 몸소 수전(水戰)에 참가하여서 '선상탄(船上嘆)'이니 '태평사(太平詞)'니 하는 가사도 지은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의 효심을 노래한 조홍시(早紅詩歌)를 먼저 소개한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엄 즉 하다마는

품어가 반기리 없으시 글로 설워 하노라.

이 노래는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집을 찾아 갔을 때 올감을 먹으라고 내온 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지은 시조다. 돌아가신 아버이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쟁반에 담아 내온 올감이 곱게도 보인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에 품어 가지고 갈 만도 하다 마는 가지고 가야 반가이 받아 줄 아버이가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러울 뿐이로다. 이렇다. 과연 아버이가 안 계신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다. 유자(柚子)에 대한 고사(故事)는 이렇하다. 중국의 후한시대(後漢時代)에 나이 여섯 살 난 육속(陸績)이가 구강(九江)에 사는 원술(袁術)의 집에 갔을 때 먹으라고 준 유자(귤의 한 종류)인데 껍 보다는 작다) 세 개를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품에 넣었다가 작별인사를 할 때 굴러 나왔었다는 것이다. 즉 육속의 지극한 효심에서 품에 넣은 유자가 아니라도 갔다가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잠쉴수실 아버이가 안 계심을 한(恨)한 노래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 은공(恩功)을 감사함도 좋으나 후회막급이다. 가신 다음에 애통해하고 장례를 굉장히 지내며 분묘(墳墓)를 유난히 잘 만든다. 기제사(忌祭祀)를 남다르게 잘 차린다 하는 것보다는 살아생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첼따라 옷 한 벌씩이라도 해드리는 것이 더욱 효도하는 일이다. 그것보다도 생전에 근심,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것이 제일 첫째가는 효도라고 본다. 그러기에 노계보다 좀 앞서서 역시 시가인으로 유명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노래를 읽어 보기로 하자. 송강은 강원도관찰사로 갔을 때에 '관동별곡(關東別曲)'이라는 쾌장(快壯)한 노래를 지은 사람이며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등을 지어서 충의의 절대적 심회(心懷)를 여실히 토로한 시인이며 정치인이다. 강원도 백성들에게 교훈삼아 지은 훈민가(訓民歌) 중의 한 수(首)다.

아버이 살아신제 섬길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휘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平生)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얼마나 진심에서 체험에서 우리나라 노래냐! 한번 가면 그만인 인생길! 살아생전에 잘 섬겨야 한이 덜할 것이다. 옛 얘기에도 가난한 살림에 늙은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려 하는데 조그만 아들놈이 상머리에 앉아서 만만한 반찬은 먼저 집어 먹어버리므로 아내와 의논하여 가지고 산에다 물어버리려고 땅을 파니 금과 돈이 가득한 항아리가 나왔다는 말이 있다. 왕상(王祥)은 얼음 위에서 이어(鯉魚)를 얻고 맹종(孟宗)은 눈 속에서 죽순(竹

筍)을 얻어서 부모의 병을 낫게 했다는 미신스러운 전설도 있다. 중국 「고사부(高士傳)」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 노래자(老萊子)라는 이가 나이 70에 아직 부모를 모셨기에 때때옷을 입고 춤을 추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사람은 늙을수록 노염을 잘 타고 배려기도 잘한다고 한다. 늙으면 자기가 늙은 것만 생각하여서 아들딸이 같이 늙어 가도 어린애처럼 여기는 모양이라고 한다. 세대가 분망(奔忙)하고 보니 한가로이 부모를 즐겁게 할 겨를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부모를 알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면 틀림없는 사람이라 단정하여도 좋다. 부모의 분신인 자녀들이여! 삼강오륜에 사로잡힌 기계가 되지 말고 그것을 다루어 선용(善用)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지어다.

3. 경인(敬人) 경로(敬老)의 노래들

내 부모를 아는 사람이면 남의 부모도 존경할 줄 아는 법이다. 최근 역시 자유사상을 오인해 가지고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의 원리 원칙을 남용하려 드는 폐단이 있다. 이것도 상반되는 동서(東西) 관념과 습성에서 오는 반발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옛날에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져서 부모의 명령이면 으레 거역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요즘 와서는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아니라 장유무서(長幼無序)가 되어버린 듯도 하다. 우리들은 너무나 어린이들을 억압하고 혹사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옛 시조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많음도 그 한 예증(例證)이라 볼 수 있겠다.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하니 천산(千山)이 옥(玉)이로다
매화(梅花)는 반개(半開)하고 죽엽(竹葉)이 푸르렀다
아희야 가득 부어라 춘흥(春興)겨워 하노라.

이렇게 아해(兒孩)나 여자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시중들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고 본다. 또한 '아희야 새술 많이 두었으라 새봄늘이 하리라'든지 '아희야 강호(江湖)에 봄이든나 낙덕 추심(推壽)하리라'든지 '아희야 그물 내어 오너라 고기 잡기 하리라'든지 '아희야 되롱삿차 차랏스라 동간(東澗)에 비지거다'든지 '아희야 소먹여 내어라'든지 '아희야 죽조반(粥早飯)다'고 든지는 다 심부름하는 아이일 것이다. 우리는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서 잘 기르고 또 인격적으로 대접해서 그들이 스스로 어른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도록 이끌어야 됴는 물론이다. 그러나 요즘은 윗사람이나 연장자를 몰라보는 폐가 많은 것 같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⁴⁰라는 말도 쪽편시대의 용언(用言)일는지 모르나 요즘 학생들은 스승에 대한 경어를 좀처럼 안 쓴다. 스승보다도 직접 부모

40) 원문의 군사문일체(君師文一體)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오기임.

이상의 존속(尊屬)에게도 올바른 경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편이 많다. 이러한 것은 시조에 없지만 늙어서의 한탄성(恨嘆聲)은 매우 많다.

은한(銀漢)은 노파지고 기러기 우닐적에
하룻밤 서릿감에 두귀밑이 다 세것다
경리(鏡裡)에 자발쇠용(自髮衰容)을 혼자설워 하노라.

겨울 속에 비취는 백발과 부스러져 주름진 모습을 서러워하는 심경이 잘 들어나 있으나 중장(中章)에서 '하룻밤'한 것은 좀 과장이다. 은한은 은하수를 말하는데 가을이 깊어 갈수록 하늘은 높아져서 은하도 자연 높게 보인다. 늦은 가을 쓸쓸한 밤에 기러기 울어 예는 소리만도 처량한데 귀밑에 수염은 하루하루 세어만 가니 서러워지고 초조해짐이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마음을 알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격려를 주어야 할 일이다. 젊은이들이 너무 휘내는 것을 보곤 자연 다음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 본다.

청춘소년(青春少年)들이 백발노인(白髮老人) 웃지 마라
공변된 하늘아래 넌들언마 젊었으리
우리도 소년행락(少年行樂)이 어제런듯 하여라.

이렇게 인생은 쉽게 늙어 버리는 것이다. 젊고 힘 있을 때 할일도 하고 놀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어른을 위할 줄 알고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각각 되어야겠다. 선후(先後)를 알고 질서를 알면 사회와 가정은 바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히라 무거운가
늙기도 설웨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가?

이 노래도 송강 정철의 작이다. 그러나 송강 한 사람의 마음씨는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권유하고 일깨워 주려는 호소인 것이다. 그 짐을 지고 가는 늙은이는 실제로 꼬부라진 등에도 큰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육체적 노동을 하는 노인만을 말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정사(政事)에 힘을 기울인 노투사(老鬪士)에게서도 겨운 짐을 털어서 찌꺼한 젊은이들이 떠메고 일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만한 적극적인 경로(敬老)라면 값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노약(老弱)을 앞세우고 불

들어 주어야 될 것이다. 돌도 무거워 하지 않는 실력과 용기로서 마을의 일을 사회의 일을 국가의 일을 너내나기⁴¹⁾ 두루 맡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야말로 그러한 기관이나 직(職)이야말로 화기에애한 가운데에서 인생의 산 보람도 인간의 향기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뒷사람을 존경함은 정당한 예의며 미덕인 것이다.

4. 파사(破邪) 현정(顯正)의 노래들

때는 바야흐로 사악(邪惡)을 부수고 하루 바삐 올바른 국가사회를 건설하여서 글자 그대로 국태민안(國泰民安)하게 하여야 할 시기다. 남북으로 요기(妖氣)가 충천(衝天)하여 있어 북배(腹背)로 적(敵)을 대하고 있는 현(現) 사태다. 북진통일(北進統一)로서 북쪽의 사악을 쳐 물리치고 외교전으로서 일본의 간악을 방비하여야겠다. 국내는 국내대로 현정(顯正)의 정(釘)이 크게 기대되는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군사적 난국에 있고 경제의 미약으로 국민생활의 혼란이 생기고 사상적으로 분열이 있고 도의적으로 과도기에 처한 대다수의 국민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로
만수산(萬壽山) 드령참이 얽어진들 기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백년(百年)까지 하리라.

이러한 생각으로 살려 드는 편이 많다. 물론 그러한 생활방법이 무난하고 좋을지 모른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 얽혀져서 개인에 이롭도록 사는 것이 영리할는지 모른다. 개성(開城) 만수산(萬壽山) 드령에 얼기설기 어우러진 칙령쿨처럼 살기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국가나 민족이니는 안두(眼頭)에 없고 정의니 하는 것도 헌신짝일 것이다. 이래서 민족정기는 바로 세워질 수 없고 민족적 독립은 영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크나큰 난국에 빠져 있다고 하면 의당 정포은(鄭圃隱)의 정신으로 새로운 기강을 세우고 기틀을 잡아야 할 것이라 믿는다.

이 몸이 죽어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편단심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물리쳤고 다시 3·1운동에서 해방과 독립으로 이끌어 온 것이다. 또한 6.25와 1·4전란을 막아냈고 지금도 밤을 낮으로 휴전선을 사수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가 쓰러져서 벌써 백골이 진

41) 너희가로 보임.

토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태극기는 푸른 하늘에 휘날려지고 있는 것이다.

신라때의 화랑(花郎)들은 임전무퇴(臨戰無退)를 가장 높은 신조로 알아서 용감스럽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이다. 현대 과학전(科學戰)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작전상의 후퇴도 한다.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저돌(猪突)이나 맹공은 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최후의 승전을 위한 후퇴요 지연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예부터 화랑의 정신과 포은(圃隱)의 단심(丹心)과 사육신(死六臣)들의 절개(節概)를 가지고 나라를 지켜 왔고 민족을 살려 왔던 것이다. 언제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어떠한 강적이라도 능히 쳐 물릴 수 있는 정신무장과 실제장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 김종서(金宗瑞) 장군의 국방의 기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삭풍(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明月)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萬里邊城)에 일장검(一長劍) 짚고 서서
긴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애라.

살을 에일 듯 불어치는 찬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뒤흔들어 소리 내고 밝은 달빛 아래 깔린 백설의 언덕이 눈앞에 완연하다. 급박(急迫)과 동요(動搖)와 정적(靜寂)과 혹한(酷寒)에 싸여 있으면서도 설월(雪月)을 느껴워하는 장군의 금도(鈐度)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낭만이나 감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씩씩한 장군의 기상이 잘 나타나 있다. 수도를 멀리 떠나 처자도 버리고 만주(滿洲)별판을 노려보면서 큰 칼을 짚고 긴 파람을 셋 부는 장군의 모습은 거룩하기만 하다. 방비는 철옹 같다. 언제든 방어할 수 있다는 장수(將帥)의 풍자(風姿)다. 마치 백설의 능선을 지키는 국군장군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바가 많다. 하늘의 용사가 기층을 뚫고 적진을 정찰하고 대비하는 모습과도 같다. 이러 한 무사보국(無私報國)하는 장병이 있어서, 나라와 사는 보장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한산(閑山)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홀로앉아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차에
어디서 일성호기(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굶나니.

이 노래는 다 아는 이충무공(李忠武公) 순신(舜臣)장군의 단장가(斷腸歌)다. 10배나 되는 적함을 앞에 놓고 마음의 각오와 전세는 두루 갖추었으나 내일 날이 새자 부닥쳐야 할 대해전(大海戰) 지면 나라를 빼앗길 것이요 이겨야만 하겠는데 증과부적이라 한밤을 뜬눈으로 수루에 높이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노라니 참으로 진퇴유곡(進退維谷)이다. 때 마침 달을 휘영청 밝히는데 어디선가 호적(胡笳)소리가 달빛을 타고 흘러든다. 사망은 고

요하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 노랑해협(露梁海峽)이다. 나라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장군 이순신과 월하취적(月下吹笛) 소리에 창자를 끊어낼 듯이 애달프지는 인간 이순신과의 교차점에 선 비장한 그림자가 무겁게 클로즈업 되어 온다. 하늘과 나라와 민족에게 바치는 장군의 최후의 결의며 각오였던 것이다. 이 결의와 각오의 결행으로 최후의 결전에 부닥쳤다. 순국(殉國)의 갈나까지도 전쟁을 돌우고 승리를 밀고 병사를 독려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넌스 제독과 같이 최후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버렸다. 이 한 곡조가 장군의 운명을 예고한 듯도 하지만 이 비장(悲壯)이 조국을 구원하려던 장군의 피의 제소(提訴)였다고 본다. 무관(武官)도 인간이요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정이 있는 것이요 노래도 시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목숨은 거룩한 나라의 제단에 놓여져 있다.

국화(菊花)는 무삼일로 삼월동풍(三月東風) 다보내고
낙목(落木) 한천(寒天)에 네 혼자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것은 영조(英祖) 때의 문인(文人)인 삼주(三洲) 이정보(李鼎輔)의 국화가(菊花歌)다. 3월 호시절(好時節)에 백화가 다투어 피는 여러 꽃들과 함께 피어 자랑할 생각도 없이 이 쓸쓸하고 찬바람 불어 서릿발 치는 늦가을에 홀로 향기를 풍기는 국화야 말로 이상도 하다. 그러나 봄바람 부는 3월은 평화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낙엽진 늦가을이라는 것은 국가가 어지럽고 미약해 졌을 때를 말함이요, 국화는 충신과 열사에 비긴 것이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을 때에 홀로라도 나서서 사직(社稷)을 바로 잡기에 꾀꾸하게 버리고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충의열사가 요망(要望)된다는 뜻의 노래다. 그 비유도 좋거니와 시조로서의 짜임새도 좋다. 시조는 대개가 점진법(漸進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서 3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다. '국화(菊花)는'하고서 '너뿐인가 하노라'까지가 조금도 무리가 없는 구성이며 표현이다. 이와 비슷한 노래로 명종(明宗) 때의 재상까지 지낸 면양정(旻仰亭) 송순(宋純)이 황국가(黃菊歌)가 있다.

풍상(風霜)이 섞어 친 날에 갖피은 황국화(黃菊花)를
은반(銀盤)에 꺾어 담아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도리(桃李)야 꽃 인양 마라 임의 뜻을 알과라.

명종이 어느 가을 막 피어난 황국화 한 분(盆)을 옥당관(玉堂官)에게 주시면서 노래를 지어 올리기를 명하였다. 명을 받은 옥당관이 물러나와 면양정에게 칭하였더니 즉석에서 지었다는 노래다. (100면으로 계속)

탄도이론(彈道理論)과 그 실례(實例)

백기둥(白基東)



탄도에 관한 역학적 연구 즉 탄도학은 Projectiles라 하여 물체를 어느 각의 방향으로 투사할 때의 그 물체가 변위(變位)하는 궤적을 논하고 그 간의 제(諸)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임으로 탄도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운동상태 및 그에 대한 제(諸)법칙을 먼저 해득(解得)해야 한다.

1. 물체(物體)의 운동(運動)(변위(變位)라고도 함)과 법칙(法則)

운동이란 물체 즉 기하학적 형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물리적 대상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위치를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운동상태는 속도 및 가속도에 의해 표시되고 전(全)시간에 궁(恒)한 위치의 변화되는 과정은 공간 내에서의 운동한 점들을 추적한 곡선 즉 궤도를 발견함으로써 결정된다. 운동에 관한 법칙은 16세기 이후 물체의 운동이 과학적으로 관찰이 되어 코페르니쿠스(폴란드 1473-1543), 갈릴레오(이탈리아 1564-1642), 케플러(독일 1571-1630) 등에 의해 연구가 되고 그 후 운동과 그 원인이 되는 힘 간에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법칙에 관해 통일적으로 기술한 학자가 그 유명한 석학 뉴턴(영국 1643-1727)이었다. 따라서 운동법칙을 Newton의 운동법칙이라고도 호칭하며 다음 세 개의 법칙으로부터 성립되고 있다.

‘운동의 제1법칙’ 모든 물체는 외부로부터 이것에 작용하는 힘 즉 외력이 없으면 영구히 그 초속도(初速度)를 유지한다. 예컨대 정지상태의 물체(속도가 0)는 외력의 작용이 전무하면 최초의 그 위치가 영속(永續)되고 도로상을 활동하는 차는 어느 시간만큼 민 뒤에 손을 놓으면 그 차는 얼마 진행하다 정지하다, 만약 이때 차가 달리는 길을 평활(平滑)하게 한다면 또는 차의 심축(心軸)에 주유 등을 하면 손을 떼 후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가 연장된다. 이 고찰을 진행시키면 차는 영속적으로 등속직선운동이 가능함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상술한 사실은 실현치는 않으나 많은 경험에 의해 그 극한으로서 이 사실의 정론이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법칙화한 것이 제1법칙이다. 이 법칙에 표시된 물체의 성질을 관성 또는 타성이라 하여 이 법칙을 타성법칙이라고도 한다.

‘운동 제2법칙’ 힘은 그 힘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에 비례하는 크기를 갖고 또 같은 방향을 갖는다 라고 표시되고 ‘운동(運動)과 작용력(作用力)’에 관한 기본적 관계를 표시한 법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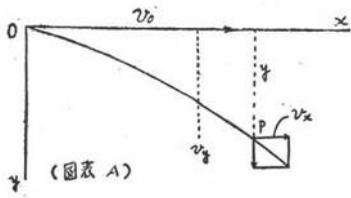
‘운동 제3법칙’ ‘작용(作用)은 항상반작용(恒常反作用)과 같다’라는 힘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을 표현한 법칙이다.

여하한 물체도 이상 기술한 운동법칙에 의거해서 변위되고 다음과 같은 운동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그 궤도가 결정된다. 즉 여러 가지 크기의 작용력으로서 밀 때 생기는 가속도는 운동의 제1법칙에 의해 작용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나 차를 밧 채로 밀 때와 무거운 물건을 실었을 때와는 가속도가 상위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 작용력을 f 단위 시간의 속도의 증가 즉 가속도를 a 라 하여 제2법칙을 식으로 표시하면 $f=ma$ 가 된다. 여기서 m 은 물체에 관한 비례상수로서 이것을 『질량(質量) 또는 타성적(惰性的) 질량(質量)』이라 칭하고 이 식을 운동방정식 또는 Newton의 운동방정식이라 한다. 가속도는 $a = d^2x/dt^2 = d^2y/dt^2$ 로 표시됨으로 $mdv_x/dt = f$ 또는 $md^2x/dt^2 = f$ 인 미분방정식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미분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의 그 상태를 수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식을 변형한 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포사체(拋射體)인 경우는 포사체의 운동방정식을 사용하여 그 탄도를 결정한다.

2. 물체(物體)를 어느 방향(方向)으로 투사(投射)할 때의 궤도(軌道)를 다음 2가지 경우(境遇)로 분석(分析)하여 생각(生覺)하기로 한다

(a) 「수평방향(水平方向)으로 투사(投射)할 때의 탄도(彈道)」 v_0 의 초속도(初速度)로서 수평으로 투사할 때의 운동을 수평방향을 x 축으로 이것에 수직되는 방향을 y 축으로 취한다. 임의의 시간에서의 물체의 위치를 $\rho(x, y)$ 라 한다. ρ 점에서 속도를 수직의 방향과 수평방향으로 분해하여 각각 v_x, v_y 라 하면 v_x 의 방향에는 가속도가 없고 따라서 이 방향의 운동은 초속 v_0 의 등속운동이고 v_y 방향은 초속이 없는 낙하운동에 해당함으로 $v_x=v_0, v_y=gt$ 따라서 각 거리의 상방정식을 적분하여 $x = v_0t, y = \frac{1}{2}gt^2$ 상 두 방정식에서 t 를 소거하면 x, y 간의 관계 즉 탄도가 결정된다. t 를 소거하면 $x^2 = \frac{2v_0^2}{g}y$ 이 된다. 이 식은 임의의 시간에서의 ρ 점의 위치(x, y)가 만족되는 식이고 $\frac{2v_0^2}{g}$ 인 포물선이 된다. 이상의 관계를 도표로 하면 A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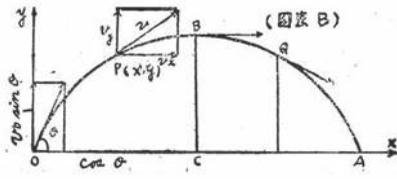
(b) 「임의(任意)의 방향(方向)으로 투사(投射)했을 때의 탄도(彈道)」최초 0인 점에서



초속도 v_0 로 수평면과 θ 인 각의 방향으로 투사한 물체의 운동은 수평 수직방향으로 Cx, Oy 축을 취하고 임의의 시간 t 에서의 물체의 위치를 $P(x, y)$ 라 하면 이 P점에서의 속도 중 수평분속도 v_x 는 그

방향에 가속도가 없으므로 점O에서의 초속도 v_0 의 분속도 $v_{0x} = v_0 \cos \theta$ 인 채로 등속도운동을 한다.

또 수직분속도 v_y 는 v_0 의 수직분속도 $v_0 \sin \theta$ 로 상방에 던져 올릴 때의 속도임으로 $v_x = v_0 \cos \theta \dots (1), v_y = v_0 \sin \theta - gt \dots (2)$ 따라서 각 거리는 (1)과 (2)를 적분하여 $x = (v_0 \cos \theta)t \dots (3), y = (v_0 \sin \theta)t - \frac{1}{2}gt^2 \dots (4), (3)$ 과 (4)에서 t 를 소거하면 소요의 탄도를 얻는다. 즉 $y = x \tan \theta - \frac{g}{2v_0^2 \cos^2 \theta} x^2 \dots (5)$. 이 (5)식의 궤도는 포물선이 된다. 이들의 관계를 도표 B를 보면 이해하기 용이하다.



전(前) 탄도 방정식으로 부터 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임의의 시간 t 에서의 속도는 $v = \sqrt{v_x^2 + v_y^2} = \sqrt{v_0^2 - 2gy}$ 로 표시가 되어 이 식에서 높이가 같

은 두 점, 우도(右圖)에서 P급 θ 에서의 속도의 크기가 같음을 판단한다. (2) 최고점까지 가는데 요하는 시간, 그 때는 $v_y = 0$ 되는 상태임으로 이 시간까지에 요하는 시간 T_1 는 (2)에서 $T_1 = \frac{v_0 \sin \theta}{g}$ 이 되어 초속과 투사각을 알면 그 탄도의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3) T_1 의 치(値)를 (3)과 (4)에 대입하면 그 최고점의 위치가 결정된다. 즉 $OC = \frac{v_0^2 \sin^2 \theta}{2g}, BC = \frac{v_0^2 \sin^2 \theta}{2g}$ 가 된다. (4) 물체를 투사해서 낙하할 때까지의 시간 T_2 는 탄도방정식에서 $y=0$ 일 때임으로 $(v_0 \sin \theta)T_2 - \frac{1}{2}gT_2^2 = T_2(v_0 \sin \theta - \frac{1}{2}gT_2) = 0$ 즉 $T_2 = \frac{2v_0 \sin \theta}{g} = 2T_1$ 이 되어 결국 소요탄도에 대한 전(全)시간은 최고점도달 소요시간의 2배임을 알 수 있다. (5) 수평면 상으로부터 포투사(抛投射)의 도달거리(사정(射程)) AO를 구하려면 (3)에서 $t=T_2$ 라 놓으면 탄도 전시간에 대한 사정이 결정된다. 즉 $x = (v_0 \cos \theta)T_2 = (v_0 \cos \theta)2T_1 = (v_0 \cos \theta) \cdot 2 \cdot \frac{v_0 \sin \theta}{g} = \frac{2v_0^2 \sin \theta \cos \theta}{g} = \frac{v_0^2 \sin 2\theta}{g}$ 로 되어 초속과 투사각을 미리 정하며 그 탄도의 사정 환언(換言)하면 포사체의 낙하지점의 거리를 지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 (6) 상식(上式)에서 일정한 초속을 가진 포사체의 탄도에서 최대사정은 $x = \frac{v_0^2 \sin 2\theta}{g}$ 에서 x 를 최대로 하기 위한 $\sin 2\theta$ 를 최대로 한 때임으로 $\sin 2\theta$ 가 최대치를

취하는 경우는 $\sin 2\theta = 1$ 되는 조건이 되는 때임으로 그는 곧 $\theta = \frac{\pi}{4}$ 즉 45° 방향으로 투사할 때이다.

이 원리는 포탄의 실제 투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때 그 물체의 최고높이는 $\frac{v_0^2}{4g}$ 임으로 초속을 알았을 때 45° 방향으로 투사만 하면 최고위치까지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실례를 몇 개 들면

- (a) 초속 230m/sec으로 발사한 탄환이 최고 1000m에 도달케 하려면 투사각을 몇 도로 해야 하는가. 전(前) (3)에서 높이와 초속 추사각의 관계식인 $BC = \frac{v_0^2 \sin^2 \theta}{2g}$ 에서 높이 $BC = 1000 \text{ m} = 100000 \text{ cm}, v_0 = 230 \text{ m/sec} = 23000 \text{ cm/sec}, g = 980$ 을 대입하면 $\sin^2 \theta = \frac{2g \cdot BC}{v_0^2} = \frac{2 \cdot 980 \cdot 100000}{(23000)^2} = \frac{1}{4} \therefore \sin \theta = \frac{1}{2}, \theta = 30^\circ$ 30° 방향으로 투사하면 된다.
- (b) 어느 지점에서 총구속도 $v \text{ cm/sec}$ 의 총환으로 수평거리 $S \text{ cm}$ 높이 $h \text{ cm}$ 인 표적을 맞추려고 할 때 그 사각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탄도 방정식에 $y = h, x = S$ 로 놓은 식 $h = S \tan \theta - \frac{g}{2v_0^2 \cos^2 \theta} S^2$ 에서 θ 를 구하면 된다. 정리된 θ 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식에서

$$h = S \tan \theta - \frac{g}{2v_0^2 \cos^2 \theta} S^2 = S \tan \theta - \frac{g}{2v_0^2} (1 + \tan^2 \theta) S^2$$

$$\therefore gS^2 \tan^2 \theta - 2v_0^2 S \tan \theta + 2v_0^2 h + gS^2 = 0$$

$$\therefore \tan \theta = \frac{v_0^2 \pm \sqrt{v_0^4 - 2ghv_0^2 - g^2 S^2}}{gS}$$

$$\theta = \tan^{-1} \frac{v_0^2 \pm \sqrt{v_0^4 - 2ghv_0^2 - g^2 S^2}}{gS}$$

에서 초속 수평거리 및 높이 즉 투사목표점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치를 상식에 대입해서 θ 를 구하면 된다.

(c) 수평지면에서 높이 $h \text{ m}$ 인 장소에서 소정속도 $v \text{ m/sec}$ (所定速度)로 투사할 때 되도록 원격거리까지 가게하려면 여하한 투사각으로 투출(投出)해야 하는가. 이것은 탄도방정식에서 $y = h$ 로 놓으면 $\frac{gx^2}{2v_0^2 \cos^2 \theta} - \tan \theta \cdot x - h = 0$ 이 식에서 x 는 θ 에 따라서 최대사정은 $\frac{dx}{d\theta} = -\frac{g \sin \theta \cdot x^2 - \cos \theta \cdot v^2 \cdot x}{\cos^2 \theta (gx - v_0^2 \sin \theta \cos \theta)} = C$ 으로 했을 때의 x 값은 0, $x = \frac{v_0^2}{g \tan \theta}$ 이것을 전(前)식에 대입하면 $v_0^2 - 2(v_0^2 + hg) \sin^2 \theta = 0 \therefore \sin^2 \theta = \frac{v_0^2}{2(v_0^2 + hg)} \therefore \sin \theta = \frac{v}{\sqrt{2(v_0^2 + hg)}}$ 여기서 소정의 수치를 대입하면 투사각 θ 는 바로 결정된다.

모든 탄도에 관한 계산은 전술(前述)한 수종(數種)의 탄도방정식을 중심으로 한 제(諸)식에 의해 거의 해결이 된다. 연(然)이나 탄도에서는 공기의 저항 혹은 속도 등에 대한 저항으로 다소 그 방정식에 그러한 물리학적 의미에 해당하는 식을 첨가하여 그 고찰은 같은 이론으로 진행하면 된다. 지금까지 취급한 것은 공기의 저항 즉 중력을

제외한 타종(他種)의 저항을 무시한 간단한 경우만을 취급했다.

지면관계로 발사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외력 저항 등)이 측정되었을 때의 탄도방정식과 이론, 실제표적발사의 역학적 과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각필합니다. (끝)

(95면에서 이음)

즉 화려한 시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라고 뽑내는 복숭아나 오얏꽃 같은 소인들은 이 임금(玉堂)에 향기 풍운(豐潤)한 국화를 보내신 뜻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옥당에 모인 학자들은 모름지기 저 찬바람 서리치고 뛰노는 듯한 국가 쇠망의 위기에 이 국화처럼 구국의 화신으로 피어 달라는 간곡한 당부(申)이라고 해석해서 이 같은 노래를 지어 바쳤으니 지혜로운 명종(明宗)이 기뻐마지 않아 칭찬하여 마지않았음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면양정(旃仰亭)은 그 후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 명종을 도와 오래 힘을 나라 정치에 기울였었다. 명종도 늙어서 치사하고자 하는 송순(宋純)을 붙잡고 간곡히 만류하는 노래까지 지었다 한다.

5. 맺음말

위에서 대개 효와 경로와 사정(邪正)의 노래들을 살펴서 그 때의 생활과 오늘의 생활들을 비교하면서 생각하여 보았다.

물론 상념 상의 해설 상의 차이도 있을 것이나 선인들의 사상은 저러했으며 그들의 이상은 그러했다고 보아서 지금에 타당한 것은 그대로 이어받고 모자라는 것은 깊고 결어서 즉 취장보단(取長補短) 하여서 우리의 행동과 생활의 지침을 삼아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밖에도 미풍양속(美風良俗)을 말할 수 있는 시조는 많이 있다. 즉 혼란한 남녀관을 바로 잡아잡은 것도 협조상부(協助相扶)하는 마음이 메말라가는 현세대에 등불이 될 만한 노래도 있다. 기회 있는 대로 다시 쓰기로 하고 이 붓은 이만 멈추려 한다. (동망산방(東望山房)에서)

〈1954년 노벨상(賞) 수상자(受賞者)〉

헤밍웨이와 그의 작품(作品)

주요섭

1.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생애(生涯)



-재학시(在學時) 수재(秀才)일 뿐 아니라 과외활동(課外活動)의 지도자(指導者)였다-

ERNEST HEMINGWAY는 서기 1898년에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는 낚시질과 사냥을 좋아했다. 소학시대(小學時代)부터 그는 학교공부 이외 학구(學究)에 호기심이 커서 10세 때 다윈의『종(種)의 기원(起源)』을 읽었고, 『돈키호테』와 스페인 투우잡지 기사를 원문으로 읽으려고 스페인어를 자습으로 깨우쳤다.

학교교육은 고등학교 밖에 마치지 못했으나 재학 시에는 수재일뿐 아니라 과외활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다. 오케스트라, 학생클럽, 체육회, 소년소총(少年小銃)클럽, 축구팀 등 단체의 중요멤버로 활약했고 경주단 간사와 수영부 부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졸업반연감(卒業班年鑑)에 실린 단평으로 '어니스트보다 더 영리한 동급생은 한 명도 발견되지 못했음'이라고 씌어 있다.

191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지원병으로 입대하려고 했으나 의사인 그의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입대를 단념하고 <간사스 씨티 스타>라는 신문에 기자로 들어갔다. 그가 써내는 기사마다 편집장은 짜증을 내면서 "짧은 센텐스를 쓰시오. 첫 패러그래프는 짤막하게 쓰시오. 좀 더 활기 띤 영어로 쓰시오. 소극적으로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쓰시오"하고 누누이 충고하는 것이었다. 기자생활에 실증이 난 그는 자기 연령을 속여가지고 미군야전위생대(美軍野戰衛生隊)에 입대하여 유럽전선으로 갔다. 그러나 미구(未久)에 그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한 다리에는 기관총상을 입고, 전신에 237개에 달하는 박격포 파편상을 입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주는 훈장을 받고 그는 제대되었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미국신문의 근동지구특파원직(近東地區特派員職)을 얻어 기자생활을 하다가 1922년에는 <토론토 스타> 지 특파원으로 파리(巴里)에 정주(定住)하게 되었다.

2. 습작시대(習作時代)

그 당시 파리에 와 사는 여러 미국작가 중 특히 EZRAPOUND라는 시인과 GERTRUDE STEIN이라는 여류소설가를 부지런히 방문하여 헤밍웨이는 작가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그 골치 아픈 신문기자 노릇보다 문학 작가가 되는 것이 자기 본직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 당시 그가 우선 쓰고 싶은 소설은 그 무엇보다도 제1차 대전에 승리하고도 환멸을 느끼어 신앙과 희망을 상실한 잃어버린 세대 젊은이들의 대변이 되는 소설을 써서 전 인류에게 호소하고 싶었다.

그는 습작을 써가지고 스타인 여사와 파운드 씨의 평을 요구했다. 파운드는 헤밍웨이 원고에 들어 있는 형용사는 모두 다 푸른 연필로 북북 그어 버리고 철저한 논평을 써서 원고를 돌려주곤 했다. 미스 스타인은 말로 “이 소설은 너무나 여러 가지 긴 묘사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묘사들은 다 훌륭하기는 하오 마는 이 소설은 많이 농축(濃縮)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소설의 도태선택(淘汰選擇)을 시작하십시오”하고 말하였다.

헤밍웨이의 습작을 읽은 미스 토클라스는 “이 제자는 소설가로는 가망이 통 없소”하고 말했으나 스타인은 “아주 훌륭한 제자요”하고 헤밍웨이를 두호해 주곤 했다. 그리고는 언제나 구두로 고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특히 작법기률(作法紀律)에 대한 그녀의 충고를 헤밍웨이는 전적으로 복종했다. 그는 “내가 스타인 여사의 고문을 받고 문밖으로 나설 때마다 나는 커다란 인스피레이션(靈感)을 느끼게 되었고 세련된 기분을 품을 수 있게 되곤 하였다”하고 고백하였다.

스타인 여사 작(作)인 『THE MAKING OF AMERICANS』라는 소설을 <대서양(大西洋) 평론(評論)지(誌)에 연재하기 위하여 헤밍웨이는 그 소설 일부를 새로 베끼고 또 인쇄에 걸기 전 준 교정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배운바가 많았고 그때 배운 모든 것에 나는 경탄하였다”하고 말했다.

헤밍웨이와 셔우드 앤델슨은 둘이 다 동시에 스타인 여사를 사모했으나 이 두 제자가 가진 예술창작에 대한 태도에는 근본적인 상이점이 있었다. 앤델슨은 스타인에게서 배우는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다 섭취해가지고 처음부터 완전한 문장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반하여 헤밍웨이는 문장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하면서도 예술이라는 것은 완전한 문장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헤밍웨이는 선배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이나 세계관은 무척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최

대한 발휘시켜 보고 싶은 욕망은 더욱더 커졌다. 자기가 가진 중대한 약점은, 자기가 쓰는 작품은 너무나 즉흥적인 감을 주는데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끝끝내 전(全) 정열을 창작에 경주(傾注)하였다. 그는 1923년부터 단편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나 그의 야심작 장편 『THE SUN ALSO RISES』가 출판되어 나온 해는 1926년이었다. 이 작품은 제1차 대전 후 『LOST GENERATION』 젊은이들이 승리에 환멸을 느끼고 그 고통을 파리와 스페인에서 주색과 도락으로 메워 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여실이 그려낸 소설이었다. 이 작품이 그 당시 잃어버린 세대의 대변자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 세대가 영영 지나가 버린 현재에 이르러서 이 소설은 무가치한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그의 대표작품(代表作品)

헤밍웨이의 작품은 그 대부분 아니 전부가 그의 직접체험을 반응시킨 것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의 청년생활은 여행과 전쟁과 낚시질과 맹수사냥으로 일관되어 있다. 서서(瑞西)스위스에서는 스키를 즐기고 스페인에서는 황소와 사람 싸움에 정신이 팔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맹수사냥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쿠바에서는 대어 낚시질에 제일 큰 취미를 붙이고 있는 그였다.

제1차 대전 때에는 싸우다가 부상당했고 스페인 내란과 제2차 대전 때에는 신문사 특파원으로서 최전선에서 군인들과 함께 무용으로 이름을 날리었다. 제2차 대전 때 그가 발휘한 무용담 몇 가지만 열거하더라도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룩셈부르크 방어전에 군대와 함께 행동했고 정규군이 파리를 탈환하기 전에 헤밍웨이는 프랑스인(佛人) 게릴라 200명과 합세하여 파리를 제일작으로 해방시키는 전공을 세웠다. 그리고 파리 시내 릿즈 호텔을 맨 먼저 점령한 그는 출입문 밖에다 ‘파파(헤밍웨이의 애칭)가 훌륭한 호텔을 차지하고 있음. 지하실에는 물품풍부야(物品豊富也)’라고 쓴 간판을 내세웠다는 일화가 있다.

1954년에 노벨문학상을 타기 얼마 전인 2월에는 그가 아프리카로 맹수 사냥을 갔다가 비행기사고를 두 차례나 겪어서 중상을 입었다. 그때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1) 추골 3개 압착(壓着), (2) 척(着)신장과 간장파열, (3) 내장허탈, (4) 뇌진탕, (5) 반(半)소경, (6) 두피화상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의 말씀이 내가 글 쓸 때 사용하는 부분의 뇌는 진탕이 침범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하고 익살을 부리었다.

그의 100편에 가까운 단편 중 걸작으로 인정받는 작품은 매우 적다. 『IN OUR TIME』, 『THE KILLERS』, 『WINNER TAKE NOTHING』, 『THE FIFTH COLUMN』, 『THE SNOW OF KILIMANJARO』 등을 그의 우수작으로 쳐주는데 이 단편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닉 아담스라는 소년은 헤밍웨이 자기자신의 소년시절 성장경험 및 행동을 반응시킨 것이라고 보는 비평가가 많이 있다.

장편으로는 전술한 바 있는 『THE SUN ALSO RISES』는 한 특수한 시대 청년군(群)의 고민을 호소한 작품이었고 1929년작(作) 『A FAREWELL TO ARMS』는 작가 자신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선에서 체험한 경험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이 보여준 진실성과 용어와 대화 및 성격묘사의 단순성은 전쟁소설의 한 개의 신기원(新紀元)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뒤로 후배 소설가들이 이 작품 흥내를 내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일반사회도 이런 유(類)의 전쟁소설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놀랄만한 일은 이 소설에 나오는 카포레토 후퇴 장면은 헤밍웨이가 직접경험한 일이 없이 순공상(純空想)으로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묘사가 여실하고도 너무나 훌륭한 점 그것이다.

『DEATH IN THE AFTERNOON』(1932)은 스페인 투우사가 죽음과 도박하는 이야기이고 『THE GREEN HILLS OF AFRICA』(1935)는 그의 여행기라고 볼 수 있으며 『TO HAVE AND HAVE NOT』(1937)은 그 제(題)가 암시하는 대로 일종의 좌익 소설(左翼小說)이었다. 이 책이 나오자 그 당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이 작품을 대찬양하여 선전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좌익적인 소설을 쓴 작가 중에도 학술 레이나 파이스가 창작한 노동자는 기계의 노예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잔혹하고 우둔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한데 반하여 헤밍웨이는 노동자 자체 인간성이 잔혹성을 띠고, 너무나 단순하고, 또 너무나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년 후인 1940년 『FOR WHOM THE BELL TOLLS』에서 헤밍웨이는 공산주의신봉자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나온 것을 발견한 공산주의자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헤밍웨이에게 욕을 퍼붓기에 여념이 없었다.

1950년간(刊)인 『ACROSS THE RIVER INTO THE TREES』에 대해서는 비평가 거의 전부가 악평을 했으나 작가인 헤밍웨이는 태연자약 했을 뿐 아니라 비평가들을 조소하였다.

1952년작인 『THE OLD MAN AND THE SEA』는 1954년도 노벨문학상을 획득한 걸작이다. 이와 동(同)년에 미국한정판 클럽에서는 헤밍웨이의 작품을 '우리 세대

(世代)의 고전(古典)'이라는 찬사와 더불어 은메달 한 개를 보냈다. 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이 작품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현대소설예술에 있어서 보인 그 강력성, 그리고 스타일을 형성한 그 기교의 완전'을 인정한데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소설에 대하여 작가 헤밍웨이 자신은 "나 자신이 이 소설을 200번이나 고쳐 되풀이해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감격은 더욱더 새로워진다. 내가 내 일생을 통하여 애써온 성공을 이 책에서 결국 성취시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하고 말하였다.

비평가들도 대개 다 이 작품을 헤밍웨이의 최대걸작으로 인정한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에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본다. 그 첫째는 그 소설의 배경이 지금 그 작가가 살고 있으면서 가장 큰 흥미와 흥분을 느끼고 있는 쿠바 근처 만류요, 둘째는 이 작가가 일생 가장 즐겨왔고 또 기술이 기막힌 대어 낚시질을 소재로 정한 것, 셋째로는 그가 언제나 존경하고 황홀감까지 느끼는 성격의 소유자인 한 노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가지고 이 노인이 가진 그 백절불굴(百折不屈)하는 용기, 성품, 소박성으로 인간이 정복하기 불가능한 대자연세력 함정 속에 빠지는 시추에이션의 설정 그것이다. 이 소설 줄거리를 폼트 식으로 줄여보면 어업으로 일생을 늙은 한 노인이 84일이나 계속해서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가 85일째날 자기가 탄 배 보다도 더 큰 물고기 한 마리와 만 이틀밤낮을 계속 싸워서 겨우 낚아 올렸다.

그러나 이 18척이나 되는 죽은 대어를 배전에 달고 육지로 향해 오는 도중에 상어 떼가 나타나서 살을 다 뜯어먹고 뼈만 남긴다. 그러나 이 늙은 어부는 낙심하지 않고 그 이튿날 또 여전히 고기잡이를 나간다.

이러한 이야기 줄거리를 가진 이 소설의 특질을 논하자면 아래와 같다. 과거 헤밍웨이 작품전반에서는 강자가 가지는 일종의 감상적인 잔인성만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의 애독자들에게도 그 어딘가 약간의 비탄과 불안감을 자아냈었는데 이 작품에는 그런 점이 거의 없다. 이야기 줄거리에도 거침새가 없이 깨끗한 것이 특색이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에 있어서도 헤밍웨이가 고수하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떠나간 것은 아니고 약간 이전보다 나아진 것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소설 이야기 역시 행동의 찬양에 불과한 것이니 용감한 사냥과, 훌륭한 물고기와, 흥흥한 바다의 동작을 찬미하면서 밑에는 이런 위대하고 경탄할 만한 시추에이션을 만들어 놓으신 조물주에게 보내는 경의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발견은 헤밍웨이의 이전 작품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상징의 발견이

다. 즉 노인은 인류의 존엄, 대어는 자연 그리고 상어 떼는 악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인 이야기는 한 개의 독립된 소설인가 또 혹은 보다 더 긴 소설의 한 부분인가 하는 의문을 미국출판계에서는 품고 있다. 이 질문에 헤밍웨이는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바다에 관한 긴 책을 쓰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까지 20만 단어 원고를 쓰고 다시 고쳐 쓰고 해왔다. 원고는 별개의 4권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한 권씩 따로 출판해도 무방할 것이다.”

4. 헤밍웨이 작품(作品)의 총평(總評)

헤밍웨이가 즐겨 사용하는 시추에이션은 대개가 다 난폭하고, 인물은 대개가 다 악한인 것이 특색이다. 그런데 이 난폭(亂暴) 속에 생을 영위하는 악한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독특한 세계에 부닥치어서 체득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성질도 대개는 다 무감각하게 보이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또 그들은 대개가 다 생의 패배자이기는 하면서도 패배에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니다. 패배이기는 패배이면서도 그 속에서 그 어떤 구원을 받는데 성공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 난폭하고도 무의미한 세파에 휩쓸려 살고 있는 그들은 이 난세 속에서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 간에서는 목격된 의리 또는 관례는 피차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기가 막히는 IRONY이다.

헤밍웨이는 한 류의 인간형을 창조하는데 성공한 작가라고 볼 수 있다. 이 인간형의 특질은 인류의 존엄성과 불완전성의 인정, 인간행동의 올바른 길과 올바르지 못한 길의 인정, 목적을 오직 투쟁으로써 쟁취하는 때 느끼는 만족감의 인정에 있다고 요약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대하여 스웨덴 예술원 사무총장 앤더스 우스틸딩 박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헤밍웨이의 중심테마는 용감에 있다.…… 외부에 존재하는 차디찬 잔학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강철과 같이 강화시켜 가지고 투쟁을 시도하는 인간, 그렇게 함으로써 크고도 고매한 순간순간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인간…….”이라고 말했다.

헤밍웨이가 발전시킨 문장스타일은 무척 평이하면서도 구구절절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생각하며 읽는 사람은 숨은 뜻까지 발견할 수 있는 한 새로운 스타일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헤밍웨이의 스타일은 일반독자에게 환영받을 뿐 아니라

후배작가들도 이 스타일을 모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더구나 그의 대화체의 기교는 놀랄만한 것이니 독자가 읽을 때에는 즉흥적인 것 같은 재치를 느끼지만 작가 자신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연마한 문구로 쓰는 것이다.

5. 현재(現在) 그의 생활(生活)

-그의 작가적(作家的) 활동(活動)은 계속(繼續) 성공(成功)하고 있다-

헤밍웨이의 성격은 방약무인(榜若無人)하면서도 열정적인 우정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진선미 정직은 물론, 공개할 수 없는 추(醜)에 까지도 정열을 느끼고 쏟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므로 목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지식인 앞에서는 무척 어색하고 거북한 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도 높은 지성의 가치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 15년간 그는 쿠바의 하바나시 근교별장에 정주하면서 거의 매일 낚시질에 취해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창작은 매일 게을리 하지 않고 오전 중에 쓰는데 아침 5시 30분이면 꼭 깨어 일어나서 침실 안에 놓여있는 키 큰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선 채로 원고를 쓴다. 서술은 연필로 쓰고 대화는 타이프라이터로 찍는다.

1945년 노벨상 수여식에는 부상치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바나 그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하파티를 열었다. 노벨상 확정통고(通告)를 받은 후 그의 반응은 네 차례나 변했다고 한다.

통지 받자마자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저녁때가 되자 노벨상 탈 자격은 자기보다도 칼 샌드백이 가지고 있다는 이견을 말하였다. 그랬다가 밤이 되자 생각이 달라져서 노벨상은 예술사 저술가인 버나드 베텐슨에게로 가야만 할 것이 자기한테로 잘못 온 것이라고 말했고, 밤새 마신 술에 대취한 그는 새벽녘에 이번 노벨상은 정말 여류작가 아이작 디세센 여사에게로 가야야 옳았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꽤 부지런히 쓰는 작가일지라도 일조(一朝) 국제적 명성을 획득하고 난 뒤에는 웬일인지 작품행동이 장고(長稿)되는 것이 예사인데 어니스트 헤밍웨이 만은 그의 작품행동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기대가 큰 바 있다. (끝)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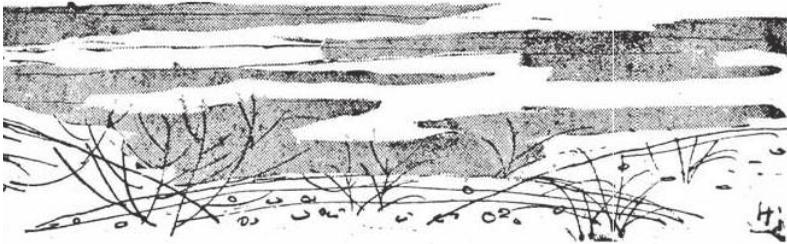
슬픈 해체(解體)

김용호(金容浩)

저어 까마아득한 하늘사이로 바람이입니다. 구름이 잉태되고 그리곤 눈물이 마련됩니다. 기도는 끝내 닿지 못해 허공에서 해소하고 그것인가요. 거리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곤, 떨어지곤 합니다.

불김이 간 아랫목에단
애늬들을 재워놓고
윗목에서 뭉뚱이를 오그리고 앉았노라면

누구에게도 아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아닌
그저 막연하게 소용도리하는 생각들



그 막연함이 절실하게
나에게로 피어오를 때, 앓질하는 나는
누가 기다리는 듯 밤을 헤치고
앞 골목으로 나갑니다.

밭밀이 찬 걸 느끼며 스얼슬 걸어가노라면
물론 막다른 골목이 아닌데도
막다른 심정이 길을 막아 버립니다.

주춤하고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 별이 다정스레 집집의 어린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모양입니다. 헌데 어찌된 일일까요 난 통째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고 저 산머리에서 별 하나가 꼬리를 달고 어디론지 사라집니다.

아하! 슬픈 해체(解體)! 나도 저 별처럼 동화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해체된 지 오래입니다.

1957 늦가을



<시(詩)>

산(山)의 서정(抒情)

박두진(朴斗鎭)

너는, 차라리,
멀리에
사려 앉아
투명(透明)하며 있는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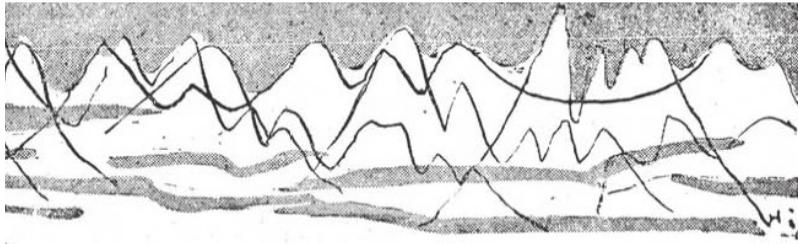
피어오르며,
피어오르며,

울리울듯
쨍쨍히
저렇게도

푸른 아래,

부여잡아
하나 가득
푸르름을
품고,

혼자만의
사무침을
파동(波動)하며 있는고나.



산! 아,
너는,
파동하는 언저리의
너의 하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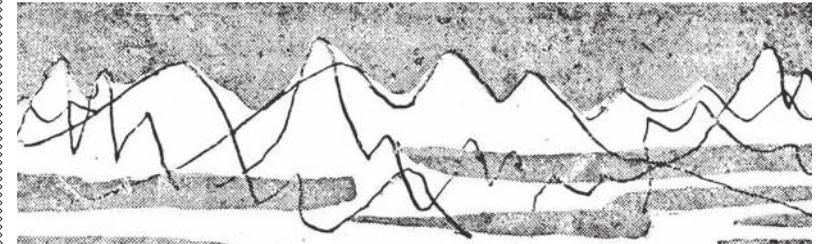
언제 부터
저렇듯
사무침의 푸르름,

푸르름을
차라리
뿔어내고 있는구나.

푸르른
투명한
먼,
위로로의 기류(氣流)는
사무침의
일렁임.

너는,
날처럼 온 날을
오래 앉아 혼자서,

별살 아래
혼자서
오열(嗚咽)하며
있는고나.



<시(詩)>

어떤 풍경도(風景圖)

-1957년(年) 9월(月) 3군사관학교(三軍士官學校)
체육전(體育典) 응원(應援)의 광경(光景)-

공중인(孔仲仁)

사(土)! 새! 새! 새! 새!……
하늘엔 우람한 제트기의 마치

공사

기백(幾百)의 폭음(爆音)이 흔드는 은익(銀翼)의 새하얀 작별(作別),
밀려오는 환성(歡聲)은 꿈속의 급강하(急降下)!
짐차로 소용돌이치는
편대(編隊)와 편대의 파상공격(波狀攻擊).
남청(藍靑)속의 무수(無數)한 백련(白蓮)의 꽃무늬는
제비들의 아.라.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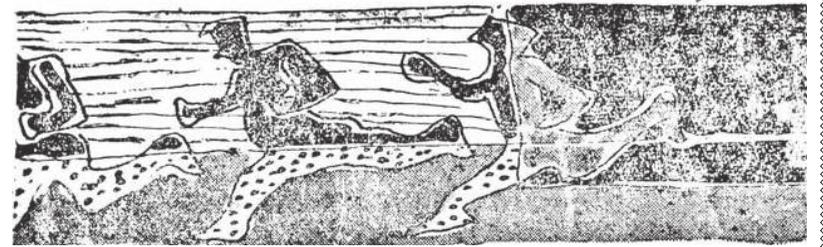
육사

하늘에 일제히 포구(砲口)를 울리며
불을 뿜는 일천(一千)의 탱크!

오색 깃발은 열광(熱狂)한 에미처럼
백화(百花) 흩어지는 찰나(刹那)의 캄푸라지……태산명동(泰山鳴動).
《베니 비디 비시 베니 비디 비시》
……격조(激調) 끝에 하염없는
형가리 랩소디의 종장(終章)!

해사

급습(急襲)하여오는 남해(南海)의 스크르!
머언 갈매기의 색소폰,
연달아 신호기(信號旗)의 함상무도회(艦上舞蹈會).
……신기루(蜃氣樓)……스크르……신기루
오후(午後)의 해명(海鳴)은 지나갔나 보다
웨이브의 왈츠, 왈츠, 왈츠!
귀항(歸港) 직후(直後)처럼 그라운드
아직도 멀미난다.





항로보안업무(航路保安業務)의 중요성(重要性)

하순직(河順直)

인류가 급진적으로 증식하고 과학문명 이기로서의 신예 전쟁무기가 다수 발명됨에 따라 전쟁의 형태는 단순한 원시적 체제로부터 복잡화하고 규모가 광범하게 확대해가고 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항공기를 발명한 이래 인류는 땅을 기고 바다를 헤엄치던 시대로부터 하늘을 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 항공기의 발달은 비약적으로 되어가고 가시항법(可視航法)만이 가능하던 시대로부터 맹목항법(盲目航法)시대로 변화하여지고, 음속을 돌파하는 고속도항공기 및 장거리항공기 출현함에 따라 전쟁의 규모는 확대되고 세계는 더욱 더 좁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장거리비행 및 맹목항법 전처누비행 등을 가능케 하는 주요소(主要素)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이 항로보안인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 된다고 해서 전쟁은 중지될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를 거미줄 같이 둘러싸고 있는 항로 및 항법보조시설 수천수만의 전파가 대해의 파도와 같이 하늘을 날고 있지만, 이런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업무를 담당하여 고도로 발달한 항공기가 천기여하(天氣如何)를 막론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여 전쟁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항공보안의 숨은 공로는 남모르는 봉사인 것이다.

항로보안기무(航路保安氣務)

Air Comm. Service라는 글자 그대로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업무이지만 인체에 비유해 본다면 이목의 역할을 맡아 보는 것이며, 인체에 있어서 이목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보다도 항로보안은 공군에 있어서 실로 중요 불가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대기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그 변화를 점치는 기상업무는, 항행(航行)을 하려고 하는 항공기에게 노상의 장애물의 유무를 미리 알림으로써 안전한 항행을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길 없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항로를 형성하여 항로관.



제국은 공중을 항행하고 있는 항공기의 운행을 관제하여, 완전히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Homer는 바다 가운데 뺨찍이는 등대와 같이 비치지 않는 전파를 발사하여 항로를 표시하고 위치를 알려 준다. 지휘탑은 네거리 한 가운데서 복잡한 교통을 지휘하는 교통순경과도 같이 공항 내에서 항공기의 교통을 정리한다. GCA(맹목착륙장치)는 일종의 Radar 장치로써 이목이 없는 불구자를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길 안내자와 같이 암야(暗夜)나 악천기(惡天氣) 중을 항행하는 항공기를 완전하게 착륙시키는 장치이다. 이 이외에도 항공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항로보안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상으로써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가지 한가지의 업무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지휘소(航空交通指揮所)

그의 임무는 전반적인 항공교통에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항공교통업무의 신경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의 operating procedure를 개별적으로 전술하여 본다면, 첫째 교통지휘업무 둘째 비행계획업무 셋째로 지상제항관제기관과의 연락업무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항공기가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완전히 마칠 때까지의 절차를 적어 보기로 한다. 그런데 한가지로 당(當) 기관의 업무로서는 모든 목시비행(目視飛行)에 대하여 그 일질 관심사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목시비행에 대해서도 어느 항공기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쯤 알 수 있는 비행계획서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비행계획(飛行計劃)의 업무(業務)

조종사는 자기가 항공할 비행계획을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다음 기지지휘소(base operation)에 제출한다. 거기에는 항공기의 명칭, 형, 속도(시속), 항로, 목적지, 출발에 정시간, 소요시간 함유연료량, 기상부호(중착기지의), 피아식별기 보지(保持)여부 등의 기재(記載)이다. 기지지휘소에는 이것을 받으면 즉시 ARTC와 Tower(지휘탑)에 연락한다. 그러면 Tower에서도 적당한 시간에 ARTC에 대하여 이 비행계획에 관한 비행허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이 비행계획이 ARTC에 가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교통지휘에 봉사하는 자료가 되느냐의 것이다. 비행계획은 B Position Man에 의하여 복사된다. 그래서 A Position Man에게 전달되면 A Man은 그 항공기가 항행하는데 필요한 항로에 따라서 통과하는 Radio Fix마다 Strip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발점의 Strip만을 D Man에게 전달된다. D Man이란 Main controller이다.

2. 교통지휘업무(交通指揮業務)

D 즉 Controller에게 전달된 출발 Strip은 Tower에서 비행허가를 요구할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요구가 오면 즉시 그때 당시의 교통상황을 보아 가장 안전하고 Pilot의 최대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행을 허락한다. 항공기가 출발하면 그 출발시간이 즉시 Tower를 불러 연락해 온다. 그러면 그 시간을 A Man에게 알려주어, A Man이 보관하고 있는 Strip들에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을 산출하여 controller에게 넘겨주게 하고, 한편 자기로서는 출발 Strip에 출발시간을 기인한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여행함을 따라 혹시 어떤 장애나 충돌이 생길 염려가 없는가 당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비행 중의 항공기로부터 직접 무선으로 또는 Tower로부터 Land Line을 통해서 여행보고를 받는다. 총착에 거의 다다를 시간이 되면 30분 내지 15분 전에 당해(當該) Tower에게 알려 준다. 그렇지 않고 Approach, control이 없는 Tower일 때에는 직접 Radio를 통해서 착륙허가를 주고 특히 이에 대해서는 착륙이 완료될 때까지 격별한 주의를 항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제업무에 있어서는 항상 모든 교통규정이 조항으로 나열된 ANC Manual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것과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서도 관제상 자신의 예민하고 적절한 판단에 의하여 신속 안전만을 염두에 두고 관제하면서 완전한 입무수행에 노력한다.

3. 연락업무(連絡業務)

현재 한국에서는 모든 연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Land Line을 통하여 전화로서 하고 있으며 U.H.F.V.H.F의 Radio circuit도 없는 것은 아니다.

B Position에서는 출발시간을 받았으면 즉시 도착지 Base Operation에 도착예정시간과 함께 대략적인 Information을 알려 주며 도착보고를 받았으면 출발기지에 그 시간을 알려 준다. 특히 중대한 것은 Radio Site와의 연락인데 긴밀과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은 이것이다. 더구나 사태가 극도로 국경식별에 불리한 한국에서이다.

즉 평면전이 입체전으로 화환에 따라 수없는 항공기가 까마귀 떼처럼 날고 지상의 국경은 물론 오늘날에는 영공에도 장벽 같은 국경을 싸고 있는 것이니 그것은 거미줄 같은 Radar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항공기에 피아식별기(IFF)라는 것이 있어 극도로 편리는 하지만 이는 모든 항공기가 갖지 못한 것이다. 이 모든 Radar에는 아무리 작은 비행기라도 그의 Coverage 안에 있거니와 그것에 대하여 Radar Station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즉 환언(換言)하면 Scope 상에 나타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비행계획서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RTC에서 자칫 잊어버리고 이것의 연락을 소홀히 한다면 정체불명의 항공기로 인정하여 어떤 행동이 취해질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요는 이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의 근무관 말초신경까지를 자극시켜야 하며, 언어판단력과 예민한 두뇌

를 이용하여 안전을 기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Pilot의 생명을 보장하기를 거의 완전무결에 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Controller의 일분일초의 상황과 이를 이행치 않는 Pilot는 자기의 생명과 국가재산의 파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모든 문명이면이 그러하듯이 반면에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희생하는 Controller들의 고로(苦勞)와 해택은 ATC를 다소나마 알고 난 우리로서도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Tower

Air(공항) 내에 항공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항공기의 이착륙을 지휘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ARTC CGA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Control zone 내외를 통과하는 항공기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기지(Base)내에서 일어나는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계기관을 돕고 있다. 이 Tower 내에는 3개의 Position이 별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적어 본다.

A Position=직접 항공기와 Voice 통화로서 A/C의 이착륙 허가를 주며, 이착륙에 대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돕고 있다. 또한 Control zone내에 들어온 교통망을 Controller 판단에 의하여 복잡한 교통을 정리하여 A/C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연한다.

B Position 기지지휘소로부터 들어오는 Flight Plan(비행통보), (기지기상반)에서 주는 Weather information (기상통보)을 받으며,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항교통에 관한 Message 등을 받고 APC, Control ARTC 등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비행계획을 받는다. (A Position을 보조한다)

C Position=이는 Approach control인데 IFR(계기비행)을 하는 A/C를 이착륙 및 Control zone(지휘지역)내에 비행하는 A/C를 ARTC로부터 인계받아 관제하며 BASE L.O.P에 의하여 Controller의 판단으로서 IFR 비행을 돕고 있으며, A/C의 상승 강하를 지시 감독하면서 ARTC를 돕고 있다. 이상 말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Tower는 Base내에 Navigation Aid에 관한 제반 장비를 Check하고 긴밀한 연락으로서 각 관계기관을 돕는다.

또한 Crash Station과는 긴밀한 연락망을 가지고 제반 사고의 처리업무 수행을 돕고 있다.

Homing BCN

Homer Station은 항로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은 장비할 수 있다. holding(채공) Instrument App(계기유도점근) APF(자동방향점근) 등을 위하고 항로의 위치를 알리고 있

다. 모든 A/C는 이 Homer를 통하여 채공 강하 위치보고 등을 하고 있으며, IFR 비행의 Point로서 차기비행을 계획한다. 또한 계기착륙 등을 위한 시설이며 국제 Mores 부호로서 24시간 계속 무지향성 방향으로 방송되고 있다. A/C는 Homer 상공 (Fix)에 도달하면 계기 관을 통하여 A/C의 현 위치를 보고하고, 다음 비행을 예고하면서 ATC에 승인을 받는다. 즉 Homer는 항로상의 고정된 목표물이다.

Range Station

항로상에 위치하고 Homer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향성 전파를 발사하며 (N.A) 국제 Mores 부호로서 남북을 알리고 있으며 A/C가 Range Fix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비행하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Range는 항로를 네 개 형성하여 주고 있으며 끊임없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Homer 보다 우수하고 장비로서 Pilot가 Fix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차기비행의 방향을 쉽게 택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Range는 여러 가지로 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세부적으로 Range의 종류를 적어 보기로 한다.

-VAR- (VISUAL AURAL RANGE)

Loop Range와 Adcock Range의 불편한 점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고 우수한 Range인 VAR Range는 Visual Range와 Aural Range로서 구성되었으며 고주파수 VHF로서 이 VAR Range는 두 개의 Visual Course와 두 개의 Aural Course를 갖고 있으며, Pilot는 IFR 비행시 A/C 내에 있는 Indicator를 보면서 Visual Course를 비행하고, Aural Range를 비행할 때는 Steady Tone(계속적인 신호)를 들으면서 on Course를 비행한다. Pilot는 눈과 귀로 들으면서 자유스럽게 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장비인 것이다.

세부적인 설명은 지나친 기술적인 용어 관계로 생략한다.

-VOR-

항로를 형성하는 Radio Range의 일종으로서 다른 Range들에 있어서 제한된 수의 항로를 형성하는 단점을 제거하고 수만은 항공기가 군집할 때라도 무수한 항로를 이용하여 신속 용이하게 교통을 관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무수한 항로를 형성한다는 말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신비한 전파의 힘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즉 한 개의 지향성 Radio Signal이 회전등과 같이 단속해서 돌고 있으며 (우측으로) Signal이 자북(磁北)을 향할 때 또 하나의 비지향성 Signal이 발사된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Range Station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이 지향성 Signal과 비지향성 Signal을 동시에 듣

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만일이 Signal이 한 방향에 일회전을 한다면 Range Station에서 90도 방향 즉 동쪽에 서있는 사람은 비지향성의 Signal을 들은 15초 후에 이 회전하는 Signal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계산으로써 Range으로부터의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신호를 따라 방향을 정하여 비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는 즉 항로이므로 무수한 항로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계산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놀랄 필요가 없는 일이다.

1분간에 1,800회를 회전하는 Signal에 대한 미분적인 정확한 시간차는 다행히도 기계의 힘으로써 계산되어 Pilot는 계기판에 나타나는 숫자만을 읽을 줄 알면 방향과 위치를 알게끔 자동식으로 되어 있다. VOR Station의 식별은 국제 Morse부호로 발사되고 있으나, 어떤 것은 Pilot의 Morse부호의 상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음성으로 발사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편리한 조건들을 내포하고 있는 VOR항로는 1952년 6월 1일에 미국에서 민간항공기의 항로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불편한 항로시설의 많은 단점들을 제거하여 항로교통관제에 이점을 가져오고 있다.

-ILS-

계기착륙장치(Instrument Landing System)라는 것이다. 조종사에게 가장 애로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착륙에 있어서이다. 더구나 기상 악조건이 목시비행을 허락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착륙하는 비행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로 방위이며 둘째는 활주로이다. 즉 활주로를 보지 못하면서 접근해 오는 항공기를 활주로의 중앙선과 평행하도록 해야 하며 R/W의 적당한 지점에 GEAR가 손조롭게 닿을 수 있도록 활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첫째 방위의 결정은 어떠한 시설을 이용해서 이는 R/W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 Transmitter로부터 발사되는 Signal이 수평면으로부터 25의 각도로서 Beam을 형성하고 있다. 항공기의 계기판에 있는 지침은 항공기가 Beam을 따라가고 있으면 중앙선에 놓여있게 되고 항공기가 Beam보다 앞이면 위로 지침은 올라가며 높으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강하율(降下率)을 유지하면서 활공을 하는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빈틈없이 정확한 것이다. 그러면 이 활주로를 따라서 R/W에 접근하는 항공기에게 자기와 R/W와의 거리를 알려 주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Pilot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항로보조시설의 유일한 목적인 만치 이것 또한 당연한 일인 것이다.

R/W 끝으로부터 3,500피트 떨어진 곳의 Pilot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개의 Transmitter가 각각 다른 전파를 발사하여 두 개의 전자계를 만들고 이들이 겹쳐지는 부분으로 해서 하나의 끝은 줄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상의 계기판에 이 겹쳐진 부분

의 중앙선에서 항공기가 우측에 있으면 항색부분으로 향하게 하여 조종사는 용이하게 자기가 중앙선의 우측에 있는지 좌측에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앙선은 즉 R/W의 중앙선을 공중에 연장시켜 놓은 것으로서 이와 평행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Pilot는 지침의 방향만을 보고 좌로 우로 항공기를 유도해서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활주로에 관한 문제인데 즉 항공기의 종적인 유지이다.

Middle Market가 그리고 5마일 떨어진 곳에 Outer Marker라는 게 있어 각각 등근 Beam을 공중에 발사한다. 이로 인하여 활주로를 활공하는 항공기는 거기에서 들리는 Signal을 듣고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대략 이러한 보조를 받아 가면 기상의 악조건 하에서 무난히 착륙할 수 있는 것이다.

-Loop and Adcock Range-

항로를 형성하는데 네 가지의 Range를 사용한다. (Loop, Adcock, VAR, VOR) 그러면 Range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 개념을 항로를 형성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해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편리와 안전과 정확성을 기하여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연구 끝에 벌써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의 순서에 따라 항로형식의 원리를 구명해 보기로 한다.

1. Loop Range

이 이름은 Antenna의 모양에서 온 것이다. 테모양의 두 개의 안테나를 네 개의 기둥에 매어 십자형으로 설치하고 한 개의 Transmitter로 두 개의 Antenna에 대하여 교대로 A와 N을 Mores 부호로 발사한다. 즉 N의 dash가 먼저 발사되고 난 뒤에 곧이어 A의 dot가 발사되고 그 뒤로 바로 이어 N Antenna의 dot가 또 발사되는가 하면 또 뒤를 이어 A Antenna의 Dash가 발사된다.

그런데 이들 A, N의 각각의 Antenna에서 발사되는 Signal들은 4개의 원을 그리는 Signal Zone을 만들 것이다. 이 Signal Zone이 겹쳐지는 곳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호가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개의 Transmitter로 발사되는 Signal이 자동연쇄장치에 의해서 쉴 새 없이 A, N 안테나에서 교대로 퍼져나가고 있어서이다. 이 계속되는 Signal이 들리는 곳이 즉 항로이다. 그러므로 한 개의 Range Station에서는 네 개의 항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연결해서 장거리의 항로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Pilot는 계속음만을 들으며 항행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시설이 잘 된 항로라면 100마일 마다 한 개의 Range station이 있으며 필요한 최대 한도의 Information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현재 외국 선진제국에서 이것은 차차 사라지고 더욱 편리한 항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 점차 진행 중에 있다.

2. Adcock Range

이것의 원리나 모든 것은 Loop Range에 있어서와 동일한 것이며, 단지 그의 가장 큰 장애인 야간동작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 모양의 5개의 안테나를 사용하고 이에 연결하는 선들을 지하로 매장하여 야간에 전파의 굴곡 등을 제거하고 하시(何時)를 막론하고 원만히 동작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LM/F Range (Low medium Frequency Range)라고 부르는데 Adcock는 Loop에서 좀 발달된 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C.G.A-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날도 A/C는 착륙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떤 절차로 A/C를 안전 이착륙 시키고 있나? 이것이 바로 지상 지휘 접근 (Ground Controller Approach)이라는 것이다.

이것 역시 맹목착륙을 위한 보조시설로서 특수한 것은 단거리 Radar를 사용하여 항공기를 R/W까지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두 가지의 Radar를 사용하는 그는 ASR(Air Port Surveillance Radar)와 P.A.R(Precision, Approach Radar)이다. ASR은 30 Mile 직경으로 공항 부근의 항공기를 모두 Scope 상에 잡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서 Final Approach (최종 접근)까지 안전하게 유도한다.

다음은 PAR에서 10마일 이내의 Final Approach상에 들어온 항공기를 잡을 수 있는데, ASR에서 유도하는 동안 PAR을 감시하고 있는 Final controller는 Target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종과 횡을 (Azimuth & Elevation) 잘 유지하여 착륙시키는데 Controller의 끊임없는 Advice로서 조종사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맹목착륙을 완성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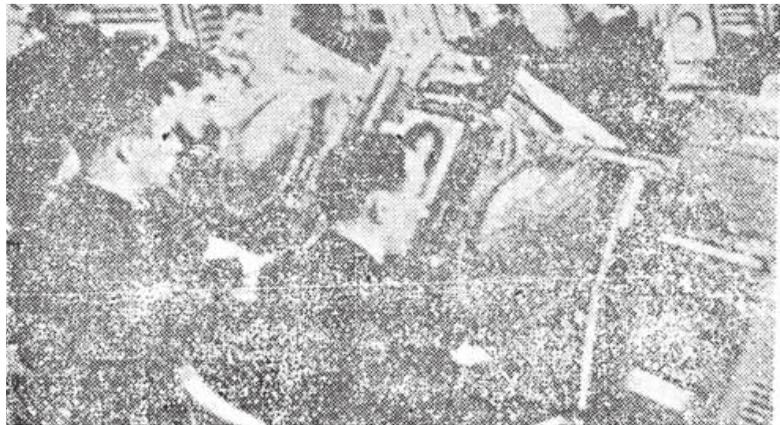
이것은 우리나라 공항에도 더러 있으며 우리 한국공군에게 완전히 인수하여 독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두어군데 있다. 이는 ARTC지휘탑과 함께 항공교통 지휘의 중대한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D/F-

항공기가 비행 중 불의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하여 Pilot가 항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때는 이를 도와주는 곳이 곧 D/F Station이다. 이 D/F Station은 항상 대기상태에 놓여 있으며, 언제 어느 A/C가 호출할 때라도 이에 응하여 A/C를 도울 수 있게끔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D/F Station 지휘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D/F operator는 항로를 잃고 방황하는 A/C를 목적지까지 접근시켜 무사고한 비행을 돕고 있다. (끝)



북미주(北美州)를 수호(守護)하는 DEW라인

미(美) 북미(北美) 방공(防空) 사령관(司令官)

공군대장(空軍大將) 알 E 파트리지

만일 소련이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자신을 방위하리만치 빠른 시간 내에 경보를 얻을 수 있을까? 미국은 공습해온 모든 적기를 일거에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 중의 몇 대의 적기가 요격을 피하여 미국 도시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을까?

소련이 실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장거리 유도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유도탄의 포격도 방지할 수 있는가? 다음은 북미주 방공 사령관인 알 E 파트리지 공군대장과 USNWR지 기자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문(問), 파트리지 장군, 귀하는 거반(去般)[지난번] 북미주 방공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방공사령부는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가?

답(答)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부터 캐나다의 극북방 지역, 또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를 장악하고 있다.

문, 그것은 북반구의 광대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지역이 귀하의 책임 하에 있는가?

답, 북미주의 방공군은 육·해·공군 및 캐나다 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나의 책임은 방공에 관련된 사항의 광범위한 계획과 보고에 관한 것이다.

나는 전술, 기술적인 문제, 필요한 작전상의 절차를 결정하며 정보, 및 필요한 통신, 전자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또 나는 그것을 지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체제의 작전적 지휘를 맡아 보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포함된 한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난점이 있다. 캐나다 군도 우리네처럼, 그들 군대는 그를 자신의 장교가 지휘해주길 바란다.

지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각자의 사령관들에 의하여 처리되어오던 행정, 병참(兵站), 보급, 훈련 및 교화문제(教化問題)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미 육·해·공군을 파악하고 있으며 캐나다 군은 캐나다 공군의 래리 레이 중장이 지휘하고 있다.

머지않아 나는 통합 사령관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은 미국 연합참모본부와 캐나다 참모본부에 직접 보고한다.

문, 소위 'DEW 라인'이란 무엇인가?

답, 그것은 레이더기지의 연쇄로 된 장거리 조기 경보망이라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의 북방에는 세 개의 레이더망이 있다. 지금 말한 DEW라인은 알래스카로부터 파핀랜드에 뻗어있다. 이 레이더망의 일부는 알래스카 공군 사령부가 다른 한쪽은 미 공군 64비행사단이 운용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총사령관으로서의 나의 지휘에 움직이고 있다.

문, 이것은 그린란드도 포함하고 있는가?

답, 아니다. 그곳에는 그린란드 자체의 방위선이 있다.

문, 이러한 레이더망이 이 선을 통과하는 어떠한 물체도 보조할 수 있으리만치 충분한가?

답, 그렇다, 그것은 비상한 과학적 업적의 하나다.

문, 대강 몇 개소의 기지가 있는가.

답, 50개소 이상이 있다.

문, 각 기지마다 인원은 극소수라는데?

답, 2명에서 50명 정도이다.

문, 그들은 자주 교체되는가? 혹은 꼭꼭 이행하기 어려운가?

답, 그렇다, 매우 어렵다. 우리는 페더탈 일렉트릭 회사와 계약하여 문관이 운영하고 있다.

문, 그러면 군사인원은 그 기지를 운용하지 않고 있던 말인가?

답, 그런 말은 아니다. 군사인원도 몇 사람씩 주재하여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 계약 하에 있는 정부의 전부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 이 DEW라인의 설치로서 미국을 방위하는데 있어 얼마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답, 이곳에서 미국까지는 1,200마일이나 되며 시속 600마일로 비행하더라도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더 걸릴 것이다.

문, 이 레이더망은 인근지역에 있는 레이더망과 연결하는 장치가 있는가? 듣기에는 반자동식 경보망이 있다는데?

답, 그렇다. 레이더망에 나타나는 목표를 인근 레이더에게 알리는 자동경보 장치가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서 미국 내에는 반자동 경보 장치가 있다.

문, 이것은 모두 레이더로서만 구성되어 있는가?

답, 그렇다. 모두가 레이더뿐이다.

문, 그러면 이 경보망의 측면은 어떻게 방위하는가? 적이 만일 DEW라인의 측면에서 그 사이로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 해군은 조기경보망 해변 연접선이라고 부르는 2개의 측면 경보망을 보유하고 있다. 한 선은 알래스카에서 태평양으로 연장되어 있고 다른 한 선은 뉴펀들랜드에서 태평양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은 또한 초계선(哨戒船)과 특수 레이더와 통신기를 장비한 구축함(驅逐艦)들로 보호되는데, 이들 선박은 언제나 그곳을 초계하면서 이들 레이더망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리적 위치에 계속하여 유지케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군 소속의 WV-2 콘스텔레이션⁴²⁾ 형의 조기경보 항공기가 배속되어 항상 이 선의 전후면을 공중감시 한다. 그들 역시 레이더와 필요한 통신 시설을 장비하고 있다. 또 미 공군 소속의 RC-121기도 양면 해안지대를 레이더로서 경계한다.

문, 귀하는 이 DEW라인이 기습하는 적기를 성공적으로 포착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답, 나 자신보다도 이미 이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서부터 그렇다.

경보(警報)는 어떻게 전달(傳達)되는가?

문, 만일 귀하가 경보를 받으면 어떻게 모든 시민에게 전달하는가? 미국은 실로 광대한 대륙인데 어떻게 모든 도시에 경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답, 그것은 실로 간단한 문제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즈에 있는 통신시설은 우리가 획득한 정보를 연방방위본부에 제공하기 위해 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들이 하는 것은 모조리 콜로라도 스프링즈에 있는 감시반의 감시를 받는다. 이곳에는 만은 감시원, 교환수가 의자에 항상 앉아있다. 어떠한 의문점이 발견되면 그들 민간방위원들은 솜 대령의 사무실에서 조사한다. 솜 대령은 우리 사령부 전투작전부의 책임자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즈에 있는 민간방위본부원은 전국적인 유선망을 가지고 있으며 수화기 하나만 들면 전국에 연락된다.

42) constellation

문, 이제까지 적기내습시의 경보에 관해 말해왔는데 이를 포착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으로서는 어떻게 하는가?

답, 첫째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전술공군 사령부에 통고하여 그들의 기동력을 얻는 것이다. 민간방위본부원은 동시에 민간을 위해 일한다. 우리는 모든 군부기관에 적기가 내습한다는 뜻을 전한다.

적기가 북부 캐나다 지방이나 대양방면으로부터 침입하자마자 우리는 그곳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즉시 요격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내 기지뿐만 아니라 남부 캐나다와 그린란드의 룰 지대에까지 요격 전투기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출동준비를 하고 있다.

격추준비(擊墜準備)는 완료(完了)되었다.

문, 그렇다면 하루 24시간을 두고 출격준비를 하고 있던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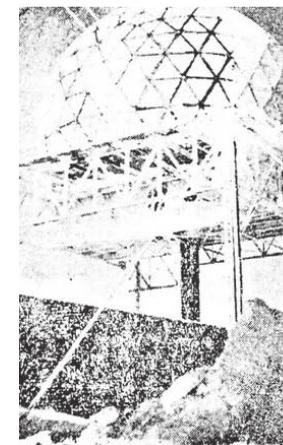
답, 하루를 두고 24시간 1년을 두고 365일이다. 이와 꼭 같이 대공포와 유도탄으로 구성된 육군방공군도 항상 적기를 격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나 충전되어 있으며 수분 내로 발사 될 수 있다.

문, 귀 사령부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답, 나의 사령부는 콜로라도 스프링즈에 있다.

문, 그곳이 전체 경보망을 움직이는데 중심부라고 생각되는가?

답, 그렇다. 나는 그곳에서 하루 24시간동안 전투작전을 지휘한다. 실제적 업무는 솜 대령이 수행하고 있으며 나는 언제나 연락을 받을 수 있고 당시 위치 여하를 불구하고 출두할 수 있다.



문, 이러한 경보를 자주 받는가?

답, 아니다, 많지 않다. 우리는 전술공군 사령부와 합동하여 허다한 훈련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이중적인 효과를 얻는다. 그들 전술공군은 우리에게 대한 전술을 강구하는 기회를 포착하며 또한 우리도 그들에 대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이다.

문, 침투하는 전(全) 적기를 포착할 수 있는가?

답, 그렇지 못하다.

문, 그러면 전술공군 비행기가 요격하는가?

답, 때때로 그들은 침투한다. 그러나 그 일부가 통과할 뿐이다. 조만간은 추격되는 것이다.

문, 조만간이라면 시간문제를 말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허용되지 않을 것인데?

답, 생각하라, 우리는 이 중대한 두 시간을 얻기에 매우 노력하였다. 우리는 이때까지 캐나다 남부에 있는 파인 트리 선이라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다.

문, 중간선이란 것은 무엇인가?

답, 중부 캐나다 선이란 캐나다 군이 건설한 경보망으로서 드 로플라 원칙을 채택한 이중적인 경보망이다. 이 선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며 무엇이 이 선을 통과하는가를 알려주는데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문, 귀 공군이나 유도탄의 지상발사 등으로서 실제로 적기를 보조할 수 있을 것인가?

답, 100 퍼센트는 아니다. 한 떼의 물오리를 단번에 쏘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좋으면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그 물오리들이 재빠르다면 우리는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문, 귀 사령부는 공중 대 공중 원자유도탄인 MB-1을 보유하고 있는가?

답, 지난 7월 19일 이 로켓을 원자력 위원회의 실험장에서 실험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즉시 발사되어 적기라고 인정되는 여하한 비행기도 격추할 수 있는 비행기에 탑재된 원자탄두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문, 만일 집단적으로 침공해 올 때 전기(全機)를 격추할 수 있을 것인가?

답, 그렇다, 만일 적이 일기에 내습해 온다면 이 유도탄으로 능히 전멸시킬 수 있다. 편대 비행으로 내습하는 때는 만약 의문이 있다. 적은 한 대 한 대씩 내습할 것이다.

문, 이 원자유도탄이 폭발될 때 그 밑에 있는 시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 우리는 그라운드 제로 (폭발직하 지점)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밑에 있던 자들은 만약 동요되었지만 어떠한 신체에 손해를 받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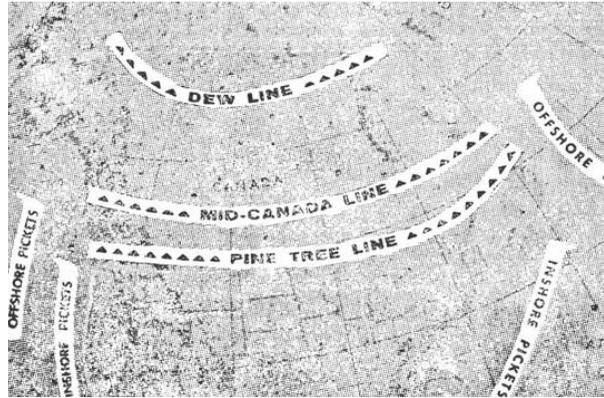
북방(北方)으로 부터의 위험성(危險性)

문, 그들은 주로 북방으로부터 내습해올 것이라고 보는데?

답, 적어도 그들은 공중으로부터 기습해올 것이며, 신경작전으로 1, 2척의 잠수함을 이용할 것이다.

문, 그들의 손쉬운 침습로(侵襲路)는?

답, 가장 손쉬운 침투로는 캄차카 반도나 노르웨이 동방의 콜라 반도가 될 것이다.



문, 미국 내의 가장 가까운 공격목표는 어느 곳이 될 것인가?

답, 목표가 될 가장 큰 집결지는 노퍽으로부터 보스턴,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등 지역이며 시애틀, 포틀랜드 등지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등도 포함된다.

문, 이들 목표지는 공격개시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되는가?

답, 일방로(一方路) 5,500 마일을 비행할 수 비상할 수 있는 폭격기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쉬이 폭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련에서 발사되는 5,500 마일 유도탄은 능히 북미주 전역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소련(蘇聯)의 레이더망(網)

문, 소련 측도 우리에게 대등할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답, 물론 있다.

문, 그들도 DEW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답, 그들은 소련 전 영토와 위성국에까지 미치는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매우 충실한 것이다.

내가 콜로라도 스프링즈에 오기 전까지는 극동지역에 있었다.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사이에 그들은 극동지역에 광범한 방공 레이더망을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이를 매우 잘 정돈하였다. 그것은 지극히 효과적이며 그 근방에 있는 우리의 것보다 더욱 우수할지도 모른다.

문, 이 레이더망에서 활약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

답, 내가 이 인원수에 관해 말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말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3군이 모두 인원산출 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해군은 우리에게 병력을 제공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레이더망에 배치될 때부터 나의 작전상의 지휘 하에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상당수의 초계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한 시간 내에는 불과 몇 퍼센트의 초계함이 있을 뿐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는 약 20만 명 정도가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캐나다 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중 약 30퍼센트가 미(美) 육군이고 약 10퍼센트는 해군이다.

문, 소련의 위협은 증고(增高)되고 있다고 보는가?

답, 소련은 더욱 현대적 항공기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종전까지 그들은 B-29형의 비행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들의 것과 비교될 만한 제트폭격기와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원자무기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들의 방위력이 증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위협도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LIS 생(生))



미(美) 군축(軍縮)과 군수산업(軍需産業)의 영향(影響)

박운암(朴雲巖)

- ★ 미군의 장비와 병력에 대한 대규모의 삭감이 현재 단행(斷行)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큰 삭감이 계속하여 실시될 것이다.
- ★ 그와 같은 삭감은 미국의 군수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 ★ 우선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항공기 공업이다. 주문의 연기와 취소는 15억불을 상실케 하고 10만 명을 실직케 할 것이다.
- ★ 국방당국의 주문은 또한 다른 공업 분야, 석유, 식량, 의류, 무기, 차량, 전자장비 등에서 큰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 ★ 시애틀에서 뉴욕에 이르는 모든 도시의 사업가들은 수많은 군사시설의 폐쇄 혹은 축소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 그로 말미암아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될 노동자 수는 수만에 달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대규모로 군비를 감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비축소는 여러모로 미국의 군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일부의 도시에서는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급여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일부의 사업가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시된 군사비의 삭감액은 26억불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삭감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 6개월간의 국방비지출액은 연 402억불의 비율이었으나 이 비율은 앞으로 380억불 이하로 삭감하게 될 것이다.

항공기에 대한 주문은 현재 연기되고 있고 많은 유도탄에 대한 주문도 역시 연기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 60척의 군함이 퇴역하고 앞으로도 여러 군함의 퇴역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병력삭감은 10만 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이 삭감은 30만 명으로 증가될 것이다. 한편 전(全) 세계의 미군 문관(文官)들은 약 10%가 감원될 것이며 각종 군사시설은 폐쇄 혹은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외의 군사기지에서의 큰 건설공사는 현재 완만(緩慢)하며 일부 해외지역에서도 미군은 감축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동향은 미국의 실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영향은 그러한 금액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비의 지출이 물가가 폭등하고 있을 때 삭감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의 억제책(抑制策)

미군의 감축은 강대국의 군비축소에 대해 합의가 있기 전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플레이를 억제하는 한 수단으로서 군사비를 삭감하려는 결정에서 발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정부는 한편으로는 용자를 더욱 곤란하게 함으로써 인플레이를 억제하려고 노력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자체의 지출을 꾸준히 증가시킴으로써 인플레이를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군부가 그 지출의 큰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당국자들은 그와 같은 삭감이 미국실업계에 여러 면으로 타격을 주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삭감은 상품에 대한 전면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가격인상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 한다. 미국 정부에서는 또한 주요산업이 노동자들에게 매년 임금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올리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空軍)의 감축(減縮)

군사비의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항공기 공업이다. 한 유도탄에 대한 주문이 취소됨으로 해서 현재 1만 2천 명의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항공기계약 납품연기는 10만 명에 달하는 항공기 노동자들을 임시해고하게 될 것이다. 항공기 공업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연기 및 취소로 말미암아 결국 약 15억불에 달하는 사업을 상실케 되는 것이다.

이미 F-101, F-104, F-105 및 F-106 제트전투기와 B-52 및 B-58 제트폭격기와 KC-135 제트급유기에 대해서는 생산을 예정보다 적게 하기 위해서 연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베버호 장거리유도탄의 생산은 취소되었고 중거리유도탄 퍼피터와 토오는 곧 둘 중 어느 하나만 택하게 되고 하나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공군참모총장의 언명(言明)에 의하면 미전략공군의 항공기수는 이미 감소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감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일부의 발달한 항공기 중에는 그 생산이 전적으로 취소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는 마틴 B-68 제트폭격기와 더글라스 C-132 병참수송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월에 종료되는 현(現)회계년도의 항공기 및 유도탄에 대한 미공군의 지출은 작년도의 75억불에서 70억불 이하로 저락(低落)하게 될 것이다. 70억불에서 얼마나 저락하게 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항공기 공업과 함께 국방비의 삭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미공군력의 증강으로 턱을 보아온 그 밖의 산업이다.

예컨대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항공연료 및 특수연료구매의 삭감은 석유공업에 대한 지출을 10% 내지 15% 감소시킬 것인데 이것은 석유공업이 1억 1천 5백만 불 내지 1억 7천만 불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몇몇 공군기지 근처의 도시의 사업가들은 공사가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드는 등 역시 타

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미 공군에서는 오클라호마 주 아드모어 기지의 모든 큰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텍사스 주 브라이언 공군기지와 같은 곳에서는 주택건설공사를 이미 중지하였다. 공군에서는 또한 다음 회계 연도 말까지에 팜비치 공군기지를 폐쇄할 예정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마라나 기지와 애리조나 주 스톨링 기지에 초등비행학교를 설치하려는 예정은 취소하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 주 벤쿠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로우린버그 맥스톤에 있는 차량관리기지도 폐쇄될 예정이다.

해군(海軍)의 감축(減縮)

현재 계획되고 있는 미해군의 감축도 역시 같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다수의 해군시설이 폐쇄 혹은 크게 축소될 것인데 그 중에는 뉴올리언스에 있는 해군병기창, 캘리포니아 주 메어 아일랜드에 있는 해군병원, 워싱턴 주 스포케인에 있는 해군보급창, 노스캐롤라이나 주 엘리자베스 시에 있는 해군비행장,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해군구매처, 뉴욕에 있는 해군항만관리처 및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해군주둔사령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삭감은 그 지방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 혹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 해군시설의 감축은 금년 12월 말까지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비를 삭감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연구해봄에 따라서 그와 같은 감축은 앞으로도 더욱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표된 대서양함대 및 태평양함대의 군함 60척의 퇴역 이외에 미 해군에서는 또한 최소한도 2개의 항공기발전계획 록히드 W2V1 및 더글라스 A4D-3을 감축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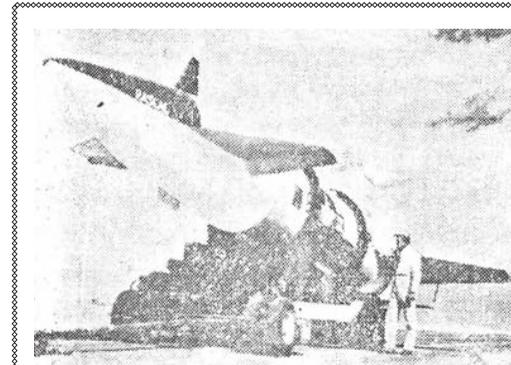
육군(陸軍)의 감축(減縮)

그러나 앞으로 가장 큰 감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미육군이다. 병력의 가장 큰 삭감은 육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수의 육군부대가 해체되고 그와 동시에 각종의 육군시설이 폐쇄 혹은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이것은 미전국의 각 도시와 지방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어느 육군시설이 감축되느냐하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미 육군은 이미 50개 부대에 달하는 그 보병, 기갑, 포병 및 대공포부대를 해체하였고 현재 제5사단과 제24사단을 해체 중에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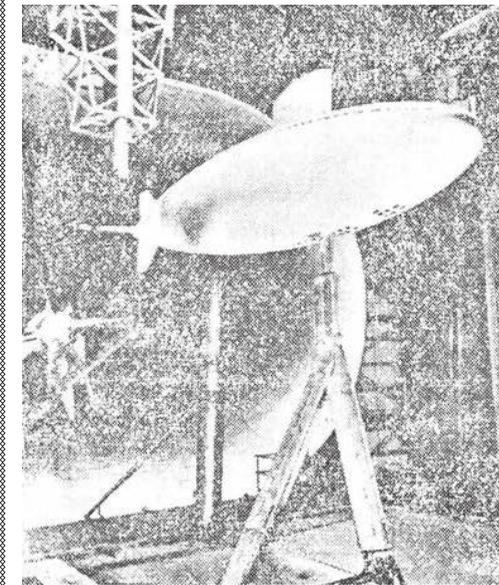
또한 사단은 금년 말기에 해체될 예정이다. 이리하여 현재의 18개 상비전투사단은 금년 말까지 15개 사단으로 감소되는 한편 다수의 독립대대와 파견대도 해체될 것이다. 산업계로부터의 육군의 각종 구매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감축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육군에서는 통조림 식량의 구입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식량과 의류는 훨씬 소량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무기도 전보다 적게 소유될 것이다. 그리고 차량,



하늘에서 발사(發射)하는 유도탄

미공군을 위하여 벨 회사에서 제작한 신형 유도탄 마스칼 호이다. 목표지점의 몇 마일 원방(遠方)에서 발사되는 이 유도탄은 최근 첫 시험을 마쳤다.



땅의 고기

이것은 잠수함의 모형이다. 잠수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 미국 항공문제 자문위원회의 시험대에 올린 것이다.

전투장비, 전자장비 및 관사 등에 대한 주문도 감소되리라는 것은 물론이다.

큰 병력(兵力)의 삭감(削減)

3군의 병력삭감은 크다. 임시해고, 소집의 감소, 군문관의 감원 등은 민간기업체를 위한 노동자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감축은 얼마나 크게 단행될 것인가?

각 군은 크게 감축될 모양이다. 즉 공군은 137개 비행단에서 120개 비행단으로 감축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육군은 현재의 18개 사단에서 결국 30개 사단으로 그 세력을 감축할 것이며, 해군은 현재의 군함 970척을 900척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군총병력 약 280만이 250만으로 감소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미 군비감축계획은 그 절반정도밖에 발표되지 않았다.

그 밖의 상세한 계획은 앞으로 발표될 것이지만 여하튼 그 전체적인 영향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군사비지출의 5%, 또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10% 내지 20%의 삭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회사와 도시에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삭감이 몹시 큰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외지(外誌)에서)

갈비식!

(李相昊)



공명(功名)을 즐겨 말라. 영욕(榮辱)이 반(半)이라
부귀(富貴)를 탐(貪)치 말라. 위기(危機)를 밟나니라
우리는 일신(一身)이 한가(閑暇)하니 두될 일이 없어라
(김삼현(金三賢) 이조숙종(李朝肅宗) 시대(時代) 시조작가(時調作家))

<시조(時調)>



한 몸 둘에 나뉘 부부를 삼아시사
이신제 함께 죽으면 한테간다
어데서 망녕의 것이 눈물 흘기려 하느뇨
(정철(鄭澈) 호(號) 강송(江松) 정치가(政治家) 시인(詩人))

<시조(時調)>

움 안에서 받은 떡

김팔봉(金八峰)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로서 지금까지도 인심과 세태에 꼭 들어맞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지금 우리들이 흔히 듣는 말 가운데서 하나 둘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세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

“콩 심은데서 팥 나라.”

“집에서 새는 쪽박, 들에 가서도 샌다.”

“쓰면 빨고, 달면 삼킨다.”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음지도 양지 되고, 양지도 음지될 때 있다.”

“움 안에서 받은 떡.”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속담, 금언, 경구 같은 것이 백년천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치 아니하고 꼭 들어맞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인심과 세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까닭일 것이다.

요사이 만원된 전차나 버스에 서서 보면, 차내에 승객을 더 태울 수 없을 만큼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다밀고 올라오는 승객이 있는가 하면, 문 앞에 서있는 사람은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딱 버티고 서서 일촌도 발바닥을 옮기어 놓지 아니하는 광경이 눈에 띈다. 차에 오르는 사람도 오르는 사람이거나, 조금도 비켜주지 아니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내게 이로운 일이면 뭐든지 하고, 나 한 몸에 이로운 일이 아니면 세상없어도 안한다는 철석같은 의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상 싶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아마 옛날 노인들은 망종이라고 불렀던 듯싶다.

“머리카락 한개를 뽑아서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할지라도, 뽑아주지 않는다”는 인간이 바로 이 같은 망종일 것이다.

일전에 버스 칸 안에서, 내 곁에 앉은 어떤 손님이 몸을 삐두룩하게 돌리고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오는 동안에, 차체의 동요와 함께 그는 그의 몸을 나에게 기대기에, 나는 그를 보고서

“여보시오, 좀 반듯하게 앉으시오.”했다. 그랬더니 그는 마치못해 반듯하게 자세를

고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는 한쪽 발을 한쪽 무릎 위에 걸쳐 놓는다. 그와 동시에 그의 우족의 구두가 나의 오른쪽 다리의 바짓가랑이에 흠을 묻히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발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여보시오, 당신의 발 좀 내려놓시오.”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한참만에야 발을 내려 놓더니, 나를 보고 호령하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그럴테걸랑 하이야를 타지…… 왜, 빠쓰를 타는게야?”

그는 이렇게 호령하고 나서 별떡 일어서더니 내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놈 당장 내려라! 안내릴테냐?”

하고, 호령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그는 나보다 먼저 내려와서, 내가 천천히 뒤따라서 내리는 모양을 보고 있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때에 그는 나의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인 것을 보았는지라, 그는 나를 때려주려고 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다. 시간은 백주(白晝)였고, 장소는 세종로(世宗路) 사거리였고, 정류장 앞에는 버스를 기다리고 섰던 경관 한 명을 포함한 승객 5, 6명이 있었던 것도, 그로 하여금 나를 버리고서 물러가게 만들었던 이유일 것이다. 나는 그에게 차 실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그가 자기 몸을 가질 줄 알도록 가르쳐 준 일 때문에, 그로부터 욕을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연한 충고를 한 것 때문에 봉변을 당한 사람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 이후로 나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였을 때엔 내가 그 사람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서 어느 날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같은 경험담을 이야기 하고서

“세상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안하무인하고, 난폭하고, 무법하고, 악하게 되었을까요?”

하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내 말을 듣고서 물끄러미 내 얼굴을 바라보며

“그걸 모르시우?”

한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 같이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힘없이 이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게 죄다 벼락해방(解放) 덕택이죠!”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의 말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었던 까닭이다. 난폭, 음행, 난륜(亂倫), 패역, 배임(背任), 횡령, 살인, 강도 등등…… 모든

악이 꼬리를 물고서 일어나는 까닭은 이 나라 백성들의 민도(民度)는 얕은데다가, 갑자기 해방과 독립과 자유와 평등이 조수처럼 밀려왔던 까닭이리라. 만일 8.15가 갑자기 오지 않고, 장구한 시일을 두고서 국내에서 조직적 투쟁을 거쳐가지고 자신의 역량으로써 한국민족이 해방되었더라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이 같은 혼란은 일으키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말하자면 ‘천동벌거숭이들이 움 안에서 떡을 받은 격이 되었다는 말이다.

“세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회상하면서, 나는 “움 안에서 받은 떡”에 천동벌거숭이들이 상(傷)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수필(隨筆)〉



정상(正常)과 비정상(非正常)

박영준(朴榮濬)

얼마 전 이야기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 한명이 자살을 했다.

자살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유서 같은 글에 ‘내가 죽은 이유를 알려고 하지말라.’ 라는 쪽지가 있을 뿐 죽은 이유를 추측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죽은 장소는 학교 뒷산이었다. 가지고 있던 하얀 행커치프를 풀밭 위에 깔고 그 위에 자기의 소지품을 개 놓고는 염산가리를 먹고 죽었다는 것이다. 생존 시에는 소행이 얽전하고 공부도 잘했다. 연애 때문에 고민한 일도 없다한다.

다만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그러면 가정불화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일까?

나는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다. 그러나 친구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대답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때 죽은 학생이 길에서 백 환짜리 한 장을 주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돈을 주운 죽은 학생은 백 환짜리 한 장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백 환짜리를 주웠다고 그것을 가지고 파출소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쓸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하던 나머지 그는 그 지폐를 불살라 버렸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은 그 학생이 정신 이상이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그밖에 또 다

른 이야기가 없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별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언제나 침울한 표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대답을 했다.

그 때 나는 그 학생이 절대로 정신이상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생전에 그렇게 느낀 일도 없었지만 길에서 주운 지폐를 불살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신이상이라 단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백 환짜리 한 장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은 신경과민이라고 안할 수 없다.

요즘 세상에서는 백 환짜리 아니라 천환짜리 지폐를 주웠다고 해도 그것을 누구에게나 말할 필요가 없이 쓸쩍 써버리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써 버리는 것이 정상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하고 걱정하는 것이 비정상일 것이다. 말하자면 옳지 못한 것이 정상화하여 옳은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 짓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정신이상이라고까지 말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학생들 앞에서 죽은 학생은 옳은 것이 비정상화하는 것을 슬퍼한 나머지 죽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죽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하고 질문을 했다. 나는

“죽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무런 의의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비정상화해가는 정상이 바로 잡힐 리가 없다. 살아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만 그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가 있다.

죽는 생명만이 아까울 뿐이다. 그러나 죽는 것이 옳지 않다는 단정을 내리고도 속으로는 ‘그렇게 죽는 학생도 있군!’ 하고 혼자서 만족감 같은 것을 느꼈다.

X X

며칠이 지난 뒤의 이야기다. 신문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이 버스 차장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신문에 기재된 주모 학생이 바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기에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학생에게 폭행을 한 연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말을 했다.

방과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서 상급반 학생이 차장에게 떡살을 잡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는 것이다. 인상된 버스 값 때문에 승강이를 하다가 그렇게 된 모양인데 어쨌든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자기 학교 상급생이 차장에게 떡살을 잡힌 광경이 보기가 민망해서 차장에게 싸움을 말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차장이 말리는 자기에게 무조건 따귀를 갈렸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고

싸움이 벌어지자 같이 뒀던 동료생들이 자기에게 가세를 했다는 것이었다.

좌우간 싸우한 것이 잘못이었지만 싸움을 했다고 자기만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 학생은 신문기사의 부당성을 억울하게 이야기했다.

돈 20환으로 차장이 대학생의 떡살을 잡았다는 일도 기막힌 이야기이지만 이십 환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도 웃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 길을 가다가 사람이 모인 곳을 들여다보면 으레 싸움이다. 어디서나 싸움이 다. 옛날에 비해 싸움이 많아진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다.

잘잘못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신경이 과도로 예민하게 되면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비정상이 정상을 가리켜 비정상이라고 해서 싸움이 벌어진다.

버스 차장과 대학생의 싸움은 그 현상으로 보아 확실히 비정상이다. 그러나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었는지를 가릴 수가 없다.

그들은 제각기가 자기를 정상이라고 주장할 것이 사실이었지만-

남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먼저 매를 맞았고 나중에는 차장의 치료비까지 혼자서 변상했다고 억울하게 말하는 그 학생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유야 어쨌든 싸웠다는 것은 지성인의 행동이 아니야. 싸웠다는 그 사실이 학교나 학생 개인에게 플러스 하는 것이 무어냐 말야.”

그러나 거리에는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만한 지성이 궁핍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정상이 비정상으로 되는 세상이라 해도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성만은 잃지 말아야 하겠는데……

〈수감(隨感)〉

황소와 호랑이 같이

최치환(崔致煥)



수상(隨想)을 써보라기에 나는 여기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저 평소에 자주 생각나는 것을 횡설수설 지껄여 보았다. 실상 남들이 나에게 대놓고 욕도 안하기에 잘난 체가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소리로 그저 내가 나에게 이놈하고 욕하는 심정으로 그대로 막 내리갈겨 보았다.

요즈음 세태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겠으나 나는 너무나 자주 이 세상에는 악빠른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며 이 사회를 정화하고 사회정의를 세우려면 좀 더 우둔하고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실상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약은 사람만 늘어 가고 교활한 사람만 불어가는 것 같다. 자기만 생각하고 하루살이처럼 오늘날 생각하고 만사를 약게 구는 것이다. 남들은 이 나라를 구출하고 이 사회를 바로잡는데 여러 가지 방책을 말하고 있으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좀 더 우둔해지고 자기희생을 할 줄 알아야만 이 나라가 점진(漸進)해지고 사회정의를 바로 설 것 같다.

물론 우리의 처지뿐이 아니라 고금동서의 역사를 들추어 보면 어느 곳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세태가 어지러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약은 사람만이 늘고 약은 사람만이 화를 면하고 만사에 형통하는 것같이 보이게 되긴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을 바로잡고 사회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나라가 바로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희생정신 그것인 것이다. 어지러워지는 사회 흔들리는 나라의 국민 모두가 다 악빠르게 굴어서 재생(再生)하였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은 없다. 더욱이 신흥일로(新興一路)의 길을 걸었던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 주위에는 핑 먹고 알 먹으려는 친구,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집에 가서 잠들 때까지 나는 너무나 악빠른 사람만을 만나기에 구역질이 나서 토할 지경이고 화가 치밀다 못해 환멸의 비애까지 느낄 지경이다. 그저 속이 뻘뻘 들여다보이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 볼까 하는 뱀심이 환히 얼굴에 나타나는데도 시치미를 떼며 간사스럽게 눈을

빛내면서 덩벼드는 사람이란 정말 진저리가 난다.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 세대의 일꾼이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한심하게도 그런 친구들이 늘어갈수록 젊은이 속에 그들의 재빠른 시대적 촉감으로 한술 더 뜨려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에는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큰소리치는 나 자신도 무척 노력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젊은 놈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러니까 어느 때에 가서는 심각하게 느낀 것이 도를 넘어 '자…… 다들 더 우둔해집시다'하고 미친 사람모양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정말 내가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생 당해보자'하고 급작스럽게 소리 지른다면 남들은 아마 '저놈 돌았네'하고 비웃고 야단들일 것이다. 내가 정말 미치지 않았기에 그저 그렇게 한 지경으로 심하게 느낀다는 것이며 그 느끼고 느끼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랏일을 맡아서 한다는 공무원들이 다 좀 더 우둔해지고 희생할 줄 안다면? 나는 이런 생각도 덧붙여 생각해보기도 한다. 또 싸우는 군인이 다 약빠르게 피만 부린다면? 나는 이런 소리도 중얼거려 보기도 한다. 정말 치가 떨리고 몸서리나는 소리일 것이다. 어느 때에는 노골적 이야기로 '모르고 속고 바보라 우둔한 것보다는 좀 알고 속고 알고 희생당하면 어쩌나 말이다'하는 되지 않는 소리도 지껄여 지기도 한다.

이런 때에는 나는 학생시절에 선생으로부터 들던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회상하곤 한다. 유럽의 영웅을 배출시켰다고 할 수 있는 영국에 디스레리, 독일에 비스마르크⁴³⁾가 평평거리고 있을 때 항상 허약하던 블란서에도 클레망소⁴⁴⁾라는 위인이 있어 블란서도 영·독과 어깨를 겨누며 대등한 입장에서 나랏일을 해치우고 있었는데 이 클레망소라는 대위인은 젊은 파리대학생이 남자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우와 같이 교활할 줄 알아야 하나 사자와 같이 용맹무쌍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함축성 있는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가 자주 생각나며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데 정말 이 사회 이 나라에는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황소와 같이 우둔한 친구가 필요할 것 같다. 어느 외국인이 죽어갈 때 "우리나라에는 여우와 같이 약은 놈만 있어 탈이다. 좀 더 우둔해져야만 나라가 살 수 있다."하고 내일을 염려하며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말들은 타산지석이 아니다. 배는 한술에 불러지는 것은 아니다.

우둔해보여도 차근차근 땀흘려가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할 일은 요령껏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그 완수에 노력과 자

43) Bismark

44) Georges Clemenceau

기회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믿고 손해 보아도 대의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를 부려서까지 사회양식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인텔리와 젊은이들이 이 사회정의와 사회양식을 위해 피부리지 않고 황소와 같이 우둔하면서 호랑이와 같이 용감할 때 모든 난문제는 저절로 풀어지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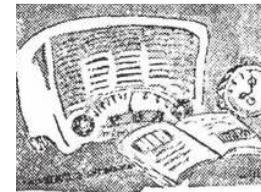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경찰국장(警察局長))

〈수필(隨筆)〉

사치사회(奢侈社會)의 필요악(必要惡)

우리 생활(生活)에는 아직도 버릴 것이 많다

류기영(柳驕榮)



우리들 한국인이 듣기엔 딱이나 불쾌하고 또 욕된 얘기지만 한국을 다녀간 솔직한 외국인들은 한국을 가리켜 '지상의 지옥'이니 '생활이하의 시대'니 하였는데 그것은 고의로 우리 한국을 욕질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도 아니요 우리들 한국인의 대다수의 생활실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선의

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도리일 것이다. 40년간의 착취생활에서 갑자기 일종의 혁명적인 8.15해방을 맞았으며 정리하고 건설할 겨를도 없이 역사에서 처절하기 유례가 드물다고 알려진 6.25전란을 겪음으로서 버리고 버리고 이제는 버리려야 이 이상은 더 버릴 것이 없을 만큼 그 혹독한 전란에다 바치고 짓밟혔으니 이 땅이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 것이요. 실상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뒤바뀌 말하면 오늘의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며 더욱이 이번의 한국전란을 주제로 「덕고리(德古里)의 다리」라는 전생소설을 발표한 제임스 미체너는 국제잡지로 알려진 다이제스트 지에서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민족임을 말하는 글 가운데에서 "한국인은 지극히 음악을 좋아하

며 그러기에 1·4후퇴 때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없지 않았으나 그들의 정부는 마지막 떠나는 수송차에 XX교향악단을 실었다.”고 말하고 “한국인이야 말로 음악 없이는 살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였다. 사실 우리들 한국인이 음악 없이는 살수 없는 민족인지 어떤지? 물론 음악을 싫어하고 음악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듣기에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러한 음악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역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였던 그것이 더 필요하지는 않았나 여겨진다. 그 솔직한 외국인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조국이 '지상의 지옥'이고 '생활 이상의 지대'라면 우선 우리들은 지옥의 지대를 생활의 지상으로 고쳐놓은 다음에야 문화사회를 지향할 수 있지 않겠나. 수심가(愁心歌)가 나고부터 한국이 망했다는 속담도 있고 댄스 때문에 많은 가정부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머리를 깎이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만보의 음악과 그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을 못 배웠음을 비판하여 음독했으니 파티에 입고 나갈 드레스가 없다는 이유로 부부싸움 끝에 자살미수했다 따위의 사건이 있고 보니 바야흐로 우리 한국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과업단계에서 볼 때에 그러한 문화적? 요건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적이 걱정되는바 없지 않은 것 같다.

솔직한 그 외국 인사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진정 오늘날 대다수의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란 195X년대의 자동차도 아니요 음악도 아니며 더구나 만보의 음악이며 춤이며 파티에 입고 나갈 그러한 여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생존에 최저로 필요로 하는 그것' 즉, 최저최소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지상의 지옥이니 생활 이상의 지대니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와는 뜻이 다르지만 플라톤이 그의 이상국(理想國)을 건설하는 기초국가로서의 '가장 필요한 것만의 국가'를 말하는 대화인물의 한 사람인 그라우콘이 "그러한 최저로 필요하는 그것이 돼지의 나라를 건설할 경우의 돼지의 사료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였는데 오늘날 생존의 최저선을 오르내리는 한국인의 대다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란 역시 욕된 말이 될지는 모르나 그라우콘이 반문하였던 돼지의 사료와 다른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돼지라는 축생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를 가려야 할 천이라는 '그것'이 더 많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이처럼 우리는 없는 것이 많은 나라이거나 만일 그라우콘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한국을 목도하였던들 가장 필요한 것만의 국가 이전의 한 편모(片貌)를 알 수가 있었을 것이요 플라톤이 살아있어서 한국에 와보았던들 가장 필요한 것만의 국가 가운

데에 변태적(變態的) 문화사회와 사치사회가 혼재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며 그가 이상국을 건설하는 끝 조짐인 이와 같은 혼재사회를 정리만하면 이상국이 된다고 외칠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미국인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만일 플라톤이 생존하여 한국엘 와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는 아마 한국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어이가 없어 눈을 가리워 버리기 때문에 한국을 보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을 가장 악평한 말이 되는 것이다.

디오게네스를 대표인물로 하는 소위 견유파(犬儒派)가 이상으로 삼았던 간이(簡易)생활의 이념을 따르면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이제 이상은 아무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최저로 필요한 것만의 생활에 도달함으로써 신에 가까운 이상적인 선미(善美)의 생활경지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은 최저로 먹어야 하며 우로(雨露)를 피할 한 꺼풀의 옷을 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므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이 최저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마저 필요악이라 규정하였던 것이다. 생명은 인간에 있어 절대적의 것이고 그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최저최소의 의식(衣食)이나 마 그것만은 버리려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조건적 필요라 하고 나아가 필요악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결인적(乞人的) 견유파철학을 밑바탕으로 한 그들의 간이생활이란 비현실적이고 문명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세대에는 수정되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상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념만은 오늘날의 우리 국 내실정도로 볼 때에 음미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아이가 못가에서 두 손뼉을 모아 물을 떠먹는 것을 보고 “나는 저 아이에 젖다. 저 아이는 필요 없는 것을 나보다 더 많이 버렸다.”하고 두타대(頭陀袋)⁴⁵⁾ 속에서 물족대를 뺀게 찼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거나 이와 같은 견유파 인물들의 일화에 비하면 거의 생존선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 한국인이 가난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필요이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할지 모르나 20세기 후반기라는 고도의 문명을 간직한 오늘날에 있어서 진정 문학 그대로 버리고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는 버리려야 버릴 수 없이 최저최소최후로 필요로 하는 것, 즉 한 끼의 먹을 것과 우로를 피할 한 꺼풀의 입을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견유파의 이상생활이 아니라 사치사회의 한 가운데서 돼지의 사회가 현출(顯出)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하나의 사회현상이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있었고 또 그러한 사회현상이 가장 필요한 것만의 사회의 한 가운데서 마치 밀봉(蜜蜂)들의 집단처럼 사치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음과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사치사회가 잡다한 필요악을 강요하고 있거나

45) 승려가 옷가지를 넣어 걸고 다니는 자루를 의미함.

않을까.

지난 구랍(舊臘)⁴⁶⁾에 소위 세모(歲暮)파티라는 어느 모임에 나가 보았는데 이러한 모임에만 하더라도 필자는 원래가 이러한 모임부터 싫어하며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나 그러면서도 왜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생각하면 요즘의 우리들 사회 생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러한 모임에의 출석을 강요당하는 것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기도 하려니와 지상의 지옥이나 생활 이하의 지대니 하는 이 나라의 이치럼 호화로운 불야성이 그와 같은 지옥과 지대의 밑바탕 위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노릇이오 이와 같은 사치사회에서 본다면 만보의 음악이며 무슨 댄스며 195X식의 자동차니 그 밖의 현대의 문명을 자랑하는 먼 나라에서 들어온 사치품이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선일지도 모를 일이나 간신히 최저로 필요한 것만도 채 얻지 못하며 허덕이는 이 나라에 그처럼의 낭비를 해야 할 이유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마침 이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에 띈 일이지만 통금시간이 지난 밤거리에 어느 주점꾼이 먹다버린 사과꼭지를 바로 그 옆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나이 어린 고아 하나가 뛰어나와 누더기 속에서 두 팔을 쭉 내더니 양 손을 모아 그 꼭지를 주어먹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한다는 진리란 여차피 뚜렷하였지만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빌린다면 이 고아의 누더기 속에는 우그러진 물족대도 없었던 것이요 만보의 음악이며 춤이 없이는 살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치사회의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값비싼 먼 나라의 사치품들이 필요선이라는 이상으로 이 고아에게는 하나의 물족대가 필요선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나 선악의 표준도 빈정스러운 것인가 보다.

생각하면 우리 한국은 빼앗기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이제는 이상은 더 빼앗기려야 빼앗길 것이 없는 마지막 판에서 맨주먹 그것으로 해방을 맞았고 거기서 숨실 겨를도 없이 6.25전란을 이 땅위에서 겪음으로서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이제는 이상 더 버리려야 버릴 것이 없는 문자 그대로의 적수공권(赤手空拳)인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 소위 권유파가 일컫는 그러한 간이생활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양식이며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도시에 있어서는 이른바 문화생활이란 병든 생활방식이며 농촌에 있어서의 그 형식에 사로잡힌 관습생활-더욱이 요즘의 도시에 있어서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잡다한 행사, 의식, 회합, 명절, 거래, 이것은 물론 도시, 농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사, 혼사, 그 밖의 수다(數多)한 고루한 관습적 형식 계절적 처리.

세계에서 가난하기 으뜸가는 이 우리가 무슨 까닭에 어떤 신분이 되면 반드시 고

46) 지난해 설날의 의미

급의장(高級衣裝)을 해야 하며 고급자동차를 타야하고 명절이니 생일이니 그 밖의 그 많은 모임 행사에는 반드시 상사에겐 무엇을 증정해야 하며 그 많은 제의(祭儀)에는 형식을 위하여 무엇무엇을 갖추어야만 한단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리대금을 써야만할 비극이란 정말 엄청난 필요악이 아닐 수 없다. 관습을 위하여 형식을 위하여 반드시 돈을 써야만 한다는 것도 곧 사치요 일종의 허영인 것이니 제발 이와 같은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려서 최후로 버리는 선까지는 간소했으면 싶다. 그와 같은 사치와 허영의 조건적 필요의 그 조건을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린다면 우리는 그 고된 생활을 더욱 고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를 훨씬 덜 수가 있을 것이며 생활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요, 그 여력을 우리가 아직 못 가진 그 많은 것, 건설과 생산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최소최저의 선까지 우리들의 생활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 생활간소화 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고 그것을 법률화까지 하였던 것이다. 생각하면 일부 사치사회의 그들이 좀 더 교양 있고 양식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자각자진(自覺自進)하여 '외(外)의 것'을 삼갈 것이요 그것이 강제를 의미하는 법률화까지 기다릴 거리가 못 되는 것이며 그것의 법률화란 사실상 우리들 국민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함에도 그 효과란 조금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그러한 관심이며 용의(用意)가 전연(全然) 보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고진(高進)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요 보니 진정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거나 생활간소화운동에 있어서는 정부며 그것을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관원들에게도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점이 없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점이 많다. 그것은 일반국민으로 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은 사치사회의 형성, 사치지대가 대부분 관(官)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사례는 여기서 일일이 들지 않아도 짐작될 일이거나 우리 국내의 제반사정으로 볼 때에 공무원이 도시락에 '당꼬즈봉'으로 일해서 안 되며 못할 리가 있단 말인가? 관이 출선수범 안 될 이유가 무엇이며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의 하나이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그 밖의 문화적 민도적(民度的) 후진국인 만큼 아직 관의 선범(先範)이 긴요하며 민은 관을 따르는 타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진정 국민들의 생활간소화를 꾀한다면 관의 출선수범이 절대적인 효과성을 가져올 것이건만 오히려 관에서 그렇지 못하니 가석(可憐)한 일인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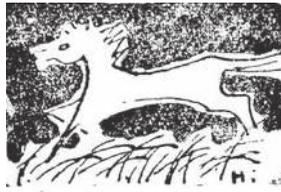
각설하고 가장 필요한 것만의 그것을 얻고 가장 필요한 것만의 생활을 위하여 허

덕이는 대다수의 한국인은 6.25전란을 겪음으로서 이제야 버려야 버릴 것 없는 디 오게네스와 같다 할지라도 이 이상 필요한 것이란 너무나 많다. 사실 우리 한국과 한국인에게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몇 갑절 많다. 이처럼 가져야 할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 우리의 생활이면서도 그 속에는 또한 버려야 할 것이 가져야 할 것보다는 몇 갑절 많을 것 같다. 우리는 돼지로서의 생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가 버려도 좋고 버릴 수 있고 마땅히 버려야 할 그 많은 것을 버리는(간소화)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취미(趣味)〉

승마(乘馬) ABC

김현숙(金賢淑)



펜을 들면서 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사과와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고청탁서라는 쪽지를 받아보니 어처구니없이도 그 제목이 승마 ABC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10년 전 해방직후 기마훈련소에서 잠깐 단기승마훈련을 받고 기마훈련소의 말을 빌려

서 때때로 생각나면 어색한 승마모습을 남의 앞에 비쳤을 따름이고 4~5년 이래 승마는 고사하고 말 옆에도 못 가보았습니다.

나의 하는 일이 바빠서 이기도 하지만 승마를 할 기회도 없었고 또한 말에 대한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승마에 능한 사람들은 문제도 안 되겠지만 나와 같이 초보에서 그친 사람은 말에 대한 두려움과 보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끄러움으로 다시 승마를 시작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면서도 좀처럼 실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처럼의 청탁을 받았으니 기마훈련소에서 처음 훈련을 받을 때에 가지가지 우스꽝스런 일을 연출하였던 웃음거리 몇 가지를 쓰면서 청탁받은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해 보고자 합니다.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일수록 붓을 나무란다는 말과 같이 나는 제일 좋은 말이 내게 배당되기를 은근히 기다리며 말을 타고 산과 들

을 뛰어 넘는 나의 화려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교관들이 끌고 나온 여러 말들 중에서 내가 배당된 말은 그 중 좋아 보이는 백마로서 그 이름을 백희(白姬)라고 하였습니다. 백마가 내 앞에 끌려왔을 때 가슴은 두근거리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덜컥 겁부터 앞섰습니다.

공연히 왔다싶어 슬그머니 내뺄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대위의 계급장을 붙이고 나섰던지라 자존심도 있고 하여 일선에서 적과 대진(對陣)한 셈치고 꼭 참고 교관의 주의를 듣고 나서 밀어서 올려주는 말 등위에 올라앉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슴은 두근거리고 정신마저 혼미해지는 듯하나 마음을 굳게 먹고 설마 떨어져서 죽어야 하겠나 싶어 앞가슴을 딱 뺏치고 안장 위에 올라앉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듯하였는지 몰라도 나 자신은 필사적이었던 것입니다.

첫날은 평보로써 훈련장을 몇 바퀴 돌게 되었는데 요놈의 백마가 자기등위의 인간이 아주 영터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살금살금 놀려대는 데는 질색이었습니다.

떨어지면 큰일이라고 죽자고 감아 쥔 고삐에 온 정신을 쓰고 꼬떡꼬떡 가는데 갑자기 요놈의 말이 앞발을 들고 서는데 짹짹 놀라 고놈의 목을 끌어안고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간신히 떨어지는 것을 모면하고 후-숨을 돌리고 보니 신선한 가을 날씨에 맑은 등허리와 이마에 방울방울 맺어지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꾸벅꾸벅 순하게 잘 돌아주기에 이놈의 말이 이제는 순해졌나하고 마음을 놓고 앉았었더니 순한 척 몇 바퀴 돌다가 갑자기 앞으로 탁 수그러 버리는 데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에크! 하는 순간 보기 좋게 말 등에서 떨어져 버리니 커다란 체구에 부끄러움과 별로 다친 데가 없어 다행이군 하는 생각에 어색한 웃음으로 그 자리의 창피함을 피해버렸습니다. 약 2시간의 훈련을 끝마

치고 옷을 바꿔 입으려고 보니 무르팍과 팔꿈치가 벗겨지고 멍이 들고 도무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드러누워서 내일은 그만두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시간이 되니 승마복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집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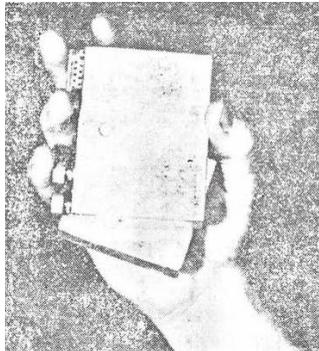
시장에 들려서 붉은 무(인삼)를 몇 개 사가지고 돌아서니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승마를 하기 전에 말이 좋아하는 이 무를 말에게 먹게 하고 제발 나를 골리지 말라고 부탁할 심산이었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하여보니 탄 분들도 모두 손에 무들을 들고 와서 자기 말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었고 한 교관은 말하기를 “말에게 뇌물들을 가져왔군. 안 되겠는데”하여 웃어대니 훈련소 내(內)는 웃음바다가 되었고 긴장하였던 우리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배당되었던 말을 각자가 끌어내다가 안장을 엮고 오늘의 승마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훈련장을 평보로 도는데 어제보다는 퍽 순하여진 백희(말)가 나의 동생이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대드는 내게 감동하였음에선지 갈개지도 않고 곱게 끝까지 돌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는 조금도 안 생겨 불안함만이 있었고 그 불안은 그저 오늘은 안 떨어져야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옛날 코흘리개 신랑들이 말을 타고 장가를 갔다는데 이렇게 불안한 첫걸음을



헬멧용 라디오

손안에 들어가는 이 조그마한 헬멧 라디오는 송신 발신을 다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조그마한 전투용 라디오로서 헬멧까지 포함해서 모두 1파운드도 못 된다.

송 발신기가 다 함께 헬멧(전투용 모자)속으로 들어가도록 꾸몄다.

하였을까? 생각하니 옛날 그 초립동들이 가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 듯 나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가던 한 친구가 보기 좋게 말 위에서 나가떨어졌는데 그 말은 용케도 사람을 밟지 않고 슬슬 사람을 피해 한쪽으로 비켜서서 ‘이 바보야!’하는 듯 그 사람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력저력 하루의 훈련이 끝난 후 우리들은 소장과 교관들과 같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말이 배라도 밟고 넘어갈까봐 무섭고 걱정이드군요”하였더니 “말은 절대로 사람을 밟고 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오.”한다.

말은 영물이라더니 과연 그런가 보다 생각하였다. 다행히도 나는 오늘 말에서 안 떨어진 것이 장하여 나는 오늘 한 번도 안 떨어졌노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더니 교관의 말씀이 말을 배우려면 여러 번 떨어져야하고 낙마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해할 수 없으면서 어딘가 납득이 되는 듯도 하였습니다. 한 10여일 훈련을 받는 중 차츰 말에 대한 취미도 가지게 되었고 동생이나 부하들같이 사랑스러웠고 귀여우며 동지와 같이 믿음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에 대한 습성이라든지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만져주면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등 말은 절대로 누워 자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에게 비하여 나의 백희는 온순하고 또 잘생긴 말이었습니다. 나는 자랑삼아 내 백희가 제일 좋은말이고 제일 온순하다고 하였더니 탄 분들은 “김 여사 말은 여자 말이니까 그렇지요”한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백희가 암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분들의 말씀 속에 여자는 동물일지라도 의례 온순해야 한다는 말속의 말(언중언(言中言))이 있는 듯 하여 군복을 입고 말 등위에 높이 올라앉은 나를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던 것입니다.

불안하였던 수일, 약 일주가 지나니 점차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고, 아주 근사한 기수나 된 듯 모두 말을 탄 자기의 장한 모습을 타인들께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었는지 원승(遠乘)을 나가자고 교관들을 졸라대었습니다.

구보(驅步)로도 훈련장을 몇 바퀴라도 돌게 된 우리들은 하늘에라도 오를듯

하였던 것이겠지요. 우리 일행을 데리고 원승을 하기로 결정하고 자세한 주의를 하고나서, 훈련소를 나와 장춘단 고개를 넘고 시그문을 돌아서 약 1시간의 원승을 하고 돌아오니, 천하라도 얻은 듯 만족하고 장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 교관들을 줄라서 교외로 곧잘 원승을 하였고 1개월여의 훈련을 마치고난 후는 가끔 말을 빌려서 타고 시내로 다녀보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거리를 그리고 산이나 들을 달릴 때 말과 사람의 호흡은 하나로 합하여져 세상 모든 고뇌를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여, 지금도 번뇌가 머리에 찰 때 다시 승마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쓴 서투른 글이 나의 생각으로는 승마 A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와 C는 쓸 자신도 없거니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이만 쓰기로 하겠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승마를 함으로 얻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인내와 의리와 체련(體練)향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정들이고 한번 사귀다는 것은 세상에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임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나를 보면 반겨주던, 내가 타던 백마 백희, 그리고 내가 보기만 해도 반갑던 말 백희는 6.25동란 때 이북으로 끌려가고 지금 한국에는 없습니다.

9.28 환도 후 나는 백희의 소식을 알고 싶어 기마훈련소로 찾아갔더니 납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말 백희를 잊을 수 없으며, 만일 살아서 이 북이나 소련에 끌려가 있다면, 백희도 나를 잊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지 않는 일이나 만일 죽었다면 동물이나 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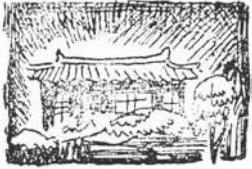
(필자 육군여군부장)

<시(詩)>

인간무죄론(人間無罪論)

병장 손효준(孫孝俊)

한낮이 겨웁도록 배회(徘徊)하던 정차장(停車場)엔
마침내 기적(汽笛)을 기다리던 청춘(靑春)이 사살(射殺) 당하고
의례 쳐다보는 시간표(時間表)는
부조리(不條理)를 강요(強要)하는
피곤(疲困)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출발도 도착도 없는 유형처럼
신대륙(新大陸)의 개척자도 분열 하였다는
명령(命令)과 복종(服從)의
초인간(超人間) 생활(生活)이 기계화(機械化)되고
여기 나는 분업(分業)을 맡은 인간(人間).
가도 다 못 다갈 길을 멀리서 배회(徘徊)하다가
숨 가쁜 청춘(靑春)이 사살당하고
계약(契約)대로 인생(人生)은 나고 죽는데
출발도 도착도 없는 유형이
가도 다 못 다갈 아 내 인생(人生)이노
.....
바람아 불어라
철조망, 낭만, 부활 대신에
경이의 세계(世界)를 주시요. 궤도에 오른 위성처럼 놓아주시요



소크라테스의 위대성(偉大性)

김의섭(金義燮)

1. 진리(眞理)의 산파(産婆)

인류 사대성인의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천 4백년 전 고대 희랍(希臘) 아테네에 태어났었다.

그는 당대 으뜸가는 대철학자였을 뿐 아니라 그 성품이 중히 순진 경건하며, 과욕 솔직하여, 예수나 석가(釋迦)들과는 달리 일절 저서를 남기지 않았고, 또한 그들과 같이 종교로써 전하는 바도 없으며, 오직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국법의 존엄성을 위하여 일명(一命)을 바친 철저한 실천자요 인류의 선봉자였던 것이다.

이때의 아테네로 말하면,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하여,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고 주민적인 국가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나라이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일반국민은 아직 노예시(奴隸視)당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대소(大小) 참정자(參政者)들은 특별계급으로 취급되었으며, 그들은 마음대로 관권을 좌우하고 있었으니, 인류의 장래와 영구한 가치를 깨달은 성자의 눈에 이런 정도의 사회형편으로서 어찌 만족할 수가 있었으랴?

그가 만일에 일신의 행복을 추구하여 그러한 관계(官界)에라도 나갈 의사만 있었던들 그는 일평생을 실로 인락과 풍족 가운데 보내었을 것인데, 더구나 그의 뛰어난 학식과 덕망을 아끼는 국왕의 간곡한 요청은 물론, 친히 그의 누추한 숙소를 찾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는 자기 일신을 위한 사관이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추운 날이었다. 이날도 햇발로 돌아가게 된 국왕은 이런 질문을 하였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 내게 대하여 만일 어떠한 요청이라도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그러나 통나무집 추위에 떨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잠시 동안 국왕의 얼굴을 쳐다본 다음 조용히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나는 국왕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햇발이 필요합니다. 국왕께서 별을 가리고 서계시니 나는 추위를 느낍니다. 원컨대 국왕께서는 빨리 내 앞을 비켜주시옵기를……”

이와 같이하여 그는 끝끝내 일신의 행운과 영달하고 말았던 것이며, 따라서 그는 한 평생 말할 수 없는 굳센 가계와 살림의 고통에 시달렸던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거룩하고 고원(高遠)한 이상을 향하여 전혀 보수(報酬)없는 국가지도자로서 용감히 진두에 나섰고 모든 계급의 민중들을 계몽 감화하기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천문 지리는 물론이요 기하학과 철학 및 소피스트리(辯論法)에까지 정통하였을 뿐더러

기지와 해학에 넘치는 그는 당시 일세를 풍미한 소위 반문법(Socratic-irony)이라는 독특한 변론법을 안출해 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겸허한 태도로 무지를 표방하면서, 박학을 자랑하는 인사들을 찾아 담화를 청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온정과 성의로써 한마디 한마디 깊이 파고들어갈 때 대화 중 그들 스스로가 자기모순에 빠지고 마침내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유도한다. 여기에서 상대자들은 자연 머리를 수그러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때에 그는 각 사람들의 심중에 잠재해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개발 계몽함으로써 이 시대의 혼돈 허위적인 도덕생활을 일신 개혁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친히 하늘에서 체득한 이지적인 생활방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천직을 삼았고, 지덕합일(知德合一)은 그의 새로운 도덕설의 근본사상이었으니,

‘너 자신을 알아라!’가 이 도덕을 가르치는 표어인 것이다.

‘부덕이란,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덕은 우리에게 진실한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온갖 진리와 과학과 더불어 선악의 결과를 배워야 할 것과, 힘써 덕을 실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후세에 그를 가리켜 ‘진리의 산파(産婆)’라 존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그는 30년간이나 청년지도에 헌신하였으나 이 새로운 도덕설은 마침내 당시 뿌리깊이 퍼져 있던 소피스트리 즉 아무 깊은 근거도 없이 단지 일시적인 감각주의거나, 또는 상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따위의 학파들과는 전연 동화할 수 없는 반대적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를 소피스트들에 의하여 적대시되었으며, 한편 보수자들로부터는 그도 또한 소피스트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써 간주됨을 면치 못하였을 뿐더러 당시의 초기적인 데모크라시 정치가들과는 정치적 이념상으로 서로 대립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교리를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은 이 새로운 도리가 진실한 길인 줄은 인정하면서도, 지금껏 그들이 가장 신성한 것으로 믿고 생각해 온바 모든 것을 비난받는다 하는 것이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큰 문제가 된 것은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감화시키는데 너무나도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열렬한 새로운 활동은 마침내 자기네가 지금껏 쌓아올린 사회질서를 전복 파괴시킬 것은 물론, 따라서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위구(危懼)의 염(念)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오해와 의혹, 반감과 질투와 패배감과 더불어 자기네 앞날의 위기를 모면코자 하는 감정들이 뭉치고 영키고 또 끓어서 마침내 우매한 위정자 아뉴토스 등의 주동 하에 일개 빈약한 비극시인 메테토스의 명의로써 대성 소크라테스는 드디어 고소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2. 원수(怨讐)를 도리어 사랑하고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거게 된 것은 결코 그에게 어떠한 죄과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국가의 제신을 믿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을 가르침으로써 젊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

다……’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그들이 소크라테스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구실이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불법한 재판이 반드시 사형의 선고로써 끝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아예 항변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평상시와 조금도 다른없는 엄숙 원만한 태도로써 도리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모여든 500여의 법관들을 붙들고 아테네의 국민교육가로서 인류에 대한 불멸의 교훈을 베풀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는 더욱더 대성자(大聖者)의 진면목을 빛내었을 뿐이었다.

그는 완고 우둔한 위정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저지른바 무법한 소행을 나무라고 책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앞날을 위하여 도덕적인 재생을 피하여야 할 것을 고구 격려하였던 것이며, 또한 법정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무릇 누구나 법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마땅치 않은 방법으로써 죽음을 피하려는 따위의 노력은 취할 바 길이 아니라고 엄숙히 타 이른 다음,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보다도 악을 피한다는 일이 엄청나게 곤란한 일이란 것을 가르치고, 다시 말을 이어 “그대들이 나를 죽였다고는 할지라도 그대들 자신의 그릇된 생활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 그것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악에 대한 비난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며 또 올바른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다만 착한 살림을 하는 것뿐인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그대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전부터 말해두려고 생각하고 있었단바”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아끼고 변호해 준 사람들에게 특히 남긴 말은,

“당신네들과 말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에 임하여 나는 이제 어떤 놀랄만한 말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지금 이 이상(異常) 시(時)에 제(際)하여 나에게 일어난 일인 것이다.

내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때, 그리고 가장 의의(意義) 없을 때에도 나는 항상 심중에 어떤 은밀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 소리는 언제나 나를 경고하고, 불행을 초래하리라는 행위는 이를 억제하여 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나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때에 이르러 그 소리는 이미 내게 대하여 아무런 억제도 경고도 하지 않으며 그 소리는 이미 내게는 들리지를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생각건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은 결코 악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내게 대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실로 죽음이란 다음의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즉 죽음은 의식의 완전한 소멸이며 상실이라고 보는 것과, 혹은 전하여지는 말대로 그것은 다만 우리의 영혼이 한 장소에서 딴 장소로 옮겨진다는 중의 어느 것일 것이다. 만일에 죽음이 의식의 완전한 소멸이며, 꿈이 없는 깊은 수면과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의심할 수 없는 행복인 것이다.

또 죽음이 이 세상에서 딴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딴 세상으로 옮겨간

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전해 오는 말과 같이, 그 옮겨간 세계에서는 나보다 이전에 죽은 모든 성자 현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세계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는 이상의 행복이 어디 또 있을 것인가? 만일 그와 같은 세계에 갈 수가 있다면 나는 한번 뿐만 아니라 백번이라도 죽음을 욕망할 것이다”라고 그는 철두철미 생사를 초월하고 오직 진리으로써 삶의 목표를 삼는 거룩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관들이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여!

나를 비방한 사람들의 목적이 나에게 악을 행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나에게 대 한 모든 비난 자들에 대하여서도 또 고발 자에 대하여서도 결코 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왔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대들은 계속하여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 누가 과연 착한 인간일 것인가?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원수들의 허물을 관대히 용서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는 다만 ‘착한 인간’, ‘선량한 생활’을 위하여 몸 바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3. 영혼(靈魂)은 멸(滅)치 않는다

아테네의 관습상 사형이 선고되면 24시간 이내에 형을 집행하는 것이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때 1개월간의 유예를 얻게 되었으며, 그 동안에는 옥중에서나마 친우와 제자들과 더불어 서로 담화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살림이 허락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소크라테스의 제자 유명한 페돈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날도 그의 친우들과 가까운 제자들은 문지기의 허락을 얻어 모두들 옥사 안으로 들어 갔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의 아내 되는 구산티버 부인이,

“오! 소크라테스. 이것이 친구들과의 마지막 면회입니다. 이제는 또 다시 서로 말을 교환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하며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달래어 잠깐 동안 우리들끼리 만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부인이 나가버렸을 때 그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였다.

“너희들 만족이란 것은 고통과 맞붙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나는 철쇄로 결박되어 있는 것이 고통이었었는데 지금 끌러버리니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느끼는 바이다. 이것은 필연코 신은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함께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과 만족을 결부하고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딴 것을 경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하면서, 이미 독약을 마시기 위하여 끌려진 철쇄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다리과 두 팔을 구부리고 만지면서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다. 이 때 크리톤이 문 너머 누구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음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크리톤은 부유한 그의 죽마의 벗이었다.

“당신에게 독약을 드릴 의무를 맡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은 말

아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약을 마실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약효가 약해져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약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하였다.

“그래? 필요하다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마셔주지. 나는 자네들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

더구나 일생동안을 통해서 성현의 길을 밟아 온 사람에게는, 죽음이 박도(迫到)해 온다는 것은 도리어 기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니까……”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가장 본연적인 관념인 미, 선, 정의, 진리 따위가 영원에 속하며, 사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죽음과 영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끝맺었다. 우리는 모두 잠잠하고 있었다. 다만 케우스와 시미리가 적은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너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만일 지금 말한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말해 보지? 너희들이 내 말에 찬성치 않거나, 또는 좀 더 좋은 설명을 알고 있다면 숨김없이 말해 보아라!”

이때 시미리가 입을 열었다.

“나는 선생님 말씀에 전연 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선생님 기분을 상할까 근심되는 바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하며 말하였다.

“나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은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한다는 일은 그 얼마나 힘 드는 일이고! 너희들에게도 아직껏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판사들이 그것을 믿어줄 것인가…….

나는 지금 평상시와 조금도 다른없는 정신상태에 있는 것이다. 쓸데없는 염려는 안 해도 좋아! 네 의문되는 점을 솔직히 말해 보려무나.

“그럼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영혼에 대해 하신 말씀이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충분치 않지?”

그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거문고와 가락(음률)에 비하여 하는 시미리의 질문에 대하여 가장 인자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 관대성과 평온성에는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또 놀랄만큼 교묘한 솜씨로 우리를 의혹과 불안의 도가니 속에서 끌어내 주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소크라테스의 오른쪽 침상 밑에 앉아있었는데 이때에도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하였다.

“폐든! 내일 너는 이 아름다운 머리털을 잘라버려도 되겠니?”

“네? 무엇인데요……”

“아니다. 너는 내일 머리털을 자른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해답을 잘 한다면 말이 다. 만일 해답을 못한다면 내가 내 머리털을 오늘 자르기로 하자는 말이다.”

나는 웃으면서 “알았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시미리를 돌아보며,

“좋다. 시미리아! 영혼은 거문고의 가락과 흡사한 것이다. 그리고 거문고의 가락이 거문고와 현과의 정당한 관계에 위치함으로써 일어나는 것 같이 영혼도 육체의 각 요소간의 일정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거문고의 가락은 다음의 점에 있어서 영혼과는 같지 아니한 것이니, 우리의 영혼은 자기자신의 생활을 알고 있는 것이며,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거문고의 가락은 거문고의 상태를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거기에 의거해 있을 뿐이나, 영혼은 육체에서 독립해 있으며 또 육체의 상태를 자유로이 변경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육체는 그 모든 요소가 어제와 같이 정당한 상호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이 정당한 관계를 이제 금방이라도 파괴하려고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만일 내가 이런 불법 악법에 의해서 희생될 필요는 없다는 크리톤의 권고에 동의해서 이 옥사로부터 도망해버렸더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형의 집행을 기다리면서 너희들과 말하고 있지 않았으리란 까닭인 것이다.

내가 크리톤의 권고에 동의치 않은 것은, 아무리 개인의 의사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민된 우리로서는 공화국의 판결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도망하는 것보다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란 것은 내가 이미 말한 바이거나,

그것은 곧 거문고의 가락이 거문고의 파멸을 선고하였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자기의 불멸의 본원을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내가 지금 명확한 설명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 속에 육체로써 가리워진 바를 초월해서 자유로운 본연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내 혼이 불멸인 것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또 계속하였다.

“만일에 우리의 혼이 불멸인 것이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얻은 바를 딴 세상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힘써 보호하고 또 가능한 한 좋고 옳은 것으로 만들기를 힘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여데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잠깐 잠자코 있더니,

“그러나 시미아스, 게베스 그리고 다른 제군들!”하고,

“자네들도 언젠가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벌써 목욕을 해야 할 시간인가보

다. 목욕을 하고 독약을 마시는 편이 좋겠지? 여인들에게 시체를 씻기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4. 장엄(莊嚴)한 임종(臨終)

소크라테스의 말이 끝나자 크리톤은, 이후 그의 자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무어 새로운 것이 있나. 내가 항상 말해온대로 하면 좋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수호하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새삼스레 약속해주지 않더라도 다만 그렇게만 하면 좋은 거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좋아”하고,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나는 끝끝내 이 크리톤만은 설복시키지 못하였나보다.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이고, 조금 후 몸이 식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을 믿게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지금껏 말해온 것은 내가 독약을 먹으면 이미 너희들 곁에 없지 않고 성자의 행복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었는데, 이 말은 아마 다만 너희들과 나 자신을 위안하고 격려하기 위함밖에 아무 가치도 없는 말인 것으로 아는가보구나? 내 육체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안심하고 용감히, 그리고 편하고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로만 매장하면 좋은 거야!”

이 말을 마치고 그는 일어선 옆방으로 몸을 씻으러 갔다. 크리톤은 그의 뒤를 따랐다.

소크라테스가 몸씻기를 마쳤을 때 그의 제자들이 안내되어 들어왔다. 그에게는 한 사람의 장성한 아드님과 그 밑에 두 어린 동생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계집종들이 들어왔다.

소크라테스가 자제들과 계집종들과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석양에 가까웠었다. 그러자 잠시 후에 관인이 들어왔다. 그는 소크라테스 옆에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소크라테스님! 나는 당신이 참된 인격자이시며 이곳에 온 사람들 중 가장 고귀하고 선량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제가 독약을 마실 시간이라고 고하려 오면 어떤 악인이고 반드시 내게 화를 내든지 질책(叱責)하든지 또는 떠들든지 하였으나 당신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형벌을 선언한 사람들을 당신께서도 잘 알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해주시시오. 저는 다만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을 고하려 왔을 뿐입니다. 제발 나를 나쁘게 생각마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일을 될수록 쉽게 견딜 수가 있으시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그는 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외면을 한 채로 나가버렸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을 이었다.

“저 관인은 어찌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고! 요전부터 저 관인은 나한테 와주고, 여러 가지로 서로 말도 해보았지. 그리고 나는 그가 매우 착한 인간이란 것을 알았지! 지금은 또 어

찌나 뜨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동정해 주었던고…….

자, 크리톤! 명령대로 해주게. 이미 준비가 되었다면 독약을 가져오도록 전해 주게!”

이때 크리톤은 말하였다.

“소크라테스여! 아직 태양은 높은 곳에 달려있습니다. 좀 더 늦게 하셔도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반사람들은 밤(夜)을 즐겁게 지내고, 사랑의 만족을 즐기까지 한 후에 독약을 마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멀었으니 덤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크리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제각기 자신들의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 것이다. 다소 늦게 독약을 마신다는 것은 내 자신의 눈으로 보건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오히려 수치스러움을 면치 못하게 하는데 지나지 않을 따름인 것이다.

자! 가서 독약을 가져오도록 전하여 주게!”

크리톤은 그 말을 듣고 문옆에 서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하였다. 하인은 곧 그에게 독약을 올리기로 되어있는 관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소크라테스는 관인을 보고 말하였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다만 이같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것을 마시고서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걸어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무거워지면 드러눕습니다. 그 때에 독약의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하고 잔을 올렸다. 소크라테스는 그 잔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청정한 맑은 얼굴로 털끝만한 공포의 빛도 없이 얼굴빛도 눈썹시도 평상시와 조금도 다른없는 그대로 관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는 것을 신의 마음에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다만 하라고 명령받은 대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소!”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튼 나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하고 그는 잔을 입노리까지 들어올렸다.

이윽고 그는 아무런 불안도 주저도 없이 단숨에 그 잔을 마셔버렸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울음을 억누르고 참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이상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눈물이 먼저 흘러내리고 말았다. 나는 외투에다 머리를 파묻고 울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불행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스승을 잃어버리는 내 자신의 불행을 느껴 울었던 것이다. 나보다도 먼저 참아 견디지 못하고 울고 있던 크리톤은 종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고, 쭉 계속해서 울고 있던 아프로몰은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이 무슨 짓이고 너희들은!”하고 소크라테스는 외쳤다.

“나는 여인들은 울리지 않으려고 여기에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죽음은 장엄한 침묵 가운데 맞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용히들 하여라. 그리고 남자답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죽음을 다하여 울음을 참았다.

그는 잠시 동안 묵묵히 걷고 있더니 얼마 안가서 침상 옆으로 가서 다리가 무거워졌다고 말하였다. 독약을 가져온 관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관인은 때때로 가만히 누워있는 소크라테스의 발을 만져 보고 있었다. 얼마 후에 그는 한쪽 다리를 누르고 감각을 알겠는가라고 물어 보았다. 그는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 관인은 다시 소크라테스의 다리를 눌러보더니, 벌써 몸이 식어서 죽음이 임박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고하였다.

“이것이 심장에게까지 식어 올라가면 최후입니다……”라고

그리하여 그것이 배 아래까지 식어 올라왔을 때였다. 소크라테스는 급작이 자기 몸을 덮었던 천을 걷어 젖히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최후의 말이었던 것이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답을 갖다 드릴 것을 잊지말아다오!”

“알았습니다.”라고 크리톤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무슨 말씀하실 일은 없으십니까?”하였으나, 벌써 이 물음에는 대답이 없었다.

5. 소크라테스를 처형(處刑)하는 무리들

인류의 성자요 또 영원한 스승이며, 인류 중 가장 선량하였고 또 행복하였던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이 하여 70세를 일기로 누구나가 가장 불행한 것으로 보는 죽음을 종용(從容)⁴⁷⁾히 극복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무법한 죽음에 대하여 추후도 남을 원망하는 빛은 커녕 아무런 불만도 공포도 느끼지를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마지막 부탁의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도리어 죽음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리란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는 이 사회생활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보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영혼의 쾌유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당시, 어떤 병이 쾌유하였을 때 의약의 시조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답을 잡아 드리는 아테네 사람들의 습속(習俗)을 따라서, 그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이 세상에서 구출 쾌유케 해준 의약의 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였음이 분명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그의 비난자(非難者)들에 의하여 고소가 제기된 것은 서기(西紀) 전 401년의 일이며, 그리고 그보다도 3년 후인 동(同)399년에 이르러 비로소 재판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고소를 제기한 처음 의도는 끝끝내 소크라테스를 처벌하려는 것보다도, 이 고소로 말미암아 그가 곧 국외로 도피하여서 그들의 새로운 국민계몽 운동을 증진해 주기를 기대했다고도 전하여지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길을 취함으로써 그의 억울한 고경(苦境)을 피할 생각은 도무지 없었던 것이다.

47) 태연하게

소크라테스는 그가 굳게 믿는바 자기의 철학과 또 그가 자득(自得)한 고원(高遠)한 사명에 순하여 3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국가의 질서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의 정신을 자진 수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후년(後年)의 예수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 한 몸을 희생함으로써 도리어 영원한 삶을 찾았음에 반하여 이 위대한 성자를 아테네에서 제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얻은 바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소크라테스의 부당한 사형의 보(報)는 곧 그 당시의 국내외에 일대충격을 주었고, 격분한 민중의 여론은 마침내 그들 고발자와 처형당사자들을 공격 추방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대화합국가의 멸망을 가져왔을 뿐이었던 것이다.

회고컨대 이와 같이 인류사상에 있어서의 크나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은 그때 아테네 국가가 외적으로부터 패전을 당하였음에 뒤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일대혁명을 겪고, 겨우 자유의 민주국가를 건설한지 4년째밖에 되지 않는, 그러므로 국내형편이 아직 완전히 회복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혼란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늘날 그와 사정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6.25의 가혹한 공산침략을 억지로 물리치고 적에게 시간적인 유예를 주고 일시적인 휴전을 함으로써 미봉적인 끝을 맺은 지 4년째를 보내고 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국가 민족적인 과오를 되풀이함이 없도록 더욱 명심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면 이 땅위에는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따위의 우매한 무리들이 전연 없다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주저치 않을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진리와 덕망과 선량의 대명사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영원히 인류와 같이 각 사람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의 마음속에 갇들어 있는 대한(大韓)의 소크라테스들을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처형해버리고 있지 않는가! (끝)

명언(名言) 격언(格言)

★ 세상에서 말다툼처럼 손(損)을 보는 일은 없다. 이것처럼 허잘 것 없는 싱거운 일은 없다. 이기나 지나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저술가, 사업가 카네기⁴⁸⁾)

★ 복종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의무이며 운명인 것이다. 어느 자리에 있어서도 굽히지 않으면 꺾어진다.

(영국 역사가, 평론가 칼라일⁴⁹⁾)

48) Andrew Carnegie

49) Thomas Carlyle



나는 돈이외다

백원권(百圓券)의 세상(世上) 유람기(遊覽記)

서상오(徐相杓)

성나는 네모진 종이에 액면 백 환이라 인쇄된 종잇조각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나를 보고 지화(紙貨) 또는 돈이라, 이름 지어주었다.

◇ 사람과 나

나를 낳아 준 것은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만든 것은 사람이었다. 나는 인간 사회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그것은 사람이 나에게 준 힘이다.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죽느냐 사느냐 한다.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법도 하다. 나로 인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우리들을 보고 악마니 원수니 한다. 우리들이 과연 악마라면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요 우리들이 원수가 되었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나로서는 그러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 사람이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꽤 빈약하다고 보았다. 돈 백 환을 갖고, 나는 못주겠느니 나는 받아야겠느니 하더니 나중에는 주먹이 가고 몽둥이가 오고, 온 가족이 울고, 불고, 친척척당(親戚戚黨)이 모이고 동리(洞里)사람까지 옥신각신 하더니, 다시 서로 화합이 된 뒤엔

“돈이 원수지”

“악마의 돈 때문에……”

하고 수근 수근들 하며 그 책임을 얼토당토않은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단 말이야.

나는 싸우란 말을 한 기억도 없고 동네 사람들에게 싸움터에 나오라고 외친 일은 더욱 없다. 그만치 양보하고 그만치 양보할 아량을 못 가진 인간들이란 우리에게 대해선 가장 약한 동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자기에게 좋도록만 해석하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나를 만든 것이 사람들이란 것을 잊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격이상의 인격을 부여하고 우리를 제왕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리하여 만일 우리들을 지배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왕의 제왕이요 현대의 영웅이라 하고 나는 생각했노라.

◇ 죽은 신간서적(新刊書籍)

나는 시내 어느 부잣집에 약 일주일간이나 유숙한 적이 있는데 25, 6세 되는 이 집 아들

방에는 잡지, 단행본 등의 신간서적이 커다란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자못 굉장한 독서가 같이 보였고 또 문화적으로 꾸민 이 방(房) 장치에 조화를 준다. 그런데 나는 이 방에 일주일이나 있었지만 방의 주인공이 단 한번, 단 한권, 단 한 페이지의 글을 읽는걸 보지 못했다. 그는 그 이튿날도 몇 권의 신간서적을 구입하여 책장에 보기 좋게 꽂았다. 방을 치장하기 위함이란 것을 5일 후에야 나는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같이 외면을 꾸밈으로써 만족하며, 또 뽐내고 있다.

◇ 병(病)은 Intelligence

아는 체하는 것이 소위 인텔리가 아니다. 책을 읽고 그것을 암기하여 내 것처럼 남에게 말하는 것이 인텔리가 아니다. 남의 주견을 듣고 자기 주견처럼 남의 앞에서 떠드는 것이 인텔리가 아니다. 어슬비슬한 지식을 가지고 자만하는 것이 인텔리가 아니다. 가짜 대학졸업증을 갖고 다니는 것이 인텔리가 아니다. 뭐 좀 안다고 뒀어놓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인텔리가 아니다. 일분글을 직역해서 구절구절을 카무플라주⁵⁰⁾ 해가지고 그것을 자못 제 글처럼 발표하는 것이 인텔리가 아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 첫날 밤

나는 제왕인자라 어디라도 가지 못할 곳은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서 비밀을 지켜 낼 수 없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내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어떠한 비밀도 마구 지껄인다. 내 앞에서는 표면도 이면도 없다. 언젠가 나는 신랑신부의 첫날밤에 그들의 방에서 함께 지낸 일이 있다. 두 처녀 총각은 나란히 누워서 신부가 먼저

“○○이 고르지 못해 걱정이예요.”하고 첫날밤의 담화를 시작한다.

“당신은 아들을 몇을 낳고 싶소? 몇이 알맞다고 보셔요?”

“셋은 있어야죠.” “딸은?” “하나”

“삼남 일녀 그건 하늘이 주는 복이러는데-”

“삼남 일녀만 낳고 안 낳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디 그렇게 순서지어 낳을 수가 있어요?” “호호호호”

가경(佳境)이다. 구랑(舊郎) 구부(舊婦)가 들었다면 놀랄지도 모른다.

“그럼 딸아들은 뭘 시키는 게 좋을까요, 난 학자나 대학 교수가 좋아”

“그것 좋아요. 대학교수나 의사나” “둘째 아들은 예술가가 좋겠지요?”

“예술가? 아니 실업가(實業家)가 좋지 않아요?” “아네요 미술가나 음악가가 좋아요”

“그건 셋째 아들이나 단 하나밖에 없는 딸에 미루고 둘째 놈은 실업가로 합시다.”

“싫어요. 셋째 아들은 스포츠맨이 되야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예술가로 하는 거야요.”

신부가 몸을 흔들면서 반대한다.

50) 원문의 캄푸라지는 카무플라주 camouflage

“안 됩니다. 실업가를 시켜야합니다.” “난 예술가 시킬테어요.”

“나는 실업가” “난 예술가”

“나는 실업가” “난 예술가”

“하 하 하” “호 호 호”

더욱 입가경(入佳境)이다. 아니 가소경(可笑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때 벽에 걸린 신랑의 상의바깥 포켓 속에 시슴 담배와 같이 들어있었으나 나도 한뭉 끼어 이렇게 외치고 싶다.

“오호라 세상만사 불여의(不如意) 그러나 나는 입을 가지지 못했다.

◇ 온양온천(溫陽溫泉)의 밤

나는 작년 12월 ○○일 ○○어업조합에서 온양온천에 있는 온양여관의 접수실의 금고로 옮겼는데 나는 여기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과 그동안 돌아다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며 모두들 회포를 나누고 있을 때 찌렁- 찌렁- 하고 금고문이 열리더니 나는 또 다시 어느 젊은 여자의 아주 예쁜 가죽 지갑 속으로 들어갔다. 세상을 돌고 도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한 번도 편안히 쉴 새가 없이 돌아다니니 이제는 괴롭기도 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좋았다. 4년간이나 천하를 돌아다니는 나로서는 처음 보는 양장한 절세의 미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여인의 미모를 소개하면- 좀 갸슴한 얼굴에 과히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이마를 남기고 길쭉한 양 미(眉)가 인위적으로 누가 쫓은 것처럼 반듯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그늘 밑에 고요히 잠자는 쌍둥(雙瞳)은 고요한 숲속의 호수에 비치는 푸른 가을하늘 밤의 북극성의 그림자처럼 항상 무엇을 찾는 양, 그러나 조심스러이 움직인다. 양미사이에서 조금 낮아졌다가 약간 높다 싶은 감이 주는 것이나, 직선으로 이루어진 코는 이 얼굴에는 둘도 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비봉(鼻峯) 그늘 밑에 조각품 같은 입술은 양 뺨 사이에 확연한 색의 조화를 짓고 귀엽게 파마한 머리가 귀를 경계로 뒤에 늘어져 흰 목이 대상적 빛을 나타낸다. 앞가슴은 두 군데가 볼록하고 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될 수가 없다. 검은 오버 갓에서 뽀족이 내다보이는 푸른 나일론 머플러는 한층 더 이 부인의 의장의 체제를 돋우어준다. 연령은? 약 24, 5세 가량, 넘어야 한 살 모자라야 한 살일 것이다. 처녀인지 부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나는 다 알 수가 있지요 활짝 발육한 그의 육체에서는 항상 주위에 매력 있는 향기를 뿌리니까요. 이 젊은 부인은 틀림없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다. 그것은 남편인줄 나는 추측할 수 있었다. 부인은 처음 접수인에게 김용환이란 사람이 이 여관에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접수인은 고개를 기웃기웃하며 “그런 분은 없는데요……”한다. 부인은 8호실에 숙소를 정한 다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묻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 부인은 다시 접수실에 찾아가서

“그분이 저의 남편인데 꼭 이 여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주세요.”하고 매우 낙망한다. 미인은 대개가 박복이라더니 아마 이 부인도 그러한 여자의

한 사람인 모양이다. 부인은 힘없는 걸음으로 자기방에 돌아와 저물어가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지향 없는 한숨을 짓는 것이었다. 해는 이미 지고 먼 산 밑에서 어둠이 끼어들 때 비로소 그는 일어서서 온천으로 목욕하러 들어갔다. 나는 포근포근하고 따뜻한 부인의 가슴에서 옷 벗는 데까지 따라갔다. 여기에는 독탕이 아니어서 발가벗은 여자가 4명 목욕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곳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개가 자욱한 욕장의 발가벗은 여자들은 중세기(中世紀)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처럼 희미한 장막 속에서 왔다갔다하는 욕장속은 하나의 별천지다. 부인은 목욕장에서 수건으로 아랫배를 가리고 화장실로 나왔다. 더운 물에 익은 그의 육체는 더욱 활짝 피어서 붉게 물들인 부드러운 그의 살결은 약동하는 심장의 파동과 함께 청춘의 정열이 터져 나올 듯하다. 부인은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가고 알팍한 초생달이 고요한 여관의 창살을 비치고 있는데 부인은 이 창 밑에서 달빛마자 혼자 외로이 꿈 많은 추억에 하염없이 잠겨들든 것인지 꿈쩍도 않는다. 이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며 한복 입은 나이 33, 4세 되어 보이는 아주 현질한 청년이 방안에 나타났다. 부인은 깜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일어섰다.(그가 찾고 있는 남편인가?)

“실례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당신을 이렇게 찾아온 것을 용서 하세요.”

하고 매우 부자연하게 부인을 바라본다. 부인은 약간 태도를 부드럽게 하며

“무슨 불일이 있으세요?”하고 매우 공손히 대응한다. 남편이라고 생각한 백 환짜리의 생각은 어그러졌다. 청년은 부인 앞으로 한발자국 다가서며

“저는 이 여관 앞에서 처음 당신을 봤습니다. 그 후 저는 어쩐지 이 여관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이 방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잡아 끄니다. (점차 말이 흥분하여지며) 이러한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혼자 고민하다 못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한걸음 뒤로 성큼 물러선 채 아무 말이 없고 청년의 전신은 그 무엇에 사로잡힌 양 유리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아래 두 남녀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부인은 숨을 죽이고 아무 말 없이 다만 조그마한 그의 가슴이 지향 없이 떨린다. 나도 그의 가슴에서 함께 떨린다. 그러자 청년은 부인 앞에 바짝 다가선다. (이크!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나?) 부인의 심장은 급속도로 파동하여 뒤로 성큼 물러서며

“나가 주세요! 여자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실례가 아닙니까?”

하고 더욱 뒤로 물러선다. 그의 심장은 마치 아주 조그마한 기선(汽船)의 염통처럼 팔팔 떨다.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 죽으려면 죽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흥분된 청년의 숨소리와 부인의 심장의 파동이 서로 열키어 좁다란 방안의 공기는 계속적으로 파문을 일으킨다.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한 부인은 말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당신에게 남편이 있는 없든 그것은 지금의 나에게서는 알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당신에게 사로잡힌 몸이올시다.”

이렇게 말한 청년은 불같이 타오르는 정열을 억제할 수 없는지 그만 월각 다가들어 부인의 가슴을 껴안고 키스를 하려한다. “앗-” 부인은 여기서 모욕을 당하지나 않을까? 그러나 위기일발로서 부인은 청년의 억센 팔을 뿌리치고 문을 차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나는 여기서 겨우 안도의 숨을 “후-”하고 길게 내쉬었다. 여관의 뒷마루에 숨은 부인의 바로 왼편 젓가슴에 앉아 심장의 동계(動悸)로 말미암아 연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가슴의 동계를 진정시킨 부인은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를 죽여 가며 다시 8호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열려있고 청년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부인은 날째제 방안에 들어서자 안으로 문을 잠그고 이불에 푹 엎드면서 그만 그냥 마구 우는 것이었다. 희미한 초생달이 하염없이 홀로 흐느껴 우는 이 젊은 미인을 위로하는 듯 비쳐주고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다. 나도 이 가련한 부인을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였으나 백 환짜리가 말을 하게 되면 세상이 망한다고 인간들이 야단 법석할 것이니 참을 수밖에 없다. 한없이 울고 난 부인은 양복을 벗어 벽에 건 다음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이 잠들고 아마 열두시나 한시가 되었을 때에 8호실에서 두 방울 건너 11호실로 추측되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8호실 문 앞에 이르자 “여보세요”하고 문을 두드린다.

틀림없이 그 청년의 음성이다.

“여보세요”하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린다. 부인은 벌써 잠이 깨인 모양이다. 숨을 죽이고 모른 척 하고 누워있다. 약 십분 동안이나 똑같은 말로 두드리다가, 또 흔들어 보다가는 긴 한숨을 남기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서 옷을 입은 그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세시경이나 되니 또 다시 청년이 찾아와서 문을 가늘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잠깐만 문을 열어주세요. 꼭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문 좀 열어주세요.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잠깐만 문을 열어주세요.”

청년은 약 30분 동안이나 문밖에서 그야말로 전 성의를 다하여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숨을 죽이고 오히려 잠든 체 했으나 나는 그의 가슴위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30분 동안이나 계속하던 청년은 “여보세요 너무나 냉정하지않아요. 너무나 팔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다소 악에 받친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새벽 손목시계가 네 시 반을 가리킬 때 부인은 머리를 가다듬고 옷을 고쳐 입은 다음 백에서 만년필과 종이 한 장을 내어 “어제 밤에는 실례했습니다. 아무쪼록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심정을 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놀래 실지도 모르나 저의 남편은 저를 이해하고 저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

년에 행방불명이 된 후 오늘까지 그 행방을 알지 못하던 차 이 여관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직 남편을 만나지는 못했으나 저는 끝까지 나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남편을 찾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남편을 위한 아내이며 가정을 위하는 한 사람의 주부입니다. 냉정히 반성해 보십시오. 만약 귀하의 사랑하는 아내가 혼자 어떤 여관에서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강요당했다면 어떠한가요?.....

만약 세상의 남자가 전부 귀하와 같은 무모한 남자라면 귀하의 아내는 혼자 여행을 안심하고 하지 못할 것이 아닐까요? 또한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의 아내는 지금 홀로 남편인 귀하의 신상을 걱정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용서하시고 이점 냉정히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쓴 부인은 이 글월을 11호실 문틈으로 살짝 밀어 넣은 다음 접수처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또 다시 저수처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 날이 어렴풋이 새자 그 청년도 숙박료를 지불하고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에헴! 에헴!

◇ 나의 소원(所願)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상당한 금만가(金滿家)의 마카오 털에 두루 말린 중년남자의 포근포근한 품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대전(大田)의 어느 상점에서였다. 내 오랜 경험적 육감으로 비추어볼 땐 네가 입고 있는 옷은 비록 마카오제이고 화려하고 또 깨끗하지만 너의 몸에서 풍기는 체취에는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올바른 위인인 것 같지는 않다..... 여하튼 이 털옷쟁이가 서울을 간다니 나는 즐겨해야 할 처지이다.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내 몸이 자꾸만 쇠약해지니 어서 서울 큰집에 가서 내 병명도 알고 약도 써야 될 형편에 있으니까 말이다. 페니실린이 그렇게 유명하다 하지만 내 병은 페니실린 가지고 도 안 될 것이라고 어느 동지가 알려주던데 그건 나고 잘 아는 바다. 가뜩이나 파리한 내 체질에 페니실린을 쓰면 더 파리해질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털옷쟁이가 서울 가는 도중 천안(天安)에 하룻밤 자는 바람에 그만 나는 천안에서 떨어지게 되었으니 가석(可愾)한 일이지만 하는 수 없다. 그렇다. 한양(漢陽)길 천릿길 내 어이 그리 쉽사리 갈 수가 으랴. 생각해 보면 서울길이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로프⁵¹⁾나 백⁵²⁾이 좋으면 (글세 요사이 로프, 백이란 말이 잘도 쓰이니 나도 한번 써 본다면 말이다.) 하루만에 도 갈 수가 있지만 이 털옷쟁이가 담배를 사는 바람에 내 운수가 불길하여 담배 값으로 지명(指名)된 것이었기 때 문에.....

‘황금(黃金)과 사랑은 돌고 도는 것’이라더니 사랑이 과연 도는 것인지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지도록 인간사회를 돌아다녔지만 보지를 못했으나 나는 그야말로 어지럼병이 걸릴 만큼이나 돌아다니는 몸이라, 그 이튿날 잡화상점에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찻점에서 쉬니까 천 환짜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그 거스름으로 오후 열시나 되었을 때 어떤 신사의 비닐

51) rope
52) back

지갑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동(東)으로 내일은 서(西)로……

그 다음날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나의 신세여…….

집시의 노래는 아니었다.

백 환짜리 우리들의 기력이 날로 줄어들기만 하니 이 낙관(樂觀)치 못할 사실을 종가(宗家=은행(銀行))에 보고하고자 서울에 가야할 나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맘대론 안 되더라

세상사는 내 소원의 억만분의 일도 안 되……

서울에 가야할 나는 돌고 돌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던 말이다.

◇ 지식(知識)과 여성(女性)

때물이 좀 벗어져 보이는 여자로서 어딘가 어쩐지 오만(傲慢)스러워 보이는 여자, 또는 그 태도에 노골적으로 오만성이 나타나는 여자, 또는 나타나는 여자, 공연히 남을 업신여기는 여자, 남편직위를 자기 직위인양 생각하며 남편직위보다도 한층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여자. 한국여성가운데 나는 이런 꼴 보기 싫은 여자를 수 없이 봤다.

뭐냐? 답은 간단명료하다.

“여학교출신. 대학출신.”

혹 이러한 여자를 보거든 그 여자의 신분을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답은 기필코 다 음과 같으리라.

“그 여자 여학교 나왔대.” 또는 “그 여자 대학을 나왔대.”

전자는 30세 이상의 여자, 후자는 30세 이하의 여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깜짝 놀라야 할 귀하의 답도 또한 이리하리라.

“아 그렇겠지.” 이 대구(對句)의 이면에는 ‘의례히’가 숨어있고 그것이 생략(省略)되었다는 것뿐이다. 아마 이런 여자에게는 지식이 병이었던가…….

◇ 잃어버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어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로 있었던 30세가량 되는 C란 젊은 청년의 안포켓에 내가 유숙하게 된 것은, 사흘 전 대구(大邱)란 곳에서의이다. 아침 여덟시 C씨는 경주(慶州)에 간다고 하며 대구역전에 있는 ○○여객자동차회사의 사무소로 들어갔다. 아침 일찍 나간 것이라 매표구(賣票口)에는 아직 그리 여객들이 많지 않았다. 넷째에 서서 표팔기를 기다리고 있노라니 얼마 안 되어 그의 뒤에 수십 명의 여객이 열을 짓게 되어 곧 표를 팔기 시작했다. 여정(旅程)이 먼 사람부터 일변의 차례로 표를 판다. 이것은 먼 곳에 가는 손님에게 우선적으로 앉을 자리를 주자는 것이며, 차에는 26번까지의 좌석이 있으니 26번 내의 표를

가진 사람은 앉아서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직(前職)교사 C 씨는 표를 받아 들고 고개를 기웃기웃했다. 넷째에 서서 29번의 표를 받았으니깐. 그래 이 차는 포항(浦項)이 종점인데 거의 전 승객이 포항을 가는가 보다. 승차가 시작되었다. 새파란 청년이 2번을 가졌는데 영천(永川)까지의 표를 갖고 있으며 60이 넘는 노인이 32번의 표를 갖고 포항행이란 어찌된 셈이냐? 아니 60이 넘는 노인들은 좌석 없는 32번이니 35번이니 40번이니 하는 표를 가졌는데 반대로 아직 나이 25세 내외되는 학생들은 대개가 거의 영천서 내리게 되는데도 자리에 앉게 되니 이것은 어떻게 된 셈인지? C 씨의 가슴 속에 무엇이 와글와글 끓는 소리가 바로 그 곁에 누워 있는 나에게는 잘도 들린다.

“나는 아침에 상당히 일찍이 나왔고 또 경주가 영천보다 두 배나 먼 곳인데 어째서 29번이 되며 이렇게 서서 가야만 한단 말인가?”

C 씨의 얼굴엔 노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차안은 사람의 통조림이다.

자동차가 터지지 않는 것이 고마운 일이다. 콩나물시루 같이, 아니 성냥가치처럼 사람을 포개는 것이다. 거기에 여정이 가까운 공무원, 학생 등의 젊은 청년층은 모두 척척 자리에 앉고 여정이 먼 노인들과 젖먹이를 가진 부인들은 공기도 못 통할 지경으로 꼭꼭 끼어 서있는 것이다.

문노라 저 버스야 이 어찌된 셈이냐?

먼데는 서서 가고 가까이는 앉아서 가고

늙은네는 서서 가고 젊은이는 앉아서 가고……?

뭐, 백 환짜리는 잘 알고 있노라.

차는 떠난다. 마구 흔들린다. 서서 가는 노인들과 부인들은 서로박고 때로는 얼굴까지도 서로 문지르고 입도 마주친다. 노인들의 얼굴이 백색이 되었다간 황색으로 나중엔 청색으로 변하며 기운이 없어 곧 넘어질 듯 흐느적거렸다. 정류소가 가까워지면 서있던 젊은 사람이 고양이 쥐 노리듯 베투고 있다가 한두 사람이 내리면 번개같이 앉아버리니 노인들과 부인들은 감히 앉을 꿈도 못 꾸다. 두 번째 정류소에서였다. 자리에 앉았던 젊은 공무원이 내리니 그 곁에서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고등학생이 번개같이 그 자리에 앉고 말았다.

이때였다.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양, 움켜 말하면 C 씨의 가슴은! 그러자 “일어섯”

이제 막 앉은 학생에게 호령이다. 학생은 깜짝 놀라 획 돌아다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하며 일어섰다. 이쪽 편 좌석에 앉아 즐고 있던 학생에게도 호령이 내렸다.

C 씨는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너희들은 학생이지, 수학이니 생물이니 화학을 배우는 것이 공부가 아니야. 학교란 먼저 예의를 배우는 데야. 도의교육이란 무슨 말이지?” “…….”

“저기 예순 노인이 저렇게 땀을 흘리고 서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

C 씨는 두 노인을 자리에 모셨다. 차내가 자못 엄숙해진다.

공무원이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백 환짜리에 무슨 귀가 있느냐고? 왜 귀가 없어요? 빗(四)이나 되는데. 그래 공무원이 이럴 때 노인에게 자진하여 좌석을 양보하는 아량이 없어야 지도계급에 있다고 하겠어요?

“나는 공무원이니 적어도 앉아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입에 젖(乳) 뱀새 나는 유치한 사람들이다. C 씨는 내내 경주까지 서서갔다. 그리고 경주에서 내려서 손수건을 사는 관례로 나는 다시 자리를 옮기고 그 다음날 부산 가는 사람의 지갑으로 들어갔지요. 으- 집사와 같은 나의 신세여! 서울 못가는 나의 애석한 꼴이여!!

◇ 뺨 맞는 가자의원(假字議員)

또 돌고 돌아 김천(金泉)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청(市廳) 금고 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어떤 어여쁜 귀부인의 가방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듣건대 이 부인은 대구로 가는 길이라니 대구로 간다면 서울행 로프는 무진장(無盡藏)으로 있을 것이다. 키가 솔직하고 얼굴이 둥그름하며 아주 미국인(美國人) 아닌 미인(美人)이다. 시청에서나 거리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인사를 교환하는걸 보니 그의 교분(交分)은 무려 수천. 오후 2시경 김천역 흡에서 통일호 열차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부인은 어떤 남자와 얘기를 몇 마디 건네고 있을 때 철마(鐵馬)가 들어왔다. 수많은 사람이 내렸다. 그러자 맨 끝에 45, 6세 되는 중년신사가 내리며 차를 타려고 바로 곁에 서있는 부인을 몇 번이나 물끄러미 보곤 하더니 부인의 앞으로 다가선다. 얼굴이 붉고 좀 혼들흔들하는 몸은 분명히 주기(酒氣)가 있어보인다. 아니 그 실은 상당히 취해 있는지도 모른다.

“야아 오래간만이외다. 정말 오래간만이외다. 안녕하세요.”

중년 신사는 자못 다정한 옛 연인이나 만난 듯이 이렇게 말했다. 과연 입에선 알콜 냄새가 확 쏟아졌다. “.....”

“날 몰우? 아- 날 모르다니. 알겠지, 왜 알겠지우?”

부인의 말은 침착하며 공손하다. “누구신데요?”

“안녕하세요, 야아 오래간만이외다.....”

신사는 자꾸만 나를 모르느냐고 넌지시 달라붙는다.

“아니 선생님이나 어디 계시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날 몰라? 알지? 날 몰라?” “봐온 기억이 없습니다만?”

“왜 날 몰라, 알지 아시죠?” “아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예요! 난 당신 같은 양반 몰우”

신사는 넌지시 부인의 손목을 잡으려 한다. 부인은 손을 뒤로 돌이키며

“점잖은 양반이 왜 이래, 참 별일도 다 많아, 창피하게!”

부인은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본다. 그러자 신사는 글썽 무엇인가 백 환짜리는 잘 알 수

없으나 아마 못 참겠는지 덤석 다가들어 부인의 왼편 팔목을 꼭 잡고 무어라 지껄이려던 순간 “차잘씩-”하는 소리가 글썽 이것도 처량하게 들렸다.

“x 자식 같으니 도대체 어디서 굴어먹던 버릇이냐!”

신사는 부인으로부터 보기 좋게 뺨을 얻어맞은 셈이다. 신사는 눈이 등그레지며 두 손으로 뺨을 어루만졌다. 신사 “이것 봐라”

부인 “씩 물러가시오!” 신사 “나의 뺨을 쳤대!”

그러자 처음부터 곁에 서서 가만히 보고 싱글싱글 웃고만 있던 남자가 신사의 소매를 끌며 “점잔찮게 왜 이려는거요, 갑시다.”한다. 그러나 신사는 좀처럼 발자국을 옮기지 않는다. 남자는 부인에게

“이분은 국회의원입니다.”하고는 무슨 위협이나 하는 듯이 말하였다.

“국회의원이면 그 따위 행셀 해도 좋다는 거냐?”

부인의 말소리는 오히려 커졌다. 우리의 부인은 대단히 노하였다.

“어서 갑시다. 그만-” 남자는 신사의 소매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얼마 안 되어 남자가 돌아왔다.

“뒤통까지 치시오, 저쪽은 물론 나쁘지만 좀 과하잖아요.”

“그게 무슨 창피한 짓이란 말이예요.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아니 국회의원이란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좀 겁을 낼까해서.....”

20세기 여성해방이 낳은 용감한 부인의 일장활극이 끝나고 부인이 차에 올라타자 철마는 대구로 향하여 떠났소이다. 그러나 덕분에 나도 희망에 부풀어 오른 가슴을 두근거리며 또 언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나 하여튼 일로(一路) 서울로의 먼 길을 달리고 있소이다. (끝)

금언(金言), 명언(名言), 격언(格言)

☆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上(常))을 닦는 것을 도라 하며 위태함에 임해서 변(變)을 제(制)함은 권(權)이라 하나니 지자(智者)는 이를 순탄할 때에 이루고 우자(愚者)는 역리(逆理)에서 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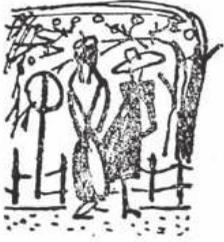
(최치원(崔致遠), 호 고운(孤雲) 신라시대학자)

☆ 사람의 정이 배움을 얻은 후에 제 허물을 알고 그 허물을 안 연후에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을 안 연후에 선하고자하는 마음이 유연히 일어난다.

(성혼(成渾), 호 우계(牛溪) 도학자)

☆ 군자는 문(文)으로써 벼를 모으고 벗으로써 인(仁)을 도운다.

(박지원(朴趾源), 호 연암(燕巖) 문인)



국제(國際) 펜 대회(大會)의 낙수(落穗)를 추려서

양명문(楊明文)

1. 개회식(開會式)의 인상(印象)

이번 국제 펜 대회를 통해서 제일 인상깊었던 한 장면은 역시 개회식이었다.

일본 펜 센터는 이 대회를 위해 거의 거족적(學族的)이다시피 큰 힘을 기울였던 것이었다. 회의장소만 하더라도 그 치밀한 데 이르기까지 만단(萬端)의 준비와 시설을 하고 나서 막을 열렸던 것이었다. 개회장소는 동경산경회관(東京産經會館)이었는데, 이날이 바로 9월 1일 예정대로 하오 2시 반에 이 역사적인 제29차 국제 펜 대회의 막이 올랐던 것이다.

무대에는 참가국 23개국의 국기가 엄숙하게 일렬로 입립(林立)⁵³⁾하고 무대중앙 연단에 일본 펜 대회인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씨가 나와 개회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용어는 일본어였고 그 앞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회사 가운데서 이웃나라인 한국에서 20명에 가까운 많은 대표들이 와주어서 특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Korea라는 말이 튀어 나온 것은 확실히 기분이 좋았고 나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어서 국제 펜 본부회장인 앙드레 상송 씨의 그 유창한 축사가 있었다. 불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껴 보는 것이었다. 꼭 무슨 시낭독이나 하는 것 같은 언맥(言脈), 리듬, 템포로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그런 축사였다.

그 뒤를 이어서 일본외무대신의 인사가 있었고, 인도의 대표 소피아 바디아 여사의 메시지 낭독이 있었고,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존 스타인벡의 인사가 있었는데, 이 작가의 인사는 약간의 해학과 풍자(諷刺) 비슷한 것이 섞여 있었다.

우리 대표 19명도 모두 가슴에다 Korea의 아무개라는 패쪽을 달고 비교적 앞자리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나는 시내 어느 부잣집에 약 일주일간이나 유숙한 적이 있는데 25, 6세 되는 이 집 아들 여기에 한 가지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보도 광경이다. 카메라는 수없이 반짝거리고 이 회장을 둘러싸다시피 한 NHK나 무슨 텔레비전이니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계들인데 꼭 무슨 무기 같은 포신(砲身)같은 것들이 우리 전체를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시각각으로 신문에 라디오에 텔레비전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 역사적인 개회식은 장엄한 막을 올렸던 것이다.

53) 죽 나무처럼 늘어서는 것

2. 태극기(太極旗)

무대 위에 알파벳순으로 꽂혀진 각국의 국기들 속에 우리 태극기가 꽂혀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감개무량해지는 것이었다. 전날의 학생시절을 나는 도쿄에서 약 10년을 보냈는지라 도쿄 복판에 이렇게 국제무대에 태극기가 꽂혀져 있는 것을 나는 그저 심상(尋常)히 바라다 볼 수는 없었다.

3. 시인(詩人) 스펀더의 인상(印象)

개회식이 끝난 그날 저녁에 일본 펜센터의 초청연으로 일대 가든파티가 친잔소(춘산장(楡山莊))에서 열렸다. 첫날 파티라 참가국의 각국 대표는 물론 귀빈들도 많았다.

정인섭(鄭寅燮) 선생과 모윤숙(毛允淑) 여사는 우리 대표와 각국 대표를 서로 소개하여 인사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나는 수많은 외국작가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다. 기중(其中) 인상에 남아있는 분의 한 분으로 영국의 시인 스티븐 스펀더 씨였다.

모여사가 특히 나를 6.25전란 중에 북한에서 월남한 시인이라고 했더니 그는 나에게 미소를 띠우며 한 번 더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후리후리한 장신에 황색이 된 봉발(蓬髮)은 얼핏 보아 시인 아니면 극작가로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의 미소는 '모나리자'의 미소같이 매혹적이었다. 그가 하는 동작은 느릿한데다가 말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사과를 먹어도 나이프로 까 쪼개먹는 것이 아니라 바지자락에 사과를 그냥 문질러서 그저 그대로 먹고, 다 먹고 나서는 잔디밭에다 손을 휘휘 휘둘러 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영국출신이라서 창작적인 귀족행세도 아니고 아니꼬운 신사행세도 없었다. 이날부터 그와 나는 펍 친해졌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와 늘 같이 즐겼고 한국에 같이 오지 못하게 된 것을 펍 섭섭해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연전에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예술가회의의 의장을 지냈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시인이라 각국대표 작가들 중에도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카메라는 그를 줄줄 따라 다녔다.

4. 정인섭(鄭寅燮) 대표(代表)의 연설(演說)

그 유창한 영어, 타오르는 듯한 정의와 정열, 장내를 울리는 음성.

일본제국주의가 과거 40년 동안 우리를 못살게 한 중에서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성명까지 빼앗겼던 일과 특히 우리의 문학작품을 엄격히 검열하고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는 작가를 투옥하고 악형에 처한 일들, 그래도 우리는 이에 굴치 않고 우리의 민족문학

을 수립해 왔고, 세계문화와 어깨를 같이 하여 오늘날 여기에서 발언하게 되었다는 애기와 전기한바 같은 투옥당한 시인의 옥중작(獄中作)을 영역하여 이것을 낭독까지 하였다.

특히 한국의 현대문학과 작가들에 대하여 말하고 이것이 동서(東西)문학의 상호교류 내지는 영향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당당히 논술한 것이다. 무대에 임립(林立)하는 국기들 사이에서 태극기는 기폭(旗幟)을 부풀리는 듯 통쾌 무쌍했다. 그러면서 손에는 차담을 쥐게끔 긴장되는 것이었다.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소리가 요란했다. 특히 외국작가의 박수는 더 오래 계속되었다. 쾌재야(快哉也). 그의 연설은 곧 각 신문으로 라디오로 텔레비전으로 보도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은좌[긴자]만보(銀座漫歩)

회의의 스케줄이 딱 차있어 좀처럼 자유행동 시간이 없었다. 회의와 파티, 회의와 파티뿐이니 호텔에서 잠자는 시간 밖에는 자유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은좌에 들리곤 했다. 긴자(銀座)는 옛날에 비할 수 없으리만큼 더 화려해졌다. 나는 옛날 학생시절을 회상하면서 긴자를 거닐었다. 불야성을 이룬 네온사인, 시속 60리를 놓는 택시들의 끊임없는 순환, 질서 있는 보도 옆엔 예와 다름없는 긴자의 가로수인 수양버들이 늘어서 있다.

나는 다시 뒷골목을 걸었다. 역시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장식한 카바레나이트클럽, 바, 요리점들이 즐비하다. 나를 안내하는 M형(兄)이 우루와시란 카바레로 나를 인도한다. 4, 500명은 될 듯한 여급(女給)들, 양장(洋裝) 또는 화복(和服)차림으로 대호화판(大豪華版)을 이루고 있다.

실 사이 없이 불고치는 자드밴드, 바로 그 앞 무대에서 안고 돌아가는 댄스군(群), 술과 계집과 노래와 춤이 밤새도록 벌어지는 곳. 그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에게겐 이젠 공습도 폭격도 없고, 휴전선도 통금시간도 없으니 맘 놓고 술을 마시고 계집과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다. 그저 돈을 벌어서 사는 것뿐이다. 그 돈 앞에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 여성들이 여기에 가득 차있다. 아릇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남성을 유혹하는 것이다. 나도 한잔 마시고 나왔다.

6. 스트립쇼라는 것

전후(戰後)에 대발전(大發展)을 보게 된 이 스트립쇼를 나는 동경 왔던 기념으로라도 보아야 했다. 정말 발가벗고 나와서 춤을 추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30여 명씩이나 나와서 춤을 추는 게 아닌가, 나는 그만 징그러워졌다. 구미가 없어질 정도

로다. 이렇게 인간의 값이 싸지만 종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도 틀림없는 사람의 자식이요, 귀여운 딸이요, 싱싱한 청춘이 아니었던가, 이야말로 인간유린 같은 값이 없지 않았다. 모두 젓꼭지가 빨간 소녀들이 아닌가,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렇게 나체 춤을 밤새도록 추고 날뛰고 하여도 한 달에 몇 푼 받지도 못하는 그들을 생각해 보았다. 몸서리치는 사회상의 한 장면이었다.

7. 조용한 교토(京都)

교토는 예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별로 전해(戰害)를 입지 않았고 예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다. 여기서 다도(茶道)의 총본가(總本家)인 우라센케(裏千家)에서 차를 마셨다.

전날엔 그 옆에도 못 가게 하던 자진전(紫宸殿), 게이궁(桂離宮)을 샅샅이 볼 수 있었다. 천룡사(天龍寺)에서 9월 8일, 이 역사적인 펜 대회의 폐회식이 있었다. 교토에 와서 파티 때마다 웹 미인들이 많이 와서 봉사하기에 교토는 역시 미인들이 많군 했더니 후에 알고 보니 모두 여우(女優)들이었다. 여배우들을 동원시킨 줄은 몰랐다.

8. 우리 교포(僑胞)들

이번에 도쿄(東京), 교토(京都), 나라(奈良), 오사카(大阪) 등을 보는 동안에,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겨 주는 것은 역시 우리 교포들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간 곳마다 여간 기뻐하질 않았다. 우리 대표단을 위해서 파티를 차리고 성의껏 환영해 주었다.

교토에 갔을 때 마침 음력 추석이라 추석파티를 열고 하루 밤을 즐겼다.

교토에는 약 6만 여의 우리 교포가 살고 있고 교토관광(京都觀光)호텔(7층대건물) 같은 큰 호텔을 경영하는 이도 있었다.

9. 한국문학(韓國文學)의 밤

펜 대회를 끝마치고 돌아오기 바로 전날 밤엔 도쿄나카노공회당(東京中野公會堂) 거류민단본부 주최로 「한국문학(韓國文學)의 밤」을 열었다. 수많은 교포, 특히 학생들도 많이 왔다. 우리는 여기서 강연과 시낭독 등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교포들이 모두 감개 무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는 자작시인 「칠월(七月)의 노래」를 낭독했다. 모두 조국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PEN” 에피소드

전숙희(田淑禧)



팬클럽 이야기는 벌써 각 신문 잡지 등에 여러 작가들이 쓴바 있어 시일도 오래 경과한 지금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나로서는 오히려 힘든 일이라고 하겠다.

신문 잡지를 읽으시는 분들이면 이미 다 읽으셨을 팬클럽 이야기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는 여기서 그 본선을 떠나 그 뒤에 숨은 부스레기 이야기들을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몇 가지 적어 볼까 한다.

9월 1일부터 도쿄에서 시작된 제29차 국제 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우리 한국의 19명 대표들은 8월 30일 날 여의도 공항을 출발했던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작가들이 한꺼번에 국외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우리로서는 처음 되는 일이었으며, 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시는 분들도 계셔 긴장한 가운데도 무척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오후 세시에 여의도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오후 6시 30분에 도쿄 하네다 비행장에 도착하자 일본 PEN클럽의 환영위원과 우리 한국제일교포 대표들과 신문기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나란히 줄을 서 입국수속을 하는데 우리 앞에 허술하게 차린 미국남자 한사람이 우리대표 모윤숙 여사와 반가이 악수를 교환하며 이제들 도착이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엘마 라이스 씨라고 한다.

그의 신분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 번 그의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다 구겨진 레인코트에 머리는 텁수룩이 길고 양손에는 종이에 꾸린 보파리들을 무겁게 주렁주렁 들고 그 역시 PEN대회에 참석코자 도착하는 길이었다.

예술가들이란 어디나 이렇게 자기네 몸차림 같은 데는 등한한가 생각하며 나는 자못 흥미로운 눈으로 꼭 어디 노동자와 같은 험수룩한 차림새의 이 세계적인 작가의 모습을 살폈던 것이다.

9월 1일 저녁 동경 춘산장(친잔소)에서 dancing party가 열리었다.

정식회의를 시작하기 전 각국 대표들이 서로 만나 악수하고 얼굴들이라도 익혀 두자는 효과적인 모임이었다.

26개국 수백 명의 대표들이 모여들자 춘산장(친잔소) 정문 앞에는 수없는 카메라맨들과 신문기자들이 운집해 있어 실 새 없이 플래시라일을 터뜨리고 형형색색의 얼굴들 가지각색의 옷들, 거기에 기탄없이 지껄여대는 제각기의 언어들과 웃음들이 뒤섞여 화려한 혼란을 이루고 있었다.

9월 2일 아침 10시 동경 산케이(産經) HALL에서는 26개국의 깃발이 세워진 아래서 29번째의 국제 펜클럽대회가 막을 올렸던 것이다.

이날 일본 펜센터의 위원장인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씨는 그의 개회연설에서 일본의 문화는 천년전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을 거쳐 수입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고 특히 이번 회의에 이웃나라 한국에서 19명이나 되는 많은 대표들이 참석하게 된 것을 충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말을 해 우선 우리 한국대표들에게 추파를 던지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벡 씨는 개회첫날 나와 간단한 축사까지 했으나 이튿날부터는 일절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그의 강연이 있을 날 그의 비서가 나와 스타인벡 씨는 일본에 온 이후로 일본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 독감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대리로 했었다. 그러나 나중 알고 보니 사실은 일인(日人)들이 영국의 시인 스펀다 씨만 가지고 떠들고 에워싸고 야단들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 회의에는 나오지 않고 혼자 슬슬 뒷골목 산보나 다닌다는 것이었다.

9월 4일은 우리대표 정인섭씨의 연설이 있던 날이었다. 우리 일행 19명은 모두 긴장한 가운데 EARPHONE을 귀에 대고 있었다.

그는 침착한 태도와 유창한 영어로써 일제가 얼마나 잔악하고도 횡포⁵⁴⁾한 수단으로써 우리민족과 강토를 짓밟고 심지어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까지 말살하려 하고 수많은 문화인들을 체포, 투옥한 사실 등을 전 세계 대표들 앞에 폭로하였던 것이다. 장내는 마치 물을 뿌려놓은 듯 고요하고 긴장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내 나라 내 땅 안에서든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말과 원한을 오늘날 바로 그 본바닥인 이 땅에 와서 세계만방에 우리의 억울함과 그들의 만행을 마음대로 외치고 호소할 수 있는 감격에 견딜 수 없는 감회의 눈물이 솟아오름을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연설은 우리 한국의 현대문학은 그러한 탄압과 또 6.25의 공산침략 등으로 연속되는 비탄과 고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레지스탕스의 경향을 띠고 있는 문

54) 원문의 횡포는 한자로는 '橫暴'로서 횡포의 오기로 보임.

학이라는 것으로서 결론지었다. 어쨌든 우리대표의 연설은 그 많은 각국대표들의 연설 중에서도 이채를 띤 것이었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동서문화교류(東西文化交流)의 상호(相互)영향'이라는 것으로 따라서 번역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토의되었다.

일본만 해도 이 번역문제에 있어 크게 활약하고 있어 각국의 서적이 출판되는 대로 중요한 것은 즉시 번역 출판됨으로 세계문화수준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동시 자기 네들의 작품 역시 기를 쓰고 번역해 세계 각국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우리 한국도 무엇보다 우선 이 번역팀을 강화해 열심으로 남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내 것을 보여주고 소개해 주어야만 세계의 일원으로써 동등한 레벨을 걸을 수 있으며 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은 이번에 이 PEN 대회를 통해 자기들의 문화와 생활과 생각 등을 세계 각국에 선전하고 또 그네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써 사귀는데 국민전체가 총력을 다 기울였으며 또 어느 정도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PEN 대회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인텔리들뿐 아니라 동경의 어느 뒷골목 조그만 식당이나 상점이나 혹은 백화점, 자동차 운전수에 이르기까지 PEN이라는 표식을 가슴에 단 사람들에게는 몇 갑절의 진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번 PEN 대회를 통해 자기들을 세계만방에 변명하고 클로즈업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노력과 단결을 보며 어쩔 수 없는 불유쾌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떠한 위대한 문화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민족의 뚜렷한 토대 위에 서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들은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17명의 각국 작가들이 우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큰 성과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이나 한국민을 중국이나 일본의 한 부분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고유한 땅과 말과 생활과 문화 등을 직접 보여 주었고 그들은 일본의 정치적인 사교적인 환대보다 우리들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우의를 진정 가슴 속까지 느끼고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열두 나라의 대표들은 제 각기 자기나라에 돌아가면 한국의 자랑과 한국의 슬픔 등을 쓰겠노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처음 되는 일이었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해와 사귀임을 가장 빠르게 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이번 펜 대회의 의제인 '동서문화 교류의 상호영향'은 그 토의의 결과, 어떠한 뚜렷한 결론이나 해결을 내리지 못했을망정 이미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즉 26개국의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 2주일간을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이야기하고 웃고 싸우고 구경하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거기에 하나의 커다란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자주 만나야만 한다.

비록 말은 서로 통하지 못할지언정 서로 마주 보는 말없는 웃음 속에서 또는 마주 잡고 흔들는 손아귀에서 인간 공통의 애정과 이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PEN은 총이나 칼보다 위대하다." 이 평범한 이야기는 이번 펜 대회를 통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실히 느껴진 공통된 생각이 아니었을까.

헬멧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라디오를 통해 미국육군 포르 머스 기지에 있는 해리 마이크스 전령 하사가 송신과 수신을 하고 있다.



해피 로우드

(The Happy Road)

MGM사(社) 배급(配給) 와이드 스크린

☆ 해설

이 작품은 진 캐리⁵⁵⁾가 제작, 감독, 주연을 함께 담당하였다는 데에서 화제가 되었다 - 그렇다고 음악영화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실증이 난 기숙사를 탈출한 소년소녀의 두 어린이가 '비상선(非常線)이 다 무어냐!'는 듯 수많은 어른들을 혼미케 하고 스위스로부터 즐거이 목격지 파리로 골인한다는 즐거이로서 어린이의 재롱에 미소를 금치 못하는 영화이다.

주역의 소녀에는 「금지(禁止)된 작란(作亂)」에서 가련한 소녀 역을 담당하였던 브리짓 포세⁵⁶⁾인바 그로부터 5년 후에 촬영된 이 영화에서는 당시 다섯 살밖에 되지 않던 그가 훨씬 귀여운 소녀로 성장하였음을 알게 된다. 포세의 상대역 소년에는 보비 크리크⁵⁷⁾가 담당하였으며 포세의 어머니역에는 젊은 미망인 바벌 러주⁵⁸⁾, 그리고 보비의 아버지 역에도 홀아비 생활을 하는 진 캐리.....이쯤 되고 보면 캐리와 러주의 사이도 자연 화제에 오르지 않을 수 없으리라.

X X



나는 영웅(英雄)이 된다!

다니 소년은 드디어 숙원대로 학교

55) Gene Kelly.

56) Brigitte Clark

57) Bobby Clark

58) Barbara Laage

기숙사를 탈출하기에 성공하였다. 탈출이라고 하여도 결코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몹시 다망한 아버지를 작별하고 이 스위스의 기숙 소학교에 떨어진 이후 전혀 버림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니의 아버지는 미국사람으로서 지금 파리에 지점을 개설키 위하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때였다. 미국식 능률주의로 사업의 성적을 올리려는 그는 날마다 거의 여행으로 지내고 있었다. 물론 부인이 없는 독신이다. 이러한 당연한 운명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인 다니는 스위스의 부유층 학교에 버려진 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니는 아버지를 보고 싶었고 또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다. 멀리 스위스라는 외국으로부터 불란서 파리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놀랄 것인가. 나는 영웅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어른이란 너무 오래도록 홀로 지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참을 수 없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용하게 학교를 탈출한 다니는 이제부터 영웅이 된다는 자랑스러운 걸음을 걷기 시작하자 곧 뒤에서 누가 쫓아오음을 깨달았다. 벌써 뒤쫓는 사람이 있으니 학교임에도 이렇게 늦은 한밤중까지 지지 않던 자가 있었을까. 영웅이 된 것처럼 자랑스럽던 걸음걸이는 삼시간에 흠어들었다. 망심은 금물이다. 어디에든지 숨어야 한다. 숨어서 가만히 추적자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학생인 것 같다. 여학생이다. 자니스다. 자니스가 왜 쫓아왔을까?

“나도 같이 가게 해줘!”

다니는 한참 만류하였다. 그러나 자니스는 행커치프에 쓴 초콜릿을 주며 “난 불란서말을 알지만 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불란서의 반이나 횡단하는 여행을 하려고 그래”하면서 매달렸다. 물어보니 자니스도 파리에 있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탈출해 온 것이다. 그리고 자니스의 어머니도 독신임을 알았다.

“울지마. 네가 울고 있으면 난 언제까지나 파리에 갈 수 없지 않아!”하고 책망까지도 해보았으나 결국 자니스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수상 자전거로 호수를 건너고 나니 없어도 괜찮을 국경에 다다랐다.

“간판만 걸어 두면 되잖어? 그런데 국경감시에 바쁜 사람이 있으니 정말 싫어”

두 어린이에게 패스포트가 없음은 당연하다. 할 수 없이 감시원의 눈을 피하여 통과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불란서의 땅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요행히도 통과하는 화물차에 편승할 기회가 있어 먼 촌길을 단숨에 지났는데 내리서 생각하니 다니의 친구들이 힘들며 모아준 도시락을 자니스가 전부 트럭 위에 두고 왔던 것이다. 자니스는 또 울었다.

“나는 너를 조금도 도우지 못하면서 곤란케만 하였지?”

“뭘 그까짓거……” 하면서도 다니는 허기증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뜻밖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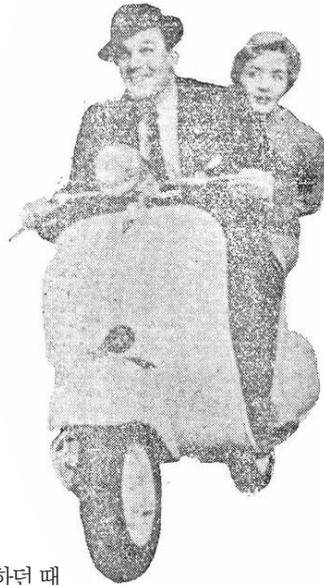
피크닉을 나온 한 가족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얻어먹었다. 그리고 다니는 그 곳의 어린이 가운데서도 제일 큰 형으로 보이는 소년에게 그들이 학교를 탈출하여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펍 감탄하며 그들을 자기네의 돌아가는 트럭에다 태워주었고, 더욱이 역전(驛傳)식으로 차례차례 마을 소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배(手配)를 해주었다. 이로써 다니는 그곳에서 배운 신호귀를 잡아당기고 “쭈-돈, 쭈-돈”을 하면서 쉽사리 다음의 마을 소년들과 연락을 가질 수 있었다.

자식(子息)을 찾는 공동수난자(共同受難者)

다니의 아버지인 마이크⁵⁹⁾는 파리의 자기 지점에서 업무에 분주하던 때 스위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다니가 실종이다! 불안서, 스위스 할 것 없이 무턱대고 찾아 다녀보아야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아 곧 학교로 달려갔다. 교장실에는 방문객으로 보이는 젊은 부인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니 이 부인의 딸도 실종하였다는 것이다. 당치도 않는 여자다. 순진한 다니를 유혹하여 도망친 말 팔량이 만들어 낸 알미운 여자! 그런데 그 알미운 여자가 오히려 마이크에게 “당신네 아들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집 자니스가 이렇게 되었어요. 어쩔 작정이세요.”

하고 텀뻐다. 입장이 난처해진 교장은 사정을 잘 아는 동급생 아이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그리고 다니의 아버지나 자니스의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보고 싶어서 탈출한 것입니다. 참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그 기분 잘 아시겠습니까-하고 교장이 설명했다. 그리고 보니 어떻게 죄는 아버지인 마이크와 어머니인 수잔느⁶⁰⁾에게 있는 것 같았다. 마이크와 수잔느는 공동수난자로서 자기 아들과 딸을 찾기 위하여 근심에 싸인 여정에 올랐다. 다행히 어떤 친절한 사람 덕분에 다음 마을까지 차를 탔다. 마을에 닿고 보니 관공서 경찰은 모두 문을 닫았다. 주식시간(晝食時間)이다. 아이를 잃고 허둥지둥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라면서 태핑세월로 점심만 먹고 있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마이크가 투덜거리고 있을 때 스쿠터를 탄 순경 한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 그 순경은, 아이들이 이미 이 마을의 물샐틈없는 경계망을 돌파해 나갔으나 다음 마을에서는 엄중봉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꼭 붙들릴 것이니 안심하고 스쿠터에 타도록 권하였다. 마이크와 수잔느를 뒤에 태운 순경은 촌길을 사정없이 달렸다.

59) Mike Andrews
60) Suzanne Duval



달타니안의 의협정신(義俠精神)

한편 다니와 자니스는 귀를 잡고 “쭈-돈 쭈-돈”이라는 신호를 하며 다음마을 또 다음마을로 연락이 되었다. 서커스가 왔다는 어떤 마을에 들어서니 거기에서는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벌써 경찰이 수배되어 있음을 경고하며 자기들의 옷과 바퀴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너희들 옷을 입고 붙들릴 터이니 그 사이에 경계망을 탈출하라고 스스로 수난을 사는 아이들까지 있었다.

옷을 바퀴 입은 그곳 두 아이들은 변잡한 거리에서 순경 앞을 오고 가고 하였으나 그저 긴장되었을 뿐 본 척도 안하던니 한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지 깜짝 놀라며 쫓아와 붙잡아 버렸다. 이 소식을 받은 마이크는 수잔느에게 불란서 경찰의 실력을 크게 칭찬하며 그곳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다니는 아니었다. 수잔느가 불란서어로 잘 물어보니 삼총사 달타니안 이래의 의협정신에서 옷을 바퀴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수잔느에게 말했다.

“당신네들은 왜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다니와 자니스는 기를 쓰고 어른들을 찾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어린이들의 기분이 되어보세요.”

수배된 복장 그대로의 아이를 잡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데에 불란서 경찰은 약이 바짝 올랐다. 그러나 특공대순경은 마이크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음마을에는 새로운 복장을 수배하였으니 걱정 없습니다. 꼭 붙들립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다니와 자니스는 육로의 위험을 깨닫고 그곳 소년들의 힘을 얻어 불간디의 포도주를 운반하는 운하 전마선 화물 속에 숨었다. 그 위에다 또 변장키 위하여 자니스는 그의 길게 늘인 뒷머리를 짧게 잘라 버렸다. 전마선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간 바쁘질 않았다. 숙소에 들면 아버지는 파리로 어머니는 몬테카를로에 각기 중요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잃어버린 자식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마이크는 어디서인지 스쿠터를 한 대 사왔다. 파리와 몬테카를로의 방향이 다른 이 두 사람은 때때로 싸웠으나 거의 의중계 촌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은 시골명물인 앵코된 트럭에 부딪혔다. 마이크가 열심히 손질하여 트럭은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나 그때는 또 스쿠터 쪽에 고장이 났다.

전군(全軍)·어린이를 수색(搜索)하라

그 트럭이 순조롭게 달리게 되자 이번에는 또 NATO(북대서양동맹기구(北大西洋同盟機構)) 육군의 대연습으로 이 지방 일대의 교통차단에 걸렸다. 몸이 달은 마이크는 사령관에게 면회를 청하였다. 사령관 메드워스⁶¹⁾(마이클 레드그레이브⁶²⁾)장군은 이야기를 듣자 곧 부관인 암부라스터⁶³⁾ 소령을 불렀다.

61) General Medworth 62) Michael Redgrave 63) Armbruster

“소년과 소녀는 이 연습지대에 걸어왔을 것이다. 보조 B-9를 통과하여 청색지대를 북동쪽으로 향하였음이 분명하다. 연습지도좌표 G7 및 X-2의 2점을 기점으로 하여 삼각형을 그리고 그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라. A중대는 심도 0으로서 CU9급 M4를 순찰경계. 새로이 V14계획에 기한 보조선을 배치할 것. 질문은?”

명령은 직각으로 하달 수배되었다. 장군의 책상머리에 놓인 수십 대의 전화기에서는 각 중대 각 보조대 각 배치지로부터 간단없이 보고가 들어왔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구동성으로 아메리카 보이와 프랑스 걸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군은 기어이 찾아야 할겠다는 뱃심으로 전 기계화부대를 동원시켜 철저한 수색을 명령했다. 증탱크 경탱크 할 것 없이 땅을 파헤치며 포위태세로 서서히 지역을 좁혀가고 있다. 이 대작전의 보고는 오후세시야 들어온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장군의 옆방인 식당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니와 자니스가 하사관들로부터 점심을 얻어먹고 나왔다.

“저 많은 탱크들이 뭐하고 있을까”

“군대에서 하는 일 어린이들은 아직 몰라”

이런 대화를 남기고 두 어린이는 철조망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갔다.

한편 본부에 있는 마이크는 지루한 시간을 간신히 세시까지 견디었다. 일본일초의 지체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기계화부대장 보고 ‘아메리카 보이’ 및 ‘프랑스 걸’ 없음”

마이크와 수잔느는 아연실색하여 본부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떠난 지 얼마 후 이미 날도 저물었을 때 메드워즈 장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메리카 보이’ 및 ‘프랑스 걸’ 발견. 목하 당 부대 구급소에 보호 중……끝”

장군은 빙그레 웃었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군대다. 이러한 밤중이 되어도 주관의 명령을 잊지 않고 실행한다는 만족감에서 구급소로 뛰어 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석조로 된 방에는 마이크와 수잔느가 들어있었다. 장군은 질색을 하며 “보내줘!” 하는 마이크의 고향도 들은 척 만척 그냥 나가 버렸다.

“군대의 규칙에 따라, 이곳에 들어온 자는 24시간을 경과치 않고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담당장교가 엄숙히 알려주었다.

이곳은 파리(巴里)

파리에 파리에. 다니와 자니스는 이상한 마을에 다다랐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 마을을 출발점으로 하는 불란서 항례의 자전거 경기가 막 시작되려는 때다.

“야! 미국의 뉴스(班)도 와있어!”

경기장 주위에 있는 자동차에 뉴스반의 기(機)가 감겨있고 한편 아나운서가 목하의 실황을 방송하고 있으며 카메라맨들은 이 광경을 빠짐없이 촬영하고 있다.

“좋은 수가 있다. 저차를 타고 가자.”

“탈수 있어?”

다니는 자동차 옆으로 뛰어갔다.

“아저씨!”

“아이들은 저쪽으로 나가.”

“아저씨, 아빠의 자전거 이길 것 같아?”

“너 너는 선수의 아들인가.”

“그럼요”

“어느 서수?”

“가만있자-누구로 할까”

“뭘?”

“그래. 저기 저 사람이요”

“마이켈 벨트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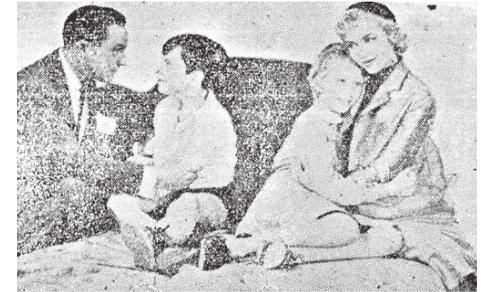
“이리와”하며 자니는와의 둘을 끌어당겨 열심히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 벨트란드와 나란히 사진을 한 장 박았다.

“너희들 차에 타. 파리의 결승점에서 한 장 더 백이자” 이리하여 파리까지 가게 되었다. 이때의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한편 24시간 만에 구급소의 보호로부터 석방된 마이크와 수잔느는 장군사무실에서 이 신문을 보았다.

“아. 자니스다” “뭘요? 오- 다니다”

암부라스트 소령은 곧 군용 지프차를 파리까지 내주었다. 파리의 결승점도 대단한 인파였다. 그러나 우물쭈물 하다가 발각될 것을 눈치 챈 다니는 자니스를 데리고 차가 정거하기가 바쁘게 뺏소니쳤다. 마이크와 수잔느는 지프차로 파리에 나오자 곧 신문에서 본 뉴스반의 차량을 찾았으나 아이들은 없었다.

실망. 낙담. 맥이 풀어진 마이크는 수잔느와 함께 파리 경찰의 수배를 의뢰한 다음 집으로 왔다. 마이크는 방에 들어서자 두 말자국도 채 읊기 전에 장난감 기차를 밟아 부수어 버렸다. 장난감! 장난감! 별안간 무슨 생각이 났는지 침실로 뛰어갔다. 침대 위에는 여우고 지쳐빠진 다니와 자니스가 곤하게 자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운 나의 자식을 몰랐다는 듯이 마이크는 다니, 수잔느는 자니스를 꼭 껴안았다. (3각야인(三角野人))



사진현상(寫眞現像)의 지식(知識)

김소정(金笑靜)



1. 현상(現像)의 원리(原理)

우리들은 각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하여 현상은 자기 손으로 하는 사람과, DP점에 의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뢰하는 편이 실패도 없고 귀찮은 일도 없으며 도구를 살 필요도 없으므로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하는 즐거움은 무엇을 어떻게 찍을까? 하고 고심하는 때는 물론 자기 자신의 현상처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사진이 되는가? 하는 연구상의 즐거움이 또한 실로 크다는 것은 DP점에 의존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상은 불안을 동반하지만 또한 마음먹었던 대로 되었을 때의 만족감은 별문제인 것이며 특히 예술사진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좋은 원판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귀찮은 것이나 불안감을 초월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필름은 촬영에 의하여 렌즈를 통하여 광선을 받습니다. 필름의 감광막(感光膜)은 은염(銀鹽)을 포함한 유제(Emulsion)로 되었으며 그것은 극히 미약한 광선에도 감광하며 은염(하로겐화은(化銀))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만은 이것은 육안으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선에 의해서 무엇인가 모르지만 어떤 형태의 상이 되어졌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상을 잠상(潛像)(Latent image)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흑변(黑變)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감광막을 형성하는 유제 중에는 잠상을 만들기 쉬운 취화은(臭化銀)의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은의 원자가 보이는데 그것을 감광핵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광핵에 카메라의 노출에 의해서 광선이 비치게 되면, 수많은 은원자가 모여서 현상핵을 형성하고 그 집단이 잠상을 이루게 됩니다. 광선에 비쳐진 감광막은 현상액에 의해서 흑변 되는데 이것은 현상핵이 주동이 되며 결정전체가 은립자로 치환되어지므로 그 부분이 흑변 되어 보이게 됩니다. 흑변의 정도는 광선에 비쳐진 정도의 다소 즉 광의 분량에 응하여 농담이 형성됩니다. 현상한 필름을 보면 아주 까맣고 진한 데로부터 점점 연하게 흑변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농담상태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조(諧調)라고 부르며 컨디션(속칭 조시)이 낮다든가 높다든가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 농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상을 마친 다음 정착액으로 필름을 옮기면

이때까지 반투명한 유백색으로 보이던 미감광의 취화은이 아류산(亞硫酸)소다의 작용으로 용해 제거된 다음에는 흑변한 은으로 된 보기 좋은 투명한 음화(陰畫)로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2. 현상액(現像液)의 종류(種類)

현상액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먼저 현상액의 종류에 관하여 금일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발견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그 성질의 상이함을 이해한 다음에 자유로 선택하여 희망하는 컨디션의 음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처방집(處方集)을 보더라도 수많은 현상액이 있으며 각 재료점에서도 각사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약의 종류 역시 수없이 많아서 어떤 현상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른 현상액에는 함유되어 있다든가, 또 동일한 약품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별(二大別)하여 필름용과 인화지용으로 구별됩니다.

3. 현상액(現像液)의 성분(成分)과 그 역할(役割)

그러면 현상액으로서 어떠한 소질이 필요한가? 맨 먼저 현상주약을 위시하여 그 밖에 촉진제, 보항제(保恒劑), 억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현상주약(現像主藥)

현상주약은 감광성 유제에 작용하여 감광한 부분으로부터 은을 환원시킵니다. 그리하여 이 유리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의 예를 들면 아미돌, 메도루, 하이드로퀴논 등이 그 일종으로서 현상액은 물론 이것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현상주약은 현상액에 따라서 1종만 사용하는 것과 2종 이상 혼합(合混)하여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주약이지만 성질이 다양하여 각각의 특징을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령 MG현상액이라든가 속칭 메돌하이드로 현상액이라든가 D76 현상액이라고 불리는 현상액에서는 주약으로서 메돌과 하이드로퀴논 두 가지를 혼합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메돌의 작용은 현상속도는 빠르나 흑변시키는 힘이 약하고 일방 하이드로퀴논의 작용은 속도는 느으나 흑변력이 강하므로 그 양방을 혼합시키면 흑변력도 강하고 즉 컨디션이 강하게 되며 또 메돌의 작용으로 연조(軟調)로도 되어져서 그 두 성질이 잘 융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메돌은 기온이 하강하더라도 작용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음으로 동절에도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하이드로퀴논의 작용은 겨울철이 되면 한랭한 기온으로 인하여 작용력이 약화되어 결국 메돌의 독무대로서 현상이 행하여져서 그 결과 필름의 보조도 불충분하게 나타나므로 동절에는 액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될 이유입니다.

(2) 촉진제(促進劑)

주약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촉진제입니다. 이것은 현상주약의 작용을 촉진하는 약품으로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골고루 현상이 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촉진제의 대표적인 것은 탄산소다인데 대부분의 처방에는 들어있으나 다른 약품의 작용으로써 대응시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상액의 환원작용을 크게 한다는 것은 알칼리성으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주약에 첨가하여 더욱 강한 알칼리성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탄산가리 등 강한 알칼리성의 약품을 투입하면 현상액은 매우 강한 작용을 발휘하므로 야간이나 실내 등을 촬영한 노출 부족된 필름 등에 흔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가부리를 일으키고 입자를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의 약용붕사(藥用硼砂)를 사용하여보면 반대로 은의 흑변의 크기가 적게 되고 현상능력은 떨어지며 그 결과 미립자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보항제(保恒劑)

다음에 보항제는 현상액이 쉽사리 악화되지 않도록 보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약품으로서 통상 아류산소다를 사용합니다. 이 작용은 현상주약을 액상으로 하여 공기 중에 방치하여두면 알칼리성의 강한 환원작용으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조만간 산화하여 적다색(赤茶色)으로 변하여 사용불능하게 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류산소다를 첨가하여두면 그것이 대신하여 산화하므로 주약에 대한 영향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4) 억제제(抑制劑)

이제까지의 설명으로써 주약은 현상작용을 하며 촉진제는 현상작용의 후원을 하고 보항제로써 현상액의 보존성을 꾀하는 것인데 이상의 제약제(諸藥劑) 만으로서는 너무 현상작용이 진척되어 미감광의 은립 부분까지 현상액 중에서 환원작용의 혜택을 받게 되어 흑변하는 소위 현상 가부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과현상작용에 대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억제제를 투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보통 취소가리(臭素加里)를 사용합니다. 이상으로써 현상액은 되어진 셈인데, 현상액은 기온, 액온의 고저에 의해서 작용이 크게 변화하므로 항상 지정된 온도를 유지(保持)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필름을 현상액 중에 넣어두는 시간에 의해서도 변하므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도(액온)와 시간(현상의 계속시간)과를 항상 일정하게 지키면 충분히 신뢰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必要)한 현상약(現像藥)

아마추어로서는 보통 그렇게 여러 가지 약품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계(機械) 현상약과 정착약(定着藥)을 구입하여 맥주병 같은 곳에 용해시켜 두면 손쉽게 현상이나 인화 확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성 현상약은 필름용과 인화지용 2종이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약과 양방 겸용할 수 있는 기계의 산성 경막(硬膜)정착약을 구입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계 현상약의 절품으로 곤란을 받을 때에 간단히 조합할 수도 있으며 또한 미립자 현상이 가능한 약품을 준비하려면 많은 처방 중에서도 D25 현상액이 가장 용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메들, 무수아류산소다, 이성중아소산가리(메타가리)의 3종을 준비하면 되는데 이성중아소산가리가 없을 때는 그대로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액의 처방으로는 온수(약50도C) 750CC, 메들 7.5그램, 무수아류산소다 100그램, 이성중아소산가리 15그램. 이상과 같이 만든 다음에 냉수를 가하여 전량을 1,000CC로 늘여서 두고 또 그래도 탱크 현상에도 사용합니다. 그 사용법은 액온 25도C에서 필름에 따라서 약간의 틀림이 있으나 대략 18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완만하게 처리되는 성질의 현상액이나 미립자 현상액으로 간단히 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용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노출(露出)과 현상(現像)과의 관계(關係)

노출에 있어서 적정노출이라면 물론 문제가 없으며 지정된 대로 현상처리를 하면 그것으로써 최량의 음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권(卷)의 필름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 찍혀있으며 그 전부가 적정노출로써 촬영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어떤 한 장은 노출이 매우 과도이며 다른 몇 장은 부족이었다고 하는 경과가 보통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한 권에 모여 있는 필름의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우리는 흔히 여기에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노출에 대한 것을 되풀이 생각하면서 현상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상은 지정대로 일정한도와 일정시간을 지켜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역시 후자의 방법을 취하여 현상만은 노출의 하나하나를 상상하여 손으로 조절을 하지 않고 보통과 같이 온도나 시간도 불□□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노출과도인 것은 그대로 과도하게 흑변하도록 놓아두고 적정노출은 물론 최량 또 부족부분은 그 부분만 강력현상을 하지 않고 부족한 채 그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도와 부족한 음화는 다행히 종류가 많은 인화지의 사용구분으로써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이것도 허실함이 없이 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5. 현상(現象)의 조절수단(調節手段)

참고로 노출의 과부족에 응하여 손으로 조절하여 보고자 할 경우를 생각할 때, 먼저 노출과도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는 시간을 단축하여 얇게 현상을 하여 흑변이 약한 부족현상으로 끝낸 다음에 그 음화에 경조(硬調)의 인화지를 사용하여 인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 권의 필름에는 적정노출인 것도 찍혀 있을 것이므로 지정된 현상 시간으로 현상하는 보통의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구태여 한다면 부분적으로 현상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최초에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또 노출부족인 경우 즉 중요한 한 장의 사진이 어쩐지 노출이 부족이라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한 장의 중요한 사진을 위해서 다른 나머지는 적정노출일망정 희생하더라도 무관하다면 현상시간을 연장하여서 화상을 강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결점으로서의 은 입자가 거칠게 되므로 사진이 깨끗하지 못하며 크게 확대하는 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노출부족의 사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하고자 할 때에 이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종래부터 생각하여 왔으나 오늘날 다행히도 노출이 부족한 사진을 특수한 현상약으로 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으로는 적정노출인 것이나 과도한 것이 포함되어있는 필름을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필름 한 권이 전부 노출부족이 된 것 같은 야간 촬영한 경우 등에 크게 이용 됩니다.

한편으로 이번에는 한 권의 필름이 대부분 적정노출의 사진이며 개중에 한두 장이 노출이 부족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정은 정시간의 지정된 현상을 하고서 그 결과 노출부족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만을 강력 현상하였다면 조금은 더 잘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나 이미 현상과 정착이 끝난 다음의 일임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수단으로써는 최경조(最硬調)의 인화지를 사용하여 사진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것으로서의 과히 이상적인 결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 노출과도인 것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노출부족은 그 조절수단이 극히 곤란한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노출부족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생각하여 촬영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언(金言), 명언(名言), 격언(格言)

☆ 비록 초야모옥(草野茅屋)에 있더라도 정도(正道)만 행하면 복업(福業)이 장구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의상(義相) 신라문무왕(新羅文武王) 시대(時代)의 명승(名僧))

☆ 착한일 하지 아니하면 길이 흥으로 변하고 착한 일을 하면 도리어 복으로 화한다. (고복장(高福章) 고구려(高句麗) 제4대왕(第四代王)의 신(臣))

<야사(野史)>

검군(劍君)의 순도(殉道)

김범부(金凡父)



신라(新羅) 진평왕(眞平王)은 그 재위 연한이 54년이란 긴 세월이었다. 왕은 역시 신라 성세의 한 명주(明主)로서 가륵하다 할 만한 업적도 있을 만큼은 있는 임금이었다. 그러나 왕은 그 할아버님(실상은 증조부)이신 진흥왕(眞興王)이나 그 따님이신 선덕왕(善德王)처럼은 유명하지 못하다. 그야 진흥왕으

로 말하면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에게 양보할리 없는 영주였고 선덕왕은 그만치 훌륭한가에 여자로서 임금이 되기도 했지만 또 여자였기 때문에 그토록 유명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니 너무나 훌륭한 진흥왕이나 과연 잘난 선덕왕 그 사이에 끼어서 별반 유명하지 못했다 해도 과히 망발⁶⁴은 아닐 것이다.

세상이랑 과연 골치 아프게 복잡도 하거나와 또한 골치를 앓으면서도 미소를 아끼지 않을 만큼 재미스럽기도 하다. 사람이 정말 잘나서 잘난 소리를 듣게 되는 것보다도 어찌다가 보니 잘난 사람이 되는 것도 세상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정말 잘난 사람이면서 어찌다가 보니 그만 못난 사람으로 알려지는 수가 더 흔한 듯도 하다. 이걸 사람들이 궁금해서 운수라 팔자란 어휘로서 때어 붙이고 지내지만 과연 재미스럽게 궁금한 일이 아닌가.

진평왕은 그만하면 성군이요 영주였건만 그 만경(晩景)엔 그리 잘못도 없으면서 역시 빛나고 향기롭지 못한 일도 없지 않았다. 첫째 왕이 노경에 들고 보이나 무래도 늙은 탈이 없을 수 없기도 하려니와 늙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 늙은 약점을 악용하는 수가 어찌 없으리오. 그러니 열 가지 잘한 일이 한 가지 잘못에 그 빛이 가리워지는 일이 세상에는 드물지 않은 법이라, 가사(假使)왕이 한 10년이나 20년쯤 일찍 세상을 떠났더라면 유려(遺黎)의 송덕(頌德)이 훨씬 장관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때로 말하면 역시 전국(戰國)시절이라 신라로서

64) 망발(妄發)

는 고구려와 싸워야하고 백제와 싸워야하고 왜적을 막아야하는 판이라 국정(國政)이 할 수 없이 그 주력을 군사에 쓰고 보니 백성은 역시 피로하고 다른 정사(政事)에는 손이 돌아가지 않는 수도 없지 않을 터이다. 그런 중에 연사(年事)나 좀 뼈 딱하고 보면 그만 인심이 소란하고 따라서 기강도 어지러울 것이다. 진평왕 말년에 이렇게 쪼뼛된 사정으로 한 개의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제 이야기하려는 낭도(郞徒) 검군(劍君)의 죽음이다.

검군은 당시의 한낱 하급 관리였다. 대사(大舍=고등관(高等官)) 구문(仇文)의 아들이었고 화랑 근랑(近鄕) 계통의 낭도로서 정직과 충실로 같은 낭도 중에서도 존경을 받던 터이었다. 그때로 말하면 좋은 세상이긴 하면서도 지긋지긋이 불안정한 판세이고 보니 이렇게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은 도리어 승진의 길이 활발하지 못했기로 오랫동안 하급 관리로서 그냥 꾸벅꾸벅 그대로 봉직하고 지냈었다.

검군이 당시에 봉직하던 직소(職所)는 사랑궁(沙梁宮) 창고였는데 그 창고가 국고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지키는 소임의 관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 창고를 지키는 소임으로서 5, 6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검군은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검군은 오히려 지나치게 정직하고 너무나 충실해기 때문에 동료들이 존경을 하면서도 존경하는 그만치 기피하고 경원(敬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 그들은 검군을 따돌리고 눈을 꾀벅거리고 코를 찔룩거리며 비꼬아 말하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 때나 정직한 사람은 흔히 탄 사람도 저와 같이 정직할 줄로만 알기 때문에 검군은 이런 암흑한 공기는 전혀 모르고 언제나 한 길로 그 정직과 충실로서 직분에 힘을 다하고 옆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검군이 그 창고에 봉직하던 어느 해에 신라 경내에 모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자식을 팔아먹었다 하니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 가를 알 수 있는 일이다. 민생이 이 지경으로 도탄에 들고 보니 물론 인심이 온전할 리 없었고 또 지긋지긋한 증세를 지냈던 그때 사회에 관기만이 곱게 유지될 리도 없었다. 그리고 그토록 심한 생활난에 관리의 보장만이 풍족할리도 만무한 일이었다.

그때 창고 관리들도 넉넉지 못한 봉급으로 간신히 연명이나 하노라니 애타고 목마른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그네의 상관들도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네 배 속을 채우는 눈치가 많았다. 그야말로 도의니 기강이니 하는 것은 한낱 좋은 말로서만 들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은 당장에 견디기가 어려웠던 모양

이었다. 이런 현상은 물론 이 창고 소임들만이 아니라 그때 관리들이 그저 방불한 생각과 행동으로서 그날그날을 넘기는 터이었다.

검군은 언제나 남보다 먼저 출석을 하거나와 어느 하루는 다른 동료들이 언제 보다도 늦게들 나오는데 그 눈치가 수상하게 보였다. 평소엔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검군이었던만 그날만은 그 수상한 걸 알아채게 쪼 뒀었던 것이다. 그러자 더욱 수상한 것은 이 동료들이 슬쩍슬쩍 검군을 놀리는 어조로서 한 동료 “여보 검군 그렇게 피가 마르고 뼈가 닳도록 일을 보면 누가 알아주어요? 그저 세상엔 별게 아닙니다. 시장한 놈만 불쌍했지 별짓을 다 해도 잘되는 놈은 따로 있어요……” 또 한 동료 “아이 여보 잘되는 놈이 따로 있다 뿐이요 잘 되는 놈은 다른 놈이 아니라 도적질 잘 하는 놈이죠! 아니 고걸 잘못해서 도적놈이지 잘하면 잘난 사람이죠. 보시오 누구누구 하는 분네가 모두들 어찌고 어찌더란 말씀요?” 또 한 동료 “아니 누가 어찌고 누가 어찌는 건 다 잘난 사람 잘된 사람들 말씀이 아니요? 난 그런 장황한 생각을 할 기운이 첫째 없소. 우선 시장하죠. 집구석이라 들어가니 계집년 애새끼들이 잡아 붙들고 짜부치니 난 견딜 재간이 없소! 죽는 날 죽었지 우선 먹어야겠고 먹고 나서 좋은 생각을 하든지 굶은 생각을 하든지 정신을 채려야 염불을 하지……”

그 중에 낫살이나 더 먹어 보이는 한 동료 침착한 태도로서 여러 동료들이 떠드는 광경과 검군의 눈치를 살피고 나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 “여보 검군 사람이 우선 급한 걸 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 또 다시 생각할 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요. 시방이 여러 동관들이 모두들 절벽에서 하는 수작이야. 이런 사정을 누가 살피주거나 하면야 왜 탄 생각을 하겠오만 이제 다 굶어 죽는 댁자 돌아봐 줄 개새끼 한 마리 없구료! 우선 다급하니 말이요 창고에 곡식을 좀 갈라 먹고 방사하게 문서를 꾸며 두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다가 세상이 좋을 때는 또 좋은 일을 하면 되잖소?……”

하고 검군의 눈치를 다시금 살피는데, 실상인즉 그들은 벌써 고양문을 열고 곡식을 일변 꺼내고 있었다. 검군은 그 여원 목덜미를 죽 빼서 앞으로 수그리고 유난히 검은 눈을 꾀뾀박박하는데 눈물이 걸신걸신 고인 채 정신 잃은 사람처럼 숨소리도 없이 오그리고 있었다. 이때 여러 동료들은 검군을 한복판에 두고 죽 둘러앉아서 눈살이 집중되고 있는 광경이야말로 참으로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한 동료

“여보 검군 인제는 우리가 오도가도 못하잖소? 죽고 살고 인제는 도리가 없오 재! 누가 더 하고 덜하고 할 것 없이 다 똑 같이 한섬씩 갈라 먹읍시다……”

이때 검군은 대답도 없이 씩씩 씩씩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러자 또 한 동료

“여보 자꾸 그리 울기만 하면 어쩐단 말씀요? 아니라든지 가라든지 말씀을 하쇼. 그래 이걸 고발이나 해서 그 빛난 공을 세울 작정이요?”

검군은 눈물을 닦고 구부렸던 허리를 펴면서 역시 처량한 어조로 “동관님네 얼마나 다급해서 그러겠요? 동관님네가 조금인들 이 검군보다 나랏일을 생각하지 않겠소? 동관님네! 이 검군은 동관님네처럼 다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검군은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고발이라니 천만의 말씀요. 이 검군도 같은 동료로서 한낱 한시에 이 자리에 앉았으니 죄라면 공범이죠. 아니 이 검군이 아무리 못생겼기로 서니 동료를 고발? 더구나 공범으로서 고발! 그건 말씀이 아니지요……”

하고 다시 눈물을 뿌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보시오 동관님네, 만백성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국고를 채웠지요. 흉년이 지면 당연히 그걸 먼저 구급해야죠? 글썄 우리들은 지키는 직분인지라 그렇게는 맘대로 못해서도 지키거나 할 뿐이죠. 글썄 동관님네가 이걸 이 검군보다 더 잘 알 터이죠. 그런데 여복이나 다급해서 이러시겠소? 이 검군은 동관님네를 달리 도와드릴 길이 없는 것을 슬퍼합니다. 언제나 이 검군은 공범의 한사람으로서 두말이 없으리다. 한낱한시에 한 동료로서 한자리에 있었죠……”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를 말하고 있는 판인데 창고에 사환하는 고직(庫直)이가 무슨 일로서 사무청으로 향해서 오는 것이었다. 그 범직한 동료들은 놀라면서 다시금 검군의 눈치를 수상하게 노려보는 것이었다. 이때 검군은 눈을 닦고 일부러 씩씩한 태도로서 왈카닥 앞장을 서면서 고직이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사유를 물었다. 그 사유를 다 들은 뒤에 빨리 물러가라고 호령조로 말을 했다. 그 태도는 실로 늘 음울한 평소

태도와는 온통 판판으로 씩씩하게 보였다. 이때 동료들은 속으로 감복하면서 우선 안심을 했었다. 그리고 그담날도 여전히 함께 출석을 했었고 여전히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해서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이 철없는 동료들은 공연히 제발이 재려서 검군의 동정을 과민하게 감시를 하는 판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 미묘한 사건이 생겼다. 검군은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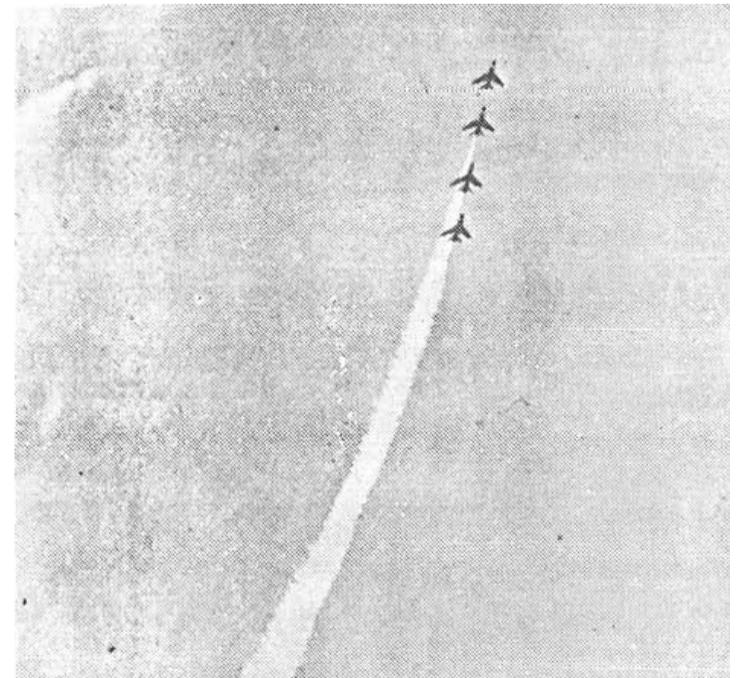
료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대로는 위로를 하고 지내는 속인데도, 동료의 눈치들은 점점 암흑하게 보였다. 이때 검군은 할 수 없이 한 가지 작정을 하고 자기 주인 격인 화랑 근랑(近郎)을 찾았다. 근랑은 대일이손(大日伊飡)이란 고관의 자제로서 화랑 중에도 가장 덕망이 높던 분이였다. 검군은 인사를 닦은 후

“근랑 마님 감사합니다. 제가 문하에서 수련한 덕분으로 사생(死生)에는 흔들리지 않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온데 동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낭도(郎徒)의 할 일이 아닙죠?”

근랑은 좀 수상하게 여기면서도 역시 점잖은 화랑의 공도인지라 그런 건 알은척 하질 않고 그냥 태연히

<미(美) 공군(空軍) 고등비행(高等飛行)팀>

하얀 연기로 F-100 초음속 세이버 제트기의 자국을 그리면서 미 공군 고등비행 팀 선더버드들이 동시 근위치 비행기술을 시범하고 있다.



“아무렴 그럴 일이지!”

“예 알겠습니다. 잔피를 부려서 직책을 게을리 하는 건 또 낭도의 일이 아닙죠?”

“역시 그런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차히 죽음을 도피하는 건 낭도의 일이 아닙죠?”

그때야 근량은 다시 검군의 얼굴을 한번 살려보고 나서

“그야 꼭 죽을 일에 죽지 못하는 건 첫째 살줄을 모르는 속이야. 죽는 것이 살기 위해서 죽는 줄을 알면 사는 것이 죽기 위해서 사는 묘리를 알 것이야! 그러나 사는 것이 귀중한 동시에 죽는 것이 꼭 마찬가지로 귀중한 법이니 함부로 죽는 것은 죽음을 욕되게 하는 동시에 사는 것을 욕되게 하는 속이라 한즉 사는 일에 신중한 것이 곧 죽는 일에 신중한 것이야! 역시 죽는 일에 신중한 것이 사는 일에 신중한 속이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생긴 검군일망정 화랑의 우리 풍류도(風流道)를 살리 오리다. 도(道)로서 살고 도로서 죽을 뿐입죠. 도는 죽음이 없사온즉 목숨을 주고 도를 지니는 건 영원히 사는 길입죠. 예! 감사합니다. 검군은 물러갑니다.”

이때 근량은 검군의 두 손을 마주 잡고 눈을 감으면서

“살려지이다! 살려지이다! 살려지이다!”

세 번을 그윽하게 불렀는데 이건 물계자(勿稽子)로부터의 풍류도의 진언이었다. 검군은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목멘소리로

“풍류도를 살려지이다. 영원히 영원히 살려지이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한 풍류도를 살려지이다!” 이것이 근량과 검군의 영결이었다. 범직한 동료들은 근량의 문전에 다녀온 검군을 꼭 죽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 불쌍한 동료들은 검군의 근량 문전 출입을 자기네 범죄를 밀고한 것으로 착인(錯認)했었다.

그래서 한 잔 먹는 척 하면서 검군의 잔에 독약을 넣었던 것이다. 검군은 수상한 눈치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화랑의 풍류도를 살리기 위해서 추호만치도 때 없이 하기 위하여 급기야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아닌 게 아니라 검군은 죽었을망정 그 거룩한 기상과 늠름한 풍도는 온 신라 청년들의 피 속에 길이 살아 뛰고 있었다. 아니 시방 우리들의 피 속에도 정녕코 살아 있을 터이다. (끝)

〈단편(短篇)〉

해외문학자(海外文學者)와 그 사상(思想)

유랑(流浪)

유주현(柳周鉉)

온종일 눈(雪)이 내리고 있었다. 가벼이 휘날리며 내리는 함박눈은 아니었다. 수 없는 사선(斜線)을 공간에 그리며 오소소 쏟아지는 가락 눈이 새벽부터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이날, 태영민(太榮敏)은 아내를 불살랐다. 결혼한 지 꼭 두 돌 만에 아내의 주검을 가지고 화장장에 가서 그 육신을 한줌 재로 만들어 눈 깔린 산마루에다 뿌리고 돌아왔다. 태영민은 너무나 졸지에 당한 일이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 정녕 아내는 죽었는가?

아내는 정말 형해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현실 같지가 않았지만 분명 아내가 없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텅빈 집안 어느 구석에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집안에 모든 것이 그대로 제 위치에 엄연히 자리하고 있는데 오직 아내만이 보이지 않으니, 아내는 정녕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제 위치에 있던 것들이 있을 뿐이 아니다. 아내가 며칠 전까지 누워있던 침실 아랫목에 지금은 새로운 생명 하나가 가냘픈 호흡을 열심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남기고 간 새로운 생명…… 젖꼭지를 문채 입을 오물거리고 누워 있다. 어미의 젖꼭지가 아니라 고무로 만든 빈탕 젖꼭지

태영민은 물끄러미 그 어린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낱고 스러지는 것은 우주의 섭리라 하지만 지나치게 허무한 노릇이었다.

아내는 결코 허약한 몸은 아니었다. 여학교 시절에는 테니스의 선수였던 아내가 어찌 첫아이를 낳아놓자 사흘 만에 가고 말았는지 운명이라 체험하기에는 너무나 허무했다. 태영민은 아내를 불사르고 돌아오자 어린 생명의 썩은덕거리는 숨소리를 오래도록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이미 날이 가물가물 어두워울 무렵 표현히 집을 나섰다.

어디로 무엇하러 간다는 목적의식이 있어 집을 나선 것은 물론 아니다. 명륜동 집에서 나와 거리를 구르는 택시를 잡아타고 앉아서도 그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채였다. 오직 집을 나섰을 뿐이다.

아내 없는 집이라고는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만큼 아내가 누웠던 자리에 어린 핏덩이가 땀그만이 누워있는 정경을 차마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밥하는 아에게 대강 당부를 하자 불현듯 대문을 나선 것이다.

처음에 그는 술집으로 가서 밤새도록 술이나 마시려는 생각이었음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골목 뚫까지 걸어 나오다 보니 그 골목에조차 아내의 영상은 깊이 깃들여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서울 안에는 어디고 마찬가지로일 듯싶어 택시를 잡자 서울 역으로 가자고 지시한 것이다.

역 앞에서 택시를 버리자 그는 잠시 망설였다. 여일하게 쏟아지는 눈발 속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과 수 많은 차량들을 명칭하니 바라보며 막상 떠나자니 갈 곳이 어디인가 막연했다. 그러나 이왕 나선 길이고 보면 다시 서울 안에서는 다만 잠시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대로 부산행 이등차표를 한 장 사가지고 플랫폼으로 나갔던 것이다.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한 어둠, 그 어둠을 더욱 짙게 하는 눈발, 그리고 왕상거리며 설레이는 플랫폼 그 플랫폼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 그는 몹시나 초췌했다.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은 지금 온 세상 슬픔의 결정(結晶)인 것처럼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지만, 그러나 차를 타는 사람들과 배웅을 하는 사람들 속에 섞이자 어느새 그

분위기에 용해된 것 같이 안정이 되는 것이었다.

이등차 지정석에는 아직 사람들이 다 차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기차는 아직 떠날 시간이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통로를 분주하게 오고 가며 두리번거리는 승객들은 모두 이제 시작되는 여로(旅路)에 흥분되어 누구 하나 침착하지가 못했다.

야간열차……전등은 희미하게 켜고 있었다. 담배연기가 좌석에서 마다 기세 좋게 떠오르고 있었다. 양쪽 머리위에 얹혀져가는 짐 보따리들이 선반의 공간을 때꾸자 좌석도 거의 찼고 떠날 시간도 되었다.

태영민의 좌석은 바로 왼편 차창가였다.

그는 차창에 머리를 대고 피곤한 듯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허탈한 심정으로 앉아 있다가 서서히 눈을 떠서 초점 없는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텅 빈 흙이었다. 역시 전등불은 희미했다. 태영민은 한숨을 후우 내뿜었다. 그것은 인생의 니힐을 질경질경 씹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드디어 서울을 떠나는 것이다. 가슴에 복받치는 감회가 있어 지그시 이를 악무는데 바로 그의 옆 좌석에 사람이 와서 앉는 모양이었다.

차는 구르기 시작했다.

문득 창밖에 바로 태영민이 내다보고 있는 차창 밖에 어떤 노파가 하나 나타났다. 연옥색 삼팔두루마기를 입은 조출한 노파였다.

그 노파는 태영민의 바로 얼굴 앞에서 차 안을 자꾸 기웃거리며 쫓아오고 있었다.

그러자 태영민의 가슴 앞으로 몸을 쭈욱 내밀며 창밖 노파에게 손을 흔드는 여인이 있었다. 그의 바로 옆 좌석에 자리 잡은 여인이었다.

태영민은 귀찮은 듯이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그 여인의 옆얼굴을 흘깃 살폈다. 그리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다가 말고 그는 깜짝 놀라며 외면을 하고 말았다. 순간 강렬한 화장냄새가 코를 콕 찌르는 것을 의식했다.

기차는 점차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했다. 앞의 여인도 이제는 좌정을 한 모양인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태영민은 두 번 다시 그 여인에게 얼굴을 돌리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는 체를 해야 하는가. 밖을 내다보며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기가 막혔다. 우연은 뜻하지 않은 심술을 곧잘 사람에게 던져 놓고는 푸른빛 눈초리로 조용히 관망하는 습성이 있었다.

기차가 용산역을 출발하여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태영민은 몸을 돌리며 옆에 앉은 여인을 정면으로 보았다.

“신에 씨가 아니십니까?”

분명했다. 태영민은 결코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빨간 세타 위아다 초록색 코트를 걸치고 짙은 화장을 한 여인은 분명히 신애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태영민은 실로 어안이 병병하리만치 크나큰 놀라움에 입을 열지를 못했다. 신애의 무릎 사이에는 네 살쯤 된 계집아이가 서 있는데 노오란 곱슬머리에다 옴폭 패인 역시 노오란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한참만에야 여인은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이런 꼴을 봐어 드려서. 그렇지만 참 오래간만에 뵙는군요. 태 선생.”

태영민은 어이없는 눈치로 여인과 어린애를 번갈아 보았다.

그러자니까 여인이 또 입을 열었다.

“우리 딸이에요. 미자야! 인사해. 아저씨 안녕하구. 그런데 참 어딜 가세요? 얘기가 있겠죠? 벌써……”

태영민은 말을 하지 못했다. 사람이 변하다니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어 멍청하니 그 혼혈아를 바라보았다. 영리하게 생긴 계집애는 껌을 질경질경 씹고 있었다. 손에는 초콜릿이 쥐어져 있었다.

“내가 너무 변해서 놀라셨죠? 선생님! 호호호. 사람팔자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궁금하실 텐데 미리 설명해 드릴까? 애 아버지가 오늘 본국으로 떠나요. 썬전인데 좋은 사람이예요. 저를 꼭 사랑하지요. 본국에 가서는 우리도 불러간대요. 그래 부산에 가서 전송이나 해줄까 허구 내려가는 거예요.”

태영민은 잠자코 단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안색은 왜 그래요? 무척 수척하셨네. 불행하신가요?”

여인은 태영민의 얼굴을 반히 쳐다보며<불행하신가요?>를 흡사 단장하다시피 어음(語音)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태영민은 그 말에 잠시 잊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듯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불행? 아직까지 불행이라는 것을 다잡아 생각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막상 불행이라는 말을 남한테 듣고 보니 지금 자기는 불행에 빠져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아내가 숨을 거둘 때 한 말…….

- 당신은 여자의 힘이 필요한 본인에 누가 내 대신 보살펴 드릴는지 그게 걱정이 돼요. 염려 말라고 눈을 감겨 주었지만 그토록 자상하고 애정 덩어리였던 아내를 잃었다는 것은 확실히 불행 그것이다. 그렇다고 그는 지금 이 여인 앞에서 아내가 죽었다거나 불행하다는 말을 털어 놓기는 싫었다.

“감기를 며칠 앓았을 뿐입니다.”

“그러세요? 행복하시군요? 지금은 뭘 하시나요?”

“행복이니 불행이니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유랑객이구요.”

“제 얘기는 듣고 싶은 흥미도 없으세요?”

여인은 아속하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한 다음 양담배를 꺼내 태영민 앞에 불쑥 내밀며 “담배 피우세요.”

하고는 자기도 한개 꺼내 입에 물고는 성냥을 드욱 그었다.

태영민도 한 모금 빨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각에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우연이라는 것을 미상스럽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되도록이면 대화를 회피하려고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려 외면을 했다. 자연 지나간 일이 머리에 떠올라 왔다.

여인의 이름은 신애, 문신애(文信愛)였다. 그러니까 헤어진지가 벌써 4년이 넘는다. 그리고 신애와 접촉한 것은 달수도 꼭 아홉달 동안이었다.

아홉 달……남녀 교제에 있어서 9개월이란 결코 긴 시일은 아니다.

태영민과 문신애는 9개월 장간을 두고 기복부절(起伏不絶)의 접촉을 계속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사랑하는 사이였다. 헤어질 무렵에 가서 사랑 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헤어졌는지도 모른다. 태영민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도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나 처음 사귀 3개월 동안의 그들의 접촉을 회고해보면 그것은 분명 하나의 사치였다.

당시 태영민은 공군중령, 파일럿이었다. 120여회의 출격기록(出擊記錄)을 가진 푸른 제복의 늙름한 사나이였다. 키가 훨씬 크고 희멀건 얼굴에 검은 색안경을 쓴 그는 어디로 보든지 호남자의 하나였다.

당시 문신애는 여자대학생, K여자대학의 정외과(政外科)학생이었다. 외교관의 부인을 꿈꾸는 다소곳한 포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류외교가가 되어 국제무대에 나가 활약해 보겠다는 화려한 꿈을 가진 여대생이었다.

사귀게 된 동기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사람의 인연이란 기묘한 것이다. 비록 계급은 고급장교지만 일개 엔지니어로서 미덥지 못한 기계에다 몸을 싣고 밀이 없는 하늘에서 살아가야 하는 태영민을 그토록 화려한 꿈을 가진 신애가 좋아할 이유라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접촉이 잦았다는 것은 필시 제복에 몸을 싣고 늙름한 외양의 매력에 원인이었음은 지도 모른다.

태영민으로 말하더라도 애당초 신애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상대라고는 생각조차 갖지 않았었다. 그 까닭은 신애가 지향하는 인생과 자기의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접근시킬 수 없는 거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빈번하게 접촉을 계속한 것은 마음의 사치가 아닐 수 없었다.

신애는 그다지 웅색하지 않은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그리고 대학생이었다. 또 그리

고 얼굴이나 체격이 남자의 눈을 끌기에 실로 손색이 없었다.

그러한 신애와 더불어 거리를 걷고 지프차를 몰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댄스 홀에를 드나들고 할 때는 의례히 자랑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하여 유쾌하였다. 그 이외는 없었다. 남이 끈이 듣지 않을 정도로 대답했다.

그러나 처음 석 달 동안, 그들의 교제는 순전히 하나의 사치였던 것이다.

다음 3개월은 동정(同情)과 체념의 교제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여자는 동정 남자는 체념으로 그들의 교분은 끊어질 듯 말듯하면서 그대로 유지되어 갔다.

태영민은 지프차 사고로 왼팔의 관절을 부러뜨렸던 것이다.

봄이었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지프차를 몰고 수원기지(水原基地)에서 올라온 태영민은 신애를 옆에 싣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유쾌했다. 해는 반짝이고, 바람은 간지럽고, 마음은 가벼운데, 속력은 쾌속이다.

그러나 호사다마. 광나루의 긴 다리를 건너 일로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어느 산모퉁이 비탈길을 돌고 있을 때였다. 별안간 앞을 탁 가로막는 트럭이 있어, 핸들을 갑자기 꺾은 것이, 잘못되어 10여 미터나 뒤틀린 낭떠러지로 차와 함께 굴러 떨어졌던 것이다.

그 정도가 다행이었다. 태영민은 잠시 혼수상태였으나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왼편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신애는 신기하게도 생채기 하나 없이 말짱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응급치료를 했으나 결국 경과는 좋지가 않았다. 부러진 관절은 끝내 팔 하나를 못 쓰게 하고 말았다. 2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었다. 이 사건은 신애로 하여금 영민을 동정케 하였고, 영민으로 하여금 체념적인 자학(自虐)에서 허덕이게 했다.

그러나 그 사이는 중요하다. 그들의 사이를 단순히 않은 어떤 관념으로 얽매어놓은 시기였다. 정교도 있었다. 빈번하게. 또 다시 3개월이 지났다.

이 석 달 동안이 그들의 사랑이다.

태영민은 이미 제대하여 서대문에다 하숙방 하나를 얻어 가지고 있었다. 생활력이 있을 틈 없었다. 신애의 경제적인 원조에 의지하는 수가 많았다.

그러나 아직도 신애는 학생의 몸이었고 또 집안의 체면도 있어 어떤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아침이면 해가 뜨듯 틀림없이 영민의 하숙으로 나타났고, 저녁이면 날이 어두워오듯 또한 어기는 법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었다.

그 이상으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데에서 오히려 그들은 더욱 안타까운 애정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상태는 영원성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권태……

신애의 성격으로는 물론, 영민의 적극적인 성질로서 언제까지나 그런 생활을 반복해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드디어 신애는 영어의 개인교수를 받는다는 핑계로 어느 상사회사(商會社)에 있는 미국사람과 접촉을 갖기 시작했다. 못 만나는 날이 있기 시작했다. 잦아져 갔다. 파탄……. 이유는 미워지기 전에 헤어지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태영민이 지금 다니는 상사회사에 직(職)을 얻자 서로 제각기의 길을 택해서 가벼이 발뒤꿈치들을 돌렸다. 후회는 합시다. 이답에 추억하면 아릿한 맛이 있을 거야.

헤어지던 날 주고받은 말이다.

벌써 4년 전의 일인가.

“불쾌하신 모양이죠? 저를 만난 게. 자리를 옮길까요?”

신애가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영민은 비로소 몸을 바로 가누며 담뱃불을 켜다. 그리고 씩씩히 웃었다.

“안 만난 것만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아니 나를 위해서요.”

“그럼 자리를 옮기죠.”

“안 옮기는 게 낫걸요.”

“불쾌하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건 고역이에요.”

“이제 와서 옮기면 더욱 고역입니다.”

“외로우신 모양이군요? 왜 혼자 여행을 하세요? 부인 동반을 하십시오.”

“…….”

“이 아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의례적으로라도.”

“영리하게 생겼군!”

“흥, 후후후후”

기차가 멈추었다. 다시 떠난다.

통로가 술렁거리다가 다시 조용해진다. 차내의 전등이 좀 더 환해지며 자욱한 담배 연기가 더욱 눈에 띄인다. “고 아이 이쁘다!” 강생회(康生會) 판매원이 지나가며 남긴 말.

신애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홑 돌려 판매원을 쏘아보았다. 히죽이 웃는다.

신애는 잠자코 고개를 돌렸다. “아주머니 뭘 드릴갑쇼?” 판매원이 다시 돌아와서 신애에게 물었을 때 신애는 담배를 또 꺼내 물었다.

판매원은 소리를 질렀다.

“어린아이에게는 초콜릿, 어른들은 사과……. 달콤하게 취하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여보 소주 있소?”

태영민이 소리쳤다. 한 병 있다. 오징어도 한 마리.

신애는 마시지 않았다.

태영민은 취기가 들었다.

승객들은 괴괴했다.

“대관절 선생님은 어딜 가시는 거예요?”

신애가 새삼스럽게 물었다.

태영민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표는 부산이야.”

“표는 부산인데요?”

“아무데서나 내려두 되지.”

“여행이군요?”

“누군 여행 아닌가?”

“불일 보러 다니는 건 여행이 아니에요.”

“신애 씨!”

“네?”

“왜 하필 오늘 이 차를 탔어?”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직 인연은 끊어지지 않은 모양이죠?”

“신애 씨!”

“네?”

“인생이란 뭐야? 응? 도대체 인생이란 왜 그리 허무하냐 말야? 응?”

“왜 누가 죽었어요?”

“죽긴……”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란 왜 그리 허무하냐구 한마디씩 해보는 게 인생인가 보던데요.”

침묵. 침묵이 흘렀다. 레일을 구르는 차륜의 음향. 찰카닥 찰카닥…… 남녀의 정화(情話), 어느 좌석에서인지 소곤소곤 들려오고 있다.

“울고 계시는군요?”

이 말에 비로소 태영민은 자기네 앞좌석 사람들을 살폈다. 비만체의 40대 사나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안경을 쓴 30대의 젊은이는 대중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것은 태영민이 그네들을 살피자 시작된 동작인지도 모른다.

개미핥기 필요 없다고 태영민은 어느 틈에 신애와 자기의 사이에 끼어 앉아 즐기고 있는 계집아이를 돌아다본다.

“온순하군.”

머리를 쓰다듬었다.

“벌써 제 존재가 인식되나 봐요. 너무 순해서 미워요.”

태영민은 한숨을 후-뿜었다.

“전쟁의 유산이군.”

“전쟁과는 아랑곳없죠. 허영의 유산이라면 몰라도요. 이 금발이 예쁘지 않아요? 노오란 눈은 들여다볼수록 대견해요. 저의 창작으로는 걸작이려구요.”

태영민은 불현듯 신애를 돌아보았다. 술냄새를 맡았다.

“후후후, 어이없으신가요? 술이 좀 취했어요. 차에 오르기 전에 마시고 왔죠. 사람 많은 곳에 이 애를 데리고 나설 때는 언제나 술을 좀 마시지요. 인종이 달라 불쌍하구, 제 새끼라 귀엽기두 하구, 남보기에는 쟁피두 하구, 아무한테나 매끼자니 학대를 받을테구. 그래서 꼭 데리구 땡기는 거예요. 인제 부산 가서 저의 아뻘을 보면 아버지이 하고 품에 안길걸요. 아뻘은 썩전이에요. 쫄병의 딸이죠.”

태영민은 너무나 자주 말을 하는 신애가 마땅치 않았으나 말릴 의사는 없었다. 남은 술병을 또 기울였다.

“폭주는 마세요. 부인 얘기나 좀 해주시구려. 아무래두 난 부인이 궁급해요. 부러워서 그런다구 생각하셔도 좋지만. 부인에게 내 얘기도 하셨어요?”

태영민은 신경질이 팍 났다. 이를 악물며 신애는 모르는 체 탄창을 부린다. 태영민은 대답해 주었다.

“아이 나리 친정에 가 있어. 첫 아이니까 집에서 낳게 할 수도 없구 해서.”

“아아, 부인의 친정이 부산이던가요?”

태영민은 소스라치리만큼 놀랐다. 그렇다 죽은 아내의 친정은 부산이다.

너무나 졸지에 당한 일이라 처가에 알리는 것은 오히려 잔인한 것 같아 아직 전보 한 장 쳐주지 않았지만 이제 생각하니 자기가 지금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은 처가가 있는 부산, 장인 장모가 구존해서 살고 있는 부산이라는 곳에 대한 잠재의식의 소치였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며칠은 흡사 등신이 되어 사고(思考)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의식 없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태영민은 눈물이 왈칵 났다. 며칠 전에 받은 장모의 편지 사연이 머리에 떠올랐다. 초산이고 손포도 마땅치 않을 테니 병원에서 낳게 하라고 했다. 그래도 손포가 아쉬우면 전보를 쳐주는대로 올라가겠다는 말도 있었다.

첫딸은 재수가 좋아 집안 운수가 트이는 징조라는 말도 있었다.

딸을 낳으면 섭섭해 할까봐서 미리 한마디 하는 말이라고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 아들을 낳았다. 아내는 갔다.

“애기를 낳았다는 전보라도 받고서 가시는 길이군요? 아들? 딸?”

신애는 하품을 싸악 하면서 묻는 것이었다.

태영민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공간이 어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공간인 것 같았다. 사실상 공간은 어둠이 본체인지도 모른다. 어둠에 빛이 깃들어 공간을 투명케 하는 것이니까 어둠이 우주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먼 곳에서 이따금 불이 반짝였다. 깜빡깜빡하는 불빛, 야간비행을 할 때 하늘에서 보던 별빛 같았다. 태영민은 문득 착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공중 7천 피트의 상공. 목적지는 서부전선 적의 후방. 목표는 적의 수송차량, 아니면 포진지, 아니면 교량, 또는 병력의 집결지점. 굳게 잡은 조종간……목적지 근접……. 목표물 확인……강하……급강하……조준……기총 소사……폭탄투하……번쩍 오르는 화염……명중확인……급상승……유유한 선회……주위 공간에서 작렬하는 적의 고사포탄……조전해온 적기……응사……공격……격추……격퇴……추격……통쾌한 추격 총격……다시 상승……기수를 돌려라……일로 기지로 비행……멀리 가까이 명멸하는 별빛……어둠속에서 깜빡이는 수많은 별빛의 찬탄함이어.

기슴은 상쾌하기 짝이 없다.

비로소 머리에 떠오른다.

-죽지 않았다. 살았다.-

태영민은 가슴을 주욱 펴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은 턱을 고이고 있었다. 조종간이 아니다.

기차를 타고 있었다 비행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명멸하는 것은 별빛이 아니었다. 민가에 키어놓은 불빛이다.

하늘이 아니라 땅…….

공군중령 태영민이 아니라 상이제대한 회사원 태영민…….

사연이 많다. 이야기 꺼리가 많다. 즐거움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 목표를 공격하는데 성공하고 기지로 돌아올 때, <죽지 않았다> <살았다>하고 뇌까리는 심정과 어떻게 다른가.

앞좌석에 앉은 40대의 사나이가 코를 드르렁 골았다.

신애는 잠이 든 계집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잡지를 보던 30대의 젊은이는 커다란 입을 벌려 하아 하고 하품을 했다.

킁킁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어느 좌석에서인지 들려왔다. 아까 소곤소곤 정화(情

話)에 정신없던 어떤 사나이의 이른바 청춘 엔조이라는 것의 대상…….

여자의 웃음소리인가. 음탕하다.

멈추었다 떠난다. 차가 지금 멈춘 곳은 어느 고장인가 세세히 짐작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귀찮아 모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잠시 술렁하던 분위기가 다시 조용하게 가라앉았을 때는 전보다 더욱 조용하다.

태영민은 마지막 남은 몇 모금의 소주병을 가꾸로 해서 풀까 마셔 버렸다. 목구멍이 뜨겁하고 눈물이 왈칵 나왔다. 입맛을 짹짹 다시며 오징어발을 손등에 탁탁 털어서는 입에 꺾어 넣었다.

취한다. 주위를 돌아다본다. 모두들 잠잠하다. 싱겁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30대 젊은이에게 물었다.

“대구까지 갑니다.”

그는 흥미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술을 그만 나 혼자 해서…….”

30대 젊은이는 못들은 체 목살해 버린다.

40대 사나이를 보았다. 입을 헤에 벌린 채로 눈을 감은 것을 보면 정말 잠이 든 모양이다. 코털이 구멍 밖에까지 나와 있다.

신애를 돌아다보았다. 졸린 눈치다. 자세히 보니 눈언저리에 잔주름이 있다. 심뇌(心惱)가 있었구나 생각하자 코허리가 시큼해왔다.

“벌써 졸려? 신애씨.”

“늘 졸리죠. 낮이나 밤이나……. 졸지 않구 할 일이 있어야죠?”

태영민도 하품을 하악 했다.

“후후후, 역시 졸리신가 보군요?”

“심심하니까 하품을 했어.”

태영민은 머리를 재껴 뒤에 기댔다.

신애는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며 대수롭지 않게 묻는다.

“그 후 팔은 좀 말을 듣나요?”

태영민은 소리를 질렀다.

“누가 그런 말 물으랬소!”

30대의 청년이 감았던 눈을 떴다가 다시 감는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목을 길게 빼서는 돌아다본다.

다시 잠잠해 졌다. 레일을 구르는 쇠바퀴소리. 잇잠을 넘는 대가닥 소리. 단조로운 음향이 온 우주를 지배한 것 같다.

태영민은 생각했다.
 천안에서 내리면 온양.
 대전에서 내리면 유성.
 대구에서 내려 경주.
 그냥 부산으로 가 버릴까.
 이때 차의 출입문이 열렸다. 강생희 판매원이 또 들어왔다.
 태영민은 그를 불러 세워 사과, 캐러멜 초콜릿 등 속을 듬직하게 사서 신에 무릎에
 잠들어 있는 계집아이 배 위에다 쌓았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는 우르르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계집아이 배위에 쌓아놓았던 과자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차 바닥으로 우르르 떨어진
 것이었다. 태영민은 잠자코 신애의 동정을 살폈다.
 신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자는 것 같기도 했다.
 안자는 것 같기도 했다.
 태영민은 바닥에 늘비하게 흐트러진 과자들을 집으려다가 그만뒀 버렸다.
 그 대신 그는 신애 무릎에 상반신을 눕히고 잠들어 있는 계집아이를 조심스럽게 자
 기 무릎 위로 옮겨다가 가로 안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잠을 청했다.
 신애가 눈을 슬며시 뜨더니 그 광경을 보고 아무 표정도 없이 다시 눈꺼풀을 닫았다.
 30대 청년도 잠깐 눈을 떠서 태영민을 힐끗 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끝)

〈단편(短篇)〉

변용(變容)

안수길(安壽吉)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먹을 게지 누구더러 입마추고 촌추자고, 윈, 별꼴 다 보겠네, 양갈본줄 아나……”

“야-말 잘했다. 양갈보? 양갈보가 아니면 이런 음식점엘 왜 드나드는 거야……하하하.”

“누굴 혼겘 하는 셈인가? 아니 이게 어떤 자식이야?”

여자는 파랗게 질려 가지고 창호 앞에 다가서며 멍살을 잡고 따귀라도 갈길 듯이 서 들었다. 그러는 것을 현보가 가로 막으며

“술 취한 사람의 말, 탓할 것 있습니까? 미친게가 달려들면 피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게니 아주머니는 잠자코 앉아 어서 음식이나 잡수십시오. 국이 다 식습니다.”

겨우 여자 손님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나서 얼른 창호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만취한 창호는

“야, 이놈아, 내가 무, 무, 무슨 쥘 줬다고, 이렇게 팔을 잔뜩 움아 쥐고 이러는 거야, 오, 오라라도 지을 작정인가.”

연상 히 꼬부라진 소리를 하였다.

“잠자코 이리와, 너, 그러다간 뺨다굴 어디가 찾을는지 모른다.”

현보는 창호의 팔을 잡아끌면서 말했다.

“뒤편 어찌, 뺨다굴 어찌? 이놈 건방지다. 윤창호 어른도 아니다. 대감대감도 아니다. 각하, 그렇지 윤창호 각하를 말야, 어떤 놈이 어찌라고?”

“식당에 국밥 먹으러 들어온 부인을 양갈보 취급을 하고 덤뻐오니 매 맞아 죽기 꼭 알맞다는 말이야.”

술 취한 친구를 농담 삼아 타이르는 현보의 말.

“아, 고거 말이지, 고, 예쁘장한 거, 모시 소복에 그 무슨 형이라고 했더라, 뒤로 가 르마를 짝 갈라 붙인 머리말이야.”

여전히 비틀거리는 창호의 말이었다.

“삼팔 선 형!”

“그렇지, 그 ‘삼팔선 형의 머리를 한 여인’하고 교체하고 싶어 죽겠다야.”

하더니 창호는 잊었던 것을 생각해 낸듯이.

“아니, 그년이 날더러 어떤 자식이라고 욕했겠다. 화냥년 같으니라구, 이년 가서 닦아 세야겠다.”

그리고 현보에게 붙잡힌 팔을 뿌리치고는 식당 쪽으로 가는 것을 현보가 쫓아가서 또 팔을 끌어당겼다.

끌어당기면 뿌리치고 뿌리치면 끌어당기고- 이렇게 승강이를 하노라니 술 취한 창호는 몰라도 맹승한 현보가 견딜 수 없었다. 이마에 구슬땀이 돋치고 등골이 러닝셔츠가 축축이 젖어 붙는다.

“지난밤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럴 줄 알았어.”

생각하고 현보는 창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맡겨 두었더니 이 주정뱅이는 또 무슨 변덕인지

“그만두어라, 소인과 여자는 기르기 힘든 것이니라. 가히 더불어 이야기 할배 못 되도다.” 그리고는 순한 양같이 현보를 따라 올지로 큰 거리로 나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그러도 얌전하고 허튼소리 한마디 없고 더욱 이 여자에게는 공손과 예의를 깎듯이 지키는 창호는, 술만 마시면 다변이요 주정으로 가족은 물론 친한 친구의 이맛살을 찡그리게 하였다. 술 취한 창호에게 한번 걸려들었다가는 어떤 사람이든 눈물을 흘리고야 마는 것은 오늘 저녁 현보의 경우로도 짐작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므로, 가족

은 피할 도리가 없겠으나, 친구들은, 술친구 이외에는 밤거리에서 창호를 빗쟁이 같이 꺼리고 피하는 것이었다. 현보도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이었고 평소엔 늘-물론 술을 안 마실 때에-창호더러 술을 끊어라 술을 끊어라, 엄볼처럼 충고하는 것을 의무나 다름없이 여겨 왔던 터이었다.

창호도 누구의 말보다도 현보의 말에는 술깃하여 끊구 말구, 끊어야지-하고 맹세까지 하곤 하였고 큰 주정으로 호되게 망신을 당했거나 자빠져서 얼굴에 상체기를 내거나 한 이튿날에는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사람을 시켜 현보를 집에 불러다가

“자네에게 맹세하네만 이제부터 술 한 방울이라도 접근하는가 보게. 이제 또 다시 술을 마시는 걸 보면 자네가 날 절교해도 말이 없겠네.”

그러면서 얼굴에 동여맨 흰 붕대를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두고 보세.”

원 끊어낼 것 같지 않다고 현보가 이쯤 웃음을 섞어 응수해주면

“아닐세, 손가락을 자르고도 맹세를 하겠네.”

하고 펄펄 뛰었다.

“자네 항용 쓰는 문자대로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랬으니 단지할 것까지는 없지만 너 무 호들갑스럽게 맹세도 하지 말고 또 너무 호들갑스럽게 주정도 하지 말게나.”

이렇게 말하면

“아니네, 이사람, 이번엔 꼭 끊네, 두고 보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 맹세와 결심이 일주일도 못가 흐지부지되어 버리곤 하였다.

“단지를 했더면 그저 병신만 될뻔 했네.”

짓궂게 비꼬아 주면

“그리고 불효 막심이고.”

도리어 태연스러웠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우리 같은 하급에 속하는 인간은 하급이라는 것은 생활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또는 해상을 헤엄쳐 나가는 재능에 있어서나 말이야 극히 열등한 우리 같은 인간은 말야, 술을 먹어야겠네. 왜 그런고 하니 하루에도 몇 차례씩 꼴 사나운 것을 메스꺼운 속을 무엇으로 누르냐 말야. 이번에도 말야. 자네에게 그렇게 맹세까지 하구 술 먹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일세. 내 회사의 집안 이야길 세세히 말하기도 싫거니와 그럴 흥미조차 없는 일이라서 그만 두네만은 부패한 양심과 모략과 모리와 음해와 야유와 권력 다툼의 도가니 속같은 이 사회에서 그래도 바르고 깨끗이 제 양심을 지켜 갈려면 역시 술을 먹어야 겠다. 병균이란 약한데루 접어드는 것인데 마음을 건강하게 굳세게 하려면 병균

이 침범하기 좋도록 마비되어가고 무기력해진 마음에 활기를 주고 저항력이 생기게 하는데는 성경 말씀도 이미타불도 공자왈 맹자왈도 다 무력해, 오직 술이란 자극제가 으뜸가는 약이 되네.”

이렇게 평소의 과목을 깨뜨리고 장광설을 늘어놓을 뿐 아니라.

“현보, 자네도 나하고 술친구가 되자꾸나.”

슬그머니 현보를 피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미이라 도적간 녀석을 미이라로 만들 작정인가?”

현보는 어처구니가 없어 담배만 뽀뽀 빨 뿐이었다.

그리고는 오후 5시 이후에 창호와와는 어떤 일이 있든지 만나지 않는 방침을 견지해 나갔다.

그랬는데 오늘 저녁 일은?

동창회가 말썽이었다.

동창회 간부로 있는 현보와 창호인지라 창호를 술좌석에서 기를 쓰고 만나지 말라고 하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로 동창회란 친목회라 먹자판이 위주가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로써, 오늘도 비원(秘苑)에서 초절임이 된 간부들은 간부회를 XX장에서 열자고 회원들이 흠여진 다음에 택시를 명동으로 몰았다.

벌써 혀가 썩은 창호를 보고 현보는 쫄무니를 빼려고 했으나 오늘 저녁 한턱내는 선배는 현보를 극진히 아껴주는 사람이라 그가 굳이 끄는 것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끌려갔으나 간부회란 명목뿐 술좌석이 벌어졌다.

창호가 만취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고 현보도 사양 했으나 몇 잔에 거나한 기분이었다.

곤드레만드레 취한 창호의 주정은 좌석을 흥그럽게도 했으나 결산을 따진다면 파홍을 시켰다.

“주정도 몹시 하는군.”

“이사람 그 버릇 고치게.”

모두들 슬금슬금 일어나고 나중에 남게 된 것은 주정뱅이와 현보였다.

현보는 술좌석에 연연하여 남은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창호의 보호자로서 그런 것이었다.

주정의 뒷바라지를 하여 땀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앞뒤를 분간 못하는 주정뱅이를 뺨개치고 갈 수는 없었다. 처음부터 동석을 안했으면 모를까 곤주가 된 창호를 혼자 거리에 내놓고는 마음 안 놓이는 우정이었다.

XX장에서는 그래도 큰 실수가 없었으나 주정뱅이는 밖에 나오자 한잔 더하자고 그

역센 손아구로 현보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내게 돈이 있어. 자네하고 술 먹는 것이 이게 얼마만의 일인가?”

그러고는

“우리 단골이서 오붓이 대박을 하자 말야. 그래 우정을 두터이 하자는 거야. 알았어?”

현보의 귀에 입을 대고 무슨 통사정이나 하듯 말하였다.

“이 이상 더 먹으면 어쩔 작정인가? 그만 가세”

현보는 달래는 수밖에 없었으나, 주정뱅이는 들을 리 없다.

급기야 끌려들어간 것이 그 식당이었다. 국밥도 팔고 빈대떡도 지지는 그 식당이었다. 찹쌀막걸리 반 되에 빈대떡 한 접시, 간단한 요리를 청해놓고, 그것을 다 먹었을 무렵, 아니, 일어서려고 현보가 앞질러 썸까지 치르고 있는데 그 부인이 나타났고, 그런 해괴망측한 수정의 장면이 벌어진 것이었다.

창호를 끌고 큰 거리에 나선 현보는 얼른 택시를 태워 주정뱅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으나 주머니를 뒤져보니, 아까 식당에서 썸을 치러주고 남은 십 환짜리 두서너 장밖에 나오지 않았다.

“너 돈 있겠지?”

“돈? 있구말구.”

큰소리를 치며 창호는 저고리, 안주머니와 바지 주머니를 골고루 뒤졌으나 있다는 돈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 놈의 돈 어디 갔어?”

창호는 돈이 양복에 묻어나 있는 것 같이 두 손으로 바지저고리를 먼지 털듯 툭툭 털다가

“옳지 여기 있어, 여기”

그리고는 엄지와 식지를 바지 시계 주머니 속에 넣더니, 지전 꼬깃꼬깃 접힌 것을 끄 집어낸다.

현보가 받아 펴보니 백 환짜리 두 장이었다.

“요걸 가지고 술 먹자구 호들갑을 떨었어?”

현보는 사가에게까지 가서 합승을 태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현보가 태워준 합승으로 집에 돌아온 창호는 술 먹으면 늘 그러듯이 집안 식구를 들볶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창호는 어머니의 손에서 성장하였는데 아들 하나를 바라고 수절

한 어머니는 창호를 엄하게 기를 수는 없었다. 술주정도, 업친시하에서 성장했다면, 그렇게 습관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을는지 모른다.

태산같이 믿었던 아들이 실직 끝에 겨우 얻어 했다는 것이 회사의 하급사원에 지나지 않는 허탈 것 없는 꼴이고, 거기에 술은 무작이오, 주정이 또한 그렇고 보니 어머니는 나오느니 신세타령이요 아내는 이 속 못 차리는 남편이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창호의 주정은, 집에 들어와서는 온 집안 식구를 깨워가지고 말로, 꼬박 밤을 새우는 것이 또한 특징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내는 물론, 어린 것들까지 주정받이의 대상이 되어 뜬 눈으로 곤란을 받는 것이 질책이었다. 거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웃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과부의 자식이니 주정도 과상하게 한다고 이웃에서 비웃을 것도 같거니와 그것보다도 남 다 자는 오 밤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이웃을 못 자게 하는 것이 민망스러웠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항상 “이웃이 부끄럽다. 남 다 자는데 이게 무슨 창피냐?”

하고 주정하는 아들을 제지하곤 하였는데 오늘밤도 마찬가지로였다. 더욱이 오늘밤은 더 조심스러운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이 골목에 그저께 밤과 어제 새벽, 이렇게 이틀 건너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불안하여 어디서 무슨 큰소리만 나도 또 불이 아닌가 하고 허겁지겁 뛰어 나올 정도로 신경들이 예민해 가지고 있는 까닭이었다.

더욱이 가장 집물을 다 태워 버렸을 뿐 아니라 사람 하나까지 타죽은 두 차례의 큰 화재를 당한 십여 호 가족들이 속옷 바람으로 가두에서 방황하게 된 참상은 조석으로 대하던 사람들의 일이라 참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이웃에서들은 모두 자연이들 근신하여, 라디오 있는 집에서는 음악순서가 나오면 스위치를 끄거나, 소리를 낮추거나 하도록 조심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랬는데, 소위 가장이라는 창호가 동리의 불행은 아랑곳없다는 듯이 술을 치르고, 주정 주정하여 큰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간다는 것은 도무지 접의연가해 사는 이웃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된 것이었다.

“이사람, 남은 불에 타서 울부짖구 있는데 뭐-시 좋다구 이라는 거야?”

어머니의 격정에 찬 목소리가, 억지를 해서라도 오늘밤만은 그를 말려야겠다는 의무에서 이렇게 새어나왔다.

이런 어머니의 심정을 아랑곳 하지 않고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창호는

“우리 여편네두 모시 소복에다 38선형으로 머리를 짝 갈라 빗겨 가지구 명동거리애 내세워봐라, 고 배라먹을 년만 못할게 뭐-야……어-미인 아내여, 이리와, 나하구 입맞추고 춤을 추자. 탕고? 왈츠?…… 아니야 최신유행, 맘보두…….”

하며 일어서서 “다-라랏다”하고 탕곤지, 왈츠지, 맘보인지 알지 못할 곡조를 부르면

서 아내의 손을 끌어 다니려고 비틀거리던 창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갑자기 있었던 것을 찾거나 한 것처럼,

“불? 불 좋-지. 활, 활, 타오르는 불길, 로마의 대항제 네로는 로마 온 시가를 불 지르고 궁전에 올라서서 그 타는 불길을 바라보고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고, 그리고는 통쾌한 웃음을 웃었겠다……하하……하……. 불, 좋지. 불, 불, 좋지. 불, 불, 불이야 불이야 흥, 호호흥, 불이로구나야 흥……”

하고 끝은 흥타령조로 변하고 거기 맞추어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러더니

“내, 이 동릴 한번 소동 시켜 볼까, 사루마다 바람으로 모두 혼겁 지겹 뛰어 나오는 구경 좀 해 볼까.”

하고는 어머니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제지할 사이도 없이 퇴장을 열어젖히더니, 목을 길게 밖으로 내밀고,

“불이야, 불이야.”

술에 절어 걸걸해진 바리톤 큰 목소리로 외쳤다. 퇴장 밖은 바로 골목길이다 자정 지난 고요한 골목에는 창호의 “불이야, 불이야” 두어마디 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려 나오는 외침같이 전파되어 굴러 나갔다.

“불이야.”

하고 맨 처음 뛰어 나온 것이 건너 집 아주머니였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 또 났어?”

“불난 곳이 어디야?”

삼시간에 골목에는 사루마다 바람에 눈을 부비며 뛰어 나온 사람들로 그득 찼다. 어느 사이에 팔에 완장을 두른 순경도 나타났다.

“어디야?”

“대체 불난 곳이 어디야?”

“저 집에서, 불이야 소리가 먼저 났어요.”

건넌집 아주머니는 창호네 집을 가리켰다.

모두들 그 집으로 몰려갔다.

“불이 어디 났어?”

“이 집에 불이 났어?”

대문을 두드리었다.

“불인 게 아니라 도둑이요.”

“도둑이 든 것을, 너무 급해서 불이라 외친가 보요.”

대문을 벗기고, 창호어머니는 나오면서 입기응변으로 이렇게 말했다.

“불이 아니라서 다행이오만은 도둑놈은 어찌 됐소?”

“담을 넘어서 막 내뺐어요.”

창호 아내의 기지로 순경 외 몇 청년들은 도둑이 내뺐다는 쪽으로 달려갔다.

모두들 입맛을 다시며 제 집에들 들어갔다.

“뜰에 놀란 꿩 모양으루 부-소리만 나도 깜짝이야.”

○

그 이튿날 오후였다.

현보는 직장에서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출근 했나? 왜 목소리가 그 그렇게 기운이 없어, 다섯시 후에 회사에 들릴게-
오늘은 내가 한쪽기 사지, 꼭 한쪽기야, 그 이상은 자네 주벽이 나오니. 꼭 자네한테 이
야기 할일이 있어 그래…… 뭐? 술 안해, 무슨 말이야. 하여튼 들릴게. 오겠어? 오면 더
좋지, 실은 내가 자네를 찾아뵙고 여쭙어야 될 일인데…….”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었는데 창호는 현보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왜, 다섯시가 되려면 아직 두 시간은 앞이 있는데…….”

“오늘 뚝이 괴로워 일찍 나가네.”

“한쪽기 안 할텐가?”

“싫어.”

“호랑이 날고기 싫달 때두 있네 그려 이 사람아.”

“술 끊었네.”

“뭘?”

“…….”

“정말이야?”

“사실일세.”

“단지를 했는가?”

“아니…….”

“그럼 맹세 했는가?”

“단지 할 것두, 맹세 할 것도 없이 술 끊었네.”

“모를 소리다.”

“두구 보게.”

“또 그 소리.”

현보는 그저 늘 하는 소리겠거니 여기고 가방에서 봉투를 내어 창호를 주었다.

“내 외종젠데, 자네네 회사에 어떻게 뚫어 봐주게.”

창호는 봉투에서 이력서를 내어 훑어보고 나서 도루 봉투에다 넣은 다음 그 봉투를,
가지고온 책갈피에 끼었다.

“그 책 신간인가?”

현보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창호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 오던 길에 산걸세.”

“무슨 책이야, 좀 보세.”

하고 손을 내민 현보에게 창호는 책을 주었다.

『대한민국헌법해설』이었다.

아까부터 달라진 창호의 태도에 의아를 느낀 현보는 “참쌀막걸리 한자리는 별리구
두 남을 대금을 들여, 선뜻 신간을 구입이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금주 단연하고 서
재에 들어박혀 독서삼매에 이르시겠단 말씀인가?”

“실없는 소리 작작하게.”

계면쩍은 듯이 창호는 입가에 웃음을 띠우며

“취직건은 그럼 극력 힘쓰겠네마는 뚫어내겠는지.”

그리고는 가지고온 책을 도로 빼앗듯이 받아들고

“그럼 실례 하겠네.”

고개를 끄덕하고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몇 발자국 못가서 창호는 갑자기 돌아 서더니 현보 쪽을 향해

“어제 실례 많았네 미안 허이.”

하고는 미처 현보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나가 버리었다. 어안이 병병
할 정도로 현보는 창호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었다.

“저 친구가 어찌된 셈인가?”

현보는 간밤에 합승에 태워 보낸 뒤에 또 무슨 해괴망측한 실수를 저지른 모양이라
고는 짐작이 갔으나, 그런 일은 창호에게는 늘 있는 일이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으
리라고 생각되었다.

“이번엔 그 결심이 며칠이나 계속되나 두고 보자.”

어젯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도 못하고, 현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류에
펜을 가져갔다. - 끝 -

유배(流配)

박용구(朴容九)

연산군(燕山君)이 왕위에 있어, 그 어머니인 폐비(廢妃)의 원통한 죽음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스스로는 음탕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던 때의 일이다.

X X

한옥선(寒玉仙)이란 기생이 성세정(成世貞)의 첩이 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여자의 몸으로써 서울까지의 길이 멀고 또한 고된 일이었으나 한옥선은 그저 기쁘기만 하였다.

“이제 몇 리나 남았느냐?”

얼마를 가다가는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멀었느냐.”

어서어서 서울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천한 몸이 어엿한 벼슬아치의 첩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기 한량없었다. 기껏해야 이사람 저사람의 노리게 노릇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혹 서울에서 내려온 관원의 눈에 드는 수가 있어도 돌아갈 때에는 언제나 버림을 받는 신세였었다. 그러던 것이 알지 않은 지체에 있는 성세정이 정식 첩으로 삼아서 서울로 데려가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마 사이로 살며시 밖을 내다보며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다.

“흠, 그래야지……그래도 내 얼굴이 값이 있거든……”

한옥선은 이런 신세가 된 것이 다 자기가 미색이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자기만 한 미색이면 다른 기생들 같이 그런 처참한 끝장을 볼 까닭이 있느냐는 심사였다.

“암, 그렇고말고…… 역시 사나이의 간장을 녹이는 것은 미색이 제일이지……나랏님도 미색이라면 고만이지 않나……”

한옥선은 배시시 웃었다. 한옥선의 귀에도 국왕이 미색을 수 없이 궁중으로 모이들이고 주야로 술과 노래로써 소일을 삼고 있다는 풍문이 들려왔던 것이다. 아내가 왕의 눈에 들어서 벼슬이 높아졌다는 등, 딸이 잘 보여서 호강을 한다는 등의 소문이었고, 글 잘하는 아들보다 잘생긴 딸이 낳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아무튼, 이제 나도 그 지긋지긋한 기생살이 팔자는 면하게 되었어……”

한옥선은 고달픈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제부터 서울에서 시작될 가지가지 아름답고 사치한 생활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렸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생활은 한옥선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다. 먹고 입는 것은 호화로울 수 있었으나 길을 펼 수가 없었다. 뒤채 방을 차지하고 있는 한옥선은 무료하기 짝이 없는 나날이었고, 하인들도 냉랭하게 대해주는 것만 같았다. 처음 여기로 와 성세정의 본실(本室)에게 인사드리는 절을 하였을 때 본실은 안간힘을 쓰며 눈을 한껏 치켜떴었다. 그것을 본받아서인지는 모르나 계집 하인들도 한옥선에게 별로 말을 거는 일이 적었다. 더구나 한옥선의 치마폭에서 헤어날 줄 모르던 성세정이 본집으로 온 뒤에는, 자주 들리지도 않았다. 어쩌다 성세정이 들어오면 한옥선은 뽀로통해서 돌아앉아 벽만 바라보았다.

“옥선……”

성세정은 언제나 한옥선을 그저 옥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버릇이었다.

“옥선……”

한옥선이 대답이 없자 성세정은 더욱 다급하고 아쉬운 목소리로 부르며 어깨에 손을 얹어 지긋이 흔들었다.

“옥선……”

“이제는 이름마저 잊으셨군요. 옥선이 아니라 한옥선이에요.”
 한옥선의 음성은 토라지고 가시가 돋쳐있었다.
 “허허허허, 누가 한옥선인줄 모르나 그러나 나는 전부터 옥선이라고 불러 오지 않았나? 옥선이야 말로 내 버릇마저 잊었나보군……허허허허”
 어색한 것을 웃음에 얼버무리려는 듯 성세정은 껄껄 웃었다.
 “이렇게 빈 방에 처넣어 두시려고 데려오셨나요?”
 “그게 무슨 소리아?”
 “그러면, 어째서 도무지 제 방에는 오시지를 않아요?”
 “왜, 안 오간……”
 “예전에는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야 집에 오니, 자연 집안일도 있고 하여서 그렇게 되었지……뿔하게 생각할 것은 없어, 이제 차차 정돈이 되면 옥선이 싫다고 할 때까지 이 방에서 살터이니까……”
 성세정은 팔에 힘을 주어 흔들었고, 다른 팔로는 한옥선의 허리를 낚았다. 한옥선은 앙탈을 하고 몇 번 몸을 꼬았으나, 결국 성세정의 품에 안기고야 말았다.
 성세정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핑계거나 생각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였다.
 외지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달라서 여러 가족이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일도 많고 외면치레도 있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도 성세정이 자주 자기를 찾아주지는 않았고, 또 그것이 본실의 시기 때문이라는 짐작이 들자 아랫한 불쾌감이 느껴졌다.
 “흥, 정식 첩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천한 것이라고 알보는군……”
 한옥선은 혼자 앉았으면 이런 푸념이 절로 나왔다. 이 집으로 온 뒤에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보았을 뿐, 성세정의 본실은 전연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면 저절로 소름이 끼쳐지고 이가 갈렸다. 우선 안방에 떡 버티고 앉아서 하인들을 호령할 것인데, 자기는 한낱 한인만큼도 여기저기 앉을 것이 더욱 분하고 싫었다.
 “서울로 온다는 것이 좋아서 날뛰던 내가 어리석었지……”
 어쩌다 들리는 성세정에게는 점점 앙탈을 할 흥미조차 잃어 갔다.
 “도로 보내주시어요.”
 “어?”
 거짓이 아닌 하소연이었으나 성세정은 눈이 둥글해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
 “도로 보내주시어요.”
 “그게 무슨 소리아?”

“여기까지 와서 독수공방을 하다니 도로 가느니만 못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모르되, 바로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독수공방이라니 이 무슨 팔자예요.”
 “독수공방이라니, 무슨 소리를……”
 성세정은 허허 웃기까지 하고 얼버무리려는 눈치였다.
 “여군(女君)이 그렇게 좋으셔서 헤어나지 못하시면, 또 이 몸은 무엇 하러 데리고 오셨어요.”
 “어?”
 본실 이야기가 나오자 뜨끔하였는지 성세정은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렇게 놀라실 건 뭐예요?”
 “아, 아니야”
 “그렇게 여군이 두려우시면 아주 영영 이방에는 오시지 마시면 되지 않아요?”
 “아니래두……”
 생각 같아서는 마구 욕설을 퍼붓고 싶었으나, 그것을 꼭 참고 말만이라도 여군이라고 떠받들어야 하는 것이 더욱 싫었다.
 성세정은 여전히 발길이 뜸한 채 어쩌다가 그것도 낮에 들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성세정은 또 의례히 주린 고양이와 쥐나 본 듯이 한옥선을 부둥켜안고 어쩔 줄을 몰라하였고, 끝끝내는 치마끈을 끄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본실이 무서워서 와서 밤을 지내지는 못하고 낮에 와서 이러거나 생각하니 구역이 나올 지경이었고, 성세정이 지저리 못나 보이기만 하였다.
 더구나 이제까지는 술자리에 앉아서 노래나 부르고 가야금이나 치고 하면서 지나다가 견디기에는 어려운 생활이었다.
 단조하다기 보다 죽음의 생활 같이만 느껴졌고 앉아있으면 온 몸이 비비 꼬여오는 것 같기만 하였다. 거기다가 자기는 그 지저리 못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간혀있어야 하고, 또 그 못생긴 본실의 은근한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저 뛰쳐나가고 싶었다. 이제는 어쩌다가 성세정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싫었고,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부둥켜 안으려들으면 호되게 반항을 하였다.
 “점잖은 어른이 대낮에 이게 뭐예요?”
 “옥선이!”
 “더 그러시면 크게 고함을 지르겠어요.”
 “옥선이! 왜 이래?”
 성세정은 거센 숨결을 내뿜으며, 팔마저 부들부들 떨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으나 한옥선은 끝끝내 냉하게 거절하였다.

그러면 성세정은 한동안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다가는 나가곤 하였다. 그제야 한옥선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어깨가 가볍고 시원하기만 하였다.

그러던 참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하루는 궁중에서 보내진 관원들이 성세정의 집으로 몰려든 것이었다. 성세정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벌벌 떨기만 하였으나, 관원들은 한옥선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필시 성세정의 첩 한옥선이 미색이라는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서 이 일이 있으매 틀림이 없었다. 왕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

“옥선이!”

헐레벌떡 뛰어간 성세정은 후들후들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자, 한옥선은 못마땅하게 미닫이를 열었다. 찌푸린 낯으로 내다보다가 관원들이 눈에 띠이자 움찔하였다.

“어명으로써 대궐로 들어가시오.”

지체하지 않고 내력을 말하자, 한옥선의 얼굴에는 배시시 웃음까지 떠올랐다.

“치장을 다스리고 나갈 것이니 기다리시오.”

한옥선은 태연한 대답을 하고 다시 미닫이를 닫았다. 입이 딱 벌어진 것은 성세정이었다. 별안간에 당한 일이었으나 태연한 대답을 하고 미닫이를 닫은 한옥선은 저도 모르게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것은 공연한 고생을 하는 이 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데서 오는 것인지, 또는 자기의 미색임을 알아주는 것은 역시 국왕뿐이라는 것인지는 자신도 분별할 수 없었다.

어쨌든 자기의 직성이 풀릴 정도로 단장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던 가마를 타고 한옥선은 대궐 안으로 들어갔다.

대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서 이루어진 긴장이나, 자기가 국왕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온 몸에 가득하였으나 당하고 보니 어처구니없었다.

“누군고?”

왕은 주기가 돌아 도도한 태도로 한옥선 모습을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예, 성세정의 첩 한옥선 이옵니다.”

“그래, 네가 미색이라지……허허허허”

그것뿐이었다. 왕은 별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주석은 한옥선을 잇은 듯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세정에 비해 왕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다른 사람이었다.

불러올 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으나 한옥선이 왕을 모신 것은 대궐 안에 들어온 지 닷새가 넘어서였다. 한옥선은 그저 황송하고 죄송하여서 몸 둘 곳을 몰라 슯치녀 같이 오들오들 떨었으나 왕은 그저 제멋대로였다. 더구나 한결 같이 단장을 한 여쁜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는 데는 저절로 어깨가 으르라졌다.

“역서 마마는 다르셔……”

자기가 별로 대수로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한옥선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 모로나 당연한 일이었으나 왕에 비하여 성세정은 너무나 초라하고 어처구니없는 존재로 보였다.

모두 웃음과 노래와 술과…… 그러한 좌석에는 익은 한옥선이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교태와 아양과 재롱을 힘을 다하여 부러본 결과 점차로 한옥선은 왕의 시선을 끌기 시작하였다.

“허허……성세정이 너무나 호사를 하였군…… 이런 일색을 첩으로 가지고 있었다니 허허허허…… 술이나 따라라”

왕이 지나가는 이런 말로 주정을 하였을 때, 한옥선은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고 술병을 든 손이 저절로 떨렸다. 이제야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를 알아보는 세상에 왔다는 느낌이었다.

으리으리하게 보이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고, 자기도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야릇한 자부심이 생겨났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대궐 안에 들어서서 느낀 것은 왕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었다. 많은 여인 사이에는 별별 소문이 다 돌았다.

왕이 누구의 딸을 데려왔는지, 또는 누구의 처를 데려왔는지……그러나 왕이 비난을 받거나 견책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오히려 처를 빼앗긴 사람의 목이 날아갔다는 소문이 돌기가 일수였다.

“이제야 사람을 만났다. 왕은 제일인 것이다. 왕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시키는 것은 오로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한 한옥선은 몸단장에 주의를 기울리 하지 않았고 은근한 웃음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그 으리으리해보이던 여인들이 모두 자기보다 미색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더욱 대답하여지고 아양에 자신이 섰다.

대궐 안에서는 별에 별 일이 다 생겼다. 어느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참, 이상두 해……”

“뫼가?”

“어제 밤 꿈에는 이전 주인을 보았거든……”

“그래?”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참 이상하지……그 양반은 참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아유……”

이런 지나가는 이야기였으나, 그 이틀 후에 왕은 그 여인에게 한 물건을 주었다. 은

쟁반에 받혀진 것이었고 비단보가 덮여져 있었다. 의아하여 받아 열어보니 그것은 남편의 목이었다.

“악!”

얼굴을 일싸 안고 외마디 소리 지르기 전에 왕의 손짓 하나로 여러 궁노(宮奴)가 달려들어 여인을 때려죽이고 말았다.

이 일이 있었을 때 한옥선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성세정의 모습이었다.

“그 지지리 못한 것이……”

자기를 헌신짝 같이 여기고 그 못생긴 본실 앞에서 찢찢매었으나 이제는 처지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절로 부풀어 올랐다. 그럴수록 한옥선은 아리따운 몸단장을 잊지 않았다.

한옥선은 점차 왕의 술잔에 술을 따르게 되었고, 왕이 앉아 있는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한결음 한결음 다가갈수록 한옥선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고 얼굴에 붉은 기는 짙어갔다.

“여봐라!”

어느 날 왕은 주기가 올라 붉어진 얼굴로 한옥선을 바라보았다.

“예.”

한옥선은 가장 공손한 대답을 하면서 쌍꺼웃음을 떴다.

“어여쁘도다!”

“황공하나이다.”

“허허허허…….”

호탕하게 웃고 왕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또 얼마의 노래와 춤이 계속된 뒤의 일이었다. 번들번들한 왕의 눈은 계슴치레하게 한옥선을 바라보았다.

“애.”

“예.”

“넌 누구냐?”

“황공하오나 마마의 신이나다.”

“그러렸다. 허허허허. 아니 이름이 말이다.”

쟁쟁한 풍악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여기저기에 반짝이는 등잔불은 낮보다도 더욱 밝았다.

“예. 한옥선 이옵나이다.”

“그래. 한옥선이라……”

왕이 손목을 잡고 뉘아채는 바람에 한옥선의 몸은 뒤뚱하고 기울어졌고, 왕 무릎 위에 쓰러질 뻔하였다. 한옥선은 당황하여 도사리고 고쳐 앉았다.

“허허……왜 이러는고?”

“너무나 황공하여 그리하옵나이다.”

“허허……무방하노라!”

왕은 더욱 세계 손목을 낚았고, 한 손으로는 허리를 감았다. 기름기가 번들번들 도는 왕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더욱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하였다.

“그대의 남편이 누구고?”

“예 성세정 이옵나이다.”

대답을 하면서도 한옥선은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성세정이란 이름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저주스럽기만 하였다.

“성세정?”

왕은 고개를 기우뚱 하였다. 성세정 정도가 왕의 기억에 남아있을 까닭이 없었다.

“예.”

한옥선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야릇한 수치와 모욕을 느끼는 것이었다.

“흥, 근자에도 전부를 생각하는가?”

“아니옵나이다.”

한옥선은 당황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면?”

“예. 일찍이 성세정의 첩이었사오나 성세정에 대하여는 원한만이 남아있나이다.”

“어째서?”

“예. 성세정은 그 본실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첩은 돌보지 않았나이다. 그러하오니 첩은 형시 독수공방이었사오며 성세정이나 그 처에 대하여 이를 갈고 원심을 품고 있었나이다. 이제 마마의 바다와 같은 은총으르써 성세정을 벗어나니 반갑고 기쁘기 이를 데 없나이다.”

“허허허허……”

왕은 너털웃음을 한바탕 퍼뜨려놓았다.

“그럼 너는 전부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말이지?”

“원한정도가 아니옵나이다.”

“허허허허……그러렸다.”

왕은 유쾌하게 웃었으나, 한옥선은 야릇한 수치심에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모든 여인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조차 느꼈다.

“허허허허. 전부에게 진저리가 났다고…… 양값음은 할 수 있어……내가 그 성아무개를 죽여줄까?”

왕의 눈이 번쩍번쩍 하였다. 어느 사이엔지 한옥선의 눈도 번쩍번쩍 하여졌다.

이제까지 성세정의 집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였고 야릇한 눈으로 보여 왔지만 이제
는 다르다. 이제는 내 손아귀에 성세정의 목숨도 쥐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
나갔다. 만약 성세정이 죽는다면 그 본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도도하게 사람을 얹
잡아 보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마지막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가 오고야만 것이
다. 그 자신이 알았고 시기하여서 남편이 얼씬도 못하게 하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말이
다……그리고 저는 아무리 떠들어도 한낱 보잘것없는 성세정 따위의 아내에 지나지 않
았지만 나는 이제 왕의 귀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호……”

모든 것이 자기의 손아귀에 쥐어 있다고 생각하니. 뜻하지 않은 너그러움과 야릇한
잔인성이 한옥선의 가슴에 꿰어올랐다.

“왜? 뭐 미련이 있는가?”

왕의 눈은 게슴츠레하고 개개 풀려갔다.

“아니옵나이다.”

모든 것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다면, 단숨에 죽여 버리는 것은 너무나 싱거운 노릇
이었다. 좀 더 재미를 보고……

“그러면?”

“신이 고생한 생각을 하오면 그냥 죽여 버리시면 너무나 간단한 일인가 하나이다.”

“허허허허……”

“하오니 성세정으로 하여금 유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하여 세 번 다른 곳으로 유배를
시켜 가진 고생을 시킨 뒤에 죽이는 것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허허허허……야릇한 말……”

왕은 허청허청 웃었다. 한옥선은 자신이 말을 하고도 아주 멋이 있어서 스스로 웃음
을 뺐다. 그 본실이 무서워서 찢찢매던 성세정이 세 번씩이나 유배를 이곳저곳으로 시
킨다면 얼마나 한숨을 내쉬며 고생을 할까? 이제나 저제나 풀리는 몸이 될까하고 기다
리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땡강……

“호호호호”

생각만 하여도 신이 나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 도도하던 본실이 남편의 유배로 인하
여 가슴을 태우고 몸이 말라가며 탄식을 할 생각을 하니 속이 시원하였다. 그렇게 하기
를 몇 번……그러다가 드디어는 객지에서 남편의 목숨이 땡강……

“호호호호……”

“뭐가 우스운가?”

“성세정이 찢찢매고 배소로 갈 생각을 하오니 너무나 재미가 있나이다.”

“그래. 허허허허……”

“바다 같은 은덕 잊지 않겠나이다.”

“허허허허……”

“호호호호”

“가룩한 계집이로다. 자아 술을 한잔 주자”

“황공하나이다.”

한옥선은 왕이 내미는 대로 서슴지 않고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눈언저리가 혼 혼해오고 가슴이 펄럭펄럭하였다. 이렇게 왕의 관심이 자기에게 모이
는 것이 기꺼웠고, 자기의 억울하던 일이 시원하게 보복할 수 있는 것이 기뻐다.

“바다 같은 은혜……”

다시 말을 이으려고 하였으나 왕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노래와 풍악
이 쟁쟁하였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으나 그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등잔불이
대낮 같이 밝은 빛을 던져주었다.

젊음과 노래와 춤과 술과……한옥선의 눈시울은 저절로 처져갔다. 왕의 손길이 느껴
져서 가물기물하는 정신을 수습하고 왕의 손에 쥐어진 잔에다 술을 따랐다.

“허허허허……”

왕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한없이 한옥선의 가슴을 흔들었다.

이날로 성세정을 멀리 남해도 유배시키는 왕명이 내렸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
니었다. 아닌 밤중에 흉두께 격으로 귀양 가기관 얼마든지 있는 일이었다. 성세정이 남
해로 가게 되자 그의 본실은 방바닥을 치고 통곡하였다.

“그 년이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께나 잡게 생겼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렀군…… 그런
년이 상감 옆에 있으니 무슨 모함인들 못할라구…… 에이구, 팔자야…… 글썽 그런 년
을 서울까지 데리고 오다니…… 오늘날 이런 지경을 당해서 짜자……”

첩이 없어져서 시원하다고 생각하던 것도 잠시였고, 집안은 초상난 집 모양이 되었
다. 귀양을 가는 날에도 성세정은 한옥선을 서울로 데리고 왔기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푸념을 들으며 떠났다. 그로부터 여섯 달이 지나서, 성세정은 다시 먼 북쪽으로 유배지
를 옮긴다는 왕명이 내렸다. 성세정의 집에서는 이미 울음도 말랐거니와, 성세정도 한
숨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미 한옥선을 상감이 차지하였거늘 어찌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일까? 전에
잠시 한옥선을 데리고 살았었다는 것이 이다지도 무거운 죄인가?”

한숨만 연거푸 내쉬며 북으로 북으로 길을 더듬었다. 그림판 서울에 이르렀으나, 죄
인의 몸인지라 집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멀리 성 밖을 돌아 다시
북쪽으로 길을 재촉하였다.

“히, 옛정을 보아서도 제가 어떻게 하여 좀 벌을 덜하게 만들어 줄 것이 아닌가……

히, 무정한 노릇이로군……”

예나 지금이나 푸른 하늘에는 소리 없이 흰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북쪽 유배지 갑산에 이르러서도 성세정은 한가하지가 못하였다.

귀양 온 몸이 뭐 편한 것을 바라지는 않았으나, 겨우 그 지방 인심이라도 어렵이갈 무렵이 되니 다시 왕명이 쫓아 내려왔다. 이번에는 다시 남쪽 제주로 이배시킨다는 것이었다. 갑산에서 제주, 실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옮기라는 명령이었다.

“이년이 그 년을 그냥 악살을 시켰어야할 것을……”

그제서야 성세정의 입에서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네 전 남편인 성가가 있지않았느냐……”

왕은 몽롱한 눈으로 한옥선을 바라보며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였다.

“예.”

“네 소원대로 세 번 귀양을 보냈느니라……처음에는 남해도, 거기에서 갑산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제주도……어떠냐? 응?”

“재미 있어와요.”

갑쟁이 성세정이 갖은 고생을 겪어가며 끌려 다니는 꼴이 눈앞에 선하게 생각되었고, 그 본실이 가슴을 칠 생각을 하니 고소하기만 하였다.

“네 소원이 세번 유배지를 고치고, 고생을 시킨 뒤에 죽이자고 하였으니…… 이제 제주에 도착하거든 두어달 후에 죽이자꾸나……허허허허.”

“예. 호호호호.”

“허허허허……”

왕은 유쾌한 듯이 한옥선의 무릎을 베고 드러누웠다. 성세정은 북쪽 끝으로부터 남쪽 끝까지 죄인의 몸으로써 가기에 천신만고를 하였다. 몸은 야월대로 아위고 침조차 목구멍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남쪽 막막한 바다가 보이자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부터는 다시 바닷길로 제주까지 가야할 생각을 하니 아득하기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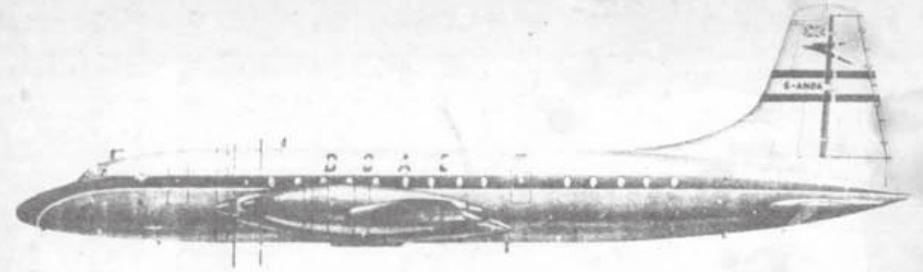
배를 타려는 터에 북쪽 서울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하여져 왔다. 진성대군(晋城大君)이 들어와 새로 왕위에 올랐고, 전왕은 연산군으로 강등되어 내쫓기었다는 소식이였다. 뒤미처 전왕이 유배 보낸 사람은 모두 풀어주고, 유배 가는 도중에 있던 사람도 놓아준다는 왕명이 전달되어 왔다.

“성은이 망극하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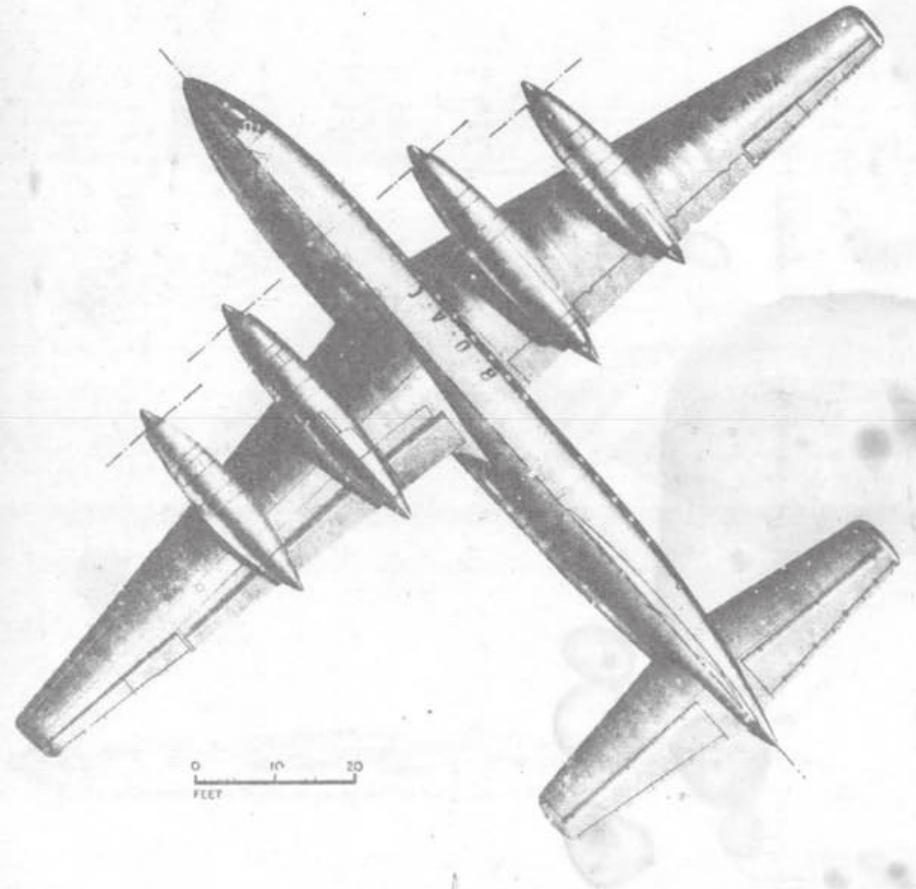
성세정은 멀리 북쪽 서울을 우러러 훑어 엿드려 머리를 숙였다. 볼에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 내렸다.

“흠, 그 년도 이제는 죽었겠구나……”

얼마 만에 일어난 성세정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빙긋 웃음이 떠올랐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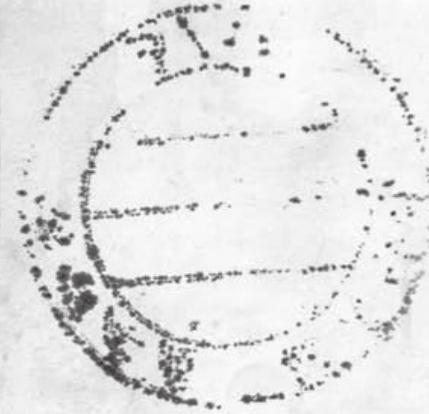
BRISTOL BRITANNIA 100



코메트

發行處·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金基完
印刷處·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印刷人·空軍大領李繼煥

축발전(祝發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
(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少領

張

繼

煥

THE COMET

코메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發行) 겸 편집인(編輯人). 공군대령(空軍大領) 김기완(金基完)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대령(空軍大領) 이계환(李繼煥)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